

예산의 독립운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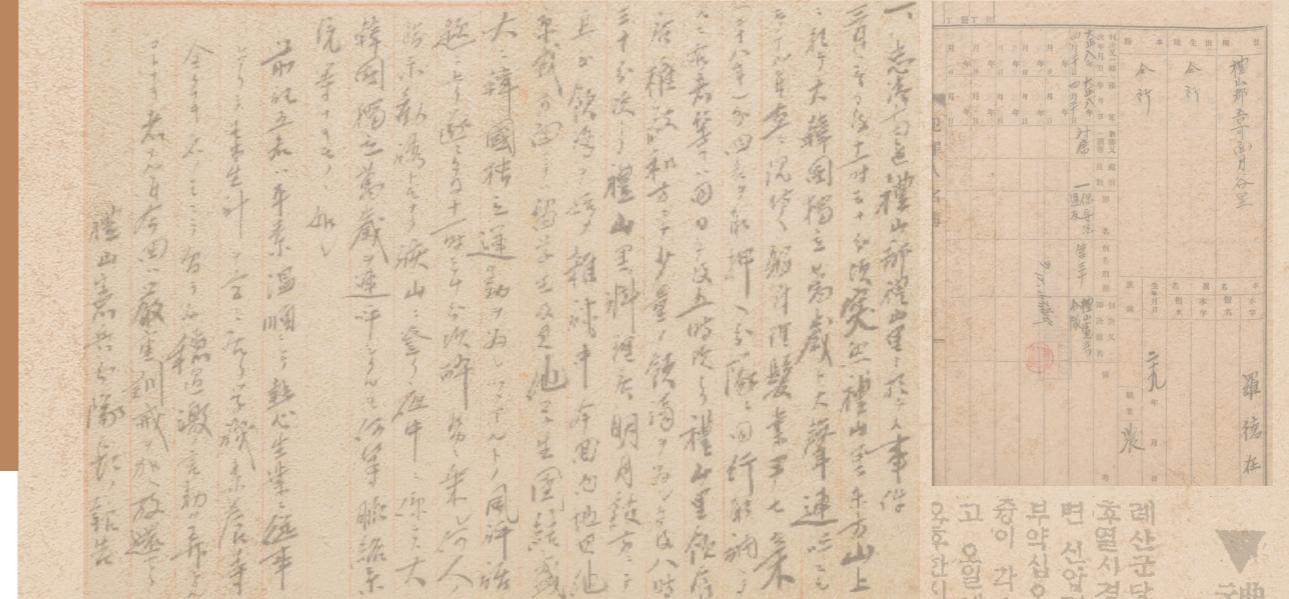
예산의 독립운동사

大韓民國十四年四月
韓人愛國園監

小之赤誠是三祖國이獨立이自由
是回復하야為하야韓人愛國團이
一員이 되야中國을 侵略有하니 敵의 將
校을 履戰하기로 盡誓하니이니

A standard 1D barcode representing the ISBN 978-89-6320-699-9. It is positioned above the ISBN number and the price.

예산의 독립운동사



禮山

禮山

 예산문화원

예산의 독립운동사

목차

발간사	6		
축사	8		
제1장 예산의 독립운동 김상기	9	제4장 1910년대 예산인의 국내독립운동 이성우	115
1. 예산지역 독립운동의 배경	10	1. 1910년대 국내독립운동	116
2. 대한제국기 예산지역 국권회복운동	11	2. 독립의군부와 예산인	119
3. 일제강점기 예산지역 독립운동	18	3. 광복회 충청도 지부와 예산인	122
4. 예산인의 국외독립운동	33	4. 예산인의 1910년대 독립운동의 의의	140
5. 예산지역 독립운동의 의의	39		
제2장 예산지역 의병전쟁과 의병장 김상기	45	제5장 예산 3.1운동 김진호	143
1. 의병의 개념과 예산지역 의병	46	1. 3.1운동의 전파	144
2. 예산지역 의병전쟁	48	2. 3.1운동의 전개	148
3. 예산 출신 의병의 활동	60	3. 3.1운동의 양상	159
4. 예산지역 의병전쟁의 의의	78	4. 일제의 탄압	161
5. 예산지역 독립운동의 의의	83	5. 3.1운동 참가자	174
6. 역사적 의의		6. 역사적 의의	181
제3장 예산지역 애국계몽운동 이승윤		제6장 예산지역 청년운동 허 종	193
1. 애국계몽운동의 전개와 예산	84	1. 1920년대 사회운동과 청년의 등장	194
2. 예산의 국채보상운동	87	2. 1920년대 전반 청년단체의 결성과 활동	196
3. 예산의 신교육운동	99	3. 1920년대 후반 청년단체의 혁신 추진과 활동	205
4. 애국계몽운동의 의의와 한계	109	4. 1930년대 전반 청년단체의 혁신과 활동	215
		5. 청년운동의 특징과 의의	222

목차

제7장 예산지역의 농민운동과 노동운동 박성섭	227	제10장 예산지역 종교계의 독립운동 정을경	321
1. 사회경제적 배경	228	1. 천도교단의 독립운동	322
2. 예산지역의 농민운동	235	2. 기독교회의 독립운동	338
3. 예산지역의 노동운동	250		
4. 예산지역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의 성격	260		
제8장 예산지역의 학생운동 정내수	263	제11장 예산인의 국외독립운동 이양희	345
1. 식민지 교육정책과 학생운동	264	1. 이명제·서정섭·조인원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원 활동	346
2. 예산지역의 학생운동	275	2. 김영진의 대한건국단 활동	351
3. 예산지역 학생운동의 의의	286	3. 박우균의 한국혁명청년회 활동	354
4. 예산지역 신간회 운동 김남석	291	4. 신현상의 독립운동과 호서은행 사건	355
1. 신간회 예산지회 설립 배경	292	5. 윤봉길의 독립운동과 상해의거	361
2. 신간회 예산지회의 설립과 주도 인물	294	6. 예산인 국외독립운동의 역사적 의의	373
3. 신간회 예산지회의 활동과 일제의 탄압	303		
4. 신간회 예산지회의 성격과 의의	316		
5. 예산지역 독립운동사의 현황과 활용 박경복	379		
1. 예산의 독립운동 사적지	380		
2. 독립운동 사적지 현황	384		
3. 활용 방안	402		
4. 과제와 전망	413		
[부록] 예산지역 독립유공자 현황 이양희	418		

발간사



우리나라가 일제에 주권을 빼앗기고 갖은 편법을 받으며 살아오다가 독립을 이룰 때까지, 많은 애국지사들께서 독립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결국에는 독립을 쟁취하고 오늘과 같은 자유스럽고 풍요로운 나라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장 예산에서도 흥주의병전쟁을 시작으로 하여, 계동운동, 3.1운동, 비밀단체 조직 및 활동, 청년운동, 농민운동, 노동운동, 학생운동, 신간회운동, 종교계의 민족운동, 국외독립운동 등 많은 독립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고장에서 전개되었던 독립운동의 내용들을 정리하여 한데 묶어서 『예산의 독립운동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우리 고장에서 이루어진 독립운동의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고, 길이길이 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각종 위험을 무릅쓰고 독립운동을 전개하신 우리 고장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얼과 희생정신을 되새기고 이분들의 애국·애족정신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며, 후손들에게 길이 전할 수 있는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산의 독립운동에 관한 내용들을 시기, 장소, 성격 등에 따라 몇 가지 부분으로 나누고 각 부문별로 자세하게 집필하였으며, 관련된 애국지사들의 인적사항, 독립운동의 시기, 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참고문헌은 물론이고, 신문기사, 그리고 법원의 판결문에 이르기까지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예산의 독립운동사』가 예산에서 일어났던 독립운동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되어 예산군민들께 역사적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필요할 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며, 후손들에게 예산에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가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가르치는 데에도 잘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심혈을 기울여 집필해주신 김상기 충남대학교 명예교수님과 많은 집필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책이 발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최재구 예산군수님과 이상우 예산군의회 의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예산문화원장 김종옥

축사



『예산의 독립운동사』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독립운동사를 다룬 책은 시중에 매우 다양하지만, 예산의 역사를 담은 독립운동사는 발간 자체만으로도 매우 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남 예산엔 독립운동을 위해 애써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대표적으로는 윤봉길 의사를 비롯하여, 김한종 의사, 4대에 걸쳐 국가유공자를 배출한 수당 가문 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를 위해 군에서는 유족이 현존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 수집이 어려워 국가로부터 서훈을 받지 못한 숨은 독립운동가 발굴 및 군 차원의 서훈 신청을 적극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86명을 발굴해 43명이 독립유공자로 추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으로 단 한 분도 역사 속에 묻히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후손들의 참된 도리라 생각합니다.

이 책은 앞으로 예산지역의 독립운동을 알리는 교육, 홍보자료로 활용되며, 예산지역과 예산인의 위상을 확립함으로써 예산군민들에겐 애향심을, 타 지역민들에게 예산지역에 대한 이해 증진의 효과를 가져오리라 기대해봅니다.

이 귀중한 책의 발간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해주신 김상기 충남대학교 교수님 외 여러 연구진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책이 무사히 빛을 볼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김종옥 예산문화원장님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 책을 통해 부디 예산의 독립운동 역사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예산군수 죄재구

축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역 독립 운동가들의 숭고한 애국심을 기리는 『예산의 독립운동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발간을 위해 애써 주신 예산문화원 김종옥 원장님을 비롯한 김상기 충남대학교 명예교수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군은 충남 최초의 3.1만세 운동이 시작된 독립운동 역사의 중심지입니다.

또한 우리군의 독립운동은 구한말 국권회복운동 이후 활발하게 전개되어 흥주의병운동, 애국계몽운동과 국채보상운동을 거쳐 수많은 독립 운동가들을 배출하는 등 대한민국 독립운동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될 곳입니다.

모쪼록, 이번 독립운동사 발간을 통해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수많은 분들의 발자취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는 뜻 깊은 시간이 되시길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예산군의회 이상우

제1장

예산의 독립운동

김상기 충남대 국사학과 명예교수





예산의 독립운동



김상기

1. 예산지역 독립운동의 배경
2. 대한제국기 예산지역 국권회복운동
3. 일제강점기 예산지역 독립운동
 - 1) 1910년대 독립운동
 - 2) 3.1운동의 전개
 - 3) 3.1운동 이후 국내독립운동
4. 예산인의 국외독립운동
5. 예산지역 독립운동의 의의



1. 예산지역 독립운동의 배경

예산지역은 충청남도의 서북부 지역에 위치한 곳이다. 차령산맥이 동쪽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가야산이 남북 방향으로 뻗으며 경계를 하고 있다. 이들 산지 사이에 삽교천과 무한천이 흐르고 두 하천 사이에는 예당평야로 알려진 넓은 평야 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를 기반으로 예산은 농업 중심지로 발전하였다. 일제강점기 예산에 전국 규모의 호서은행이 들어서 있었음은 당시 예산지역의 사회경제적 위상을 단적으로 알려준다.

예산군은 고려시대의 예산현, 대흥현, 덕풍현 지역에 해당한다. 이중 덕풍현은 조선시대에 덕산현으로 개칭되었다. 이들 지역은 1895년 홍주부의 예산군, 대흥군, 덕산군으로 편제되었다가 1914년 합쳐져 예산군이 되었다. 현재 예산군은

예산, 삽교의 2개 읍과 대술, 응봉, 오가, 신암, 덕산, 고덕, 봉산, 대흥, 광시, 신양 등 10개면으로 편제되어 있다.

예산지역은 백제가 멸망한 이후 백제부흥운동의 거점으로 알려져 있다. 백제인의 충의정신을 이은 예산인들은 일제의 침략을 맞아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대한제국기에는 의병전쟁과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일제강점기에는 충남 최초로 3.1운동을 일으켰음은 물론, 학생운동과 농민, 노동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또 한편 윤봉길과 신현상을 비롯한 예산 출신 독립운동가들은 해외로 망명하여 독립을 위한 항일투쟁을 펼쳐나갔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연구 성과를 재검토하면서 예산지역에서 전개된 독립운동과 해외로 망명하면서까지 독립전쟁을 전개한 독립운동가의 활동과 그 역사적 의의를 살펴보자 한다.

2. 대한제국기 예산지역 국권회복운동

1) 의병전쟁

대한제국기 국권회복운동은 의병전쟁과 애국계몽운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양반 유생과 민중 세력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민족의 생존권 회복을 위한 반침략 의병전쟁을 전개하였다. 의병전쟁은 1894년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한 갑오변란(甲午變亂)과 1895년 명성황후 시해사건인 을미사변(乙未事變)을 계기로 발발하였다. 유인석을 비롯한 의병들은 전국 각지에서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1904년 러일전쟁 발발 이후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되고 1905년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유생과 농민들은 의병을 재기하여 항일구국투쟁을 재개하였다. 1906년 민종식을 총대장으로 거의한 홍주의병은 홍주성을 점령하고 기세를 올렸다. 최익현(崔益鉉)은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켜 항쟁하다가 일본 쓰시마(對馬島)에 유배되어 그곳에서 순국하였다. 1907년 광무황제(고종)가 강제 퇴위당하고 한국군이 강제 해산되자 의병의 항쟁은 더욱 강렬해졌다. 이 시기 의병전쟁은 유생과 농민, 해산군인 뿐만 아니라, 노동자, 상인, 교사와 학생 등 전계층이 참여한 구국전쟁으로 발전하였다.

예산인들은 1896년과 1906년에 전개된 홍주의병에 참여하여 투쟁하였다. 1896년 홍주의병은 청양의 안창식 등 재지 유생들과 김복한(金福漢) 등 홍주지역 관료 유생들의 연합으로 전개되었다. 김복한은 이설과 홍건을 만나 의병 봉기를 협의하였으며, 이봉학, 이상린, 청양군수 정인희에게 글을 보내 의병에 참여할 것을 권하였다. 안병찬 등은 1896년 1월 12일 청양 화성에서 열린 향회에서 의병 봉기를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180여 명의 민병을 모집하여 다음날 안병찬과 채광묵이 이 부대를 인솔하여 홍주성에 입성하였다. 1월 17일 홍주성 내에 창의소를 설치하고 김복한을 총수에 추대하였다. 그러나 창의소를 설치한 후 하루 만에 관찰사 이승우가 배반하고 김복한과 이설을 비롯하여 홍건·안병찬·이상린·송병직·임승주 등 총 23명을 구금하였다. 그러나 체포되지 않은 안창식, 정인희 등은 재기하여 청양 정산 일대에서 전투를 감행하는 등 항전하였다.

1896년 홍주의병에 참여한 예산인으로는 박창로(朴昌魯)와 이봉학(李鳳學)이다. 광시면 시목리 출신의 이봉학은 1월 15일 이세영 등과 함께 수백 명을 이끌고 홍주성에 들어갔다. 광시면 은사리 출신의 박창로는 1월 16일 사민 수백 명

을 인솔하고 홍주관아로 들어가 김복한을 창의대장에 추대하였다. 이들은 창의소를 설치한 후에는 임존산성 수리의 명을 받고 파견되어 활동하였다.

1906년 3월 홍주 일대의 사민들은 을사늑약에 항의하여 의병을 재기하고 민종식을 의병대장에 추대하였다. 민종식은 3월 15일 의병장에 추대되어 예산 광시(光市)에서 의병을 봉기하였다. 이들은 이곳에서 대장단을 세우고 천제를 올렸다. 청양의 합천전투에서 패퇴한 민종식은 각지를 잠행하다가 이용규가 모집한 의병을 중심으로 부여의 지티에서 의병을 재기하였다. 의병은 남포전투에서 승리한 후 5월 19일 홍주성을 공격하여 다음 날 20일 점령하였다. 몇 차례의 일제 경찰과 현병대의 공격에도 전세가 의병 측에 유리하게 전개되자 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명령에 따라 일본 정규군 2개 중대가 파견되었다. 결국 홍주의병은 일본군의 화력에 밀려 5월 31일 홍주성을 빼앗기고 말았다.

1906년 홍주의병에 참여한 예산인은 이남규(李南珪)를 비롯하여 박창로와 남규진(南奎振) 등이 있다. 이남규(1855~1907)는 대술면 상항리 출신으로 문과에 급제 후 영홍부사 등을 지낸 고관 출신이다. 1896년 안동관찰사에 임명되어 안동으로 부임차 가던 중 일본군의 안동의병 탄압상을 목격하고 관직을 사직하고 예산에 낙향했다. 1906년 민종식의 권유로 홍주의병에 참여하여 선봉장의 책임을 맡았다. 1906년 3월에는 청양의 합천전투에서 안병찬 등 의병들이 체포되자 구명운동을 펼쳐 이들을 석방시켰다. 1906년 11월에는 홍주성 전투에서 패퇴한 이용규 등 의병들과 함께 그의 집에서 재기를 준비하였다. 예산 관아를 점령하여 활동의 근거지로 삼기로 하였다. 그러나 일진회원의 밀고로 그를 비롯한 꽈한일과 박윤식 등은 체포되어 공주감옥에서 옥고를 치렀다. 의병의 재기를 두려워한

일제는 1907년 9월 그를 체포하여 아산에서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때 그의 아들인 이충구와 노비인 김옹길도 함께 학살당하고 가수복은 중상을 입었다. 박창로는 청양의 합천전투에서 안병찬 등과 함께 체포되어 공주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고 난 뒤에 다시 의병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예산읍 창소리 출신의 남규진은 홍주의병의 돌격장으로 활동하였다. 홍주성 전투에서 체포되어 대마도에 유배되어 2년 이상 고초를 겪었다.

1907년 8월 1일 군대해산 이후에 의병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이 시기 예산지역에서의 의병 활동은 1907년 8월 중순부터 나타났다. 8월 19일에 의병 200여 명이 봉기하여 덕산 경무분파소를 습격하여 보좌관 2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10월 3일에는 덕산군의 대덕면 면장 이일노의 집에 들어가 징수한 결전 272냥과 호세전(戶稅錢) 51냥을 받아 갔다. 10월 10일에는 덕산의 구만포에 사는 송태순과 이사주 등이 현병보조원을 폭행하고 분파소의 문서를 탈취하고 도주한 일이 있었다. 10월 19일 현병보조원이 순검 3명과 함께 송태순 집을 찾아갔다. 송태순과 의병 10여 명이 밀의를 하고 있던 중 이들의 공격을 받고 의병 1명이 피살되었다.

1908년 6월 20일에는 덕산읍에서 북쪽으로 20리 지점에서 의병 10여 명이 일본 분견대 병사 8명과 교전하였다. 9월 22일 오후 12시경 약 20명의 의병이 대흥의 거변면 화현리 조연희의 집을 습격하고 그를 살해하였다. 부농인 그에게 군자금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자 처단한 것이다. 10월 23일에는 대흥군 신녕시장에 의병 100여 명이 들어가 일진회원 부자를 포살하였다.

1909년 2월에는 대흥군 거변면 가등동의 비봉산 속에 10여 명의 의병이 모여

있었는데, 예산주재 순사대와 홍주현병분견대에서 파견한 수색대에 의해 발각되었다. 이들 의병들은 2월 14일 대흥군 일남면 하구례동에 사는 윤상구집에 가서 군자금을 요구하였으나, 그가 불응하자 그의 아들 윤명구를 납치하여 비봉산에 잠복하고 있었다. 의병들은 2월 22일 수색대의 공격을 받고 윤명구를 돌려보내고 공주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5월 20일에는 이관도가 인솔하는 의병 20여 명이 대흥군 이남면 고개동에 들어가 마을 사람들에게 군자금을 요구하였다. 주민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주민 중에 김희중과 박병규를 구타하였다. 5월 29일에는 이관도 의병 약 5명이 대흥군 이남면 소태리에서 주민한테 금품을 받아냈다. 또 약 15명은 월출산 산록에서 대흥군 주재소 순사대와 교전하였다. 이 전투에서 의병 6명이 부상당했다. 이들 의병대는 비봉산 산림 속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애국계몽운동

개화지식인들은 각종 단체를 조직하고, 신교육 보급과 실업진흥 등을 통해 실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예산지역에서의 애국계몽운동은 도시 지역에 비해 활발한 편은 아니었다. 그러나 예산인들은 전국적으로 전개된 국채보상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충남 각지에는 국채보상기성회, 국채보상수합소, 호서협성회 등 20개소에 달하는 국채보상금 수합소가 설치되었다. 단체의 주도자는 전현직 관리와 자산가, 종교인, 교사, 학생 등 주로 지방의 유지층이었다. 참여 계층은 노동자, 유생층, 상인층, 심지어 아동도 있는 등 다양하였다. 아동의 세뱃돈이나 노동자의 임금을 의연하는 일도 있었으며, 종교

계 학교의 학생이나 교인들의 참여도 있었다. 공주의 갑사와 동학사 승려들의 의연도 이어졌다.

예산군에서는 1907년 3월부터 ‘의연금 모집소’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의연금 모금을 추진하였다. 전 중추원 의관 정낙용(鄭洛鎔), 예산군수 이범소(李範紹), 전 군수 정준용(鄭俊鎔), 그리고 홍혁주(洪赫周) 등 19인은 예산군 의연금 모집소를 결성하고 《황성신문》 1907년 3월 15일자에 ‘국채보상금모집취지서’를 발표하고 의연금을 모금하였다. 이에 따라 예산군에서는 대지동면, 술곡면(현, 대술면) 두촌면, 입암면, 오원리면, 신종면(현, 신암면) 거구화면, 우가산면(현, 오가면) 금평면, 군내면(현, 예산면) 등 10개 면에서 개인 단위 또는 마을 단위로 참여하였다. 《대한매일신보》 1907년 7월 광고에 의하면, 정낙용, 성낙규, 그리고 문중과 마을 단위로 1,200여 명이 모두 708원 7전을, 1907년 9월 15일자 광고에 의하면, 김문화 등 57명이 61원을 납부하였다. 이 중에 정낙용이 100원, 성낙규는 30원, 이범소, 유계환이 20원, 홍혁주, 성경호, 최규석이 10원을 냈으며, 김운하, 손운일, 이순경은 각기 5원을, 성낙천 부부는 1원 50전씩을 냈다.

덕산군에서도 1907년 3월 20일 국채보상수합소를 설치하고 《대한매일신보》에 취지서를 발표하였다. 발기인은 이두복(李斗馥), 조종호(趙鍾灝), 이두재(李斗宰), 이봉구 등이었다. 수합소의 소장은 조종호, 부소장은 이지현(李智憲), 재무 유중현(劉仲鉉), 감독은 이봉구와 이두재였다. 조종호는 1919년 4월 4일 한내만세운동을 주도하고 대한독립애국단 충청도지단에서 활동한 조인원(趙仁元, 1875~1950, 애족장)의 부친이다. 이들은 신문에 취지서를 발표하고 의연금 모금에 나섰다. 이에 따라 정인영이 집안의 형편을 돌보지 않고 많은 액수를 의연

하는 등 많은 이의 참여가 이어졌다. 봉동에 사는 12세 이관구도 의연금 모금일을 맞아 신화 50전을 내놓았다. 그리고 시동에 거주하는 고용인 15세 김재화, 13세 홍구봉, 60여 세 권종식, 70세 노파인 임소사와 유기점을 운영하는 박소사가 20전씩을 의연하여 예산지역에서 국채보상운동의 분위기를 확산시키기도 하였다. 수합소에서는 1907년 5월말 그동안 수합한 의연금 651원 28전 5리를 대한 매일신보사에 납부하였다. 6월 말에는 2차 의연금으로 51원 80전을 의연하였다. 어린아이부터 6~70대 어른까지 의연에 참여한 것은 국채보상운동이 얼마나 활발히 전개되었는가를 반증하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분위기가 예산지역의 국채보상운동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대홍군에서도 6월부터 의연금 모금을 시작하여 많은 참여가 있었다. 《황성신문》 1907년 6월 6일자에 의하면, 윤무선, 이기완 등 404명은 501원 30전을 모금했다. 모금활동은 11월 중에 가장 활발하여 성황리에 이루어져 552원 28전을 모금하여 황성신문사에 보냈다. 이 기간 모금에 참여한 인원이 1,968명에 달했다. 당시 대홍군의 인구 19,836명에 비교하면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한 대홍군민이 10%에 달함을 알 수 있다.

예산지역 인사들은 국가의 부강과 민족의식 고취를 위한 신교육운동에도 나섰다. 덕산군에서는 전 진사 김동욱(金東旭)이 1905년에 명신학교(明新學校)를 설립하였다. 이 학교에서는 한문, 종교, 지지, 역사 등의 과목을 가르쳤다. 1905년 5월에는 우신학교가 설립되어 운영되기도 하였다. 교장은 서회보(徐晦輔)였으며, 1907년 9월 현재 학생 수가 20여 명이었다고 한다. 1908년에는 최명식, 이철의, 조종호 등이 서병소 군수의 협찬을 얻어 덕풍학교(德豐學校)를 설립하고 학

생 40여 명을 모집하여 보통과를 교육하였다.

예산군에서는 1908년 3월 군수를 비롯하여 주민 성낙순(成樂舜), 윤진상(尹鎮相) 등이 발기하여 군내면에 배영학교(培英學校)를 설립하였다. 교장은 유진상(兪鎮相), 교감은 성창영(成昌永), 학감은 이명호(李明鎬), 강사는 이정식(李靖植), 조재만(趙載萬) 등이었다. 1908년 8월에 학생 수가 80여 명에 달했다. 1910년 2월 학교명을 군내학교로 변경하였다. 고덕면의 한천에 사는 김한동은 1909년 봄에 동명야학교를 설립하고 자부담으로 학교를 운영하여 1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1910년 4월 제2회 학생을 모집하였는데 날로 학생이 증가하였다.

대기동면(大基東面)의 이서규(李序珪)와 김계선(金繼善)은 1910년 예동학교(禮東學校)를 설립하고 40여 명의 학생을 뽑았다. 교사(校舍)는 이서규의 50칸 되는 기와집을 사용하였다. 교장은 이궁복(李肯馥), 교사는 이현규(李憲珪), 곽덕영(郭德榮) 등이었다. 이 학교에서는 1910년 8월 하기시험을 치르고 우등생 7, 8인을 선발하여 상품을 주기도 하였다.

3. 일제강점기 예산지역 독립운동

1) 1910년대 독립운동

1910년 국권을 강탈한 일제는 무단통치를 강행하였다. 현병경찰과 정규군의 주둔을 증가시켰으며, 각종 법적 장치를 통하여 한반도 전체를 감옥과 같은 ‘병영국가’화 하였다. 1910년대의 독립운동은 의병전쟁의 중심이 이북지역으로 이

동하면서 독립군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의병들이 중심이 되어 독립의 군부라는 비밀단체를 조직하여 전국적인 항일운동을 계획하였다. 경상지역에는 민단조합, 풍기광복단 등의 비밀결사가 조직되어 활동하였다. 대구에서는 풍기 광복단과 조선국권회복단이 연합하여 1915년 광복회가 비밀리 조직되었다. 충남지역에서의 1910년대 독립운동은 독립의군부와 광복회 등의 비밀단체 활동이 전개되었다. 독립의군부는 1912년 서울에서 광한일, 이식 등 홍주의병에 참여하였던 재야 유생과 관료층이 거병(舉兵)을 목적으로 조직한 전국 규모의 단체였다. 광한일, 임병찬, 고석진, 조재학 등이 총대표였으며, 홍주의병장 유준근이 충청도 대표로, 태인의병장 임병찬이 전라도 대표로 임명되었다. 또한 각 군의 대표를 선임하였는데, 예산군 대표는 홍주의병에 참여하고 대마도에 유배되었던 남규진이 맡았다. 이들은 군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부원들이 체포되어 조직이 발각되어 와해 되었다.

광복회는 군자금을 조달하여 만주의 독립군기지에서 혁명군을 양성하고 국내에 혁명기지를 확보한 후 적당한 때에 독립을 쟁취하려 한 혁명단체였다. 각지에 혁명기지를 세웠는데, 광시 출신의 김한종(金漢鍾, 1883~1921)은 광복회에 참여하여 충청도 지부를 설립하고 지부장을 맡았다. 홍주의병에 참여한 김재정(金在貞)의 큰아들로 예산과 연기에 곡물상을 두어 거점으로 삼고 활동하였다. 광복회 충청도 지부에 참여한 예산 출신으로는 지부장 김한종을 비롯해 그의 부친인 김재정과 김재풍, 김재창, 김재철 등 김녕김씨 문중 인물들과 그의 제자인 김상준과 이재덕 등이 있다. 광복회의 활동 중 두드러진 것은 칠곡의 부호 장승원과 아산의 도고면장 박용하를 처단한 일이었다. 이 가운데 박용하의 처단은 충청도

지부의 책임자인 김한종과 장두환 등에 의해 1918년 1월 단행되었다. 광복회는 경상도와 충청도를 중심으로 발송한 통고문을 수령한 자산가들이 신고함으로써 일제 경찰의 주목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충청도 지부에서 도고면장 처단이 이루어졌다. 이를 계기로 충청도 지부원들이 체포되면서 광복회는 크게 와해 되었다. 김한종은 예산의 자택에서 체포되어 투옥되었다. 공주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1919년 9월 경성복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공소를 제기했으나 1920년 9월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1921년 7월 종사령 박상진과 함께 대구형무소에서 사형, 순국했다. 김재정은 1918년 2월 충청도 지부원들과 함께 체포되어 1918년 10월 공주지방법원에서 면소 판정을 받고 풀려났다. 김재풍은 1919년 2월 공주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으나 1919년 9월 경성복심법원에서 태 90대로 감형되었다. 김재철은 체포되어 1918년 2월 28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김재창은 1919년 9월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김상준은 1917년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1년여의 옥고를 치른 후 출옥하였다. 이재덕도 1918년 초 체포되어 1919년 3월 공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2) 3.1운동의 전개

충남지역에서의 3.1운동은 타 지역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였다. 충남지역에서의 만세운동은 195개 면, 256개 리 327개소에서 모두 433회에 걸쳐 활발히 전개되었다. 1919년 3월 3일 예산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은 천안 아우내장터, 공

주의 장기와 정안, 당진의 천의, 논산의 강경과 연산, 대전의 인동과 유성, 홍성의 갈산과 홍동, 그리고 연기, 서천, 서산, 청양, 아산, 부여, 보령, 금산 등 충남 전역으로 번졌다.

예산지역의 3·1운동은 3월 3일부터 시작되어 예산 읍내와 대홍면, 고덕면, 대술면, 신암면, 오가면, 신양면, 광시면, 덕산면, 삽교면, 대홍면, 봉산면 등 12개 면과 30여 개소에서 연인원 7천여 명이 참가하였다. 예산지역의 3·1운동은 충남 지방에서는 최초인 3월 3일에 전개한 것으로 확인된다. 예산읍 예산리에서 이발업을 하는 윤칠영(尹七榮, 1893~1966) 등 5명이 3월 3일 오후 5시경 예산리의 음식점 권경화 집에서 만나고, 또 저녁 8시 30분경 명월관에서 서울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을 이야기하다가 만세운동을 벌이기로 결의하였다. 이들은 밤 11시 30분경 읍내 동쪽 산에 올라 ‘대한국독립만세’를 외쳤다. 이들은 급파된 예산 현병 대원에게 체포되었다가 평소 온순하여 불온 과격한 언동을 한 일이 없었다고 하여 석방되었다. 예산읍에서는 3월 9일과 3월 21일에도 만세운동을 준비하였으나 예산현병대에 의해 사전에 탐지되어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그러나 3월 31일 장날에는 오후 2시경 군중 60여 명이 예산시장에서 만세를 부르며 예산군청과 현병분대로 이동하며 시위하였다. 이중 주도자 4, 5명이 현병대에 체포되었다. 4월 3일에는 읍내 일대에서 횃불만세운동이 일어났다. 4월 5일에도 예산시장에서 오후 3시경부터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군중들은 예산현병분대로 이동하면서 시위하였다. 이 와중에 시위대를 저지하려는 일본 현병대와 충돌이 벌어져 이 중에 박대영(朴大永)과 최문오(崔文吾)가 체포되었다. 이들은 공주지방법원에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고덕면에서는 4월 3일 한내장터에서 만세운동이 크게 일어났다. 장문환(張文煥)이 시장에 모인 1천여 명의 군중 앞에서 독립만세를 선창하자 군중들이 이에 호응하여 만세를 고창하였다. 이에 현병대는 예산수비대에 지원을 요청하고 주도자들을 체포하였다. 군중들은 현병대로 이동하여 연행자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일본 현병과 수비대는 군중들에게 총검을 휘두르며 진압하였다. 이를 본 인한수(印漢洙)는 격분한 나머지 말을 타고 있던 일군 수비대장에게 달려들어 다리를 끌어내려 내동댕이쳤다. 인한수는 말에서 떨어진 수비대장의 군도에 목이 찔려 그 자리에서 순국하였다. 이에 장문환 등이 인한수의 시신을 들고 현병주재소로 가서 주재소 소장을 구타하며 항의하였다. 장문환 등은 홍성에서 파견된 보병 80연대 군인들에 의해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의 선고를 받고 옥고를 겪었다. 같은 날 신례원장터에서도 현병주재소 부근 산 위에서 3백여 명이 횃불만세운동을 벌였다.

4월 4일에는 덕산, 대흥, 신양, 광시 등지의 시장에서 또는 산 위에서 횃불을 올리며 시위하였다. 덕산시장에서는 4월 4일 약 30여 명이 모여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외쳤다. 시위대는 현병파견소로 달려가 구금자의 석방을 요구하며 항쟁하였다. 현병대에서는 군중들에게 발포하였다. 이날 주민 최승구(崔昇九)가 체포되어 태 90도를 받고 고초를 겪었다. 대흥면에서는 4월 4일 밤에 대율리의 주민들이 동쪽 산 위에 올라 횃불을 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이날 홍성군 광천 출신의 정인하(鄭寅夏)가 주도하였다. 그는 4월 24일에는 광천면 용호리 강진호 집에서 각지에서 독립만세를 고창하고 있으며 ‘이태왕’은 일본인에 의해 독살당했다는 등의 말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1919년 5월 30일 공주지방

법원에서 징역 6월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겪었다. 신양면에서는 성원수(成元修)가 4월 4일 오후 8시경에 연리에서 마을 주민 10여 명과 함께 횃불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는 5월 8일 체포하려 온 현병보조원을 응징하고 체포되어 공주지방 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대술면 산정리에서는 4월 4일 민제식(閔濟植)이 주민 30여 명과 함께 태극기를 세워놓고 독립만세를 외치다 체포되었다. 그도 공주지방법원에서 태 90도를 선고받고 고초를 겪었다. 광시면 하장터에서는 4월 4일 밤부터 주민 250여 명이 독립만세운동을 벌였다. 이들 중 40여 명은 다음 날 새벽에 면사무소를 공격하기도 하였다.

삽교읍 목리에서는 4월 5일 밤에 박성식(朴性植)이 마을 뒷산에 올라 주민 40여 명과 함께 횃불만세운동을 주도하고 체포되어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겪었다.

한편 덕산 출신의 박인호(朴寅浩, 1855~1940)는 천도교 대도주로서 3.1운동의 중앙지도체 49인 중 한 사람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1919년 2월 22일 손병희의 명으로 천도교 보관금 중에서 5,000원을 죄린을 통해 이승훈에게 전달하여 기독교측의 3.1운동 경비를 지원하였다. 같은 해 2월 28일에 천도교 이종일, 이종린, 윤익선 등과 함께 협의하여 독립선언서와 《조선독립신문》 수만 매를 보성사에서 인쇄하여 3.1운동 때에 전국으로 배포하게 하였다. 3월 1일이 시위 후에 일제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그는 재판 관할권 문제로 오랜 기간 구류된 끝에 1920년 12월 1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출감하였으나 미결기간으로 1년 9개월여의 옥고를 치렀다.

3) 3.1운동 이후 국내독립운동

일제는 3.1운동 이후 한국인의 높은 민족의식에 충격을 받고 이전의 통치방식을 이른바 문화통치라는 수법으로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총독부에서는 현병경찰제를 폐지하고 기존의 강압적인 통치 방식에서 유화적인 방식으로 전환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허울뿐인 참정권을 준다는 구실로 자치세력을 육성하여 대일 타협 세력을 조성시켰다. 한편으로 지방에는 이른바 농촌진흥회를 조직하고 모범적인 진흥회를 육성하여 총독부의 정책을 보급하고자 하였다. 진흥회는 각리 단위로 조직되어 면장의 지도하에 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군수나 면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하는 월례회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진흥회 연합총회도 실시하여 총독부의 시책을 보급하였다. 1932년 3월 현재 예산군에 설치된 진흥회가 189개소에 이를 정도로 조직적이었다. 이 중에 군 지정 진흥회와 면 지정 진흥회를 두었으며, 지도에 잘 따르는 진흥회는 모범진흥회로 지정하여 도에서 표창하기도 하였다. 1920년대 이후 총독부의 지방 통치의 목적은 친일세력을 육성하여 한민족을 말살하고자 하는 동화정책을 실현시키는데 있었다. 총독부에서는 시책에 비판적이거나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탄압하였다. 총독부의 시책에 반대하는 활동은 비밀단체 조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년층, 학생층, 농민층, 노동층 등 다양한 계층에서의 항일운동이 전개되었다. 예산지역에서의 이들의 활동을 살펴보기로 한다.

3.1운동 이후 각성한 청년들은 1919년 말부터 지역별로 각종의 청년회를 조직하였다. 청년회가 내세운 목표는 품성의 향상과 지식계발, 풍속개량, 사회의 계도 등을 들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민족의 자주독립에 그 목적이 있었다. 예산

의 성관영(成觀永), 이종덕(李鍾惠) 등은 1921년 10월경 예산청년회를 조직하였다. 회원은 200여 명이고 회장에 한태유(韓泰裕)를 선임하였다. 목표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와 지역 사회의 문화 창달이었다. 청년회에서는 강연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주제는 토산품 장려, 소비조합 설립, 금주·단연 실시 등이었다. 1927년 11월 26일에는 예산의 예배당에서 450여 명이 참석하여 강연회와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강연회에서 김진동은 ‘우리의 철학’, 성낙○는 ‘기미(己未) 이후 조선에 대한 운동과 세계 각국의 운동 방향 변화’, 이○승은 ‘청년회 혁신책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열변을 토하였다. 1928년 9월에는 14일경에 고덕면, 봉산면, 덕산면에서도 성낙훈(成樂薰), 홍병철(洪炳哲) 외 9인이 청년회 창립을 발기하였다. 9월 25일에 봉산면 구암리 공회당에서 성낙훈의 사회로 청년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자 성낙훈의 개회사가 있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참석했던 경찰관이 집회를 금지하고 해산하라고 함에 창립식을 개최하지 못했다. 고덕면 대천리에서도 1928년 12월 11일 수양청년회를 창립하였다. 그러나 12월 17일 예산경찰서에서 이호기(李昊基) 외 4인을 호출하여 해산령을 내렸다. 해산 이유는 배후에서 2, 3명의 불온한 인사가 지도하는 까닭이라고 하였다. 청년회원들이 1931년 8월 29일 예산경찰서에 구금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들을 체포한 이유는 대동가극단(大同歌劇團)이 가설극장에서 춘향전을 일본말로 공연하자 이에 분개하여 “장소를 정리하라, 불을 켜라. 시대에 뒤떨어진 극이고, 극에 모순된다”고 하면서 공연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이때 체포된 이들은 청년회 간부 윤영순(尹暎淳), 김광(金光), 정창희(鄭昌熙), 김현창(金顯昶), 이광섭(李光燮)을 비롯하여 동아일보 지국장 이만섭(李萬燮), 조선일보 지국장 성낙훈, 조

선일보 기자 성진호(成鎮鎬) 등이었다. 이들 중에 김광, 이광섭, 정창희, 김현창은 다음 날 석방하고, 성진호는 3일간, 성낙훈, 이만섭, 윤영순은 10일간 구류처분을 받았다. 이후 예산경찰서는 예산청년회의 집회를 금지하고자 9월 11일 청년회 집행위원장 이만섭을 불러 이후 일체의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고하였다.

3.1운동을 경험한 학생들은 이미 독립운동 주체로서의 역량이 성숙되어 있어 민족지성을 대변하는 계층이었다. 이들은 일제의 노예적인 식민지 교육에 항거하여 동맹휴학을 벌였다. 맹휴는 일본인 교사의 조선인 차별과 식민지 교육에 대한 항거가 주요 원인이었다.

1926년 5월 1일 대흥공립보통학교 학생 전원이 맹휴를 일으켰다. 학생들은 융희황제(순종)의 승하에 교장 야마모토(山本武二)가 조회에서 이에 대해 일체 언급이 없자 이에 분개하여 동맹휴학을 하고 산에 올라 망곡(望哭)을 하였다. 교장 야마모토는 5월 4일 주도 학생인 이학구를 찾아가 유혈이 낭자할 정도로 구타하였다. 이학구는 5월 8일 학교장을 공주지방법원 흥성지청 검사국에 고소하였다. 덕산보통학교 학생들도 5월 4일부터 융희황제(순종) 승하에 봉도(奉悼)를 위한 휴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맹휴학을 하고 4일 동안 봉도의 뜻을 표하기로 했다.

1926년 6월 22일에는 예산농업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한 사건이 있었다. 일본인 교사들의 수업 태도 불량과 학생들 서신 검열이 그 원인이었다. 그중에 학감 하라구치(原口良策)는 너무 애정이 없어 조금만 잘못해도 퇴학하라고 야단을 치고, 학생들의 회의 개최도 경찰서의 허락을 받으라고 강요하였다. 또 학교 당국에서는 기숙사 학생에게 오는 편지를 뜯어서 검열하였다. 학생들은

맹휴를 개시하고 진정서를 만들어 1부는 교장에게 제출하고, 1부는 권영범(權榮範) 외 1명을 충남도청에 보내 제출하도록 하였다. 학교에서는 6월 25일 학생 7명을 퇴학시키고 92명은 정학을 시키는 등 가혹하게 처벌하였다. 2학년생들은 7명의 퇴학에 항의하여 전원이 퇴학원을 제출하면서 항의하였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고 결국 2학년생인 유인무(柳寅茂), 오만근(吳萬根), 한춘근(韓春根), 최영환(崔榮煥), 이정하(李鼎夏)와 1학년생인 윤중섭(尹中燮), 권영범(權寧範) 등 7명을 퇴학, 92명을 정학 처리하였다.

학생운동은 1929년 11월의 광주학생운동의 영향으로 절정을 이루었다. 광주 학생운동은 예산지역에도 파급되었다. 1930년 1월 22일 광주학생운동의 영향을 받은 예산농업학교 학생 233명이 시위를 계획하였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오후 11시경에 주도자 5명이 검거되었다. 1930년 3월 11일에는 대흥공립보통학교 6학년 학생들이 백지 담안을 제출하고 만세운동을 일으켰다. 6학년인 윤소현(尹召鉉), 배덕근(裴德根), 신화균(申和均), 김창환(金昌煥) 등이 3월 11일 맹휴하고 오후 4시에 대흥면 동서리의 산 위에 올라 동급생 20여 명과 함께 만세운동을 전개한 것이다. 이 사건의 주도자로 강경희(姜敬熙) 등이 체포되었는데 이들은 강찬희(姜讚熙)와 김만복(金萬福)의 권유를 받고 운동을 일으켰다. 김만복과 강찬희 역시 체포되었다. 강찬희는 1930년 1월 대흥면 손지리에 있는 야학회에서 윤소현에게 “작금 각지의 조선인 학생들이 동맹휴교하거나 또는 만세를 부르고 있다. 차제에 자네들도 실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김만복 역시 1930년 1월 20일 경 응봉면 입침리 조병언의 집에서 배덕근에게, 2월 10일경에는 강경희에게 광주에서의 학생운동을 설명하고 맹휴를 권하였다. 이들은 체포되어 1930년 7월

대전지검 홍성지청에서 강찬희, 김만복, 강경희, 조병언은 면소를 받았으나, 검사의 항고로 강찬희와 김만복은 공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1932년 4월 동향 출신인 윤봉길의 상해의거가 있자 예산지역 청년들의 항일 의식이 더욱 고양되었다. 윤봉길과 함께 월진회를 조직하여 활동하던 정종호(鄭鍾浩)는 상해의거에 큰 자극을 받았다. 예산공립농업학교에 재학 중이던 그는 강봉주(姜鳳柱), 한정희(韓定熙) 등과 비밀리에 독서회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상해의거 직후인 1932년 5월 초순 그는 박정순(朴正淳), 박희남(朴熙南), 오일규(吳日圭) 등의 독서회와 통합하여 좌익협의회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한인 학생의 차별 개선과 한인 교사의 확대 등을 주장하며 동맹휴학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학교 당국으로부터 회원들이 다수 학사처분을 받게 되자, 같은 해 9월 18일 정종호, 강봉주, 한정희, 박희남 등은 예산학생동맹을 조직하였다. 그해 11월경 토요회로 명칭을 바꾸고 활동 중에 관제연극 단체인 만경좌에서 반민족적인 내용의 '동방의 빛'이라는 연극을 예산읍에서 상영하자 공연 중단을 요구하는 활동을 벌였다. 예산경찰서에서는 이들을 체포하였는데 관련자들이 20여 명에 달했다. 이 중에 일부는 석방하고 1933년 2월 17일 정종호 등 9명은 공주지방법원 검사국에 송치하고, 김기성, 임의재, 김용재는 석방하였다. 정종호 등 9명은 1933년 3월 30일 공주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강봉주는 징역 3년, 정종호와 한정희는 징역 2년, 박배훈(朴培薰), 김규환(金奎煥), 오일규, 박정순, 박희남, 김형래(金炯來)는 각 1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경성복심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이들 외에도 김현창, 강찬희, 서용하도 이 사건으로

체포되었다. 예산 출신으로 공주 영명학교 재학 중 동맹휴학을 주도한 일로 퇴학 처분을 받은 김현창은 서용하(徐龍河)와 함께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강찬희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포천군 청산면 출신인 서용하는 공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옥중에서 순국하였다.

충남지역에서의 농민운동은 소작쟁의, 농민야학, 적색농민조합운동 등이 있었다. 1920년부터 전개된 충남의 소작쟁의 건수가 전국 13개 도의 평균치인 7.7%를 훨씬 상회하였다. 특히 1930~1933년간은 28%를 차지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작쟁의가 있었음을 알려준다.

예산지역에서는 특히 소작쟁의가 많았다. 옥계리에서는 1924년 3월에 마름의 무리한 소작권 이동으로 인해 쟁의가 일어났다. 1926년 2월에도 삽교면 용동리에서 마름의 횡포에 항의하는 쟁의가 있었다. 예산군에서의 소작쟁의는 1930년대에 특히 많았다. 1934년 4월에만 예산군에서 발생한 소작쟁의 건수가 40여 건에 달했다 한다. 쟁의를 일으킨 이유는 주로 소작권 이동과 소작료 인상 때문이었다. 1935년 1월부터 4월까지도 11건이 일어났다.

1923년 8월 오가면 면민들은 예산공립보통학교에서 면민대회를 개최하고 오가면의 임야를 대부받아 농장을 설치하려는 건과 국사보수리조합(國賜洑水利組合) 설치를 반대하였다. 면민들은 총독부에까지 올라가서 진정하였으나 거부되었다. 이들은 면장의 역할을 기대하였으나 면장 임명호(任命鎬)의 무책임한 답변에 분개하여 그를 주교리 천변 자갈밭으로 끌고 다니며 얼굴에 뚝칠을 하는 등 과격한 집단행동까지 하였다. 주도자 문순동(文順東), 이정칠(李正七), 김재현(金在鉉), 박상률(朴相龍), 김재숙(金在肅), 김기원(金基元) 등 6명은 체포되어 경찰

서에 구금되었다. 1924년 5월 9일에는 오가면민들이 오가면에 설치되는 국사보수리조합에 반대하는 모임을 가졌다. 이들은 6월 8일 보통학교에서 지주대회를 개최하고 반대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이러한 오가면민들의 반대운동으로 국사보수리조합 설립은 무산되었다.

1931년 3월에는 예산의 지주 대표 홍필구 등 12인이 예산과 당진 일대의 평야 7천여 정보에 예당수리조합을 설치하는 총독부의 결정에 반대하는 기성회를 조직하고 투쟁하였다. 이들이 조합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는 1930년 7월에 수리조합 실시를 위한 창립위원 22명을 선출한 바 있으나, 위원회에 보고도 없이 대행회사로 토지개량주식회사를 정하고 기본 측량을 실시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를 들었다. 이들은 계약을 체결하는데 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한 창립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조합비와 관련된 견으로 보인다. 당초 농민에게 약속한 50전이 아닌 4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수리조합 설치의 목적이 지주들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창립위원회에서는 3월 28일부터 회의를 개최하고, 6년간 사업을 중지하는 안에 대해 표결로 통과시켰다. 아울러 3월 31일 총독부를 방문하여 조합 설치를 반대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5월 11일 예산군청 구내에서 창립위원 몇 사람과 도 당국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행회사인 토지개량회사의 설계변경에 관한 설명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충남도에 의해 이들 창립위원회의 결정은 무시된 것으로 보인다.

예산지역의 노동운동은 1920년 조선노동공제회의 출범과 함께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1920년 7월 21일 오후 3시에 예산에서 조선노동공제회 예산지부의 개회식이 있었다. 회원이 무려 3백여 명에 달했다. 본회 회장 박중화의 취지 설명

이 있었고, 선거를 통해 지회장에 서정섭, 의사장에 유진상, 총간사에 홍정식이 선출되었다. 예산지역 노동자들은 노동쟁의를 통하여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 신장하였고, 이를 통해 투쟁 역량과 항일의지를 배양하였다. 더욱이 사회주의의 수용과 사회주의자들의 참여로 노동운동의 역량이 급격히 성장하였다. 이를 토대로 노동운동은 노동자 계급의 해방과 민족 해방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실천하고자 하였다. 예산 출신인 유진희(俞鎮熙)는 1921년 3월 조선노동공제회 정기총회에서 대표 중의 한 명으로 선정되어 활동하였다. 그는 1925년 4월 조선공산당 중앙집행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신간회 창립에도 참여하였으며, 총독정치 배격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35년 8월 29일에는 예산의 충남제사회사의 여직공 300여 명이 대우에 불만을 갖고 파업하였다. 이들은 월급날인 8월 27일 임금이 종전보다 오히려 10%씩 인하되었음을 알게 되자 파업을 단행한 것이다. 경찰은 주도자로 지목되는 여공 17명을 경찰서로 데리고 갔다. 공장 측에서도 직공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감금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등 탄압하였다.

예산에서는 신간회운동 역시 활발히 전개되었다. 신간회는 1927년 서울에 본부를 두고 전국에 지회를 설치하였다. 충남에서는 예산을 비롯하여 홍성, 당진, 서산, 공주, 부여, 천안에 지회가 설립되었다. 신간회 예산지회는 1927년 11월 이승복(李昇馥, 1895~1978)이 이관용, 권태석 등과 함께 주도하여 조직되었다. 이승복은 의병장 이남규의 손자로 노령과 북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귀국하여 임시정부의 국내 연통제 조직과 군자금 모금에 힘썼으며, 김상옥 의거에 연루되어 고초를 겪었다. 신간회 결성에 발기인으로 참여하였으며, 설립 후에는 선

전부 간사 등으로 활동하였다. 1927년 11월 4일 김석배, 성춘경, 이화복 등 주민 30여 명이 신간회 예산지회 준비회관에 모여 예산지회 설립준비회를 조직하고 11월 14일 예산 예배당에서 개최식을 거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14일 오후 3시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장에 이종승, 부회장에 김진동(金振東)을 선임하였다. 이날 서울에서 파견된 이관용은 ‘발전의 의의’, 권태석은 ‘기회주의에 대하여’, 홍기문은 ‘대단원(大團圓)’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1927년 12월 8일 오후 1시에 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장에 김진동, 부회장에 윤상보를, 간사에 이창복, 성춘경, 이종승, 김세환, 김병현 외 10인을 선출하였다. 이들 임원진에는 언론인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김석배와 김진동, 유중영이 동아일보 지국장과 지국 기자 출신이고, 성낙훈과 홍병철도 동아일보 기자를 역임하였다. 이들 임원진 중 성낙훈과 홍병철이 1929년 8월 14일 임시대회 개최를 준비 중이었으나, 예산 경찰서에 의해 대회 개최를 금지하면서 8월 11일 검거되었다. 서울 본부에서 이 소식을 듣고 집행위원인 김병로를 보내 석방을 교섭하고 아울러 임시대회를 지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후 예산지회의 활동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3.1운동을 주도했던 천도교는 1923년 천도교청년당을 조직하고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 청년당 창립을 주도했던 박래홍은 예산 출신으로 박인호의 아들이다. 1927년 10월에는 천도교 청년동맹 예산지회가 설립되었다. 대표는 윤옥과 최장환되었으며, 집행위원은 박동화가 맡았다. 예산의 신암면 출신인 문덕원은 1931년 천도교 약학단을 조직하고 예산 일대에서 문맹퇴치운동과 문화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천도교 제4대 교주인 박인호의 지시로 범 교단 차원으로 ‘멸왜 기도운동’이 전개되었는데, 예산 교구 교무부장 방윤권 등 다수가 이에 참

여하였다. 이때 예산 출신의 임덕성, 문병석 등이 예산경찰서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진다.

예산지역의 기독교계 인사들 역시 청년회를 중심으로 민족운동에 참여하였다. 예산기독교청년회는 1927년 7월 예산야소교예배당에서 창립되었다. 청년회에서는 설립 이후 교육계몽활동과 문화운동을 전개하였다. 1927년 12월 자선음악회를 개최하고 기부금을 받아 극빈자 구제활동을 하였으며, 1928년 1월에는 산성리에 노동야학회를 설립하고 문맹퇴치운동을 전개하였다. 예산제일교회 제3대 목사 한태유의 활동이 주목된다. 그는 예산청년회 회장을 맡아 소비절약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민립대학 설립을 위한 예산지역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등 민립대학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1939년 6월 예산제일교회 제12대 김희운 목사는 윤영원, 최경용 등 예산농업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예산속회’라는 비밀결사를 결성하였다. 이들은 민족정신의 양양, 조선어의 연구와 사용, 조선 민족의 단결 등을 강령으로 삼고 활동하였다. 이들 중 윤영원이 예산농업학교를 졸업하고 1942년 수원군 농회에서 근무 중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체포되었다.

4. 예산인의 국외독립운동

예산출신 인사들은 1945년 광복을 쟁취할 때까지 중국 등 국외로 망명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하여 활동하였으며, 임시정부와 김좌진 등에게 군자금을 지원하는 활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이들 중에는 윤봉길, 신현상과 같은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들도 있다.

윤봉길(尹奉吉, 1908~1932)은 1908년 6월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에서 윤황(尹)과 경주김씨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봉길은 별명이고 본명은 우의(禹儀)이며 아호는 매현(梅軒)이다. 백부인 윤경(尹炯)의 서당에서 천자문을 수학하다가 11세 때인 1918년 덕산공립보통학교(德山公立普通學校)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이듬해인 1919년 3·1독립운동이 일어나자 일제의 식민교육을 배척하여 학교를 자퇴하였다. 14세 때인 1921년 집 근처에 있는 서당인 오치서숙(烏致書塾)에 들어가 매곡(梅谷) 성주록(成周錄)에게서 한학을 수학하였다. 그의 학업은 일취월장하였고 특히 시재(詩才)가 뛰어나 서당에서 자주 장원하였다. 이때 그가 지은 한시집인 「옥타(玉唾)」, 「염락(廉洛)」, 「명추(鳴椎)」, 「임추(壬椎)」 등이 남아 있다. 그는 오치서숙에 다니던 중이던 15세 때에 배용순과 혼인하여 아들 종(淙)과 담(淡)을 두었다.

윤봉길은 오치서숙에서 수학하던 중 ‘공동묘지 묘묘사건’을 계기로 민족의 무지가 나라를 잊게 하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오치서숙에서 한학을 수학할 때부터 동아일보와 개벽 잡지 등을 탐독하면서 신학문을 접하고 민족문제와 농촌문제를 탐구하였다. 오치서숙을 수료한 직후인 1926년 가을 문맹퇴치를 위하여 야학당을 개설하였다. 갑, 을 2개 반으로 나누어 갑반은 한글을 가르치고, 을반은 역사, 산술, 과학 그리고 농사지식을 가르쳤다. 동시에 마을 청년들과 함께 독서회를 조직하고 월례강연회도 개최하였다. 그는 야학운동을 하면서 교재로 『농민독본』(전 3권)을 저술하였다. 이 책에서 자주정신을 강조하였고, 평등한 사회 건설을 이룰 것을 염원하였다. 그리고 머리에 돌이 놀리고 목에 쇠사슬이 걸린 자

유를 잊은 식민지 상태를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27년 3월에는 목계농민회를 조직하고 농민의 경제 자립을 위한 부흥운동을 펼쳤다. 4월에는 월진회를 조직하고 회장에 추대되었다. 농민운동을 하면서 일제 통치하의 농민운동의 한계에 대하여 고민하던 중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났다. 광주학생운동은 압박받는 조선과 조선인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그의 항일의지를 더욱 강렬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1930년 3월 6일 ‘장부출가생불환(丈夫出家生不還)’이란 글을 남겨놓고 상하이(上海)행에 올랐다. 망명길에 평안북도 선천에서 일제 경찰에 체포되기도 하였으나 풀려나 중국 칭타오(青島)에 갔다. 그곳에서 일본인이 경영하는 세탁소에서 상하이로 갈 여비를 마련하여 1931년 5월 상하이에 도착하였다. 상하이에서 박진이 경영하는 모자 제조공장인 채품공사에서 직공으로 일하면서 한인공우친목회를 조직하는 등 활동하였다. 1932년부터는 공동조계 홍커우 시장에 나가 채소가게를 차리기도 하고 밀가루를 판매하기도 하였다. 그는 1932년 1월 이봉창의 거 후에 김구를 만나 자신이 상하이에 온 뜻을 밝히고 이봉창 의거와 같은 일을 맡겨달라고 하였다. 김구는 윤봉길의 독립운동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확인하고 한인애국단에 가입할 것을 권하고 일본군의 천장절 행사에서 결행할 계획을 전달하였다. 윤봉길은 한인애국단에 가입하고 4월 29일의 의거를 감행할 뜻을 밝혔다.

윤봉길의 상해의거는 대성공이었다. 1932년 4월 29일 아침 스프링코트를 입고 보자기에 쌈 도시락과 수통을 메고 손에는 일장기를 들고 홍구공원에 입장하였다.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된 관병식이 끝났다. 이어 축하식이 시작되었는데,

식이 거의 끝나고 기미가요 합창이 한창일 때 단상의 일본 수뇌부를 향해 수통형 폭탄을 던졌다. 단상에 있던 상해파견군사령관 시라카와 요시노리(白川義則) 대장을 비롯하여 해군사령관 노무라 요시사부로(野村吉三郎) 중장, 제9사단장 우에다 겐키치(植田謙吉) 중장, 주중공사 시게미쓰 마모루(重光葵) 등에게 중상을 입혔다. 시라카와는 긴급 수혈을 하고 대수술을 실시하는 등 치료를 했으나 5월 26일 사망했다.

윤봉길은 체포되어 1932년 5월 25일 일본군 상해파견군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상해현병대에 구금되어 있던 윤봉길은 그해 11월 18일 상하이를 출발하여 오사카에 있는 육군위수령무소로 이감되었다. 이곳에서 한 달 가까이 독방생활을 하고 12월 18일 가나자와(金澤)로 연행되어 제9사단 위수구금소에 수감 되었다가 다음 날 아침 가나자와시 교외인 미쓰고지(三小牛)산 육군작업장에서 사형, 순국하였다. 유해는 가나자와시 노다산(野田山) 육군묘지 인접한 공동묘지의 한 구석에 암매장되었다. 그의 유해는 1946년 김구의 지시에 의해 반장하여 서울 효창공원에 안장되었다. 윤봉길의 상해의거는 상하이를 침략한 일본군 수뇌부를 섬멸함으로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으며, 동시에 한민족의 독립정신과 의지를 전세계에 알리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일제의 만보산 사건 조작으로 야기된 한중 양 민족의 반감을 회복, 강화하여 중국지역에서 한국 독립운동을 다시 가능하게 하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비롯한 한국 독립운동을 활성화시키는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

신현상(申鉉商, 1905~1950)은 1905년 신례원에서 태어났다. 1926년 상하이로 건너가 정화암(鄭華岩) 등 아나키스트들과 교유했으며, 상해노동대학에서 수

학하기도 하였다. 1929년 독립운동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국내로 돌아왔다. 그는 고향인 예산에서 정미업을 하던 최석영(崔錫榮)을 만나 자금을 모집하여 상하이로 망명할 것을 제안하였다. 최석영은 이를 수락하고 1930년 2월 호서은행 예산지점에서 위조 환증을 이용하여 5만 8천 원을 인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신현상은 자금 일부를 가지고 탈출하여 그해 3월 22일에 베이징에 도착하였다. 그가 베이징까지 도착하였다는 소식을 접한 독립운동가들은 벅찬 희망에 부풀었고, 상하이에서 활약하던 정화암 등이 베이징으로 향했다. 그러나 신현상은 텐진 일본 영사관 경찰에 탐지되어 1930년 4월 28일에 체포되고 말았다. 본국으로 압송된 그는 1931년 2월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그러나 그가 전달한 자금의 일부는 무정부주의운동 자금으로 활용되어, 정화암과 유자명(柳子明) 등이 1930년 4월 20일 상하이에서 남화한인청년연맹(南華韓人青年聯盟)을 조직할 수 있었다. 광복 후에 그는 반민특위 검찰관으로 활약하였다. 그러나 6.25전쟁 중 북한군에 체포되어 1950년 9월 대전형무소에서 학살되었다.

한편 임시정부의 지령을 받고 활동한 예산인들도 확인된다. 오가면 원천리 출신의 이명제(李明濟)는 1919년 3.1운동에 참여한 후 그해 4월 중국 상하이로 망명하여 임시정부에 참여하였다. 교통국 직원으로 충청도 특파원으로 파견되어 임시정부를 선전하고 독립사상을 고취하는 활동을 하였다. 1921년 체포되어 공주지방법원에서 그해 5월 6일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오가면 오촌리 출신의 서정섭(徐廷燮)은 서산 출신의 이원생(李源生)과 함께 1919년 [음] 7월경 당진군 순성면 백석리의 자산가 이희성으로부터 임시정부의 군자금으로 5천 원을 수령하였다. 이 일로 체포되어 1920년 12월 2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고하여 경성복심법원에서 1921년 2월 25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봉산면 시동 출신의 조인원(趙仁元, 1875~1950)은 대한독립애국단의 충남지단 단원으로 활동하였다. 대한독립애국단은 1919년 3.1운동 직후 충남에 지부를 두고 임시정부와 연계하여 1919년 5월 서울에서 조직된 비밀단체이다. 논산 출신의 신현구가 단장이었는데, 충남지단을 설치하고 예산과 청양 등지에 지회를 설치하였다. 충남지단장에 서병익, 부단장 김석주, 그리고 예산 출신의 조인원이 서무부장을 맡아 각종 독립운동 관계 문건의 배포에 주력하였다. 조인원은 1920년 [음] 12월 20일에 '한국인은 납세하지 말라'는 내용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정서 명의로 된 선전문을 삽교면 역촌리 계시판에 부착하는 등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1921년 9월 2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삽교면 창정리 출신의 김영진(金瑛鎮)은 길림군정부(吉林軍政府)의 군무독판 겸 총사령관 김좌진의 활동을 돋기 위해 1919년 [음] 10월 논산의 윤상기 집에서 회합을 갖고 조병채, 윤태병, 백남식, 이치국 등과 함께 대한건국단을 조직하였다. 김좌진은 광복회의 만주지역 책임자로 파견되어 국내 진공을 위한 군대를 양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광복회원들이 대거 체포됨에 군자금 모금이 어렵게 되자 김영진을 국내로 파견하여 대한건국단을 조직하고 충청도, 전라도 지역에서 군자금을 모집하게 한 것이다. 김영진은 청양, 부여, 대천, 익산 등지에서 군자금을 모금하여 김좌진에게 제공하는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1921년 4월 19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0년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동년 9월 18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5. 예산지역 독립운동의 의의

예산지역에서는 대한제국기 의병전쟁과 애국계몽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1896년 홍주의병에 광시 출신의 박창로와 이봉학이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1906년 홍주의병은 광시 장터에서 봉기하였으며, 이남규를 비롯하여 박창로, 남규진 등이 참여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남규 부자를 비롯하여 많은 희생자를 낳았다. 예산과 덕산에서는 '의연금 모집소'를 설치하고 국채보상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또한 예산의 유지인사들은 명신학교와 우신학교, 배영학교, 예동학교 등 신교육 기관을 설립하여 민족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하였다.

일제강점기 예산인들은 국내에서는 1910년대 대표적인 비밀단체인 독립의군부와 광복회에 참여하여 활동한 특징이 있다. 독립의군부 예산군의 대표는 홍주의병에 참여하고 대마도에 유배되었던 남규진이 맡아 활동하였다. 광시 출신의 김한종은 광복회에 참여하여 충청도 지부를 조직하고 지부장을 맡았다. 김한종은 예산과 연기에 곡물상을 두어 군자금을 모금하면서 친일적인 도고면장 박용하를 처단하는 등 활동하였다.

예산지역에서는 1919년 3월 3일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는 충남 최초로 알려진다. 이후 예산 읍내와 대흥, 고덕, 신례원, 대술, 신암, 오가, 신양, 광시, 덕산, 삽교 등 11개 읍면과 30여 개소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예산지역의 3.1운동은 횃불 봉화 시위를 벌인 것으로 유명하며, 3, 40대의 장년층이 확고한 지역적 기반을 바탕으로 전개한 특징을 보였다.

1920년대 이후 예산에서는 청년운동, 학생운동, 농민운동, 신간회운동 등이

활발하였다. 성관영 등이 1921년 10월경 예산청년회를 조직하여 강연회와 토론회를 개최하고 토산품 장려와 소비조합 조직 등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청년회의 활동을 감시하던 경찰에 의해 1931년 8월 간부들이 체포당하고 청년회의 집회도 금지당했다.

독립운동의 주체로 성장한 학생들은 동맹휴교의 방법으로 총독부의 정책에 저항하였다. 1926년 융희황제(순종)의 승하 직후에 대홍보통학교와 덕산보통학교 학생들이 봉도식 불허를 이유로 동맹휴학을 하였다. 예산농업학교 학생들은 일본인 교사의 차별교육에 항의하여 맹휴학을 전개하였다. 광주학생운동의 영향을 받은 대홍보통학교 학생들은 백지 답안을 제출하고 만세운동을 일으켰다. 윤봉길의 상해의거로 항일의식이 고양된 정종호 등 예산농업학교 학생들은 독서회와 비밀단체인 예산학생동맹을 조직하고 한인학생에 대한 차별 철폐 등을 구호로 동맹휴교를 펼쳤으며, 친일적 연극 상연의 중단을 요구하는 활동을 하였다. 이로 인해 정종호 등 9명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예산지역에서는 특히 소작쟁의가 많았다. 오가면 주민들은 1923년 임야에 농장을 설치하려는 건에 반대운동을 벌였으며, 1924년에는 오가면에 설치되는 국사보수리조합에 반대하는 모임을 가졌다. 1931년에는 예산의 지주들이 예당수리조합 설치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예산군에서의 소작쟁의는 1930년대에 더욱 많아졌다. 1934년 4월 중에만 예산군에서 발생한 소작쟁의 건수가 40여 건에 달했다. 쟁의를 일으킨 이유는 주로 소작권 이동과 소작료 인상 때문이었다. 1920년 7월에는 조선노동공제회 예산지부가 설립되었으며, 1935년에는 예산의 충남제사회사의 여직공 300여 명이 대우에 불만을 갖고 파업하였다. 경찰과 공

장 측은 주도자를 체포하고 감금하는 등 탄압책으로 일관하였다. 신간회 예산 지회는 1927년 11월 조직되어 활동하였다. 신간회 지회 설립을 위해 힘쓴 이승복은 의병 활동으로 순국한 이남규의 손자이다. 예산 출신 독립운동가들은 해외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활발히 펼쳤다. 상하이 홍구공원 의거를 성공리에 수행한 윤봉길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명제는 임시정부 충청도 특파원으로 파견되었으며, 조인원은 임시정부의 지령으로 조직된 대한독립애국단 충남 지부원으로, 김영진은 김좌진의 군사활동을 지원하는 대한건국단 요원으로 군자금 모금운동을 벌였다.

이와 같이 예산인들은 대한제국기 홍주의병과 국채보상운동에 적극 참여한 이래 1910년대 광복회 충청도 지부를 조직하여 일제의 침략에 저항하였으며, 1919년 충남지역에서는 최초로 3.1운동을 일으켰다. 1920년대 이후에는 일제의 동화정책인 농촌진흥 정책을 거부하면서 청년운동과 학생운동, 농민운동을 투쟁적으로 전개하였다. 예산인들은 일제의 탄압으로 투옥되고 심지어는 사형 순국하였으나 끊임없이 일제의 식민정책에 저항하여 투쟁하였다.

〈참고문헌〉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기호홍학회월보』

간행위원회, 『일연실기』, 예산문화원, 2014.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자료 13, 14』, 1973.

『조선소요사건에 관한 도장관보고철』, 『충남비 제98호, 조선인 불온행동에 관한 건, 별지-충청남도 예산군 예산리의 사건』(1919년 3월 7일),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9.

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3, 1969.

_____, 『독립운동사자료』권5, 권10, 1973.

_____, 『한말의병연구』, 일조각, 1997.

_____, 『윤봉길』, 역사공간, 2015.

_____, 『호서유림의 사상과 민족운동』, 지식산업사, 2016.

_____, 『한말 홍주의병』, 흥성군, 2020.

김정인, 『천도교 근대민족운동 연구』, 한울, 2009.

김진호·박이준·박철규, 『한국독립운동의 역사』20,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김형목, 『대한제국기 충청지역 근대교육운동』, 선인, 2016.

_____, 『충청도 국채보상운동』, 선인, 2016.

윤병석, 『증보 3.1운동사』, 국학자료원, 2004.

이균영, 『신간회연구』, 역사비평사, 1993.

김상기, 『1895-1896년 홍주의병의 사상적 연원과 전개』, 『윤병석교수화갑기념 한국근대사논총』, 1990.

_____, 『수당 이남규의 학문과 홍주의병투쟁』, 『조선시대의 사회와 사상』, 조선사회연구회, 1998.

_____, 『1910년대 지방유생의 항일투쟁』,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80주년기념논총』, 1999.

_____, 『1906년 홍주의병의 홍주성전투』, 『한국근현대사연구』37, 2006.

_____, 『윤봉길의 금택에서의 순국과 순국지』, 『한국독립운동사연구』41, 2012.

_____, 『윤봉길의 수학과정과 항일독립론』, 『한국근현대사연구』67, 2013.

_____, 『윤봉길 상해의거의 국내외적 영향과 의의』, 『한국독립운동사연구』61, 2018.

_____, 『예산지역 독립운동의 전개』, 『충청문화연구』27, 2022.

김진호, 『예산지역의 3.1운동 전개와 의의』, 『충청문화연구』8, 2012.

김형목, 『충남지방 국채보상운동의 전개양상과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35, 2010.

이성우, 『대한광복회 충청도 지부의 결성과 활동』, 『한국근현대사연구』12, 2000.

_____, 『1910년대 독립의군부의 조직과 활동』, 『역사학보』224, 2014.

_____, 『일연 신현상의 독립운동과 호서은행 사건』, 『대구사학』133, 2018.

정을경, 『일제강점기 박인호의 천도교 활동과 민족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33, 2009.

지수걸, 『충남 예산공립농업학교 학생비밀결사조직 사건에 대한 일고찰』, 『창해박병국교수정년기념사학논총』, 1994.

제2장

예산지역 의병전쟁과 의병장

김상기 충남대 국사학과 명예교수





예산지역 의병전쟁과 의병장



김상기



1. 의병의 개념과 예산지역 의병
2. 예산지역 의병전쟁
 - 1) 전기의병기 의병전쟁
 - 2) 중기의병기 의병전쟁
 - (1) 광시에서 의병 봉기
 - (2) 의병 재기
 - 3) 후기의병기 의병전쟁
3. 예산 출신 의병의 활동
4. 예산지역 의병전쟁의 의의

1. 의병의 개념과 예산지역 의병

1894년 일본군이 경복궁을 무력으로 점령한 갑오변란(甲午變亂)과 청일전쟁을 전후하여 일제의 조선에 대한 군사적 위협은 더욱 노골화되어 나타났다. 일련의 사건으로 조선인들은 반침략을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스스로 무장하여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기 위한 의병전쟁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의병에 대해 박은식은 “국가가 위급할 때 즉각 의(義)로써 분기(奮起)하며 조정의 징발령을 기다리지 않고 종군하여 적개(敵愾)하는 민군”이라고 했다. 또한 “의병의 수훈(殊勳)과 고절(高節)이 일월처럼 밝게 빛나며 강상(綱常)을 부식(扶植)하고 영토를 회복하는데 크게 힘입은 바 있다”면서 의병은 우리의 고유한 민족성인 국수(國粹)라고 했다.

의병의 개념을 규정하는 첫째 요건으로 국가의 위기에 ‘의 정신’으로 스스로 일어남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의’는 군주와 신하의 관계는 의리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군신유의(君臣有義)’의 성격이 강하다. 즉, 의병은 임금에 대해 마지막히 충성을 해야 한다는 의리 정신으로 봉기한 충의군의 의미를 갖는다. ‘의’를 ‘정의(正義)’로 보기도 한다. 영국의 신문기자 맥켄지는 저서 『Korea's Fight For Freedom』에서 의병을 ‘Righteous Army’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정의를 위해 일어난 군대’(Army for Justice)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정의를 ‘올바른 도리’하고 한다면 의병은 ‘충’(loyalty) 개념이 포함된 정의의 군대(Righteous Army)라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의병이란 “정의와 충의 정신에 입각하여 외적의 침략에 대항하여 자발적으로 무장항쟁한 민군”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동안 예산지역 의병에 대해서는 전기, 중기의병기의 흥주의병을 중심으로 서술하면서 언급된 바 있다. 그러나 아산 출신을 예산에서 활동한 이력을 들어 포함시킨 경우도 있으며, 후기의병기 예산지역에서 전개된 항일의병전쟁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못했다. 이 글에서는 전기, 중기의병기 예산인들의 의병활동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통감부 경무국에서 편찬한 『폭도에 관한 편책』을 비롯하여 『대한매일신보』와 『황성신문』의 기사를 조사 분석하여 후기의병기 예산지역에서의 의병 활동을 새롭게 밝히고자 한다.

2. 예산지역 의병전쟁

1) 전기의병기 의병전쟁

위정척사 계열의 유생을 비롯한 조선인들은 갑오변란을 민족 존망의 위기로 받아들였다. 더욱이 한반도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일본의 사주를 받는 친일적 개화정권이 일본화를 위한 정책을 펴자 무력투쟁으로 개화정권과 일본세력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이어서 1895년 8월 20일 명성황후가 일제에 의해 시해된 을미사변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일제의 만행에 조선인의 분노는 전국에서 폭발하였다. 을미사변 직후 원수를 갚자는 ‘국수보복(國讐報復)’을 기치로 일어난 항일의병은 1895년 9월 18일 진잠 현감을 역임한 문석봉에 의해 대전 유성에서 시작되었다. 단발령 공포 후 의병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그중에서도 경기도 이천, 강원도 춘천과 강릉, 충청도 제천과 홍성, 경상도 안동과 김천, 진주, 전라도 장성과 나주 등 남한지역을 중심으로 봉기한 특성이 있다. 북한지역에서도 함흥과 해주 등지에서 의병이 있었으나 활발한 편은 아니었다.

전기의병기 예산인들은 1896년 1월 봉기한 홍주의병에 참여하여 투쟁하였다. 1896년 홍주의병은 청양의 안병찬 등 재지유생들과 김복한 등 홍주지역 관료유생들의 연합으로 전개되었다. 김복한은 이설과 홍건을 만나 의병 봉기를 협의하였으며, 이봉학, 이상린, 청양군수 정인희에게 글을 보내 의병에 참여할 것을 권하였다. 안병찬 등은 1896년 1월 12일 청양의 화성에서 열린 향회(鄉會)에서 의병 봉기를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180여 명의 민병을 모집하여 다음 날 안병찬과 채광묵, 이봉학 등이



홍주의병 창의지(광시장터, 예산군 광시면, ©독립기념관)

이 부대를 인솔하여 홍주성에 입성하였다. 1월 17일 홍주성 안에 창의소를 설치하고 김복한을 총수로 추대하였다. 그러나 창의소를 설치한 지 하루 만에 관찰사 이승우가 배반하고 김복한과 이설을 비롯하여 홍건·안병찬·이상린·송병직·임승주 등 총 23명을 구금하였다. 그러나 안창식, 정인희 등은 재기하여 정산일대에서 전투를 감행하는 등 항전하였다.

1896년 홍주의병에 참여한 예산인으로는 박창로와 이봉학이 있다. 이들은 1895년 5월 안창식과 함께 청양의 장곡에서의 거의를 시도하였으며, 1896년 홍주의병에 적극 참여하였다. 박창로는 광시면 은사리 출신으로 안창식과는 외사촌간이다. 1896년 1월 16일 향회에서 모집한 의병대 수백 명을 인솔하고 홍주관아로 들어가 김복한을 창의대장에 추대하였다.

창의소를 차린 후에는 임존산성 수리의 명을 받고 파견되어 활동하였다. 이봉학 역시 광시면 시목리 출신으로, 1896년 1월 15일 이세영 등과 함께 수백 명을

이끌고 홍주성에 들어가 김복한을 의병장에 추대하고 공주절제사로 임명되어 활동하였다.

2) 중기의병기 의병전쟁

(1) 광시에서 의병 봉기

1904년 2월 일제는 러일전쟁을 도발하고 한일의정서를 강요하여 한국에 대한 군사적 지배권을 장악하려 하였다. 이러한 일제의 침략에 항거하여 의병이 재기하였다. 이를 중기의병이라고 한다. 중기의병은 1905년 9월 러일강화조약이 조인될 무렵부터 시작되었다. 그중에 원주의 원용팔, 제천의 정운경의 거의가 주목되는 사례이다.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의병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이 시기 대표적인 의진으로 홍주의병·산남의진·태인의병을 들 수 있다.

이 중에 큰 전투와 희생을 치른 의진으로 홍주의병이 있다. 홍주지역 유생 안병찬과 채광묵, 그리고 예산 출신의 박창로 등은 을사늑약의 소식을 듣고 1906년 초부터 의병봉기를 추진하였다. 이들은 3월 15일 민종식을 의병장으로 추대하고 예산의 광시(光市)에서 대장단을 세우고 천제를 올리며 의병을 봉기하였다. 이때 주요 인물로는 안병찬과 이용규를 비롯하여 이세영, 채광묵, 박창로, 박윤식, 정재호, 이만직, 최상집, 최선재, 이상구 등이 확인된다. 이 중에 박창로가 예산 광시 출신이다. 전기의병기 홍주의병에 참여하였던 그는 광시에서의 의병 봉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 안병찬이 격문을 각지에 발표하였는데, 격문에 호응하여 많은 인사들이 의병에 합류하였다.

홍주의병은 이튿날 홍주로 진격하였다가 홍주부의 반격을 받고 목표를 바꿔

공주부를 공격하기로 하였다. 의병대는 다음 날 새벽에 청양의 합천에서 관군과 일본군의 공격을 받았다. 기습 공격을 받은 의병대는 이 전투에서 패하고 안병찬 등 26명이 체포되어 일본 현병대에 의해 공주로 압송되었다.

합천전투에서 패한 민종식은 각지를 잠행하다가 전주의 친척인 민진석 집에 서 은신하면서 조상수, 이용규, 이세영, 이상구 등과 재기를 준비하였다. 민종식은 1906년 5월 9일 처남인 이용규가 초모한 의병을 중심으로 충청남도 홍산군 지치동(현, 부여군 내산면 지티리)에서 의병을 재봉기하였다. 민종식은 이곳에서 대장에 추대되어 부대를 정비하고 홍산 관아를 점령한 뒤 서천으로 행군하였다. 이어서 비인, 남포, 광천을 지나 5월 20일 홍주성을 점령하였다. 일제 경찰과 현 병대는 몇 차례에 걸쳐 홍주성을 공격했으나 전세가 의병 측에 유리하게 전개되자 통감 이토 히로부미는 주차군 사령관에게 군대파견을 명령하였다. 결국 홍주의병은 일본군의 화력에 밀려 5월 31일 홍주성을 빼앗기고 말았다. 이 전투에서 참모장 채광묵 부자와 운량관 성재평과 전태진, 서기환, 전경호를 비롯하여 300여 명 이상이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군은 계속하여 의병을 체포하였다.



수당 이남규 고택(대술면 상항리, ©독립기념관)

127명이라고 보고한 지 며칠 안 되어 포로의 숫자는 145명으로 보고하였다. 그 중 윤석봉, 유준근 등 78명을 서울로 압송하였으며, 유준근, 이식, 남규진, 신현두, 이상구, 문석환, 신보균, 안항식, 최상집 등 9명은 대마도에 유배되었다. 이들 78명 중에 예산 출신으로는 다음 <표 1>과 같이 금평면의 남경천(南敬天)을 비롯하여 덕산의 이삼규(李三奎), 김영환(金永煥), 김수명(金秀明), 조덕창(趙德昌), 임덕원(林德元), 황치도(黃致道), 고창진(高昌辰), 박여삼(朴汝三), 그리고 대흥의 서치작(徐致爵), 임봉노(林鵬魯) 등 11명이 확인된다. 이들 중에 예산읍 창소리 출신의 남규진(南奎振, 1863~1935, 호: 滄湖)은 홍주의병의 돌격장으로 활동하였다. 홍주성전투에서 체포되어 7월 17일 종신형을 선고받고 대마도에 유폐되어 2년 이상 고초를 겪었다.

<홍주성전투에서 체포된 예산 출신 의병>

연번	성명	나이	거주지	비고
1	서치작(徐致爵)	44	대흥 남면	
2	이삼규(李三奎)	64	덕산 남면	
3	김영환(金永煥)	50	덕산 응치(鷹峙)	
4	남경천(南敬天)	44	예산 금평면(今平面)	종군장, 유배 남규진(南奎振)의 이명
5	김수명(金秀明)	53	덕산 나촌면(羅村面)	집창
6	조덕창(趙德昌)	64	덕산 남면	
7	임봉노(林鵬魯)	21	대흥 남면	
8	임덕원(林德元)	45	덕산 서문외	
9	황치도(黃致道)	34	덕산 양촌(陽村)	취반부(炊飯夫)
10	고창진(高昌辰)	33	덕산 성내	
11	박여삼(朴汝三)	44	대흥 남면	모사

(2) 의병 재기

홍주성전투에서 패한 지휘부는 의병장 민종식과 함께 성을 빠져나왔다. 그중 이용규 등은 1906년 10월 예산 현곡(현 대술면 상항리)에 있는 이남규의 집으로 가서 민종식 등을 만나 재기를 추진하였다. 이때 참석자는

이남규 이충구 부자, 민종식, 이용규, 곽한일, 박윤식, 김덕진, 김운락, 황영수, 정회규, 박창로, 이만식, 이석락, 홍순대 등 수십 명에 달했다. 이들은 11월 20일 예산 관아를 공격하여 활동의 근거지로 삼기로 하고, 민종식을 다시 대장에 추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러나 일진회원의 밀고로 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밀고를 받은 충청남도 관찰사 김가진은 지방병과 순사 40여 명을 파견하였다. 동시에 일본 순사대도 파견되었다.

일본 순사대가 공주에서 출발한 것은 11월 15일 오후 7시였다. 마츠나가(松永) 보좌관보가 보조원 순검을 인솔하고 공주 지부를 출발하여 다음 날 오후 5시에 대홍에 도착하였다. 이곳에서 홍주분견소에서 파견된 이와다(岩田) 보좌관보 일행과 합류하였다. 이들 일본 경찰대와 지방병, 여기에 일진회원이 합세하여 11월 17일 새벽에 이남규 집을 급습하였다. 박창로 등 일부는 탈출하였으나, 이남규 부자를 비롯하여 곽한일, 박윤식, 이용규, 황영수, 정재호 등이 체포되었다. 민종식은 11월 20일 새벽 2시 공주 탑산에서 체포되어 공주부에 잡혀갔다. 1907년 1



홍주성

월 25일 평리원으로 이송되어 재판을 받고 7월 2일 교수형을 선고받았다. 다음 날 내각회의에서 종신 유배형에 처해졌으며, 함께 재판을 받은 곽한일을 비롯하여 이용규, 박윤식, 김덕진, 정재호, 황영수 등도 종신 유배형을 선고받고 전라도 신안군의 지도로 귀양갔다.

일제는 1907년 9월 26일 기마대 1백여 명을 이남규 집에 보내 귀가 조치했던 이남규를 체포하였다. 이남규는 사당에 들어가 조상에게 예를 올리고 가족에게도 영결을 고했다. 그를 서울로 압송해 가던 일본군은 온양의 외암리에서 그에게 단발할 것과 귀순할 것을 강요하였으며, 이를 거부하는 그를 현장에서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의 아들은 부친을 몸으로 막다가 일본군이 휘두르는 칼을 맞고 부친과 함께 숨졌다. 이어 두 종이 맨손으로 덤벼들었다. 그중 김응길은 현장에서 주인을 따라 숨졌다. 또 다른 종인 가수복은 중상을 입고 다행히 목숨을 건져 일제의 만행을 전했다.

3) 후기의병기 의병전쟁

1907년 7월 광무황제(고종)가 강제로 퇴위당하고, 8월 1일 한국군이 강제 해산되자 이에 항거한 군인들과 의병이 서로 연합하여 대대적인 항일전을 벌이게 되었다. 이를 후기의병이라고 한다. 후기의병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문경의 이강년부대, 원주의 이은찬부대, 영천 일대에서 활동한 정환직의 산남의진, 영해의 신돌석부대, 호남의 기삼연·심남일·이석용·전해산·안계홍 부대, 충남의 정주원 부대, 함경도의 홍범도·최덕준 부대 등은 특히 이름난 의병이다. 충청도에서는 이강년, 한봉수, 김상태, 노병대 등이 의병부대를 이끌었다.

후기의병기 예산지역에서의 의병 활동은 1907년 8월 중순부터 나타났다. 8월 19일에 의병 200여 명이 봉기하여 덕산 경무분파소를 습격하여 보좌관 2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9월 20일에는 예산군 금평면 출신의 차치명(車致明, 1873~1956)이 당진 출신의 박우일(朴右一, 朴雨日, 1879~1910, 애국장) 의병장과 온양군 남소면 출신의 임봉래(林奉來), 신창군 서면 구치동 출신의 박성삼(朴成三) 등과 함께 예산군 금평장동(今坪獐洞)의 서성좌(徐聖佐)로부터 군자금 4원을 모집하였다. 10월 3일에는 소속 불명의 의병이 덕산군의 대덕면 면장 이일노 집에 들어가 결전 272냥과 호세전(戶稅錢) 51냥을 받아 갔다. 10월 10일에는 덕산의 구만포에 사는 송태순(宋太順)과 이사주(李思柱) 등이 일본현병보조원을 폭행하고 분파소의 문서를 탈취하고 도주한 일이 있었다. 10월 19일 현병보조원이 순검 3명과 함께 송태순 집을 찾아갔다. 송태순과 의병 10여 명이 밀의를 하고 있던 중에 이들의 공격을 받고 의병 1명이 피살되었다.

한편 광시 출신의 박창로는 홍주성전투에서 탈출하여 안병찬, 이만식, 강재천, 맹달섭 등과 칠갑산 방면으로 들어갔다. 이때 의병의 수는 55명 정도였는데, 1907년 11월 20일 일본군의 습격을 받고 칠갑산 일대에서 항전하였다. 그 후에도 의병 활동을 지속하였는데, 1909년 4월 현재 약 30명 정도를 거느리고 대흥, 청양 일대에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된다.

1908년 1월에는 면천의 북쪽 40리 지점에서 의병 30여 명이 활동하다가 신례원 현병분파소에서 파견된 현병대의 공격을 받고 의병 4명이 죽고 7명이 부상 당했다. 3월 25일에는 덕산면 부근에 의병 50여 명이 일본군 수비대와 2시간에 걸쳐 교전하였다. 6월 20일에도 덕산읍에서 북쪽으로 20리 지점에서 의병 10여 명

이 일본 분견대 병사 8명과 교전하였다. 7월 24일에는 예산 북방 약 30리 지점에서 의병 2명이 예산분견대에서 파견된 상등병 이하 5명의 수비대에 의해 피살되고 1명은 체포되었다. 8월 23일에는 덕산 부근에서 의병 30여 명이 일본군 수비대 특무조장 이하 10명과 교전하였다. 8월 30일에는 의병 30명이 덕산 서북쪽에서 일본수비대와 교전하고 서쪽으로 후퇴하였다. 10월 23일에는 대홍군 신녕시장에 의병 100여 명이 들어가 일진회원 부자를 포살하였다.

1909년에도 예산지역에서의 의병 활동이 이어진다. 그러나 의병의 규모나 세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군과 전면적인 전투행위는 많지 않고 활동을 위한 군자금 모금 행위가 많아지는 추세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을 살해하거나 가옥에 방화하는 등 ‘가의병(假義兵)’의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1월 19일에 의병 약 15명이 대홍군 거변면과 이남면에 출현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대홍주재소에서는 20일 오후 1시에 일본인 순사 2명과 한국인 순사 2명을 한복(韓服)으로 변장시키고 출동시켰다. 의병대는 19일 오후 11시에 일남면 면장 집에 가서 군용금 600냥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면장은 20일 이남면 대계리의 김덕원(金德源) 집으로 가지고 가겠다고 말하고 이를 수비대에 신고하였다. 이에 따라 순사대에서 김덕원 집을 급습하여 그 자리에 있던 의병 박춘삼(朴春三)을 체포하였다. 박춘삼은 52세로 대홍군 거변면 하천리 출신이다. 이어서 순사대의 추격을 받아 같은 마을 출신 33세의 박순삼(朴順三)도 하천리 산속에서 체포되었다. 이때 박순삼은 화승총을 지참하고 있었다. 1월 29일에는 의병 17명이 대홍군 이남면 미곡리에서 자금을 확보하였다.

2월 7일에는 의병 약 19명이 대홍군 거변면 죽천동에서 자금을 확보하였다. 2

월 11일에는 대홍군 거변면 가등동의 비봉산 속에 10여 명의 의병이 모여 있었는데, 예산 주재 순사대와 홍주현병분견대에서 파견한 수색대에 의해 발각되었다. 의병들은 검은색의 한복을 입고 있었으며 7정의 총기를 휴대하고 있었다. 2월 14일에는 의병 17명이 대홍군 일남면 하구례동에 사는 윤상구(尹尙求) 집에 가서 군자금을 요구하였으나, 그가 불응하자 그의 아들 윤명구(尹命九)를 납치하여 갔다. 주재소의 순사들과 현병들이 합세하여 수색함에 의병들이 비봉산에 잠복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공격함에 의병들은 2월 22일 윤명구를 돌려보내고 청양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3월 1일에는 예산군 금평면(今坪面) 하현동(下峴洞) 출신의 의병장 유순조(劉順早, 23세)와 덕산군 장촌면(長村面) 포내리(浦內里)의 정중옥(鄭重玉, 29세)이 예산군 읍내 시장에서 활동 중에 예산주재소 순사대에 의해 체포되었다. 순사대에서는 이들을 취조하여 한총 6정과 칼 3정, 그리고 의병 통문 등을 압수하였다. 이에 의하면 유순조가 의병장이고 그의 수하에 온양 출신의 조광화(趙光華) 외 9명도 있었음이 확인됨에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였다. 3월 19일에는 오전 2시경 의병 약 13명이 대홍군 이남면(二南面) 하동두리(下瀧頭里)에 들



수당 이남규(이문원교수 제공)

어가 동민들에게 군용금 300냥을 요구하였으나 동민들이 빈민으로 이에 응할 수 없다고 하자 다시 오겠다 하고 돌아갔다. 의병대는 추격해 온 순사대와 24일 거번면 고치동 부근에서 교전을 벌였다. 그리고 어두운 밤을 틈타 사자산록(獅子山麓)의 소나무 숲으로 들어갔다. 3월 24일에는 의병 10여 명이 대홍군내에서 대홍주재소 순사대와 교전을 벌였다.

5월 29일에는 이관도(李寬道, 이명 : 李觀道) 의병 약 15명이 대홍군 이남면 소태리의 월출봉(月出峰) 인근 도로에서 주민한테 금품을 받아냈다. 이들 의병대는 추격해 오는 대홍군 주재소 순사대와 월출산 산록에서 교전하였다. 이 전투에서 의병 6명이 부상 당하고 화승총 1정을 빼앗겼다. 이관도 의병대는 다음날인 5월 30일 밤에 대홍군 이남면 고개동에 들어갔다. 이즈음 예산군 돈곶포에서 의병 4명이 일본인 2명을 죽였다는 기사도 보인다.

6월 3일에는 이관도 의병대 약 15명이 양총, 곤봉, 칼 등으로 무장하고 예산군 술곡면(述谷面) 상삼리(上三里) 동장 집에 들어가 군용품을 요구하였으나 소지품이 없다고 하자 후일을 기약하고 돌아갔다. 6월 6일에는 대홍군 거변면 부근에 의병 약 20명이 활동하였다. 이를 탐지한 예산수비대는 소위 이하 35명, 경찰관 6명을 현지에 급파하였으나 의병대는 청양 쪽으로 이동한 뒤였다. 6월 25일에도 이관도 의병 약 20명이 오후 11시경 대홍군 이남면 하동해리(下東海里)에 들어가 주민 이평심(李平心)을 구타하여 살해하고 그의 아들 이백방(李百方, 11세)을 납치하여 데리고 갔다. 대홍주재소에서 이들을 추격하였는데 청양군 남하면 지역에서 의병대한테 도망나온 이백방을 만났다.

의병대는 이백방의 신고를 받은 대홍주재소 순사대의 추격을 받고 청양의 남

하면 미동에서 교전을 벌이고 이방산(裏方山) 속으로 피해 갔다. 의병대는 이 전투에서 의병 1명이 체포되었다.

8월 20일에는 의병 약 7명이 대홍군 거변면 차동의 김기순(金基順) 집에서 군용품을 수합하였다. 의병대는 대홍주재소 순사대의 추격을 받아 청양의 추동을 지나 공주 쪽으로 들어갔다. 9월 23일에는 의병 약 26명이 대홍군 일남면(一南面) 상구례동(上九禮洞)에 들어가 동민들한테 군용품을 받았다.

이 보고에 접한 대홍주재소에서는 순사대와 예산수비대 및 예산현병대를 급파하여 이를 추격하였다. 의병대는 봉황산(鳳凰山) 산록을 이용하여 추격을 피했다. 일제의 정보 보고에 의하면 의병대는 행동이 민활하고 척후병을 설치하고 대오가 엄정한 것이 마치 군대와 같았다고 하였다. 이날 의병대가 동민들로부터 제공받은 것은 술 3말, 식사 26인분, 짚신 2족이었다.

9월 25일에는 오후 4시경 의병 15명이 예산군 술곡면 내술리에 들어와 이장한테 200원과 목면(木棉) 10필, 짚신 40족의 제공을 요구하고 다음 날 밤에 수령하러 오겠다고 하고 갔다.

9월 29일에는 의병 약 39명이 예산군 술곡면에 들어와 동민을 구타하고 가옥에 방화하고 돌아갔다. 이는 내술리에 왔던 의병대가 자신들의 요구를 듣지 않자 저지른 소행이 아닌가 한다. 9월 30일에는 의병 50명이 예산경찰서에 불을 지르고 순사대와 일본현병대와 수 시간 동안 전투를 벌였다.

3. 예산 출신 의병의 활동

1) 이남규 이충구 부자, 그리고 김응길과 가수복

(1) 이남규

이남규(李南珪, 1855~1907)는 충남 예산 출신의 의병장이다. 자는 원팔(元八), 호는 수당(修堂, 또는 汕左)이며, 본관은 한산이니 아계(鵝溪) 이산해(李山海)의 12대손이다. 호직(浩植)과 청송 심씨의 맏아들로 1855년 11월 3일 서울 미동(尾洞)에서 태어나 허전(許傳)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21세 때인 1875년 사마시에 급제하였으며, 1882년 4월의 정시 문과에 응시하여 병과 제2인으로 급제하였다. 고종 21년(1884) 10월에 승문원 부박사·홍문관 교리, 12월에는 선전관, 고종 22년에는 성균관 서학교수·사간원 정언·홍문관 부수찬을 제수받았다. 고종 23년 정월에는 동학교수, 이어서 성균관 교수에 제수되었다. 이곳에서 신채호(申采浩)를 비롯하여 변영만(卞榮晚) 등에게 강학한 것으로 알려진다. 고종 27년(1892)에는 통정대부에 올라 공조참의를, 이어서 동부승지를 제수받았다.

척사계열의 유학자로 1893년부터 위정척사운동을 전개하였다. 고종 28년(1893) 2월 12일 동학교도 박광호(朴光浩) 등이 최제우의 신원을 위해 광화문 앞에서 3일간 복합상소를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때 상소를 올려 동학을 서학과 함께 배척할 것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기독교의 선교를 금하여 우리의 도를 밝힐 것을 주청하였다. 위정척사론의 입장에서 개화정책도 비판하였다. 개화파의 이른바 개화를 ‘왜화(倭化)’로 보았으며, 그로 인해 조선이 일제에게 종속될 것을 경계하였다. 특히 1894년 이후 일제의 조선침략이 노골화되면서 척사의 대상이

‘왜’로 바뀌었으며,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한 대일결전론을 주장하였다.

일제에 의한 갑오변란 이틀 후인 1894년 [음] 6월 23일 상소를 올려 동학군 진압과 일본군의 궁궐 점령 후의 정부의 시책에 대해 비판하였다. 그는 우리가 중국에 구원을 청했던 것이 현명한 계책이 아니었다고 비판하였다. 이어서 “다른 나라 군대가 도성 안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편안히 앉아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라면서 갑옷을 수선하고 병기를 손질하여 일본군의 침략에 대비할 것을 주청하였다. 그리고 일본이 조약문에 ‘자주독립’이라고 명기한 것은 속임수로 이는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명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길을 빌리자는 간교와 같은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이남규는 영홍부사로 있던 때인 1895년에 을미사변의 비보를 접하고 일본에 대한 적대 감정이 고조에 달하였다. 관찰사에게 ‘토적 복수’할 것을 청하였으며, 명성황후의 비보에 이어 내려온 폐후조칙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쳐사라고 항변하면서 “비록 죽더라도 칙령을 따를 수 없다”라며 강하게 주장하였다. 1895년 9월에는 고종에게 상소를 올려 ‘주옥신사(主辱臣死)’의 정신으로 반드시 복수해야 함을 피력하였다. 이어서 “8월 22일에 내리신 칙명을 빨리 거두시고 왕후의 위호를 전대로 회복할 것”과 범인을 체포하여 극형에 처할 것, 그리고 일본군을 물리칠 것을 주청하였다. 그리고 폐후조칙을 거두고 칙명을 받든 모든 대신을 죄로 다스릴 것을 주청하였다. 그러나 이 상소는 내부에 의해 등철되지 않았다. 그러자 결국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못할 것을 탄식하면서 관직을 버리고 낙향하였다. 이러한 그의 상소는 의병봉기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 의병의 이념을 제공하기에 충분하였다.

낙향해 있던 그에게 조정에서는 1896년 3월 4일 안동관찰사의 직을 제수하였

다. 김도화 등이 일으킨 안동의병에 의해 안동부 관아가 점거되고, 달아나던 안동관찰사 김석중이 문경에서 이강년 의병한테 참형에 처해진 상황에서 그를 후임 관찰사로 임명한 것이다. 여기에는 그에게 안동의병을 진압하고 주민을 위무해달라는 개화정권의 주문이 숨어 있었다. 그는 조정의 명을 거역하지 못하고 임지를 향해 떠났다. 그러나 상주를 지나 안동 경계지점에서 서상렬 부대에 의해 안동부 진입을 금지당했다. 제천의병의 소모장 서상렬은 김도화가 거느리는 안동의병과 연합하여 3월 26일부터 3일간에 걸쳐 상주의 태봉에서 일본군과의 전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3월 29일 일본군에 의해 의병이 패퇴하여 안동부 일대가 일본군에 의해 장악되고 말았다. 일본군은 4월 2일 안동에 들어와 민가 1천여호를 불지르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남규는 이러한 일본군의 만행을 목도하고 상소를 올려 일본군의 만행을 규탄하였으며, 의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관찰사를 사직하는 상소를 올리고 예산으로 귀향하였다. 이후에도 조정에서는 그에게 여러 관직을 제수하였으나 일체 관직에 나가지 않았다.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다. 이때 그는 병중이었으나, 생애 마지막의 상소를 올렸다. 여기에서 그는 일본을 우리의 ‘대대의 원수’라고 분명히 규정하였다. 이어서 “그 피맺힌 원한과 사무친 원수를 어찌 잠시라도 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일본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다. 그리고 “박제순 무리의 매국의 죄를 다루시고, 원수의 나라가 맹약을 어긴 죄를 다루시어 동맹 각국에 포고하고 군신상하가 일대 결전을 벌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일본과의 결전을 건의하였다.

한편 충남 서부지역의 유생들은 을사늑약의 소식을 듣고 적극적인 의병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정산에 거주하고 있는 전참판 민종식을 총수로 추대하고,

1906년 3월 15일 예산군의 광시장터에서 봉기의 첫 깃발을 들었다. 이튿날 홍주성 공격을 감행하였으나, 관군의 저항에 오히려 대장소 마저 위태롭게 되어 광시장터로 회군하였다. 합천전투에서 패하고 안병찬을 비롯한 23명이 체포되어 공주감옥에 갇혔다. 이남규는 이때부터 홍주의병에 참여하였다. 예산의 본가에서 은거하고 있던 이남규는 우선 안병찬의 구명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직산군수겸 공주군의 검관 곽찬에게 공주감옥에 구금되어 있는 안병찬의 구명을 위한 간절한 서신을 보냈다. 그는 이 편지에서 안병찬이 을미의병에 참여한 후 감옥에서 자결을 기도하기까지 했던 의리있는 선비임을 주지시켰으며, 그를 죽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며 그것은 수치라고 하였다. 이남규의 노력으로 안병찬은 석방되어 민종식 의진의 참모사로서 다시 종군할 수 있었다. 의병장 민종식은 처남인 이용규와 함께 1906년 5월 9일 부여군 내산면 지티리에서 의병을 다시 일으켰다. 민종식은 부대를 정비하고 홍산을 점령한 뒤 서천·비인·광천을 거쳐 결성으로 진군하여 하루를 지내고 5월 20일 홍주성을 점령하였다. 이때 이남규는 선봉장의 직임을 맡았다. 그러나 5월 31일 새벽, 통감 이토의 명령으로 파견된 일본군의 대공격을 받은 의병대는 결사 항전했지만 다수의 희생자를 내고 홍주성을 빼앗기고 말았다. 이 전투에서 사망자가 300여 명, 체포된 이가 145명이며 그중에 중죄인으로 취급된 유준근 등 78명이 서울로 압송되었다. 이남규는 예산에서 의병 재봉기를 준비하였다. 1906년 10월 그의 집에 이용규를 비롯하여 곽한일·박윤식·김덕진·이석락 등이 집결하였다. 이들은 예산관아를 공격하여 활동의 근거지로 삼기로 결정하고 공격 일을 11월 20일로 정하였다. 그리고 민종식을 아산으로 은신시켜 놓고 예산 공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일진회원의 밀고

로 1906년 11월 17일 새벽에 일본현병 10여 명과 지방병 40여 명, 그리고 일진회원 수십 명의 습격을 당하여 꽈한일·박윤식 등이 체포되었다. 이남규·이충구 부자도 함께 체포되어 공주감옥에서 온갖 악형을 당하였다.

이로써 이남규·이용규 등이 계획한 예산에서의 재기는 좌절되고 말았다. 일제는 이와 같은 의병의 재기 움직임에 불안을 느끼자 1907년 9월 26일 일본기마대 100여 명을 보내 예산의 이남규 집을 급습하였다. 이남규는 사당에 들어가 조상에게 예를 올리고 가족에게도 영결을 고했다. 일제 현병이 그를 포박하려 하자 그는 “선비는 죽일 수는 있어도 욕보일 수는 없다”라고 굴하지 않고 가마에 올라 집을 나섰다. 그를 서울로 압송해 가던 일본군은 그에게 단발할 것과 귀순할 것을 강요하였으며, 이를 강하게 거부하는 이남규를 온양의 외암리에서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의 장자 충구는 일제 현병이 휘두르는 칼을 몸으로 막다가 부친과 함께 숨졌다. 이어 두 종이 맨손으로 덤벼들다가 그중 김응길은 현장에서 주인을 따라 일제 현병에 의해 숨졌다. 또 다른 종인 가수복은 이남규를 방어하다가 중상을 입고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그의 증언으로 이남규의 피살 소식이 당시 신문 중에서는 대표적인 항일민족지였던 《대한매일신보》에 게재되어 민족적 분개심이 고취되었다. 이남규 부자의 순국 사실은 순식간에 전국에 알려졌다. 그 결과 전라도에서 은거하고 있던 황현이 「매천야록」에 그 사실을 자세히 기록하였으며, 조희제 역시 「염재야록」에서 이남규의 순국 사실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2) 이충구

이충구(李忠求, 1874~1907)는 예산군 대술명 상항리 출신의 의병이다. 그는 1874년 서울 낙동(현, 회현동)에서 이남규의 큰 아들로 태어났다. 자는 응부(凝夫), 호는 유재(唯齋), 본관은 한산이다. 1892년 사마시에 합격하고 이명익(李明翊)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905년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충남 서부지역의 유생들은 의병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정산에 거주하고 있는 전참판 민종식을 총수로 추대하고, 1906년 3월 15일 예산군의 광시장터에서 봉기의 첫 깃발을 들었다. 의병대는 홍주성 공격을 감행하였으나, 관군의 저항에 합천 지역으로 후퇴하였으나 안병찬을 비롯한 주요 의병들이 체포되었다. 의병장 민종식은 처남인 이용규와 함께 1906년 5월 9일 부여군 내산면 지티리에서 의병을 다시 일으켰다. 이때 그의 부친인 이남규는 선봉장의 직임을 맡았다. 그러나 5월 31일 새벽, 통감 이토의 명령으로 파견된 일본군의 대공격이 있었다. 의병은 결사 항전했지만 다수의 희생자를 내고 홍주성을 빼앗기고 말았다. 체포를 면한 이남규는 자신의 집에서 의병 재봉기를 준비하였다. 그러나 일진회원의 밀고로 1906년 11월 17일 새벽에 습격을 당하여 전원 체포되었다. 의병의 재기에 참여한 이충구도 부친인 이남규와 함께 체포되어 공주감옥에서 온갖 악형을 당하였다. 일제는 의병의 재기 움직임에 불안을 느끼고 1907년 9월 26일 일본기마대 1백여 명을 보내 예산의 이충구 집을 급습하였다. 이충구의 부친인 이남규를 다시 체포하러 온 것이다. 이충구는 부친의 안위가 걱정되어 수행하였다. 이들을 서울로 압송해 가던 일본군은 이남규에게 단발할 것과 귀순할 것을 강요하였으며, 이를 강하게 거부하는 이남규를 온양의 외암리에서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때 이

충구는 일제 현병이 휘두르는 칼을 몸으로 막다가 부친과 함께 숨졌다.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3) 김응길

김응길(金應吉, 1867~1907)은 충남 예산군 대술 출신으로 홍주의진의 선봉장 이남규(李南珪)의 종으로 그를 지키다가 희생되었다. 홍주의진은 1906년 3월 15일 창의하여 홍주성을 점령하고 기세를 올렸으나 5월 31일 일본군의 공격으로 성을 빼앗기고 수백 명이 희생되었다. 이남규는 예산 자신의 집에서 이용규 등 동지들과 재기를 도모하였으나 일진회원의 밀고로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의병 재기의 불안을 느낀 일제는 1907년 9월 기마대를 보내 이남규를 체포하여 서울로 압송하다가 아산 외암리에서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는 같은 종인 가수복과 함께 상전인 이남규를 죽이려는 일본 병에게 가마의 봉으로 대항하다가 칼에 찔려 사망하였다. 2008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4) 가수복

가수복(賈壽福, 1866~미상)은 충남 예산군 대술 출신으로 수당 이남규의 종이다. 집에서는 ‘수복(壽福)’으로 불렸으나 제적부에는 수학(壽鶴)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남규는 1906년 홍주의병에 선봉장으로 참전하였다. 홍주의병은 홍주성전투에서 일본군에 의해 많은 희생을 치렀으나, 잔여 의병들이 이남규의 집에서 재기를 준비하였다. 그러나 밀고를 받은 일본 현병대와 공주부 관군에 의해 이남규 등이 체포되었다. 이남규는 풀려난 뒤 1907년 9월 일본군에 의해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던 중 아산의 외암 마을에서 일본군에 피살되었다. 이때 가마를 메고

가던 가수복은 이에 항거하였으나 일본군의 칼을 맞고 쓰러졌다. 다행히 가수복은 다음날 깨어나 일제의 만행을 증언할 수 있었다. 그는 그날 있었던 참변을 다음과 같이 전해 주었다.

병정들이 고의로 느릿느릿하게 걸어서 날이 저문 뒤에야 평촌 앞길, 인적이 없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통역관이 주인 어른께, “공은 평소에 일본을 원수로 대해 왔으니 앞으로 의병장(義兵將)이 되겠소이다. 만약 머리를 깍고 귀순한다면 살려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될 뿐이외다.”라고 지껄였습니다. 이에 공께서는 “의거(義舉)는 참으로 기다리고 있던 참인데 그럼 죽으면 죽었지 내 뜻을 굽힐 수는 없는 일이다.”라면서 매도하기를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왜적은 칼날을 함부로 휘둘렀습니다. 공의 아드님과 우리 두 소인네는 황급히 몸으로 막았지만, 팔은 비틀리고, 앞으로 몇 발자국 나가서 칼로 난도질을 당했사오며, 그러고는 이내 움직임이 없이 잠잠했습니다. 아드님께서 공을 대신하여 죽기를 애원하자 역시 모진 칼끝을 받으셨습니다(이승복, 「가장(家狀)」)

이남규의 손자 이승복은 이에 대하여

이때 다만 두 종이 견여(肩輿)를 메고 따라갔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은 함께 해를 입고 말았으나 한 사람은 마침 칼을 맞고도 목숨이 끊어지지 않고 살아남아서 나중에 당시의 일을 대강 다음과 같이 말해 주었다(이승복, 「가장(家狀)」).

라고 종 한 명이 살아남아서 당시의 일을 말해주었다고 하였다. 이남규의 문인인

이장직(李章植) 역시

공이 돌아가실 당시에 마침 공의 종 한 사람이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당시의 정황에 대해 조금이나마 얘기해주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공은 여전히 조용하여 급박함이 없었으며, 성급하게 외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이장직, 「족종 장직의 제문」).

라고 종 한 명이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이남규의 마지막 모습을 알려주었다고 하였다. 이때 다시 살아난 종이 바로 가수복이다. 가수복의 피살 사실은 『3.1 운동시 피살자명부』에도

순국자 주소 성명: 예산군 대술면 방산리, 가수복(賈壽福)(42),

순국당시 연령: 42

순국일시: 4240.8.19.,

순국장소: 아산군 송악면 ?촌리,

순국상황: 일 현병에게 역살(力殺)

인정자 주소 성명: 예산군 대술면 상항리 이승복(李昇馥)

라고 이남규, 이충구, 유응길(김응길)과 함께 1907년 8월 19일 아산군 송악면에 서 일제 현병에게 피살되었다고 이승복이 보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가수복은 일본도에 12군데나 찔리는 중상을 입었으며, 상처가 심하여 몇 년 지나 사망했다 한다. 그를 염습한 윤대성은 12군데의 상처 가운데 한 곳은 내장이

외부에 노출된 채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2) 남규진

남규진(南奎振, 1863~?)은 예산군 창소리 출신이다. 자는 경천(敬天), 호는 창호(滄湖), 본관은 의령이다. 남계원(南啓元)이라고도 한다. 을사조약이 늑결되자, 1906년 [음] 2월 꽈한일과 함께 면암 최익현을 뵙고 지도해 줄 것을 청하였다. 면암의 지시에 따라 꽈한일과 함께 의병을 일으키기로 하였다. 면암은 도장을 주어 군중에게 명령할 때 쓰는 병부로 삼게 해 주었다. 또 격문과 '존양토복(尊攘討復)'이라고 쓴 기호(旗號)를 주어 거사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꽈한일과 함께 예산 일대에서 400여 명의 의병을 모아 해미성(海美城)을 점거하려다가 전 참판인 민종식 의진이 홍주성(洪州城)에서 일본군에게 포위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홍주로 진군하여 5월 29일 홍주성에 들어가 홍주의병에 합세하였다. 민종식은 5월에 홍산 지치(支峙)에서 재기하여 남포를 지나 5월 20일 홍주성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서울에서 파견된 일본군이 홍주 일대에 집결하자 민종식은 위기에 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때에 남규진이 이끌고 온 의병대의 합세는 큰 힘이 되기에 충분하였다. 이때 안병림(安炳琳)과 함께 돌격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5월 31일 일본군의 대공세로 홍주성이 함락되고 수백 명의 의병이 희생되었다. 이 날의 홍주성전투에서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었다가 문석환, 유준근, 이식, 신현두, 이상두, 신보균, 최상집, 안항식 등과 함께 대마도(對馬島)의 이즈하라(嚴原)에 유배되었다. 8월 7일 부산으로 이동하여 다음 날 배편으로 이즈하라에 도착하여 감금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은 8월 27일 태인의병장 최익현과 임병찬이 유배

되어 왔다. 최익현은 도착하자마자 단식투쟁에 몰입함에 그를 비롯한 홍주 9의 사도 이에 동참하여 단식으로 저항하였다. 그는 스승이 유배되자 다음의 시를 지어 애통한 마음을 읊었다.

하늘도 무심하다. 임이 여기 오시다니
만리라 한 바다에 뜻 하나 아득아득
가을 바람 목 메이는 나그네 눈물
석양의 매미소리 차마들으리

유배 중 안질로 눈이 흐려 안보이는 청흔(靑昏) 중세로 고생하였다. 팔순 노모가 집에 있고 아이들도 아직 어리고 집안 형편이 가난하여 핫병을 얻은 때문이라고 하였다. 1907년 1월 1일 최익현이 유배지에서 사망하자 유배소에 임시로 호상소를 설치하고 임병찬이 집례를 맡아 장례를 준비하였는데, 그는 신보균(申輔均)과 함께 집사(執事)를 맡아 일을 처리하였다. 처음에 무기형을 선고받았으나 감형되어 1908년 10월 8일 문석환, 신현두, 최상집과 함께 풀려났다. 1912년 임병찬이 조직한 독립의군부의 예산군 대표로 활동하였다. 2021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3) 박창로

박창로(朴昌魯, 1846~1918)는 충남 예산군 광시면 은사리 출신이다. 1896년과 1906년 2차에 걸쳐 일어난 홍주의병에 참여하였다. 1895년 [음] 11월 28일 화성에서 안병찬 등과 향회를 실시하여 180여 명의 민병을 모집하고, 1월 16일

사민 수백 명을 인솔하고 홍주성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김복한을 총수로 추대하고 홍주의병을 봉기하였다. 그러나 창의소를 차린 지 하루만인 1월 18일 관찰사 이승우가 배반하고 김복한 등 23명을 구금시킴에 의병이 와해되었다.

1906년 3월에 재기한 홍주의병에 다시 참여하였다. 민종식을 대장에 추대하고 1906년 3월 15일 예산의 광시장터에서 봉기의 첫 깃발을 들었다. 홍주성을 공격하였으나 관군의 저항에 후퇴하였다. 다음날 의진은 광시장터에 집결하여 공주를 공격하기로 하고 화성의 합천일대에 진을 쳤다. 그러나 3월 17일 오전 5시 의진은 일본군과 관군의 공격을 받았다. 이때 안병찬을 비롯한 20여 명과 함께 체포되어 공주감옥에 구금되었다. 풀려난 뒤 민종식이 이용규가 초모한 의병을 중심으로 하여 부여 홍산의 지티에서 재기한 의병에 안병찬, 이식 등과 함께 참모사로 선임되어 참여하였다. 5월 30일 벌어진 홍주성전투에서 일본군에 의해 패퇴한 뒤 김덕진, 이용규, 황영수 등과 함께 이남규의 집에서 재기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일진회원의 밀고로 11월 17일 새벽에 일제 헌병과 지방병의 포위 습격을 당하여 이남규 등이 체포되었고 뒤이어 민종식도 체포되었다. 체포를 피한 그는 안병찬, 이만식, 강재천, 맹달섭 등과 칠갑산 방면으로 들어갔다. 이때 의병의 수는 55명 정도였는데, 11월 20일 일본군의 습격을 받고 항전하였다. 그후에도 의병 활동을 지속하였는데, 1909년 4월 현재 약 30명 정도를 거느리고 대홍, 청양 일대에서 활동한 것으로 통감부 경무국에 의해 파악되고 있었다. 1910년 경술국치 후 향리에서 은거하였다.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1986년 건국포장)이 추서되었다.

4) 이봉학

이봉학(李鳳學, 1858~1924)은 충남 예산군 광시면 시목리(矢目里) 출신이다. 이명은 이상학(李常學), 본관은 함평이다. 1895년 개화정권의 이른바 변복령을 비롯한 일련의 개화정책에 반대하였다. 1895년 10월 을미사변을 당한 이후 안창식을 비롯한 박창로, 이세영, 정제기, 송병직, 조병고, 김정하 등과 더불어 거의 계획을 추진하였다. [음] 11월 중순 김복한을 만나 “동모자가 이미 수백 명에 달했으니 따라서 격동해 일으키면 수천 명을 얻을 수 있다.”라면서 의병 봉기를 협의하였다. 김복한의 지시에 따라 그가 준 편지를 청양군수에게 전달하였다. 안병찬 등과 함께 항회를 개최하고 의병을 모아 1896년 1월 17일 홍주성에 입성하여 김복한을 의병 대장에 추대하였다. 의병의 기세에 눌려 관찰사 이승우도 의병에 합류하였다. 그는 이세영, 이병승과 함께 ‘공주절제사’의 직을 받고 의병을 소모하는 등 김복한의 활동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관찰사 이승우가 창의한 지 하루 만에 변심하여 김복한 등을 체포함에 의진은 와해되었다. 1905년 을사늑약에 항의하여 의병 동지인 이상린, 이식, 그리고 전덕원 등과 유약소를 조직하고 대궐 문밖에서 체결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2008년 건국포장이 추서되었다.

5) 김재정

김재정(金在貞, 1861~1940)은 예산의 광시면 신흥리 출신이다. 본관은 김녕, 이명은 김재완(金在琬)이다. 1906년 홍주의병에 가담하여 활약하였다 한다. 일제강점기 재야에서 은둔하던 중 1917년 광복회 충청도 지부에 가입하여 지부장인 아들 김한종을 도와 군자금 모금 활동을 지원하였다. 1918년 1월 도고면장을

처단한 사건에 연루되어 붙잡혔으며, 1918년 10월 19일 공주지방법원에서 면소처분을 받고 출옥하였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6) 윤자형

윤자형(尹滋亨, 1868~1939)은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원천리 출신이다. 자는 내경(來卿), 이명으로 윤자신(尹滋信), 윤태신(尹泰伸)이 있다. 본관은 파평이다. 1891년 무과에 급제한 뒤 선전관을 지냈다. 1908년 7월 광무황제(光武皇帝)는 각지의 신망있는 인물들에게 은밀히 조칙(詔勅)을 내려 의병장으로 임명, 항일 의병투쟁을 고무시켰다. 이때 그는 호남삼도육군대도독(湖南三道陸軍大都督)으로 임명되어 지리산을 중심으로 의병 항전을 벌였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 1914년에는 국권회복운동을 위하여 유생들을 규합하고 이관구(李觀求)가 국내와 간도의 독립운동단체와 제휴해 조선총독 암살계획을 추진할 때 중국 동북지역에서 박은식(朴殷植)·이시영(李始榮)·신채호(申采浩)·허성산(許聖山)·한진교(韓鎮教) 등과 함께 비밀리에 연계, 지원활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1923년에는 원각교(圓覺教)를 창시, 교주가 되어 단군의 흥익인간정신과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활동을 하였으며, 1936년에는 다시 삼황교(三皇敎)를 창시하고 종지(宗旨)를 제정하여 포교활동을 벌였다.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7) 차치명

차치명(車致明, 1873~1956)은 예산군 금평면(현, 예산군 임성면 궁평리) 출신

이다. 1907년 일제는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이어서 한국 군대도 강제로 해산시켰다. 이에 항의하여 전국적으로 의병이 봉기하여 대일항전을 전개하였다. 그 역시 이즈음 의병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1907년 9월 20일에는 당진 출신의 박우일(朴右一, 朴雨日, 1879~1910, 애국장) 의병장 이하 온양군 남소면 출신의 임봉래(林奉來, 1861년생), 신창군 서면 구치동 출신의 박성삼(朴成三, 1878년생) 등과 함께 예산군 금평장동(今坪獐洞)의 서성좌(徐聖佐)로부터 군자금 4원을 모집하였으며 면천군(泗川郡) 비방면(菲芳面) 신리(新里)에 살던 서광숙(徐光淑)으로부터 다시 4원을 모집하고 화승총 1정을 확보하면서 활동하였다. 1909년 체포되어 3월 22일 공주지방재판소에서 이른바 강도죄로 징역 7년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8) 박춘삼과 박순삼

박춘삼(朴春三, 1858~미상)과 박순삼(朴順三, 1877~미상)은 대홍군 거변면 하천리(下泉里) 출신이다. 이들은 1909년 1월 19일에 의병 약 15명과 함께 대홍군 거변면 일대에서 의병 활동을 전개하였다. 의병대는 19일 오후 11시에 일남면 면장 집에 가서 군용금 600냥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면장은 20일 이남면 대계리의 김덕원(金德源) 집으로 가지고 가겠다고 말하고 이를 수비대에 신고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대홍주재소에서는 20일 오후 1시에 일본인 순사 2명과 한국인 순사 2명을 한복(韓服)으로 변장시키고 출동시켰다. 순사대에서 김덕원 집을 급습하여 그 자리에 있던 의병 박춘삼이 체포되었다. 이어서 순사대의 추격을 받아 같은 마을 출신 33세의 박순삼도 하천리 산속에서 체포되었다. 이때 박순삼

은 화승총을 지참하고 있었다.

9) 유순조와 정중옥

유순조(劉順早, 1877~미상)는 예산군 금평면(今坪面) 하현동(下峴洞) 출신의 의병장이다. 정중옥(鄭重玉, 1881~미상)은 덕산군 장촌면(長村面) 포내리(浦內里) 출신이다. 1909년 3월 1일 유순조와 정중옥이 예산군 읍내 시장에서 활동 중에 예산주재소 순사대에 의해 체포되었다. 순사대에서는 이들을 취조하여 화승총 6정과 칼 3정, 그리고 의병 통문 등을 압수하였다. 이에 의하면 류순조가 의병장이고 그의 수하에 정중옥을 비롯하여 온양 출신의 조광화(趙光華) 외 9명도 있었음이 확인됨에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였다.

10) 송태순과 이사주

송태순(宋太順)과 이사주(李思柱)는 덕산군 구만포 출신으로 1907년 10월 10일 덕산에서 의병대와 함께 일본현병보조원을 폭행하고 분파소의 문서를 탈취하였다. 10월 19일 예산의 현병보조원이 순검 3명과 함께 송태순 집을 찾아갔다. 송태순은 의병 10여 명과 밀의를 하고 있던 중에 이들의 공격을 받고 항전했으나 이 전투에서 의병 1명이 피살되었다.

11) 서치작, 임봉노, 박여삼

서치작(徐致爵, 1863~미상), 임봉노(林鵬魯, 1886~미상), 박여삼(朴汝三, 1863~미상)은 대홍군 남면 출신으로 1906년 봉기한 홍주의병에 참여하였다.

1906년 3월 15일 민종식을 대장에 추대하고 예산의 광시장터에서 천제를 지내고 봉기의 첫 깃발을 들었다. 3월 17일의 합천전투에서 패한 뒤 홍산의 지치에서 재기하여 5월 20일 홍주성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5월 31일 일본군의 공격에 항전하였으나 성이 함락되고 체포되었다. 서울로 끌려가 일본군 사령부에서 심문을 받고 그해 7월에 석방되었다. 이들 중에 박여삼은 ‘모사’로 참여하였다.

12) 이삼규, 조덕창

이삼규(李三奎, 1843~미상)와 조덕창(趙德昌, 1843~미상)은 덕산군 남면 출신으로 1906년 봉기한 홍주의병에 참여하였다. 1906년 3월 15일 민종식을 대장에 추대하고 예산의 광시장터에서 천제를 지내고 봉기의 첫 깃발을 들었다. 3월 17일의 합천전투에서 패한 뒤 홍산의 지치에서 재기하여 5월 20일 홍주성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5월 31일 일본군의 공격에 항전하였으나 성이 함락되고 체포되었다. 서울로 끌려가 일본군 사령부에서 심문을 받고 같은 해 7월에 석방되었다.

13) 김수명

김수명(金秀明, 1852~미상)은 덕산군 나촌면(羅村面) 출신으로 1906년 봉기한 홍주의병에 ‘집창’으로 참여하였다. 1906년 3월 15일 민종식을 대장에 추대하고 예산의 광시장터에서 천제를 지내고 봉기의 첫 깃발을 들었다. 3월 17일 합천전투에서 패한 뒤 홍산의 지치에서 재기하여 5월 20일 홍주성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5월 31일 일본군의 공격에 항전하였으나 성이 함락되고 체포되었다. 서울로 끌려가 일본군 사령부에서 심문을 받고 같은 해 7월에 석방되었다.

14) 임덕원

임덕원(林德元, 1862~미상)은 덕산군 서문 밖 출신으로 1906년 봉기한 홍주의병에 참여하였다. 1906년 3월 15일 민종식을 대장에 추대하고 예산의 광시장터에서 천제를 지내고 봉기의 첫 깃발을 들었다. 3월 17일의 합천전투에서 패한 뒤 홍산의 지치에서 재기하여 5월 20일 홍주성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5월 31일 일본군의 공격에 항전하였으나 성이 함락되고 체포되었다. 서울로 끌려가 일본군 사령부에서 심문을 받고 같은 해 7월에 석방되었다.

15) 황치도

황치도(黃致道, 1873~미상)는 덕산군 양촌 출신으로 1906년 봉기한 홍주의병에 취반부(炊飯夫)로 참여하였다. 1906년 3월 15일 민종식을 대장에 추대하고 예산의 광시장터에서 천제를 지내고 봉기의 첫 깃발을 들었다. 3월 17일의 합천전투에서 패한 뒤 홍산의 지치에서 재기하여 5월 20일 홍주성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5월 31일 일본군의 공격에 항전하였으나 성이 함락되고 체포되었다. 서울로 끌려가 일본군 사령부에서 심문을 받고 같은 해 7월에 석방되었다.

16) 고창진

고창진(高昌辰, 1874~미상)은 덕산 성내 출신으로 1906년 봉기한 홍주의병에 참여하였다. 1906년 3월 15일 민종식을 대장에 추대하고 예산의 광시장터에서 천제를 지내고 봉기의 첫 깃발을 들었다. 3월 17일의 합천전투에서 패한 뒤 홍산의 지치에서 재기하여 5월 20일 홍주성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5월 31일 일본군

의 공격에 항전하였으나 성이 함락되고 체포되었다. 서울로 끌려가 일본군 사령부에서 심문을 받고 같은 해 7월에 석방되었다.

17) 김영환

김영환(金永煥, 1857~미상)은 덕산 응치(鷹峙) 출신으로 1906년 봉기한 홍주의병에 참여하였다. 1906년 3월 15일 민종식을 대장에 추대하고 예산의 광시장터에서 천제를 지내고 봉기의 첫 깃발을 들었다. 3월 17일의 합천전투에서 패한 뒤 홍산의 지치에서 재기하여 5월 20일 홍주성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5월 31일 일본군의 공격에 항전하였으나 성이 함락되고 체포되었다. 서울로 끌려가 일본군 사령부에서 심문을 받고 같은 해 7월에 석방되었다.

4. 예산지역 의병전쟁의 의의

예산지역 의병은 전기부터 후기까지 전 시기에 걸쳐 전개되었다. 1896년 홍주의병에 참여한 예산인으로는 박창로와 이봉학이 있다. 이들은 1895년 5월 안창식과 함께 청양의 장곡에서의 거의를 시도하였으며, 1896년 홍주의병에 적극 참여하였다. 박창로는 광시면 은사리 출신으로 1896년 1월 16일 향회에서 모집한 의병대 수백 명을 인솔하고 홍주관아로 들어가 김복한을 창의대장에 추대하였다. 창의소를 차린 후에는 임존산성 수리의 명을 받고 파견되어 활동하였다. 이봉학 역시 광시면 시목리 출신으로 1896년 1월 15일 이세영 등과 함께 수백 명

을 이끌고 홍주성에 들어가 김복한을 의병장에 추대하고 공주절제사로 임명되어 활동하였다.

을사늑약에 항거하여 일어난 홍주의병은 1906년 3월 15일 예산의 광시에서 민종식을 의병장에 추대하고 광시에 대장단을 세우고 천제를 올리고 의병을 봉기하였다. 이때 참여한 주요 인물 중 예산 출신으로는 광시 출신의 박창로와 창소리 출신의 남규진 등이 있다. 박창로는 합천전투에서 체포되었다가 다시 의병에 참여하였으며, 남규진은 돌격장으로 활동하였다.

후기의병기에도 예산인들의 의병투쟁은 지속되었다. 1907년 8월 19일에 의병 200여 명이 덕산 경무분파소를 습격하여 보좌관 2명에게 중상을 입혔으며, 1909년 9월 30일에는 의병 50명이 예산경찰서에 불을 지르고 순사대와 일본현병대와 수 시간 동안 전투를 벌이는 등 투쟁적인 항전을 전개하였다. 이외에 지방 부호들한테 또는 시장에서 군자금을 모금하는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의병들의 활동에 예산현병대와 홍주현병분견대, 예산 일본수비대, 그리고 대홍주재소와 예산주재소에서 현병대와 수비대, 순사대들을 파견하여 의병을 탄압하였다. 이 시기 의병들은 비봉산, 월록산, 사자산록, 이방산(裏方山), 봉황산(鳳凰山) 등 지역의 산록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활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산 출신의 대표적인 의병으로는 이남규, 이충구 부자가 있다. 1906년 홍주의병 선봉장으로 참여하고 홍주성전투 후 이용규를 비롯하여 아들 이충구 등과 함께 예산재기를 주도하였다. 이 일로 1907년 9월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어 가던 중 아들 이충구와 함께 일본현병대에 의해 학살되었다. 이때 그를 시종하던 김응길과 가수복도 해를 당했는데, 그중 김응길은 현장에서 살해되었다. 창소리

출신의 남규진은 광한일과 함께 예산 일대에서 의병을 모아 홍주의병에 참여하여 홍주성전투를 수행하였다. 이 전투에서 체포되어 대마도에 유배되어 고초를 겪었다. 박창로는 1896년과 1906년, 1907년 이후의 의병의 전시기에 걸쳐 의병 활동을 전개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1906년 합천전투에서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적도 있으나, 풀려난 후에도 1910년까지 대홍, 청양 일대에서 일본군과의 항전을 전개하였다. 이봉학은 전기의병기 홍주의병에 참여하였으며, 1905년 을사늑약 체결을 반대하는 상소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 외에도 홍주성전투에 체포된 예산인으로 덕산의 이삼규, 김영환, 김수명, 조덕창, 임덕원, 황치도, 고창진, 박여삼, 그리고 대홍의 서치작, 임봉노 등 11명이 확인된다. 그리고 후기의병기에 활동한 예산 출신 의병으로는 윤자형, 차치명, 박춘삼, 박순삼, 유순조, 정중옥, 송태순, 이사주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예산인들은 1896년 전기의병기부터 1910년 나라가 망할 때까지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무장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특히 1906년 3월의 홍주의병 봉기지는 예산의 광시임이 주목된다. 이 시기 남규진이 예산 일대에서 400여 명의 의병을 모집한 점에서 볼 때 1906년 홍주의병에 예산인들이 대거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예산인들은 1907년 이후에도 비봉산이나 봉황산 등을 근거지로 하여 덕산 경무분파소를 습격하거나 예산경찰서에 불을 지르는 등 치열하게 활동하였다. 이러한 예산인의 의병투쟁과 그 정신이 1910년 국망 이후에 독립의군부와 광복회 활동, 그리고 3.1운동 등 항일투쟁으로 이어져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원동력이 된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크다.

〈참고문헌〉

-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자료』13, 197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편, 『한말의병자료』4, 5, 2002.
문석환, 『마도일기』,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6.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수당집』3, 1999.
유준근, 『마도일기』, 『독립운동사자료집』3, 1972.
임한주, 『홍양기사』
최익현, 『면암집』
통감부 경무국, 『폭도에 관한 편책』, 1910. 4.

김상기, 『호서유림의 사상과 민족운동』, 지식산업사, 2016.
_____, 『한말 홍주의병』, 홍성군, 2020.

_____, 「1895~1896년 홍주의병의 사상적 연원과 전개」, 『윤병석교수화갑기념한국근대사논총』, 1990.
_____, 「수당 이남규의 학문과 홍주의병투쟁」, 『조선시대의 사회와 사상』, 조선사회연구회, 1998.
_____, 「1906년 홍주의병의 홍주성전투」, 『한국근현대사연구』37, 2006.
박민영, 「한말 의병의 대마도 피수 경위에 대한 연구」, 『한국근현대사연구』37, 2006.
_____, 「한말 예산지역의 의병투쟁」, 『충청문화연구』7, 2011.
윤시영, 『홍양일기』, 『향토연구』11, 1992.

[부록] 예산 출신 의병 현황

연번	이름	생몰년	본관, 자, 호, 이명	주소	주요 활동	비고
1	이남규 (李南珪)	1855~ 1907.9	본: 한산 자: 원필(元八) 호: 수당(修堂) 선좌(仙左)	예산군 대술면 상항리	1906년 흥주의병 선봉장, 순국	독립장
2	남규진 (南奎振)	1863~?	본: 의령 자: 경천(敬天) 호: 창호(滄湖) 이명: 남계원(南啓元)	예산군 창소리	1906년 흥주의병 돌격장, 대마도 유배	애국장
3	박창로 (朴昌魯)	1846~ 1918		예산군 광시면 은사리	1896년 흥주의병, 1906년 흥주의병 참여	애국장
4	이충구 (李忠求)	1874~ 1907.9	자: 응부(凝夫) 호: 유재(唯齋)	예산군 대술면 상항리	1906년 흥주의병, 순국	애국장
5	김응길 (金應吉)	1867~ 1907.9		예산군 대술면 상항리	상동	애족장
6	가수복 (賈壽福)	1866~?	이명: 가수학 (賈壽鶴)	상동	1906년 흥주의병	
7	이봉학 (李鳳學)	1858~ 1924	본: 함평 이명: 이상학(李常學)	예산군 광시면 시목리	1896년 흥주의병	건국포장
8	김재정 (金在貞)	1861~ 1940	본: 김녕 이명: 김재완(金在琬)	예산의 광시면 신흥리	1906년 흥주의병	애족장
9	윤자형 (尹滋亨)	1868~ 1939	자: 내경(來卿) 이명: 윤자신(尹滋信), 윤태신(尹泰伸)	예산군 오가면 원천리	1906년 흥주의병 참여 호남남도육군대도독으로 지리산 일대에서 활동	애국장
10	차치명 (車致明)	1873~ 1956		예산군 금평면	1907년 예산 일대에서 의병 활동	애국장
11	박춘삼 (朴春三)	1858~?		대흥군 거변면 下泉里	1909년 예산 일대에서 의병 활동 중 체포됨.	
12	박순삼 (朴順三)	1877~?		대흥군 거변면 하천리	1909년 박춘삼과 함께 활동 중 체포됨.	
13	유순조 (劉順早)	1877~?		예산군 금평면 하현동	1909년 예산 일대에서 의병 활동 중 체포됨.	
14	정중옥 (鄭重玉)	1881~?		덕산군 장촌면 포내리	1909년 유순조와 함께 활동 중 체포됨.	

제3장

예산지역 애국계몽운동

이승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학예연구사



예산지역 애국계몽운동



이승윤



1. 애국계몽운동의 전개와 예산
2. 예산의 국채보상운동
3. 예산의 신교육운동
4. 애국계몽운동의 의의와 한계

1. 애국계몽운동의 전개와 예산

19세기 말 이래 제국주의 세력의 침투는 대한제국을 위기로 몰아갔다. 일본은 1894년 청일전쟁과 1904년 러일전쟁을 도발하여 대한제국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점하였다. 러일전쟁 승리 이후 미국, 영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로부터 한국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인정받은 일제는 서둘러 대한제국의 ‘보호국’화를 추진했다. 그리고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을 강제함으로써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였다. 이로써 대한제국은 일제의 보호국으로 전락하였으며, 통감부에 의한 내정간섭을 받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민족은 쓰러져가는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갔다. 항일의병이나 의열투쟁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의병은 일제의 침략에 직접적으로 대항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군대를 조직하여 투쟁하는 것이며, 의열투

쟁은 개인이나 소수의 인원이 자신을 희생하여 침략자 혹은 그 앞잡이를 처단하거나 침략에 저항하는 운동 형태를 말한다. 두 운동은 방법론에 차이는 있지만 무력적 수단을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반면 애국계몽운동은 한국인의 실력양성을 통해 국권 회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두 운동과 큰 차별성이 있다. 애국계몽운동가들은 대한제국이 일본의 보호국이 된 까닭은 실력이 부족해서이며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하는 것은 자연의 당연한 이치라고 파악했다. 그리하여 우리 민족 스스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실력을 양성하는 것이 국권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애국계몽운동은 사회진화론에 사상적 토대를 두고 있다. 사회진화론은 18세기 찰스 다윈이 주장한 생물진화론에 착안해 사회의 변화를 해석하려는 이론이다. 인간사회도 생물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발전하며 각 사회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강력한 사회만이 살아남고 열등한 사회는 도태한다고 본 것이다. 즉 약육강식(弱肉強食)과 적자생존(適者生存)의 논리를 통해 인간사회의 변화를 이해하는 논리이다. 사회진화론을 수용한 애국계몽운동가들은 약육강식의 국제 사회에서 한국이 보호국 상태로 전락한 이유는 한국 스스로 국력을 키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국권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인 스스로 실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실력을 양성하는 방법으로 무엇보다 교육을 강조했다. 신학문 교육을 위한 학교 설립이 전국적으로 왕성하게 이루어졌다. 1906년 설립한 계몽운동단체 대한자강회(大韓自強會)는 국민 교육을 통해 민족의 주체의식을 강화하고 자주독립을 강화하자고 주장했으며, 지역에서도 기호홍학회·호남학회·교남학회·서우학

회 등이 교육 진흥을 통한 지역 발전과 국권 회복을 도모했다.

애국계몽운동의 맥락은 교육 외에도 정치·경제·사회·문화·언론·종교·문학 등 전 분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여러 분야에서 민족 역량을 증대시키는 데 상당히 기여하였다. 이와 같이 계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었던 배경은 여러 단체들의 조직적 활동에서 찾을 수 있다. 1904년 일제의 항무지 침탈을 저지하기 위해 활동을 벌인 보안회(輔安會), 교육과 산업 진흥을 통한 실력양성을 당면 과제로 내세우며 전국 각지와 해외 한인사회에 30여 개 이상의 지회를 설립해 활성하게 활동했던 대한자강회(大韓自強會), 언론계·기독교계·교육계·실업계 등을 망라한 비밀결사 신민회(新民會) 등이 그것이다.

한편에서는 교육구국을 목표로 한 지역학회로 한북홍학회·호남학회·기호홍학회·교남학회·관동학회·서우학회 등이 설립되어 교육 진흥을 통한 지역 발전과 실력양성을 통한 국권회복을 도모했다. 각 단체와 학회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 사립학교를 설립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들은 근대 서구학문을 가르쳐 근대적 소양을 갖춘 애국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이를 통해 국권회복을 도모하려 했다. 을사늑약 이후 전국 각처에 설립된 사립학교의 수가 5,000여 개교에 육박했다는 기록도 있다. 사립학교 교육은 대개 강한 민족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었는데, 국어와 역사 교육을 중시하거나 체육활동으로 군사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민중 계몽을 위한 신문, 잡지의 발간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제국신문》, 《만세보》 등 다양한 일간지의 발간은 새로운 지식과 국내외 정세를 일반 민중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들을 각성케 했고, 일제의 침략정책

을 비판하면서 민족의식 성장에도 기여하였다.

그 밖에 실업진흥, 국학연구 등 대한제국기 애국계몽운동은 사회 여러 방면에서 전개되었다. 1907년 2월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도 그중 하나이다. 대한제국 정부가 일본에 진 빚 1,300만 원을 국민들의 힘으로 갚자는 경제적 구국 운동이다. 이 운동은 곧 전국적 규모로 확대되었고, 고관이나 양반·부유층뿐만 아니라 학생·농민·노동자·부녀자·기생·승려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폭넓게 참여했다. 비록 일제의 방해로 목표 모금액을 달성하지 못하였지만, 이 운동을 통해 민중의 애국심과 항일의식이 높아진 것은 중요한 성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애국계몽운동은 ‘무지몽매한 사람을 깨우치게 한다’는 계몽적 차원을 뛰어 넘어 문화·경제·정치·군사적으로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여 국권을 회복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었다. 지역에서는 주로 신교육운동과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는 양상으로 애국계몽운동에 동참했다. 예산지역에서도 사립 우신학교를 비롯하여 여러 개의 근대학교가 설립되었고, 국채보상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2. 예산의 국채보상운동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대구에서 시작된 경제적 주권수호운동이다. 일제는 한국의 근대화를 돋는다는 명목으로 일본 정부로부터 많은 자본을 빌려 가도록 강요했는데, 그 금액이 1,300만 원에 이르렀다. 이는 대한제국 정부 1년 예산에

맞먹을 정도의 금액이었다. 정부 차원에서 국채를 모두 갚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일제가 국채를 빌미로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 많아질 것을 우려한 대구 광문사 김광제와 서상돈 등은 국민의 힘으로 나라빚을 갚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1월 29일 대구 광문사 특별회의에서 국채보상의 시급함을 알리고 2천만 민중의 힘으로라도 국채를 갚자고 발의했다. 이어 2월 21일 『대한매일신보』를 통해 그 취지를 발표했다. 김광제·서상돈 명의로 발표된 취지서에는 국채 1,300만 원을 갚지 못하면 장차 나라가 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2천만 민중이 3개월을 기한으로 담배 피우는 것을 폐지하고 그 대금으로 매달 20전씩 거둔다면 거의 1,000만 원이 된다며 참여를 촉구했다.

이에 호응하여 2월 22일 서울에서 국채보상기성회가 구성되었고, 기성회는 국채보상운동의 방침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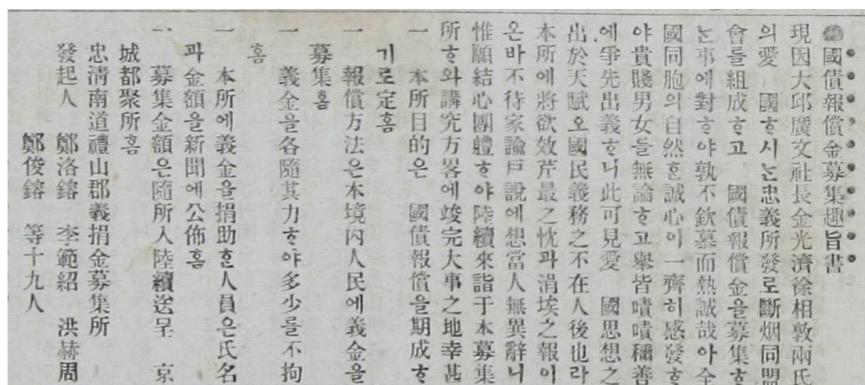
1. 본회는 일본에 대한 국채 1,300만 원을 보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보상 방법은 국민 의연금을 모집한다. 단 금액은 다소에 구애받지 않는다.
3. 본회에 의연금을 바치는 사람은 본회의 회원으로 인정하고 씨명과 금액을 신문에 게재한다.
4. 본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각 단회는 서로 연합하여 목적을 달성하는데 힘쓰기로 한다.
5. 의연금은 수합하여 위의 액수에 달하기까지 신용 있는 본국 은행에 맡긴다. 단 수합금액은 매월 신문을 통하여 알린다.
6. 본회는 목적을 달성한 후 해산한다.

〔국채보상기성회취지서〕, 『황성신문』 1907년 2월 25일)

이 원칙은 국채보상운동의 기본 방침으로 정해졌다. 이후에도 국채보상운동 추진을 위한 여러 단체가 설립되었고, 『황성신문』·『대한매일신보』·『만세보』·『제국신문』 등 언론사들도 각 단체와 지역 단위 취지서와 의연 명단을 게재하면서 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예산에서도 일찍부터 국채보상취지서를 발표하고 의연활동에 동참하였다. 당시 예산은 예산군, 덕산군, 대홍군의 세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국채보상 운동은 당대 행정구역을 단위로 의연금 모금이 이루어졌으므로, 세 지역을 나누어 모금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의연활동을 시작한 지역은 예산군이다. 정낙용·이범소·홍혁주·정준용 등 19명이 '충청남도 예산군 의연금모집소'를 설립하고 3월 15일 『황성신문』을 통해 '국채보상모집취지서'를 발표하였다. 이는 충남에서는 공주군, 한산군, 직산군에 이어 네번째로 발표된 취지서였다. 예산군의 국채보상운동이 상당히 이른 시점에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예산군 국채보상금모집취지서(『황성신문』 1907년 3월 15일)

지금 대구 광문사 사장 김광제, 서상돈 양씨가 애국하는 충의를 발동하여 단연동맹회를 조직하고 나라 빚을 갚기 위한 자금을 모집하고 있다. 이 일에 대하여 누구라도 흠토하며 정성을 다하여 전국 동포의 자연스러운 정성이 일제히 발하여 귀하고 천한 사람 그리고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크게 칭송하며 앞다투어 의연금을 내고 있다. 이는 가히 애국사상은 하늘에서 타고 나는 것이며, 국민의 의무는 모든 사람에게 있다. 본소에 장차 작은 정성이라도 더하고 터끌만한 보상이라도 하려는 바 집집마다 알리지 않아도 상당한 사람들이 같은 마음이니 단체를 만들기로 결심하여 본 모집소에 이르게 되었다. 다음의 방략을 강구하여 큰일을 완수하고자 한다.

- 본 모집소의 목적은 국채보상을 이루는 것으로 정함
- 보상 방법은 경내 인민에 의연금을 모집함
- 의연금은 각자 그 능력에 따라 많은 적음에 구애되지 않음
- 본 모집소에 의연금을 의연한 인원은 이름과 금액을 신문에 공포함
- 모집금액은 들어오는 대로 끊이지 않고 경성의 도취소로 보냄

충청남도 예산군 의연금모집소

발기인 정낙용 이범소 홍혁주 정준용 등 19인

취지서를 발표한 인물은 전 중추원 의관 정낙용(鄭洛鎔), 예산군수 이범소(李範紹), 규장각 부제학 홍혁주(洪赫周), 전 예산군수 정준용(鄭俊鎔)이다. 전현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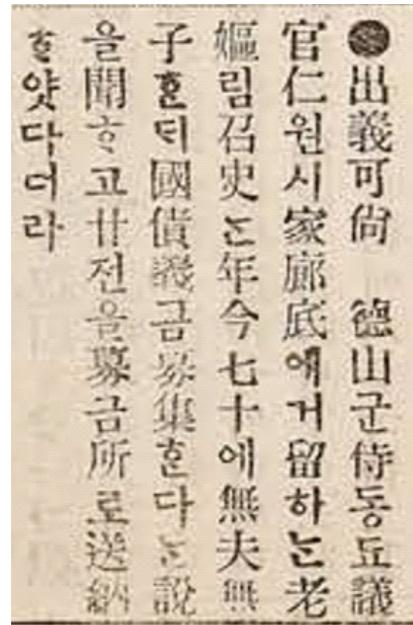
관리들을 중심으로 국채보상운동을 추진한 것이다. 나머지 발기인의 명단은 예산군 제1회 의연금 수입 광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발기인 전원의 명단과 의연금액은 아래와 같다.

정낙용 100원, 성낙규 30원, 이범소 유계환 각 20원, 홍혁주 성경호 최규석 각 10원, 이승로 5원, 정준용 백성홍 2원 50전, 이면규 홍우상 성돈영 김형희 장기원 김정묵 각 2원, 이정직 성옥근 이은승 각 1원

취지서에 포함되지 않은 16명 중에는 후에 호서은행 설립의 주역이 되는 성낙규(成樂奎)와 최규석(崔圭錫)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19명이 241원을 모아 의연하는 가운데 예산군 모집소를 통해 모인 의연금은 1907년 7월 중 3회에 걸쳐 《대한매일신보》에 소개되었다.

제1회 의연금 수입 광고에는 발기인 19인의 의연내역과 함께 군내면 향천동·오천리·연문리·광안동·오리정·대회동·하마동·엄하리·검곡·산성리·발연리·사직동·산직촌, 두촌면 계촌·예호·두곡·산성동·신포동·종경리, 거구화면 목소·좌천리·광진리·막동·오소리·내동·분천·방교·굴양리에서 의연금을 낸 571명의 명단과 금평면 상관·방축·득정·궁평·신례원 등과 신종면 신종리·상신리·하평기·하신리·택동, 우가산면 죽곡·신벌리·신효리 등지에서 참여한 550여 명의 명단이 소개되었다.

제2회 의연금 수입 광고에는 술곡면 외둔리·당거리·농소리·내술·독여리·수조리·상삼·마전리·괴빈리·화계동·하삼동·오원리·아지동·산직리·역촌·탑동·상원·원향리·신촌동, 입암면 송림동·영상리·오곡·중야·하별동·상야동·궁룡



임소사 의연 사례 보도(《대한매일신보》 1907년 4월 12일)

동·중촌동, 금평면 장곶리·소외·하관·구정동·궁평·용궁리, 대지동면 고동·다촌·회동·국화동, 거구화면 분천·굴양리에서 의연금을 낸 55명의 명단과 참여 문중 내역이 수록되었다.

제3회 의연금 수입 광고에는 신종면 옥금리, 우가산면 하벌리·신상·신효리·석우, 군내면 장대·복천리·향천동·사직동·사양동에서 의연금을 낸 104명의 명단과 의연금 내역을 소개했다. 개인 단위로든 동 단위로든 예산군 내 10개 면 전부가 국

채보상운동에 참여한 것이다. 예산·덕산·면천·당진 일대를 근거지로 활동했던 예산상무사도 57명의 보부상인들이 의연금 61원을 모아 의연했다. 개인 단위로 의연한 것까지 포함하면 총 1,896명, 13개 동중, 2개 문중에서 973원 91전 5리를 의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분	의연자수	금액	전거
예산군 제1회	571명	436원 50전	대한매일신보 1907년 7월 21일
예산군 제1회(속)	550명	202원 71전 5리	대한매일신보 1907년 7월 23일
예산군 제2회	55명	177원 77전 5리	대한매일신보 1907년 7월 26일
예산군 제3회	104명	94원 42전 5리	대한매일신보 1907년 7월 27일
개인 의연	1명	1원	대한매일신보 1907년 8월 30일

구분	의연자수	금액	전거
예산군상무소	57명	61원	대한매일신보 1907년 9월 15일
합 계	1,338명	973원 40전 15리	

덕산군에서도 1907년 3월 20일 지역 유지 이두복·조종호 등 4명이 대한매일신보에 국채보상금모집취지서를 발표했다. 취지서에는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된 연유와 목적을 밝히고 나랏빚을 갚아 국태민안(國泰民安)한 세상을 만들자는 강고한 의지가 담겨있다.

“... 근래 대구에 사는 김광제, 서상돈 두 명이 문서를 발하여 나라 빚을 보상하는 문제를 논의한다고 하니 그 충의가 가상하여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감복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다. 재물을 방략으로 매일 이천만 인민이 3개월간 담배를 끊고 그 대금으로 각자 매달 20전씩 모은다면 1천 3백만 원을 가히 모을 수 있다고 한다. 옆드려 바라건데 우리 대한의 관원과 백성들은 말과 글로써 서로 경고하여 의연하기를 약속하여 임금의 밝은 지혜에 답하고 강토를 유지하게 하자고 하였다. 두 명이 올린 한 장의 공함으로 대한국이 어두운 거리에 불을 밝이었으니 누구라도 즐기어 따를 것이다. 이에 통지하니 경내 동포는 충군애국하는 마음으로 단결하여 각자 의연하여서 이로써 나라 빚을 모두 갚고 국권을 회복하여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살기 편안한 세상이 오기를 기원한다.”

덕산군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한 인물은 조종호(趙鍾灝)이다. 조종호와 이지현이 각각 소장과 부소장을 맡고 이봉구·이두재가 감독, 유중현이 재무를 맡아 덕

산군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했다. 소장을 맡아 운동을 이끈 조종호는 조선 후기의 문신 조극선(趙克善)의 후손으로 사현부 감찰을 지낸 인물이다. 1919년 3월 3일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에서 한내장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대한독립단 충청도지단 등에서 활동한 조인원(趙仁元)의 부친으로 알려져 있다. 예산군에서 군수가 나서 의연금 모금을 주도한 것과 달리 덕산에서는 지역의 명망 있는 유력자들이 주도하였다. 조종호 등은 지역민들이 낸 의연금이 얼마간 모이면 이를 대한매일신보사 내 총합소에 직접 전달했고, 덕산 군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라를 위해 정성을 모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호소했다.

노비 임소사의 사례는 이 시기 국채보상운동의 대중적 지지를 잘 보여준다. 임소사는 조인원가의 고용인으로 70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국채보상 의연금을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20전을 의연했다. 《대한매일신보》에는 그의 의연에 대해 ‘출의가상(出義可尙)’ 즉 ‘승상하여 높일 만하다’ 라며 칭송하였다. 그 밖에 특이한 의연 사례도 언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내야면 봉동의 12살 어린이 이관구는 모금소가 개소하는 날 50전을 들고 와 의연하였으며, 내야면 시동에 살고 있는 고용인 김재화와 홍구봉도 각각 15, 13세에 불과한 나이에 50전과 30전을 의연금으로 내놓았다. 고용인 권종식도 60세의 나이로 60전을 의연하였다. 장재갑이라는 인물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데 의연금을 모은다는 소문을 듣고 ‘충의지심’이 발동하여 2원을 의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모금소 사무를 맡겠다며 자청하였다고 한다. 토기점을 운영하는 과부 박소사와 고용인 김치문은 각각 70세와 60대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각 20전의 의연금을 납부했다.

1907년 3월 16일 대천리 장날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모금소를 설립한 배경

과 취지를 연설하였는데, 그때 상복(喪服)을 입은 사람이 앞으로 나섰다. 인천항답동 하은리에 산다고 스스로를 소개한 그 사람은 자신은 이미 인천에서 의연금을 납부하였지만 마침 덕산에서 국채보상에 대한 연설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갈 수가 없다 하며 20전을 의연했다는 일화도 있다. 덕산지역 국채보상운동의 열기가 대단했음을 보여준다.

아쉬운 점은 의연금을 서울 총합소에 전달했지만, 그에 참여한 인사의 명단과 의연금액은 언론에 모두 소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1907년 5월 28일 소장 조종호와 재무 유중현이 서울 대한매일신보사 내 총합소를 방문해 660원 53전을 전달했고, 6월에 다시 51원 80전, 이어 1907년 11월 다시 83원 92전을 총합소에 전달했다. 3회에 걸쳐 전달한 의연금액만 800여 원에 달한다. 그러나 2회 123명과 3회분 42명을 포함해 203명과 14개 동중, 159원 82전의 의연내역만 확인할 수 있다. 신문지상에 소개된 의연내역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정성이 모였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덕산군 국채보상운동 의연 목록〉

구분	의연자수	금액	전거
덕산	19명	7월 80전	대한매일신보 1907년 6월 27일
덕산군 대덕산면 수촌리 등	90명	37월 30전	대한매일신보 1907년 7월 10일
덕산군 대덕산면 시현 등	33명	14월 50전	대한매일신보 1907년 7월 11일
덕산군 고산면 장천이씨 종종	19명	16월 30전	대한매일신보 1907년 7월 24일
덕산군 장촌면, 현내면 등	42명 및 동중	83월 92전	대한매일신보 1908년 1월 25일
합계	203명	159원 82전	

대흥군에서는 심상준과 이용재가 운동을 주도하였다. 이들은 1908년 대흥군 최초의 근대학교 설립에 참여한 인물들이다. 예산군이나 덕산군과 달리 별도로 국채보상취지서를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군수가 부재한 상황에서도 많은 군민

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원동면 신영 전주이씨 종중에서 12명이 20원을 의연했으며, 일남면 월전리, 동달리, 운산리에서 50여명이 16원 80전을, 내북면 세곡에서 1명이 3원을 의연하는 등 대홍군에서 총 2,435명이 1,093원 38전의 의연금을 모아냈다. 이는 세 군 중에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것이며, 의연금액도 가장 많았다. 대홍군 의연 명단의 경우 1907년 4월부터 6월까지 산발적으로 표시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11월 기사에 게재되었다. 11월 12일부터 22일까지 『황성신문』 지면을 통해 9차례 연속으로 수록된 명단에는 다른 지역과 달리 면이나 동리 같은 상세 지명 표시가 없이 이름과 의연 금액만 표시되어 있다. 대홍군 의연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홍군 국채보상운동 의연 목록〉

구분	의연자수	금액	전거
대홍군 원동면 신영 전주이씨 종중	12명	20원	대한매일신보 1907년 4월 20일
대홍 일남면 월전리		3원	대한매일신보 1907년 5월 12일
대홍군	404명	501원 30전	황성신문 1907년 6월 6일
대홍군 일남면	50명	13원 80전	대한매일신보 1907년 6월 7일
대홍군 내북면 세곡	1명	3원	대한매일신보 1907년 6월 26일
대홍군	59명		황성신문 1907년 11월 12일
대홍군(속)	229명		황성신문 1907년 11월 13일
대홍군(속)	301명		황성신문 1907년 11월 15일
대홍군(속)	287명		황성신문 1907년 11월 16일
대홍군(속)	195명	552원 28전	황성신문 1907년 11월 17일
대홍군(속)	314명		황성신문 1907년 11월 19일
대홍군(속)	216명		황성신문 1907년 11월 20일
대홍군(속)	236명		황성신문 1907년 11월 21일
대홍군(완)	131명		황성신문 1907년 11월 22일
합 계	2,435명	1,093원 38전	

군수, 관리 그리고 지역 유력자를 주축으로 지역 단위 모금소가 설치되고 설립 취지서 발표가 이루어지면서 예산지역에서는 의연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예산군·덕산군·대홍군 모두 전국적 양상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참여도를 확인할 수 있다. 예산 전체에서 수합된 의연금은 3천 원에 육박하며, 의연자 명단이 확인되는 예산군, 대홍군의 경우 2,000명 내외의 지역민이 참여하였다. 당시 각 군의 인구가 2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이었으므로 국채보상운동 참여 비율은 1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지역민들이 한마음으로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며 운동에 동참한 것이다. 특히 덕산군의 경우 지역민의 미담을 적극 발굴해 참여도를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한 점이 주목된다.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한 예산인의 면면을 보면 성별, 연령, 직업과 신분을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의연에 참여하며 한국 국민으로서의 사회적 의무를 실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예산 지역민들이 열성적으로 참여한 국채보상운동은 결국 일제의 방해로 성공하지 못하였다. 일제는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하고 있던 대한매일신보사를 대상으로 공작에 나서 영국인 사장 베델의 추방을 은밀히 계획하는 한편 대한매일신보사 총무이사 겸 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 회계 책임을 맡고 있던 양기탁에게 보상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씌워 구속했다. 재판 결과 양기탁은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이미 국채보상운동의 열기는 수그러든 뒤였다. 1907년 3월 이후 1908년 7월까지 수합된 국채보상의연금은 약 20만 원으로 국채 상환에는 미칠 수 없는 금액이었다.

그러던 중에 대홍군과 덕산군에서 의연금 중 일부를 횡령하는 사건도 일어났

다. 대홍군에서는 의연금 1천여 원 가운데 500원은 이미 6월 중 《황성신문》에 보냈고, 그 후 모은 500여 원 중 300원은 서울로 보냈지만, 200원을 대홍군 주사가 ‘이자놀이’를 하느라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각된 것이다. 대홍군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한 심상준은 국채보상이 요원한 일이 되었으니 서울로 보낸 300원을 돌려받아 학교 설립에 사용하자고 주장했고, 이를 영수원 김영규가 거부함으로써 일대 풍파가 있었다. 덕산군에서 마지막으로 전달한 3회차 의연금 83원 92전을 국채보상총합소에서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사무원 이강호, 안중식, 박용규 3명이 나누어 가진 일도 있었다. 이처럼 국채보상운동이 흐지부지된 것은 일제의 모략에 의해 양기탁이 체포되고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등 운동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채보상에 참여한 예산인들은 한마음으로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고, 스스로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나라를 지켜내는 데 동참하겠다는 각오로 의연에 참여한 것이다. 의연 참여는 한편으로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예산지역에서 신교육운동이 활성화되는 자극제가 되었다.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한 유력 인사들이 앞다투어 신학문 교육을 위한 학교 설립에 나서며 예산의 국권회복운동은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3. 예산의 신교육운동

우리나라에서 근대교육이 시작된 것은 1883년의 일이다. 함경남도 원산에 설

립된 원산학사를 시작으로 이화학당, 배재학당 등 외국인 선교사들이 선교 차원에서 학교를 설립하는 사례가 많았다. 조선 정부는 1895년 소학교, 사범학교를 포함하는 학제를 정비하는 한편 ‘교육입국조서’를 발표하여 교육이념을 밝혔다. 그 안에는 “교육은 개화의 근본이다. 애국심과 부강의 기술이 모두 학문으로부터 생겨나니 오로지 나라의 문명은 학교의 성쇠에 달렸다”고 하여 교육을 국가 발전의 기초로 강조했다. 그러나 학교 설립은 지지부진했다. 1905년까지 전국에 설립된 학교 수는 130여 개소에 불과했다.

신교육운동이 본격화된 시기는 1905년 을사늑약 이후이다. 일제의 국권침탈이 본격화되고 민족적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학회, 단체뿐 아니라 전·현직 관리, 개신 유학자 등이 학교 설립에 앞장선 것이다. 신교육운동은 1906년 대한자강회가 의무교육을 주장하면서 확대되었으며, 국권회복을 표방한 사립학교들이 전국 각지에 설립되었다.

예산에서는 1905년 설립된 우신학교(又新學校)와 명신학교(明新學校)가 시초이다. 우신학교는 서회보(徐晦輔)가 덕산군에 설립한 학교이다. 서회보는 문학과 유교경전 뿐 아니라 음악과 미술에도 능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교육 발달에 뜻을 품고 우신학교를 설치하여 인근에서 총명한 자제 50인을 모집하여 교육을 시작했다고 한다. 학교 이름은 나날이 새로워진다는 뜻의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에서 따온 듯하며, 정치, 경제, 물리, 지리, 산술 등의 과목을 가르쳤다. 학생 수가 많아 기왕에 정한 건물에 모두 수용할 수 없게 되자 덕산군수 이순응(李純應)이 보조금을 통해 학교의 발전을 도왔다고 한다. 그러나 서회보가 1906년 영동군수로 발탁되어 가면서 학교의 운영은 오래지 않아 중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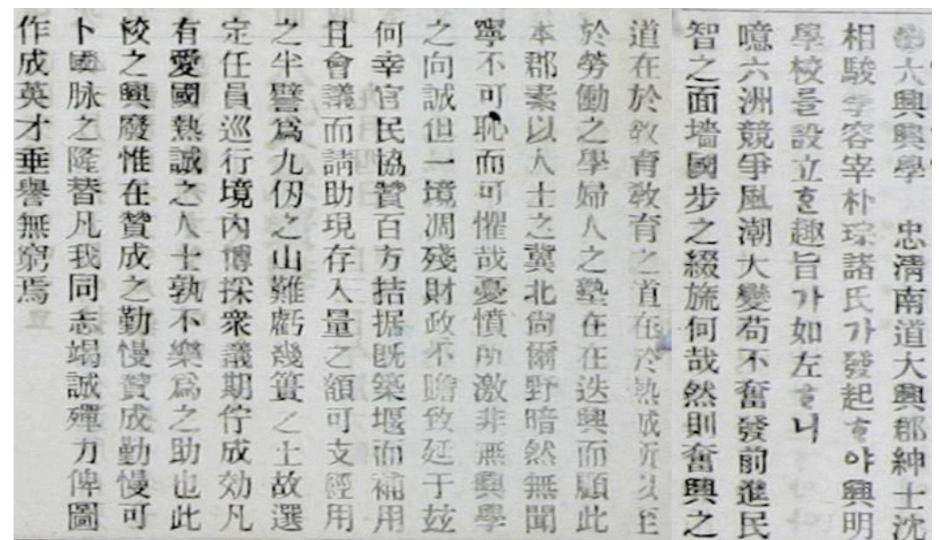
명신학교는 덕산군 진사 김동욱(金東旭)이 도곡리에 설립한 학교이다. 한문, 종교, 지리, 역사 등의 과목을 가르쳤으며 1906년 봄부터는 어학교사를 초빙해 교육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그 해 어떠한 변고로 인해 학교 운영이 잠시 중단되었다가, 가을이 되어서야 학교 문을 다시 열고 학생 모집을 시작했다. 이때 모집된 인원은 20여 명이었다. 김동욱은 1907년 7월 『대한매일신보』를 통해 「명신 학교취지서」를 발표하여 학교를 설립한 목적을 밝혔다. 시세가 변하고 나라의 어려움이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우리 동포가 장차 노예로 전락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자강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는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는 내용이었다. 그리하여 종교를 유지하고 지혜를 계발하며 식견의 확장을 목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 위원 정인영(鄭寅英)도 이에 적극 찬성하며 지역 자제들의 학업을 장려했다. 특히 정인영은 법률 교육이 시급함을 적극 호소하며 자비로 법률교사를 초빙해 학생을 가르치기도 했다.

예산에서의 학교 설립은 1908년 이후 더욱 활성화되었다. 1908년 덕산군에 덕풍학교와 기산학교, 대홍군에 흥명학교, 예산군에 배영학교가 설립되었고, 1909년에는 예산군 보명학교와 대홍군 흥남학교, 1910년에는 대홍군 신흥학교와 예산군 예동학교가 연이어 개교하였다. 1910년까지 설립된 학교 수는 10개 교이다. 지역별로 보면 덕산군에 4개 교, 대홍군에 3개 교, 예산군에 3개 교이다.

학교 설립을 주도한 인물은 지역의 유지와 전직 관리들이었다. 특히 1907년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한 지역의 유지·전직관리들이 학교 설립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덕산군 국채보상운동을 견인한 핵심 인사 조종호는 1908년 덕풍 학교 설립을 주도한 세 명 중에 포함되어 있으며, 대홍군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한

박종호도 같은 해 흥명학교를 설립했다. 특히 박종호는 국채를 갚는데 사용하지 못하게 된 의연금을 반환해 달라며 총합소에 요청하였고, 그 이유로 지역 내 교육사업에 사용하겠다는 포부도 밝힌 바 있다. 이들은 모두 국채보상운동을 계기로 국권회복의 필요성과 신학문 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대홍 흥남 학교, 예산 예동학교와 신흥학교도 지역 유지가 교육 발달과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학교들이다.

군수들도 학교 설립과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예산 군수 이범소는 1908년 배영학교 설립을 주도했으며, 덕산군수 서병소도 최명식, 이철의, 조종호와 함께 덕풍학교 설립을 주도했다. 대홍군수 김윤수는 심상준, 이용재, 박종호와 함께 흥명학교 운영을 위해 각 동리와 시장을 돌아다니며 입학을 권유하고 보조비 조달에 노력했다.



흥명학교 설립취지서(《황성신문》1908년 9월 4일)

문중에서 설립한 학교도 있다. 기산학교(岐山學校)는 덕산군 고산면 함평이씨 종중에서 자체적으로 세운 학교이다. 설립을 주도한 인물은 이지현, 이민두였으나, 종중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시험을 본 학생들에게 연필과 석판을 상으로 줄 정도로 면학을 장려하는 분위기였다.

각 학교는 국권침탈의 위기감 속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으며, 별도의 운영 재원을 가진 사례는 많지 않았다. 군수가 재정적으로 보조하는 사례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학교는 설립자 스스로 재정을 마련하거나 모금 등의 방식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했다. 재정을 확보하느냐의 여부는 학교의 존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정도였다.

덕풍학교, 배영학교, 흥명학교의 경우처럼 군수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하는 경우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 대홍군 흥명학교의 경우 군 내에 설립한 최초의 학교인데, 초기에는 운영이 순탄하지 않았다. 심상준 등은 1908년 9월 《황성신문》을 통해 학교의 설립 취지를 발표했다. 그 취지서 안에는 우리 한국에 교육이 대단히 시급한 일인데도 학교를 설립 운영할 재정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안타까움이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민이 협력하여 위원을 선정하고 대홍 곳곳을 다니며 보조금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학교의 성패는 재정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며 학비 보조를 호소했다. 대홍군수 김윤수(金允秀)는 학교 재정에 사용할 목적으로 관둔답 20두락을 800 원에 팔아 충당했고, 군주사 이기완(李起完)은 본인 소유의 전답을 팔아 학교 보조비로 지원했다. 이러한 노력들이 더해져 흥명학교 운영은 다소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덕산군 덕풍학교도 군수 서병소가 70원을 보조하는 등 172명이 600

여 원의 보조금을 출자해 학교 운영비를 마련했다. 예산군 배영학교도 군수 이범소의 주도 하에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는 별도의 지원이나 보조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렇기에 대부분 설립자들이 자신의 집을 교사(校舍)로 사용하거나 운영비를 스스로 마련해야 했다. 대홍군 흥남학교는 설립자 정기호(鄭祺好)와 교장, 교사들이 재정을 스스로 부담하였으며, 부교장과 교감은 학생들을 위해 자신들의 집을 기숙사로 무료로 내주었다.

예산군 대지동면에 설립된 예동학교도 설립자 이서규의 집을 교사로 사용하였고, 10원을 출자하여 운영을 시작했다. 넉넉하지 않은 재정이었기에 교장과 교사 역시 별도의 보수 없이 교육을 담당하는 형편이었다. 이전까지 학교가 없던 대지동면에서 예동학교의 설립은 일종의 숙원을 풀어내는 일이었기에 너나 할 것 없이 교육에 매진했다.

각 학교별로 세부 운영상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우신학교

1905년 서회보가 덕산군에 설립하였다. 지역 유지와 군수 이순옹 등의 지원을 받아 신학문 교육을 실시했는데, 학생수는 50여 명에 달했다. 법률·정치·경제·물리·지지·산술 등을 가르쳤다. 1906년 서회보가 영동군수로 발탁되어 가면서 학교의 운영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 명신학교

1905년 진사 김동욱이 덕산군 도곡리에 설립하였다. 김동욱은 원래 외면 석교리에서 서당을 운영하였는데 1905년 변화하는 정세에 대응하고자 도곡리에 명

신학교를 설립했다. 초기에는 한문·종교·지리·역사 등의 가르쳤으며, 1906년 봄에는 어학교사를 추가로 초빙하여 교육을 확장하고자 했다. 그러나 어떠한 변고로 잠시 학교 문을 닫았다가 그해 가을 다시 학생 모집을 재개하였다. 이때 모집된 인원은 20여 명 정도였다. 다시 개교한 이후로 교감 이인승, 재무 최완, 평의 이두재 등이 함께 학교 운영을 도왔으며 《대한매일신보》에 취지서를 발표하여 자강의 기초를 다지고 인재를 양성하는 데 설립 목적이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재정난 등으로 1907년 10월 전후 학교 운영이 중단되었다.

○ 기산학교

1908년 함평이씨 종중에서 덕산군 고산면에 설립하였다. 설립자는 이지현, 이민두로 기록되어 있으며, 1908년 5월 6일 개교식을 했을 때 지역 유지와 인근 지역 외국인 사제를 포함해 수백 명이 참여할 정도로 성황을 보였다. 학생수는 70여 명에 달하였으며, 한준교와 이계영이 교사로 임명되어 학생들을 가르쳤다. 학교 운영비는 종중에서 지원받았으며, 덕산군수 서병소도 운영을 위해 300원을 보조하였다.

○ 덕풍학교

덕산군수 서병소와 지역 신사 최명식, 이철의, 조종호와 협력하여 설립하였다. 1908년 설립 당시 학생 40명을 모집해 보통과 교육을 시켰다고 한다. 운영을 위해 군수가 70원, 이철의 50원, 조종호 7원 등 172명이 600여 원의 보조금을 출자했다.

○ 흥명학교

대홍군 신사 심상준, 이용재, 박종호가 1908년 설립하였다. 취지서를 보면 시

세가 변화하는 가운데 노동자나 부인들도 교육의 중요성을 아는바, 대홍군에 학교가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학교를 설립한 목적에 대해 설명했다. 재정이 열악하여 관민이 학교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위원을 선정해 대홍 곳곳을 다니며 홍보하고 보조금을 모았다. 대홍군수 김윤수도 학교 운영을 위한 방법을 강구했다. 군에 소속된 관둔답 20두락을 팔아 학교 운영을 보조하는 한편 각 동리와 시장을 걸어 다니며 교육을 권유하는 등 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다.

○ 흥남학교

1909년 대홍군에서 정기호(鄭祺好)가 설립하였으며, 학생수는 40명 정도였다. 많은 직원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교장 유병斗(劉炳斗), 부교장 이용일(李容壹), 교감 정민교(鄭敏教), 학감 조재명(趙載明), 교사 이종철(李種哲), 박원(朴瑗)과 찬성장 박종(朴琮) 등이다. 이밖에 이용칠(李容七), 이봉구(李鳳九)가 재정원으로 학교 예산 운영을 담당하였고, 정기호를 포함한 학교 임직원들은 스스로 학교 재정을 부담했다.

그중에서도 부교장 이용일과 교감 정민교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집을 무료로 기숙사로 제공하기도 했다.

○ 신흥학교

1910년 지역 유지 권중표(權重杓)가 본인의 집에 설립한 학교이다. 교육 경비도 스스로 부담하며 힘을 쏟은 결과 학교 입학을 원하는 학생 수가 나날이 증가했다.

○ 배영학교

1908년 예산군수 이범소가 주도하여 설립하였다. 교장은 성낙규(成樂奎)와

유진상(兪鎮相) 두 명이었으며, 교감 성창영과 학감 이명호가 함께 운영하였다.

이정식(李靖植), 조재만(趙載萬)이 강사로 학생들 교육을 직접 담당하였는데, 학교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감이 상당한 수준이었다.

1910년 2월에 열린 1회 졸업식을 보기 위해 400~500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기사는 이 학교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여준다. 1910년 학부령에 따라 면 이름을 붙여 군내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다.

○ 진명학교

1908년 예산군 서면에 설립되었다. 학교장은 이상규(李尙珪)이며, 교육도 담당하였다. 학생수는 40여 명에 이르렀다.

○ 예동학교

1910년 예산군 대지동면에 설립되었다. 대지동면에 사는 이서규(李序珪)와 김계선(金繼善)이 면내에 학교가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여 자신의 집을 교사로 제공하여 설립하였다. 해당 교사는 기와집 50여 칸 규모였으며, 이서규는 금화 10원을 추가로 기부하여 학교 운영비로 사용했다. 별도의 재원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교장 이긍복과 교사 이현규, 곽덕영도 별도의 보수 없이 명예직으로 교육을 맡아 했다. 학교를 처음 설립할 때 40명을 모집하여 교육을 시작하였으나, 그해 10월에는 학생수가 100명에 달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

〈1905~1910년 예산지역 사립학교〉

학교명	지역	설립시점	설립 인물
우신학교	덕산군 외면 도곡	1905년	서희보
명신학교	덕산군	1905년	김동욱

학교명	지역	설립시점	설립 인물
기산학교	덕산군 고산면	1908년	함평이씨 종종
덕풍학교	덕산군	1908년	(군수)서병소, 최명식, 이철의, 조종호
흥명학교	대흥군	1908년	심상준, 이용재, 박종서, (군수)김윤수
배영학교	예산군	1908년	(군수)이범소
진명학교	예산군 서면	1909년	이상규
흥남학교	대흥군	1909년	정기호, 유병두, 박종하
신흥학교	대흥군	1910년	권중표
예동학교	예산군 대기동면	1910년	이서규, 김계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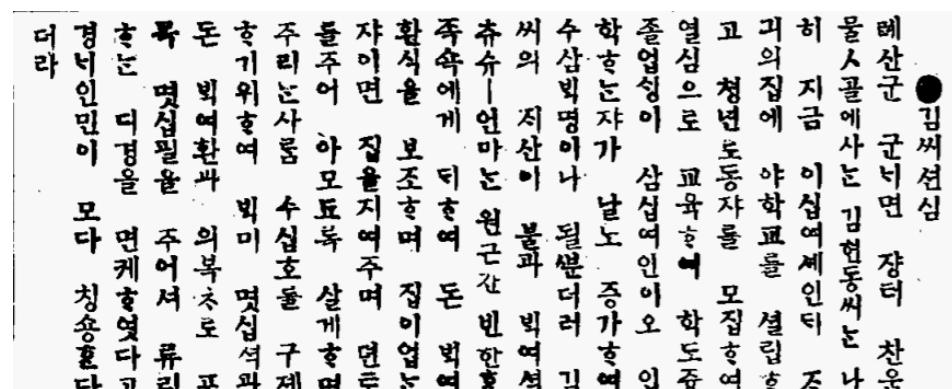
사립학교와 별도로 야학(夜學) 설립도 이어졌다. 야학은 낮 시간에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청소년이나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을 대상으로 야간에 수업을 하는 비정규 교육 기관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문해 교육을 위주로 하며, 보통학교의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도 많았다.

이 시기 예산에 설립된 야학 중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2개소이다. 1909년 설립된 동일연성야학교(東一研成夜學校)와 동명야학교가 그것이다. 동일연성야학교는 성창영(成昌永), 한석명(韓錫命)이 예산읍에 설립한 야학이며, 동명야학교는 당시 군내면 장대 한천동에 사는 김현동(金顯東)이 설립한 것이다. 동일연성야학교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많지 않은 반면 동명야학교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동명야학교를 설립한 김현동은 불과 20살의 나이로 야학 설립과 운영을 주도했다고 한다. 그는 1909년 봄부터 자신의 집에 야학을 설립하여 노동 청년들을 모아 교육을 시작했다. 학교의 운영비도 김현동 스스로 조달했다. 교육 기간은 1년으로 보통학교 수준에 준하는 기초적

인 교육과 어학교육을 주로 하였다. 순사 강인섭(姜寅燮), 현병소 통역 송병주(宋秉周), 조합소 통역 박영수(朴英秀)도 김현동의 야학 운영을 도왔다. 이들의 면면을 보면 야학 내에서 일본어 교육이 중요하게 다루어진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야학의 인기는 날로 높아져 갔다. 1910년 7월 기준으로 졸업생은 30여 명에 달했고, 야학 입학을 원하는 자가 날로 늘어 대기자가 300여 명에 달하는 상황이었다. 당시 《대한매일신보》에는 김현동의 교육활동을 칭송하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그가 야학 운영을 열심히 하여 청년 노동자들의 교육 발달에 크게 기여한다는 내용이다. 무료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 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금을 내주거나 집이 없는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고 땅을 빌려주는 등 구제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고 칭찬하였다.

이렇듯 예산지역에서는 실력양성을 위한 사립학교와 야학이 설립되었지만, 학교 대부분은 영세한 재정으로 오래 운영되지 못하였다. 더욱이 1908년 일제 통감부가 ‘사립학교령’을 발표해 한국인의 교육을 통제하면서 그 형편은 더욱 열악



동명야학교 설립자 김현동에 대한 보도(《대한매일신보》 1910년 7월 17일)

해졌다. 사립학교령은 사립학교 설립에 대해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한 법령이다. 학교의 목적과 명칭·위치·학칙·학교 부지와 건물 평면도, 1년간의 예산이나 유지방법·설립자·학교장 교사들의 이력서, 교과용 도서 등을 상세히 표시하여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설립을 억제·통제하려 한 것이다.

‘기부금품모집취체규칙’과 ‘지방비법’의 발표도 사립학교 운영에 큰 타격을 주었다. 학교 운영을 위해 기부금을 모집하는 것을 차단하고 지방관이 학교를 지원하는 통로도 막은 것이다. 연이은 조치로 인해 예산의 사립학교들은 운영비를 마련하지 못해 폐교하는 수순을 밟게 되었다. 1912년 5월 기준으로 예산군 내 사립학교는 덕산학교 1곳뿐이다. 덕산학교는 덕풍학교에서 이름이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

사립학교 설립을 억제하고 폐교를 유도한 일제 당국은 군 단위로 공립보통학교 설립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1911년 대홍공립보통학교(현 대홍초등학교), 1912년 예산공립보통학교(현 예산초등학교)와 덕산공립보통학교(현 덕산초등학교)가 설립되었다. 이는 전혀 새로운 학교는 아니며, 기존의 사립학교를 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설립한 것이다. 대홍공립보통학교는 흥명학교, 예산공립보통학교는 배영학교, 덕산공립보통학교는 덕풍학교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4. 애국계몽운동의 의의와 한계

예산지역 애국계몽운동은 주로 신교육운동과 국채보상운동 참여를 통해 이루

어졌다. 당시 계몽운동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학회, 단체의 활동이 미약했지만 우신학교와 명신학교를 통해 1905년부터 신학문을 수용·보급하려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 내에서 애국계몽운동이 본격화 것은 1907년 이후이다. 국채보상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예산·덕산·대홍군을 단위로 보상소가 설치된 것이다. 예산군에서는 군수가 나서서 보상소를 설치하고 조직적인 의연 모금에 나섰고, 덕산군과 대홍군에서도 유력자가 나서서 의연 활동을 주도하였다. 지역민들도 적극 호응하여 고령의 고용인이나 어린아이, 시장 상인 등 신분과 연령을 막론하고 폭넓게 참여하였다. 그리하여 예산지역에서 국채보상 의연금을 낸 인원은 지역 인구수의 10%에 육박할 정도였다. 당시 국채보상운동 참여 인원이 전 인구의 1~2% 정도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참여도를 보인 것이다. 국권 상실의 위기감 속에서 예산인들이 하나가 되어 나라를 보전하는 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려 한 것이다.

국채보상운동의 참여 경험은 국가가 위기 상황에 처해있음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였고, 이후 신교육운동으로 전환되어 국권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갔다. 예산에서는 1908년 이래 사립학교 설립이 연이어 이루어졌다. 기산·덕풍·홍명·배영학교 등은 군수와 지역 유력자들의 지원으로 신학문을 보급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지역민의 민족의식 성장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들불처럼 퍼져나간 애국계몽운동은 결국 성공하지 못하였다. 국채보상운동은 일제의 방해와 국내외 정세 변화로 인해 1907년 말 이래 추진력을 잃었다. 실력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여러 사립학교들도 재정난

과 일제의 탄압으로 오래 존속하지 못하였다.

애국계몽운동의 또 다른 한계는 그것이 사회진화론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질서를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원리로 이해하는 가운데 한국 국권을 위협 받는 상황에 대해서도 그 원인과 해결 방안을 내부에서 찾고자 했다. 즉 한국 사람들이 신학문과 국제정세에 밝지 못한 점을 원인으로 꼽았기에 일제의 침략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때문에 애국계몽운동가들은 직접적인 항일 투쟁에 나선 경우가 많지 않았으며, 국권 피탈 이후 일제의 관리로 근무하는 등 친일로 기울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처럼 애국계몽운동은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일제의 방해와 탄압으로 인한 제약도 크게 받았다. 그럼에도 애국계몽운동이 한국역사 그리고 지역사회에 끼친 영향은 결코 적지 않다.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폭넓은 참여는 국민으로서의 의무감을 심어주는 동시에 국권회복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일깨웠다. 예산 지역에 설립된 사립학교에서는 지역민들에게 근대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는 민족의식 성장의 계기가 되었다. 애국계몽운동의 영향은 1910년대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1919년 3.1운동에 참여한 학생과 청년층의 존재는 애국계몽운동 아래 민중 성장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참고문헌〉

『대한매일신보』『황성신문』『만세보』『기호홍학회월보』『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
일람』

『고종실록』

『주한일본공사관기록』

『조선총독부관보』

『(대한제국)관보』

『승정원일기』

『고종시대사』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 홈페이지(<http://e-gonghun.mpva.go.kr/>)

디지털예산문화대전(<http://yesan.grandculture.net>)

예산읍지편찬위원회, 『예산읍지』, 2016.

충주신문(<http://m.cjwn.com/48555>)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 『충청남도지 8-근대』, 2008.

김형목, 『대한제국기 충청지역 근대교육운동』, 도서출판 선인, 2016.

_____, 『충청도 국채보상운동』, 도서출판 선인, 2016.

내포지역연구단, 『근대이행기 지역엘리트 연구』, 경인문화사, 2006.

덕산초등학교총동창회, 『덕산초등학교100년사』, 2012.

도면회, 『대한매일신보로 보는 한말의 대전·충청남도』, 다운샘, 2004.

유영렬, 『애국계몽운동 I -정치사회운동』,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
동사연구소, 2007.

예산교육청, 『예산교육사』, 2007.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내포의 역사와 문화』, 2015.

최기영, 『애국계몽운동 II -문화운동』,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
사연구소, 2009.

김상기, 「예산지역 독립운동의 전개」, 『충청문화연구』27,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2022.
이승윤, 「일제의 탄압과 의연금의 행방」, 『서울의 국채보상운동』, 서울역사편찬원, 2023.

제4장

1910년대 예산인의 국내독립운동

이성우 충남대 충청문화연구소 연구원



1910년대 예산인의 국내독립운동

이성우



1. 1910년대 국내독립운동
2. 독립의군부와 예산인
3. 광복회 충청도 지부와 예산인
 - 1) 충청도 지부의 결성과 김한종
 - 2) 충청도 지부에 참여한 예산인
 - 3) 예산인의 충청도지부에서의 활동
4. 예산인의 1910년대 독립운동의 의의

1. 1910년대 국내독립운동

대한제국은 1910년 8월 일본제국주의 침략을 받아 주권을 빼앗기고 식민지가 되었다. 일제는 식민지배체제 구축과 민족말살 정책을 지배정책으로 삼고 가혹한 탄압과 수탈을 자행했다. 일제는 국권을 강탈한 후 무단통치를 실시했다. 일제는 경찰과 군대를 전국에 배치하고 군사적 통치기반을 조성했으며, 경무총감을 현병대사령관으로 임명하고 현병경찰을 동원해 무단통치를 실시했다. 일제는 영원한 지배체제를 구축하려 했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민족은 수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어야 했다.

1910년대 독립운동은 식민통치라는 현실에 직면하면서 한말 국권회복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독립운동 방략을 모색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국권회복운동은 국권회복이라는 목적은 같았으나 의병전쟁과 계몽운동으로 방법과 이

념상으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국망에 직면하면서 계몽운동의 실력양성이나 의병전쟁의 무력투쟁만으로는 식민체제를 극복할 수 없다고 인식했고 그 결과 독립전쟁론이라는 새로운 투쟁방략이 수립되었다.

독립전쟁론은 국외에서 독립군을 양성해 일제와 전쟁을 벌여 독립을 달성한다는 방략이다. 이를 위해 독립운동가들은 국외로 망명해 독립운동기지 건설을 추진했다. 국외독립운동 기지는 만주와 연해주 지역을 중심으로 건설되었다. 만주와 연해주 뿐만 아니라 한국인이 거주하는 세계 모든 곳에서는 독립운동기지들이 건설되어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국내에서는 비밀단체들이 조직되었다. 1910년대 국내는 일제의 직접 통치를 받는 지역으로 감시와 탄압이 그 어떤 지역보다 삼엄했기 때문이다. 또한 한일강제병탄 후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국외 망명을 추진하면서 국내독립운동은 침체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조건에도 국내에서는 국권회복운동을 계승해 독립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1910년대 국내 비밀단체의 목적은 독립전쟁을 실현하고 국외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국외독립운동기지는 국내에서 인적·물적자원을 지원 받아야 했다. 따라서 국내에서 조직된 비밀단체들은 자금모집, 의열투쟁 등을 전개하며 국외독립운동기지와 연락망을 구축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1910년대 국내에서는 광복회(光復會)·달성친목회(達城親睦會)·대동청년단(大東青年團)·독립의군부(獨立義軍府)·민단조합(民團組合)·송죽회(松竹會)·조선국권회복단(朝鮮國權回復團)·조선국민회(朝鮮國民會)·조선산직장려계(朝鮮產織獎勵契)·천도구국단(天道救國團)·풍기광복단(豐基光復團) 등 많은 비밀단

체들이 조직되었다.

그러나 1910년대 국내 비밀단체는 의병전쟁과 계몽운동 계열로 나뉘어 조직되었다. 국망 이후 한말 의병전쟁계열은 복벽주의(復辟主義), 계몽운동계열은 공화주의(共和主義) 이념의 단체를 조직했다. 복벽주의란 구체제로의 복귀, 즉 전제군주제(專制君主制)로의 복귀를 말한다. 의병전쟁은 충군애국에 기반을 두고, 대한제국의 국권을 회복하고자 했던 국권회복운동이었다. 따라서 의병전쟁에 참여했던 이들은 한일강제병탄 후에도 대체로 복벽주의 노선을 고수하고 있었다.

계몽운동은 실력양성이 국권회복의 방법이라고 보았으며, 자유민권사상을 수용해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보았다. 계몽운동은 대한제국과 같은 왕정 국가가 아니라 국민주권에 입각한 국가를 건설하고자 했다. 이런 이유로 계몽운동계열은 한일강제병탄 후 공화주의 노선을 추구했다.

이처럼 1910년대 국내에서는 조국독립이라는 목적은 같았으나 조직주체와 이념상으로는 다른 단체들이 조직되었다. 한말 국권회복운동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결과였다. 그러나 두 계열은 상호보완적 성향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의병전쟁과 계몽운동계열은 국외독립운동세력을 지원하는 데 목표를 두었으며, 국외 독립운동단체나 독립운동기지를 후원하며 독립전쟁을 추진했다.

2. 독립의군부와 예산인

독립의군부는 1912년 9월(음) 서울에서 곽한일(郭漢一)·이명상(李明翔)·이식(李弌)·전용규(田鎔圭) 등 재야유생과 전직관료들이 조직한 단체이다. 독립의군부는 조직된 후 경기도·충청도·전라도·경상도 지역에 윤상보(尹尙普)·이승열(李承烈)·임병찬(林炳讚)·최옥영(崔旭永) 등에게 사령서(辭令書)를 전달해 부원확보에 주력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독립의군부는 경기·충청·전라·경상도 지역에서 한말 의병전쟁에 참여했던 이들을 중심으로 다수의 부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독립의군부는 한말 의병전쟁에 참여했던 이들이 중심이 된 복벽주의 계열의 단체였다. 따라서 독립은 ‘거병(舉兵)’을 통해 이루고자 했다. 단체이름이 ‘독립의군(獨立義軍)’인 것도 의병봉기를 통해 독립을 달성한다는 뜻을 갖고 있었다. 한말 의병에 참여했던 이들은 일제가 대한제국을 강점하자 독립의군을 조직해 독립을 쟁취하고자 했던 것이다. 따라서 독립의군부는 1913년 3월(음) 거의(舉義)를 추진했다. 곽한일과 이식 등은 서울에서 거병을 협의했으며, 전북지역에서는 임병찬·김재구(金在龜) 등이 의병봉기를 추진했다.

그러나 독립의군부의 계획은 실행되지 못했다. 김재구가 1913년 3월(음) 초 피체되었고, 1913년 4월(음) 곽한일, 이정노(李鼎魯) 등이 체포되었기 때문이다. 독립의군부가 1차로 발각된 것이다. 이들이 피체되었음에도 독립의군부는 조직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다. 독립의군부는 삼남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인원들이 참여하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곽한일, 이정노 등 일부 인원만이 피체되었기 때문이다.

독립의군부는 계속해서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고, 1914년 3월(음) 서울에서

총대표 및 전국의 도(道)와 군(郡)의 대표를 선정했다. 총대표는 고석진(高石鎮)·곽한일·김용응(金鏞應)·민정식(閔正植)·이명상(李明翔)·이승욱(李承旭)·이인순(李寅淳)·임병찬·전용규·조재학(曹在學)·조형하(趙衡夏)·최만식(崔萬植)·채상덕(蔡相德)이 맡았으며, 강원·경기·경상·전라·충청·평안·함경·황해도 대표들이 선정되었다. 충청도 대표는 유준근(柳濬根)이었다.

충남의 각군대표도 선정되었는데 예산에서는 남규진(南奎振)과 신상교(辛尙敎)가 대표로 선정되었다. 이들의 대표선정은 독립의군부를 조직한 곽한일, 이식과의 관계 때문으로 여겨진다. 곽한일은 충남 온양출신이다. 그는 최익현(崔益鉉)의 문인으로, 1906년 홍주의병에 참여했다. 곽한일은 1906년 5월 충남 예산에서 봉기했으며, 홍주의병이 홍주성을 점령했을 때 의진에 합류했다. 곽한일은 돌격장을 맡아 홍주성 전투를 벌였으며, 홍주성 전투에서 패한 후 민종식(閔宗植)·이용규(李容珪) 등과 재기를 도모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일진회원의 밀고로 체포되어 전라도 지도로 유배형에 처해졌다.

이식은 충남 청양 출신으로 최익현의 문인이다. 이식도 홍주의병이 홍주성을 점령했을 때 의진에 합류해 참모사(參謀士)를 맡았다. 그러나 홍주성 전투에서 패한 후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었으며, 1907년 7월 종신유배형을 받고 대마도에 유폐되었다. 대마도에는 최익현도 유폐되었다. 최익현은 1906년 6월 전북 태인에서 임병찬·고석진(高石鎮) 등과 봉기했다. 그러나 봉기 직후 체포되어 임병찬과 함께 대마도에 유폐된 것이다. 이식은 1907년 1월 최익현이 대마도에서 순국하자 부집례(副執禮)를 맡아 임병찬과 함께 장례를 치렀으며, 1909년 2월(양) 석방되어 유준근·이상구(李相龜) 등과 귀국했다.

이처럼 곽한일과 이식은 최익현의 문인이며, 홍주의병장 출신이었다. 이는 독립의군부가 최익현의 문인과 홍주의병·태인의병 출신을 중심으로 조직되는 배경이기도 했다. 예산군 대표 남규진도 곽한일, 이식과 함께 홍주의병에 참여했던 의병장이었다. 그는 최익현의 지시에 따라 1906년 2월(음), 곽한일과 함께 예산 일대에서 400여명의 의병을 모아 봉기했다. 남규진과 곽한일은 해미성을 점령하려했으나 민종식의 홍주의병이 일본군에 포위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1906년 5월 홍주성으로 들어가 홍주의병에 참여했다.

남규진은 돌격장에 임명되어 일본군과 전투를 전개했으나 홍주성이 함락되면 서 체포되어 문석환(文奭煥)·신보균(申輔均)·신현두(申鉉斗)·안항식(安恒植)·유준근·이상구(李相龜)·이식·최상집(崔相集)과 함께 대마도에 유폐되었다. 남규진은 최익현이 순국하자 집례(執禮)를 맡아 임병찬, 이식, 신보균 등과 장례를 치렀으며, 1908년 10월 문석환·신현두·최상집과 함께 풀려났다. 신상교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나 독립의군부과 곽한일, 이식, 임병찬 등 최익현의 문인이며 홍주의병과 태인의병 출신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선정된 것으로 여겨진다.

독립의군부는 1914년 5월 김창식(金昌植)·이기영(李起永)·정철화(鄭哲和) 등이 자금을 모집하던 중 체포되었고, 전북지역에서 독립의군부를 이끌고 있던 임병찬도 체포되면서 2차로 발각되었다. 그러나 독립의군부의 경북·전북·충남·충북지역 조직은 건재했다. 독립의군부는 1916년 이용규(李容珪)·이만직(李晚植)·윤충하(尹忠夏)·손진형(孫晉衡)·전용규·이내수(李來修) 등이 거병을 추진했고, 같은해 10월(음)에도 거진(巨鎮)을 설치하고 각지에서 의병봉기를 추진했다. 그러나 거병을 추

진하던 중 1917년 1월(음)과 4월(음) 이용규·이만직·이내수·최전구(崔銓九) 등이 체포되었고, 이후 광한일·전용규·손진형 등이 체포되면서 해산되었다.

3. 광복회 충청도 지부와 예산인

1) 충청도 지부의 결성과 김한종

예산인의 1910년대 대표적인 독립운동은 광복회 충청도 지부의 결성과 활동이었다. 광복회는 1915년 7월 15일(음) 대구에서 박상진(朴尙鎮)·우재룡(禹在龍)·채기중(蔡基中) 등이 중심이 되어 조직되었다. 광복회원들은 대구 달성공원에 모여 “우리는 우리 대한독립권(大韓獨立權)을 광복하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바칠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일생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는 자자손손(子子孫孫)이 계승하여 불구대천(不俱戴天)의 원수 일본을 완전 축출하고 국권을 완전히 회복하기까지 절대불변하고 일심전력할 것을 천지신명께 맹세”한다고 서약한 후 광복회를 조직했다. 광복회는 군자금 모집을 위해 발송한 통고문에서도 “조국을 회복하고 우리의 원수를 물리치고 우리 동포를 구하는 것은 우리민족의 천직(天職)이며, 우리의 의무이다. 광복회는 성패(成敗)를 불구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창립한 것”이라며 조직목표를 밝혔다.

광복회원들은 조국을 회복하고 원수 일본을 몰아내어 우리 동포를 구하는 것이 우리민족의 천직으로서 해야 하는 의무라 여기고 광복회를 결성했던 것이다. 이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해 성심으로 단체를 조직하고 독립운동

을 전개하면 강토의 회복과 광복은 당연히 이루어진다는 신념으로 광복회를 조직했다. 광복회의 목적은 국권을 회복하고 독립을 달성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광복회는 독립군 양성을 위해 만주에 사관학교를 설립하고 군대양성을 추진했다. 광복회는 무력이 준비되면 일제와 전쟁을 전개해 독립을 달성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결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은 광복회의 투쟁강령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1. 무력준비(武力準備): 일반부호의 의연(義損)과 일본인이 불법징수하는 세금을 압수하여 이로써 무장을 준비함.
2. 무관양성(武官養成): 남북만주에 사관학교를 설치하고 인재를 양성하여 사관(士官)으로 채용함
3. 군인양성(軍人養成): 우리 대한의 의병, 해산군인 및 남북만주 이주민을 소집하여 훈련하여 채용함
4. 무기구입(武器購入): 중국과 러시아에 의뢰하여 구입함
5. 기관설치(機關設置): 대한, 만주, 북경, 상해 등 요지에 기관을 설치하되 대구에 상덕태(尙德泰)라는 상회에 본회의 본점을 두고, 각지에 지점 및 여관, 또는 광무소(礮務所)를 두어서 이로써 본 광복회의 군사행동의 집회, 왕래(往來) 등 일절(一切)의 연락기관으로 함.



김한종 의사 ©독립기념관

6. 행형부(行刑部): 우리 광복회는 행형부를 조직하여 일본인 고등관(高等官)

과 한인(韓人)의 반역분자를 수시수처(隨時隨處)에서 포살을 행함.

7. 무력전(武力戰): 무력이 완비되는 대로 일본인 섬멸전(殲滅戰)을 단행하여
최후 목적을 완성함.

광복회의 투쟁강령은 ‘무력준비·무관양성·군인양성·무기구입·무력전’이었다. 투쟁강령은 독립전쟁을 벌이기 위한 방략이었고, 대부분이 무력준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광복회는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 만주에 사관학교를 세우고자 했다. 그리고 의병과 해산군인을 중심으로 군대를 양성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사관학교 운영비용은 한인(韓人)을 만주로 이주시키고 이들에게 농토를 개간해 식량과 병력을 공급할 계획이었다.

광복회의 이러한 목적은 독립전쟁론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독립전쟁론은 일제로부터 전쟁을 통해서만 독립할 수 있다는 인식아래 계몽운동의 실력양성론과 의병의 무장투쟁론이 결합한 것이었다. 광복회도 독립군을 양성하고 자금을 조달해 군비를 갖춘 뒤 일제와 전쟁을 벌이고자 했다. 광복회는 이를 위해 한인을 만주로 이주시키고 자금을 조달해 전쟁을 수행한다는 방략을 수립했다. 따라서 광복회는 ‘회(會)’라는 온건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편제는 군대식이었다.

〈본부〉

사령관: 박상진(朴尙鎮) 지휘장: 우재룡(禹在龍)·권영만(權寧萬)

재무부장: 최준(崔俊) 사업총괄: 이복우(李福雨)

〈각도 지부〉

경기도지부장: 김선호(金善浩) 황해도지부장: 이해량(李海量)

강원도지부장: 김동호(金東浩) 평안도지부장: 조현균(趙賢均)

함경도지부장: 최봉주(崔鳳周) 경상도지부장: 채기중(蔡基中)

충청도지부장: 김한종(金漢鍾) 전라도지부장: 이병찬(李秉燦)

〈해외〉

단동: 안동여관(손회당(孫晦堂)), 봉천: 삼달양행(정순영(鄭淳榮))

만주사령관: 이석대(李奭大)·김좌진(金佐鎮)

광복회는 결성 이후 조직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독립전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회원의 확보와 활동거점의 설치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광복회는 독립운동가를 지부장으로 임명하고 국내에 지부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지부장은 비밀조직의 특성상 해당지역에 연고가 있는 인물들이 임명되었다. 지부장들은 광복회가 추진했던 주요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했다.

국내지부는 전국 8도에 설치되었으며 충청도 지부는 예산군 광시면 출신의 김한종이 조직했다. 그는 1910년 한일강제병탄 후 충청도 지역에서 국권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다. 김한종은 동지들을 규합하던 중 1916년 7월에 김경태(金敬泰)·김재창(金在昶)과 함께 부여에서 조선총독 및 고관들의 암살을 모의했다. 김한종은 조선총독이 부여지방을 시찰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조선총독 암살할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이를 수상히 여긴 일제경찰이 김한종의 집을 수색하기에 이르렀고 김한종을 비롯해 이 계획에 참여했던 이들은 각자 피신하게 되었



김한종 의사 생가(광시면 신흥리) ©독립기념관

다. 김한종은 당시 경상도에서 박상진이라는 인물이 국권회복을 위하여 널리 동지들을 규합한다는 말을 듣게 되고 채기중의 소개로 1917년 경주로 박상진을 찾아가 광복회에 가입했다.

김한종이 채기중을 통해서 박상진을 만나는 것은 김한종 판결문을 통해서 확인된다. “박상진은 위인(偉人)으로서 대정 5년(1916년; 필자주) 장관찰(張觀察)을 살해할 것을 계획하고 당시 대구감옥에서 수감 중이었으나 음력 5월 말경에 출옥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때 소개해 주겠다는 것으로 그즈음 채기중과 함께 박상진의 집으로 가 박을 만나자 이번의 실패는 인재를 얻지 못한 탓으로 노출된 결과라고 말하면서 채기중은 박에 대해 본인을 동지라고 소개해 주었다”고 한다. 김한종은 박상진·채기중·우재룡 등과 회합한 후 국내에 지부 설치를 논의한 후 예산으로 돌아와 지부조직에 착수했다.

김한종은 가장 먼저 친분이 있던 천안의 장두환(張斗煥)을 광복회에 가입시켰다. 김한종은 장두환에게 광복회의 목적을 설명했다. 그리고 회원의 모집과 자산

가의 조사 및 기타 광복회 활동에 진력해 주기를 부탁했고 장두환은 이를 승낙했다. 김한종이 충청도지부원 모집하는 과정을 충청도지부원 정우풍(鄭雨豐)은 「의암수기(宜庵手記)」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지난 정사년(丁巳年, 1917년; 필자 주) 11월의 어느 날 내(정우풍; 필자 주)가 출타하였다가 귀가하니 그 때는 아산 월서리에 거주하였다. 아이가 아버지께서 출타하신지 삼일째 되던날 손님 두 분이 찾아 오셔서 ‘아버지가 계시느냐?’고 물었습니다. (두 손님은 장두환과 김한종이었다.) 이웃에 살던 이생원이 아이의 아버지가 출타한지 수 삼일이 되었노라고 답을 한 즉, 손님이 만나지 못함을 애석히 여기면서 남겼다는 글을 전해 주어 보니, 그때까지 면식이 없던 장두환의 글이었다. 시면(始面)에서 말하기를 홍현주(洪顯周)의 천거로 방문하였다고 했다(홍현주는 내가 정산관현에 거주하였을 때 친했던 사람인데, 현재 화산의 중석광에서 판매업을 하고 있으며, 장두환, 김한종 등과 내가 만나 상의할 것이 있다는 것이다). 말의 뜻은 단지 광업에 관한 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상의하고자 방문하겠다는 몇 자의 글이었다. 한가한 날을 택해 저녁에 장두환의 집에 도착하였더니, 두환이 주인의 예로 맞아주었다. 식사가 끝난 후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얼굴에 의기를 띠고 광복회 모의에 동심격설(動心激說)하여 사람이 있는 것을 꺼리지 아니하고 마치 눈앞에 사람이 없는 듯하였다

이처럼 김한종은 장두환과 함께 충청도 지역의 인물들을 찾아다니며 지부원을 모집했다. 김한종은 “일본 국내에서는 정쟁이 심하고 천재지변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하늘이 일본에 화(禍)를 내리는 것으로 일본은 장차 망할 것이다. 만주 등 해외동포 거주지에 무관학교를 세워 병사를 양성하고 무기를 비축하여 거병(舉兵)할 시기를 기다린다”면서 동지들을 설득하고 회원모집에 전념했다. 김한종의 노력으로 예산·홍성·청양·천안·아산지역을 중심으로 다수의 회원이 모집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충청도지부가 조직되었다.

2) 충청도 지부에 참여한 예산인

예산에서는 지부장 김한종을 비롯해 김상준(金商俊)·김성묵(金成默)·김영환(金英煥)·김완묵(金完默)·김원묵(金元默)·김재덕(金在德)·김재임(金在任)·김재정(金在貞)·김재철(金在哲)·김재풍(金在豐)·김재호(金在浩)·김채창(金在昶)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예산군 광시면 신흥리에 거주하고 있던 금령김씨(金寧金氏) 문중의 인물들이었다. 지부장 김한종 가문은 대대로 학행이 뛰어나고 특히 충효의 전통을 세습하는 전통이 있었다. 김한종의 12대조 김덕남(金德南)은 임진왜란때 조현의진(趙憲義陣)에 참여한 후 예산지역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7대조 김방언(金邦彦)과 그의 아들 김치화(金致和)는 효성이 지극하여 양대에 걸친 효행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旌閭)를 받았다.

금령김씨 문중에서 다수의 광복회원을 배출할 수 있었던 것은 김한종의 부친 김재정의 영향이 커다. 김재정은 백촌(白村) 김문기(金文起)의 충절을 숭모해 자신의 호를 백하(白下)라 할 정도로 김문기를 숭모했다. 김재정은 예산지역에서

후진을 양성하던 중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1906년 봉기한 홍주의병에 참여했다. 김재정은 성달영(成達永)과 함께 소모장(召募將)으로 의병모집과 군량을 담당했다. 그러나 홍주의병이 일본군에게 패하자 김기우(金箕祐)·박윤식(朴胤植)·박제현(朴齊賢)·박창노(朴昌魯)·성달영(成達永) 등 홍주의병장을 신흥리 자신의 집으로 피신시키고 재기를 도모하기도 했다. 김재정의 항일의식은 제자 김상준(金尙俊)·이재덕(李在德), 동생 김재풍과 아들 김한종에게 전승되었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금령김씨 문중인물들과 제자들이 충청도 지부에 참여했다.

충청도 지부에는 홍주의병에 참여했던 이들이 다수 참여했는데, 이들이 충청도 지부에 참여한 것도 김재정과의 관계 때문이었다. 김재정과 함께 홍주의병에 참여했던 성달영도 홍주의병이 실패한 후 동생 성문영(成文永)과 함께 광복회에 참여했다. 성달영·성문영 형제는 아산출신으로 홍주의병에 참여한 이들과 혈연·지연·학연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민종식을 비롯한 의병장들과도 두터운 교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홍주의병장 김재정의 아들 김한종이 주도한 광복회에 참여했던 것이다. 이밖에도 홍주의병에 참여했던 유창순(庾昌淳)·권상석(權相錫)·김경태(金敬泰)·한태석(韓泰錫) 등도 충청도 지부에 참여했다. 이처럼 충청도 지부는 홍주의병에 직접 참여했거나 그 영향을 받은 이들이 일제침략과 홍주의병 과정에서 형성된 항일의식을 광복회를 통해 실현하고자 조직한 것이다.

김한종은 유학적 가문에서 성장했으며 홍주의병장 김재정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광복회의 목적을 공화정치의 실현이라고 주장한 것이나, 박상진의 혁명 이론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910년 한일강제병탄 후 사상적으로 유학적 범주에 머무르지 않고 국권회복을 위한 방법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충청

도 지부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광복회 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 그는 경상도 지부에서 결행한 친일부호 장승원 처단사건에 관여했으며, 서울의 연락거점에서 박상진·채기중 등과 자주 회합을 갖고 광복회 활동을 주도했다.

김한종은 총사령 박상진과 함께 김좌진(金佐鎮)을 만주로 파견하기도 했다. 광복회는 군대를 양성하기 위해 만주에 본부를 설치하고 부사령이 만주지역 사령관이 되어 책임을 맡았다. 만주의 사령관은 황해도 의병장 출신인 이진룡(李鎮龍)이 맡았다. 그러나 이진룡이 운산금광에서 자금을 탈취하던 중 체포되자 광복회는 김좌진을 만주사령관으로 파견한 것이다.

김재풍은 김한종의 숙부(叔父)로 김재정에게 수학했으며 김한종을 가르치기도 했다. 김재풍은 광복회가 국내의 자산가들에게 고시문을 발송할 때 고시문에 날인할 인장을 직접 새겨 김한종에게 전달했으며 충청도에서 군자금 모집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김재창은 충청도 지부의 자금에 모집에 참여했으며, 예산에 설치되었던 충청도지부 연락거점을 담당했다. 특히 충청도지부에서 자금모집을 위해 충청도 자산가들에 보낼 통고문을 장두환과 함께 서울 등지에서 발송하는 일을 담당하기도 했다. 이밖에 김성묵·김원묵·김재철·김재인 등은 군자금 모집 시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광복회원들이 활동할 때에 이들을 피신시키거나 무기를 보관했다가 전달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이처럼 광복회 충청도지부의 조직과 활동은 김한종 문중인물을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진 특성이 있었다.

3) 예산인의 충청도지부에서의 활동

광복회는 전국적으로 지부를 설치하는 한편 국내·외에 활동거점을 설치하였

다. 활동거점은 상업조직으로 위장한 곡물상이나 잡화상이 대부분이었으며, 대구·영주·삼척·광주·예산·연기·인천 등에 설치되었다. 이러한 활동거점은 광복회 결성이전 총사령 박상진이 설치 운영했던 상덕태상회(尙德泰商會)·안동여관(安東旅館)이 효시였다. 이렇게 설치된 활동거점은 광복회원들의 모임장소로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자금모집이나 의열투쟁시 중요하게 활용되었다.

광복회의 국내거점은 주로 곡물상이었다. 삼척·예산·연기·인천·광주 등에 설치된 활동거점은 모두 곡물상이었다. 광복회 판결문을 보면 이재덕·김재창·황학성·김동호·박장희의 직업이 ‘미곡상’ 또는 ‘미곡중개업’이었고, 체포당시 주소가 이재덕·황학성은 인천, 박장희는 연기였다. 이를 통해 보면 충청도 지부원들은 각지에 곡물상으로 설치된 거점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곡물상으로 위장한 거점 중 활동상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곳은 인천에 설치한 곡물상이었다. 인천에 설치한 곡물상은 장두환·강석주·이재덕·황학성·김재창이 참여하고 있었다. 인천의 미곡상은 충청도 지부장 김한종에 의해 설치되고 운영되었다. 이 곳의 실질적인 책임은 이재덕이 맡고 있었고, 충청도지부원인 황학성·김재창 등이 파견되어 활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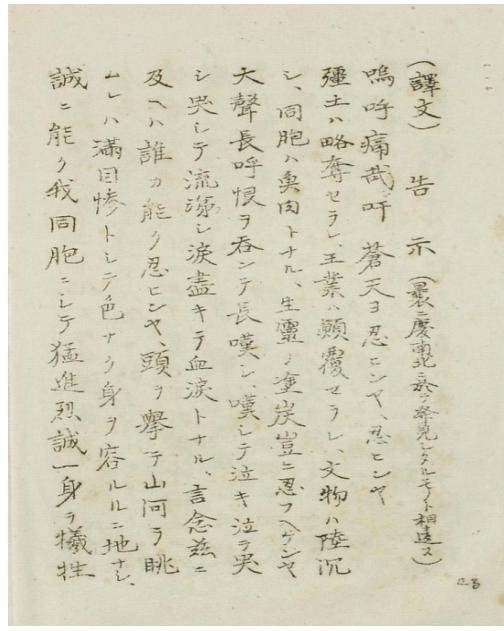
광복회는 군자금 모집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군대를 양성해 독립전쟁을 벌이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제가 무단통치를 실시하는 상황에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많은 제약이 따랐다. 따라서 광복회원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광복회에 제공해 자금을 조달하거나 활동비용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한계가 있었다. 사관학교를 설립하고 군대를 양성하는

데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광복회가 일제의 우편마차를 공격해 세금을 탈취하기도 하고 화폐를 위조해 자금을 조달한 것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도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광복회는 부호들에게 의연금모집을 추진했다. 전국의 자산가들에게 의연금을 요청하는 통고문을 보내고, 광복회원들이 직접 찾아가 의연금을 수령하는 것이었다. 전국의 자산가에게 독립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애국심’에 호소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자금을 모집하는 방법이었다.

광복회의 의연금 모집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대자산가에게는 본부에서 「포고문」을 발송하고, 소자산가는 각도 지부에서 별도로 통고문을 발송해 자금을 모집하는 형식이었다. 경상도와 전라도 지부에서는 「경고문」을 발송했고, 황해도 지부에서는 「배일파」라는 통고문을 발송했다.

김한종은 충청도지부의 통고문 발송과 자금모집을 주도했다. 김한종은 장두환·엄정섭(嚴正燮)에게 충청도지역의 자산가를 조사하도록 했다. 그리고 조사된 인물 중 대자산가의 명단을 광복회 지휘장 우재룡(禹在龍)에게 전달했다. 우재룡은 1917년 11월 중국으로 건너가 단동과 봉천 등지에서 충청



도지역으로 「포고문」을 발송했다. 광복회가 「포고문」을 중국에서 발송한 것은 국내에서 발송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광복회원들은 자신들이 조사한 자산가 명단은 소금물로 작성했다. 소금물로 작성하면 명단이 보이지 않으나 불을 쬐면 글씨가 보이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처럼 광복회의 통고문 발송은 치밀하게 전개되었다.

충청도 지부에서는 「고시문(告示文)」과 「지령문(指令文)」도 발송했다. 「고시문」은 충청도지부에서 소자산가들을 대상으로 발송한 통고문이다. 김한종은 1917년 11월(음) 다음과 같이 충청도지 지역 자산가들에게 보낼 「고시문」을 작성했다.

강토는 빼앗기고 왕통은 정복되어 생령은 도탄의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차마 볼 수 없고, 당시 천재는 빈번히 동경(東京)을 휩쓸고 있으므로 이 호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여기서 분연히 결기하여 이의 회복을 기도 하려는 것이다. 동포들은 각자 그 능력에 따라 이를 원조하고, 특히 재력 있는 자는 재물로 원조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의연금을 요구하는 이유이며, 각자는 이에 대해 지역 태만함이 없기 바란다

김한종은 이재덕과 당시 장곡면 면장이었던 정태복(鄭泰復)에게 면사무소의 등사기를 이용해 「고시문」 2백여장을 등사하도록 했다. 그리고 김재풍이 제작한 ‘광복회지령회원감독장(光復會指令會員監督章)’ ‘제의안신(濟義安信)’ ‘변창희(卞昌曦)’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문서를 장두환에게 전달했다. 장두환은 인천에 있는 연락거점에서 김재창·황학성 등과 함께 ‘주의사항’을 첨부해 충청도 지역

자산가들에게 발송했다.

「지령문」은 충청도 지부에서 「포고문」을 받은 이들에게 발송한 통고문이다. 충청도 지부는 「고시문」을 발송하는 한편, 군자금의 원활한 모집을 위해 「포고문」 수령자들인 대부호에게도 “앞서 발송한 포고문을 받았을 것이다. 비밀을 염수하고 배당금을 준비하여 본회원의 요구를 기다려 교부해야 한다. 본회의 군율은 엄격하므로 생명포기의 폐단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지령문」을 발송했다. 충청도 지부에서 「지령문」을 다시 보낸 이유는 「포고문」을 수령하고도 의연금을 내지 않는 부호들이 많았으며, 이들이 일제경찰에 신고함으로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자금모집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있었다. 이러한 「지령문」은 다른 지부와 달리 충청도지부의 활동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다.

광복회는 의연금 모집에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었다. 독립운동에 사용될 자금이라면 부호들이 자발적으로 의연금을 낼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나라를 빼앗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임에도 의연금 모집은 자산가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받았고, 밀고하는 이들이 대다수였다.

따라서 광복회는 의열투쟁을 통해 일제의 식민지배 기반인 친일세력을 처단해 민족적 각성을 일깨우고자 했다. 전라도지부에서는 서도현(徐道賢)·양재학(梁在學), 경상도지부에는 장승원(張承遠)을 처단했으며, 충청도지부에서는 박용하(朴容夏)를 처단했다.

김한종은 1917년 10월(음) 장두환·김경태·김재풍 등과 친일파 처단을 협의했다. 경상도 지부에서 장승원을 처단한 것처럼 충청도 지부에서도 친일파를 처단해 민족적 각성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었다. 김한종은 협의를 마친 후 서울에서

지휘장 우재룡에게 권총 2정을 전달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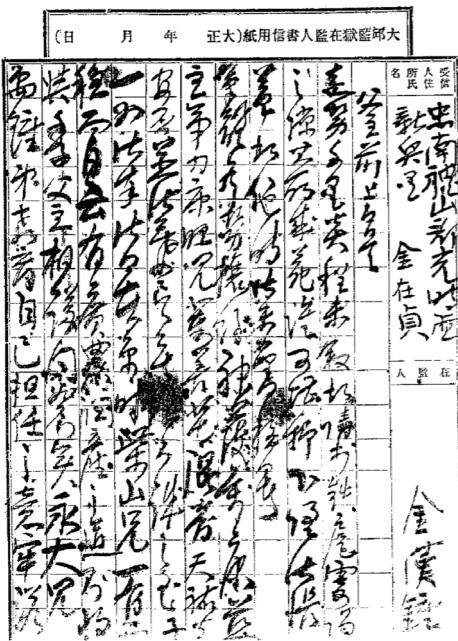
충청도지부는 지부장 김한종이 거주하고 있던 예산지역에서 의열투쟁을 추진하고자 했다. 그러나 충청도지부는 처단대상을 도고면장 박용하(朴容夏)로 정했다. 박용하는 광복회 통고문을 일제현병에게 건네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충청도지부의 박용하 처단은 친일면장을 처단하는 차원에서 전개되었던 것이다. 김한종은 장두환과 함께 1918년 1월 24일 임봉주와 김경태에게 권총을 전달하고 박용하 처단을 지시했고, 임봉주와 김경태는 다음날 박용하를 찾아가 처단했다.

김한종은 칠곡부호 장승원 처단에도 참여했다. 장승원 처단은 1917년 11월에 결행되었으나 1916년부터 여러 차례 시도한 끝에 성공할 수 있었다. 장승원 처단시도가 실패하면서 경상도 지부장 채기중은 유보하자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김한종은 ‘장승원을 지금 처단하지 않으면 모든 일이 허사로 돌아간다’라며 강력하게 거사를 거행할 것을 주장했다. 결국 유창순을 비롯해 채기중·강순필·임봉주는 1917년 11월 10일 장승원을 처단했다. 이들은 장승원을 처단한 후 그의 집과 마을 어귀에 ‘나라를 광복하려 함은 하늘과 사람의 뜻이니 큰 죄를 꾸짖어 우리 동포에게 경계하노라(曰維光復 天人是符 聲此大罪 戒我同胞), 경계하는 이 광복회원(聲戒人 光復會員)’이라는 문구가 적힌 사형선고문을 붙이고 돌아왔다. 광복회의 장승원 처단이 조국의 광복을 위해 친일파를 처단했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 충청도지부에서도 박용하 처단 후 사형선고문을 남겨 의열투쟁의 정당성을 밝혔다.

3) 충청도 지부의 해체와 예산인

일제는 1917년 10월경부터 광복회의 존재를 파악했다. 광복회에서 발송한 통고문이 일제에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통고문을 수령한 부호들이 신고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광복회는 일제의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통고문을 발송했고, 1918년 1월에도 경상도에서 20여 통, 충청도에서 40여 통이 추가로 발각되었다. 발송처도 중국 단동, 정주, 평양, 김천, 상주, 경주, 대전 등 전국적이었다.

일제는 긴장했다. 현병경찰을 동원해 무단통치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에서 군자금 모집 통고문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일제는 무단통치를 실시만 하면 조선 민중들이 식민정책에 순응할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광복’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단체가 조직되어 자금을 모집하고 있었고, 활동 무대가 국내라는



김한종의사가 대구감옥 수감 중 부친 김재정에게 보낸 편지

점은 일제를 당황케 했다. 더욱이 일제의 무단통치를 비웃기라도 하듯 자신들의 정체를 명백히 밝히고 있었고, 장승원과 박용하 처단에는 사형선고문까지 붙이는 대담함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제는 광복회원 체포에 집중했고, 대상은 충청도 지역이었다. 일제는 통고문 수신자 주소가 정확하고, 의연금 요구액이 자산정도에 비례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는 해당 지역

을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겼다. 따라서 광복회 통고문이 가장 많이 발견된 충남 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충청도 지부의 박용하 처단은 일제가 충남지역 광복회원들을 주시하던 중에 거행되었다. 그리고 천안에서 충청도 지부원 장두환이 체포되었다. 일제는 장두환이 서울과 인천 등으로 자주 왕래하고, 외부인이 그의 집을 자주 방문하는 것을 의심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용하 처단이 이루어지자 곧바로 그를 체포했다. 장두환의 체포는 1918년 1월 27일에 이루어졌다. 박용하 처단이 1월 25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빠른 시점이었다. 그만큼 일제는 광복회원들을 주시하고 있었다.

일제는 장두환의 집을 수색하던 중 광복회가 통고문에 첨부했던 의연금 용지를 찾아냈다. 광복회는 통고문을 발송할 때 의연금을 기입하고 번호를 붙였다. 그리고 통고문 수령자의 이름을 표시한 후 절반을 잘라 통고문에 첨부하고, 나머지 반쪽은 의연금을 수령할 때 통고문 수령자에게 보여주어 광복회원임을 증명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런데 장두환의 집에서 천안 부호에게 보낸 통고문의 첨부 문서가 발견된 것이었다. 장두환이 광복회원이라는 결정적 증거였다.

일제는 이를 근거로 광복회원들을 체포하기 시작했고, 대상은 충청도 지부원들이었다. 먼저 예산에 거주하던 충청도 지부장 김한종이 체포되었고, 1918년 2월말까지 대부분의 회원들이 체포되었다. 이 중에는 총사령관 박상진도 포함되어 있었다.

일제의 광복회원 신문과 조사는 충남의 공주경찰서에서 이루어졌다. 충청도 지부원들이 가장 먼저 체포되면서 공주경찰서가 관할 경찰서가 되었고, 광복회

원들의 재판도 공주지방법원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상황을 정우풍은 「의암수기」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으로 남겼다.

나(정우풍;필자주)와 성문영(成文永)이 함께 경무부에서 수형 생활을 하였는데, 현병들이 옷을 훔치는 등 못하는 짓이 없었다. 그 달 16일에 감옥을 뛰었는데, 마침내 이 예심과의 일들이 끝나 6월 초 4일(1918년 7월 11일;필자주) 판사가 최준(崔浚)·권준홍(權準興)·이정희(李庭禧)·김재정(金在貞)·홍현주(洪顯周)·성달영(成達永)·유중협(柳重協)·기재연(奇載連)과 나를 불러 금전(金錢) 또는 인보증(人保證)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각자 그 친족이나 우인으로부터 돈이나 사람을 보증을 세워 집으로 귀가하였다.

김재정은 돈이나 사람을 구하지 못해 감옥을 나서지 못하였고, 성달영은 돈으로 입보(立保)하였으나 다시 구금되어 감옥을 나가지 못하였다. 나도 판사로부터 권고를 받았으나 돈이나 사람을 구할 방법이 없어 해결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우리 세 사람은 서로 불들고 울었다. 7월 초가 되어 김재정이 귀가하였고, 나 역시 석방되었다. 이건섭(李建燮)이 보증금 50원을 내주었다. 5일에 성달영도 역시 석방되어 동반해 귀가하였다. 같은해 12월 22일(1919년 1월 21일; 필자주)에 고종황제께서 봉어하셨고, 다음해 정월 5일에 공판 호출장이 도착했다. 즉시 백지로 흰사간(白笠)을 만들어 쓰고 상복을 입었다. (중략) 5일부터 개정하여 십여 일에 걸쳐 심문을 하여 마침내 선고를 하게 되었다. 박상진·김한종·채기중·김경태·임세

규(임봉주;필자주)·유창순·장두환은 사형을 선고 받았다. 나머지 사람들도 각기 논형이 있었는데, 오직 나와 성달영과 유중협은 석방되었다.

정우풍은 공주지방법원에서 있었던 광복회원들의 예심과 1심판결 과정을 자신이 겪은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으로 남겼다. 그의 기록에 의하면 일제는 최준·권준홍·이정희·김재정·홍현주·성달영·유중협·기재연에게 보석을 허락했다. 그런데 김재정은 보석금을 구하지 못해 풀려나지 못하다가 1918년 7월(음)에서야 풀려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충청도지부에 참여했던 예산인들도 1919년 2월 28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한종은 박상진·채기중·임세규·김경태·유창순·장두환과 함께 사형판결을 받았다. 김한종의 광복회에서의 위상과 활동으로 볼 때 예전된 형량 이었다. 김재창은 징역 7년, 김재풍은 징역 7년, 김재철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으며, 김재정의 제자 김상준과 이재덕은 징역 1년 형을 받았다.

경성복심법원 재판은 1919년 9월 22일에 있었다. 경성복심법원에서는 사형 판결을 받은 유창순과 장두환이 징역 10년과 7년형으로 감형되었고, 김재풍은 태90으로 감형을 받았으나 다른 이들은 항소가 기각되었다. 고등법원 재판은 1920년 3월 1일에 있었다. 고등법원에서는 김한종과 박상진의 항고 이유가 일부 인정되어 대구복심법원으로 환송되었으나 채기중·김경태·임세규는 사형, 김재창은 징역 7년형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김한종은 1920년 9월 11일 대구복심법원에서도 사형이 확정되어 1921년 8월 11일 오후 1시 30분에 사형이 집행되어 순국했다.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의 사형이 집행된 직후였다.

4. 예산인의 1910년대 독립운동의 의의

1910년대 독립운동은 한말 국권회복운동을 계승해 전개되었다. 예산인의 국내독립운동은 이러한 전형적인 특징을 갖고 있었으며, 1896년과 1906년 전개된 홍주의병과 관계 있었다. 1910년대 복벽주의 계열의 단체인 독립의군부도 홍주의병장 출신인 곽한일과 이식 등이 중심이 되어 조직되었고, 충청도 대표 유준근도 홍주의병 출신이었다. 이러한 관계로 홍주의병에 참여했던 예산출신 남규진이 예산군 대표로 선정되기도 했다.

예산출신 김한종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충청도 지부도 홍주의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김한종의 부친 김재정은 홍주의병장 출신이었고, 그의 영향으로 예산군 광시면 신흥리 일대에서 거주하던 금령김씨 문중인물과 제자들이 충청도지부에 참여했다. 또한 충청도지부원 중에는 홍주의병에 참여했거나 영향을 받은 이들이 다수가 참여했는데, 이러한 점도 김재정이 홍주의병 출신이라는 점이 기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광복회 충청도 지부는 홍주의병을 사상적 기반으로 조직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한말 홍주의병이 1910년 한일강제병탄이라는 상황에서 1910년대 독립운동으로 계승되었다고 할 수 있다.

광복회는 1910년대 국내에서 독립전쟁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였다. 광복회는 전국에 지부를 설치했는데, 김한종이 조직한 충청도 지부는 타지부에 비해 선도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예산·연기지역에 미곡상으로 위장한 활동거점을 설치했으며, 인천에도 활동거점을 설치하여 운영했다. 군자금 모집활동 역시 다른 어느 지부보다 활발했다. 김한종이 주도해 충청도지역의 대자산가에게 통고

문을 발송했으며, 충청도지역 소자산가에는 국내에서 「고시문」과 「지령문」을 제작 발송해 자금을 모집하기도 했다.

충청도지부는 1918년 김한종·장두환·김경태 등 중심인물들이 체포되고 옥사하거나 사형당하는 등 조직이 해체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체포되지 않은 인물들과 옥고를 치르고 나온 충청도지부원과 충청도 출신 인물들은 1919년 3.1운동 후 광복단결사대와 주비단 등을 조직해 광복회의 명맥을 이어 나갔다.

제5장

예산 3.1운동

김진호 전(前) 충남대 충청문화연구소 연구원



〈참고문헌〉

- 권대웅, 『1910년대 국내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 김상기, 『한말 홍주의병』, 흥성군, 2020.
- 박걸순, 「1910년대 비밀결사의 투쟁방략과 의의」,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6, 한국독립운동사, 2013.
- _____, 『독립전쟁론의 선구자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 역사공간, 2014.
- 신규수, 「대한독립의군부에 대하여」 『변태섭박사화갑기념사학논총』, 1985.
- 이상찬, 「대한독립의군부에 대하여」 『이재룡박사환력기념 한국사학논총』, 1990.
- 이성우, 「대한광복회 충청도지부의 결성과 활동」, 『한국근현대사연구』 12, 한국근현대사학회, 2000.
- _____, 『광복회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_____, 「1910년대 독립의군부의 조직과 활동」, 『역사학보』 224, 역사학회, 2014.
- _____, 「1910년대 전북지역 독립의군부의 조직과 활동」 102, 『한국근현대사연구』, 한국근현대사학회, 2022.
- _____, 『1910년대 국내독립운동의 지도자 소몽 채기중』, 지식산업사, 2022.
- 홍영기, 「1910년대 전남지역의 항일비밀결사」 『전남사학』 19, 전남사학회, 2002.



예산 3.1운동

김진호



1. 3.1운동의 전파
2. 3.1운동의 전개
3. 3.1운동의 양상
4. 일제의 탄압
5. 3.1운동 참가자
6. 역사적 의의

1. 3.1운동의 전파

일제의 폭압적 무단통치에 맞서 전 민족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였다. 식민지 직접지배체제하에 국내외에서 지속된 민족독립운동은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민족자결주의의 이념 확산에 독립운동의 전기(轉機)를 마련하였다. 만주에서 39명의 인사가 이른바 무오독립선언서인 ‘대한독립선언서(大韓獨立宣言書)’를 발표하였고, 상해에서 신한청년단이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동경에서는 1919년 2월 8일 조선청년독립단이 ‘선언서’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1919년 1월 말부터 국내에서 손병희(孫秉熙)의 천도교측이 이승훈(李承薰)의 기독교측과 협의하고 한용운(韓龍雲)의 불교측도 참가하여 민족대표 33인 명의로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였다. 국권이 침탈당하지 8년 6개월만으로 3,107일째인 1919년 3월 1일 ‘선언서(宣言書)’ 반포

로 세계 만방에 자주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의 방법으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민족독립운동의 가치를 올렸다. 이것이 3.1독립운동이다.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경성 서울의 명월관에서 민족대표 33명 중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고 만세삼창으로 의식을 마쳤다. 2시부터 탑골공원에서 민족대표와 독립선언식을 기다리던 학생, 시민들은 2시 30분경 팔각정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 ‘조선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독립만세’ 등을 외치며 모자를 벗어 하늘을 향해 던지거나 태극기를 흔들고 두 손을 높이 들어 휘저었다. 이어 공원 문을 나온 군중은 동서로 나누어 서울 시내의 각처를 활보하며 오후 4시경까지 만세 행진을 전개하였다. 본정(현 명동 일대)으로 집결한 군중은 군경의 제지를 받고 사방으로 흩어졌다. 경무총감부 직할 경성 본정경찰서·종로경찰서·용산경찰서 등 경찰, 조선주차군사령부 직할 용산 주둔 3개 중대 보병, 1개 소대 기마병 등 군병력이 무력으로 위협을 가하며 만세 군중을 해산시켰다. 일몰이 겹쳐 오후 7시경 군중들은 점차 흩어져 해산하였다. 하지만 서울 시내 각처에서 독립만세 함성은 이어졌다. 인접한 고양군 연희면 양화진에서 지역민들이 독립만세를 외쳤고 오후 11시경에는 연희전문학교 부근에서 약 200명의 학생 등이 만세를 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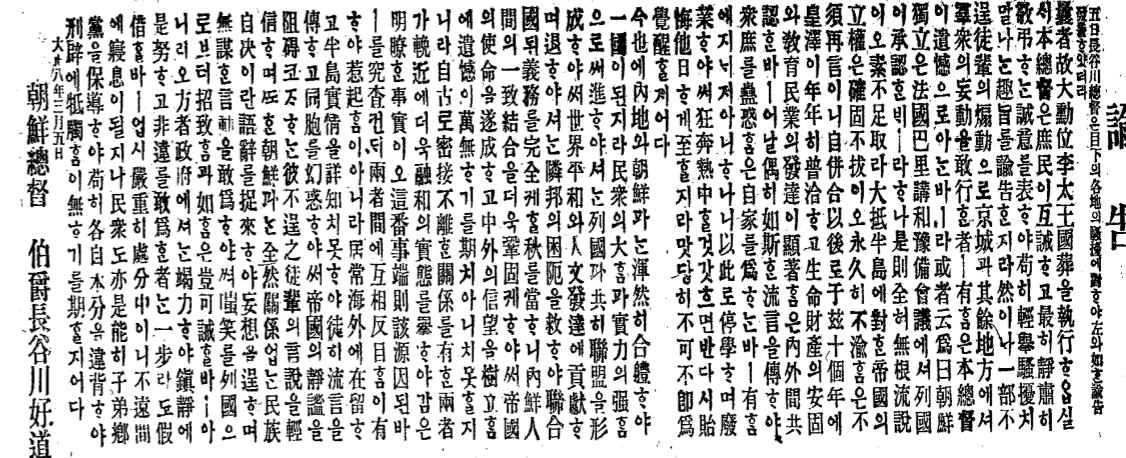
한편 지방에서도 3.1운동을 준비하였다. 기독교측에서는 독립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지방 동지들의 규합을 시도하였다. 이때 3.1운동 준비 계획이 지방에 알려졌다. 이어 기독교측 대표를 선정할 때 구체적 상황이 알려져 지방에서도 3.1운동을 준비하였다. 천도교측에서는 중앙총부에서 2월 25 ~ 27일 기도회 종료 보고와 국장 참례로 상경한 교직자에게 3.1운동 추진 상황이 알려졌다. 이들

은 각자 관할 교구(教區)와 교직자에게 비밀 연락으로 3.1운동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2월 28일부터 이종일이 천도교, 기독교, 불교 계통을 통해 독립선언서를 지방에 교부하였다. 서울에는 중등학교 학생들이 기독교측에서 교부받아 배포하였다. 황해, 평남, 평북, 함남, 강원, 전북, 경남, 경북 등지에 선언서가 전달되었다. 아울러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고 독립만세를 외칠 것 등 운동의 방법까지 일러주며 실행을 부탁하였다. 이에 3월 1일 황해의 해주, 평남의 평양·진남포·안주, 평북의 선천·의주·신의주, 함남의 원산 등 8곳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이어 고종 국장을 참례하기 위해 상경한 인사들이 서울의 3.1독립운동을 직접 목격하였거나 참가하였다가 귀향하여 지방에 서울의 독립운동을 전하고 직접 독립만세를 외치기도 하였다. 하지만 《매일신보(毎日申報)》 등 언론은 조선총독부의 보도 금지 조치가 내려져 3월 6일까지는 독립선언이나 독립만세에 대한 어떠한 보도도 되지 않았다.

3월 6일 오전 9시 조선총독부에서 ‘조선인의 민족자결주의를 표방한 독립운동에 관하여 또 금회 돌발한 소요사건에 대해서 금일까지 신문지에 게재를 금지하는 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하고 경무총감부는 각도 경무부장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3월 7일자 《매일신보》에는 3월 5일자 조선총독의 ‘유고(諭告)’를 1면 톱기사로 보도하였다. 3면 1단에 ‘각지소요사건(各地騷擾事件)’이라는 제목하에 민족대표 33인의 인적사항과 경기도(경성, 개성), 평안남도(평양, 진남포, 안주, 중화, 강서, 성천), 평안북도(선천, 의주), 황해도(황주, 곡산, 수안, 사리원), 함경남도(원산, 함흥)의 독립선언과 독립만세를 6단에 걸쳐 처음 보도하였다. 이로써

신문이 보급되는 지역이나 독자들은 한국이 독립을 선언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3.1독립운동을 인지하게 되었다.



3.1독립운동 탄압을 공식화한 첫 문건인 조선총독 유고 《매일신보》 1919년 3월 7일자 1면1단

충남에서는 2월 중순 수원 삼일학교 교사 김세환(金世煥)이 독립청원서에 서명할 동지 규합을 위해 서산 해미 읍내리 예수교회당으로 김병제를 방문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구체적 활동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3월 2일 전북 함열을 통해 논산에 독립선언서가 도착하고 이어 부여로 교부되어 논산·부여 천도교구의 교도들이 3월 3일 새벽까지 사이에 논산, 부여 각처에 배포되었다. 하지만 지역민의 인지나 권유 활동이 없는 상황에서 독립선언서 배포는 독립만세운동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2. 3.1운동의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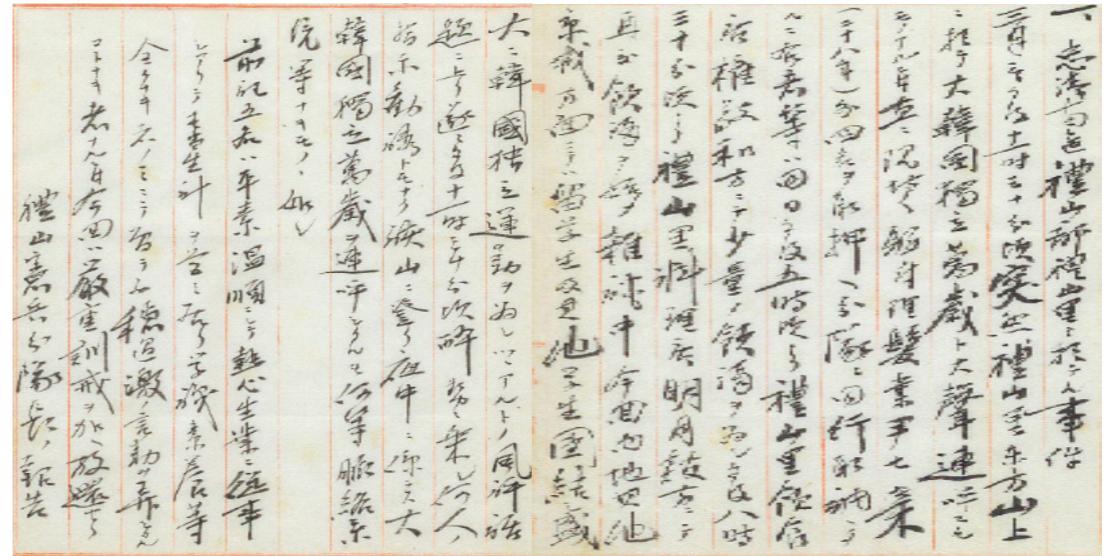
1) 예산면

예산에서의 3.1운동은 1919년 3월 3일 충남 최초로 일어났다. 예산 읍내에서 이 발업을 하는 28세 청년 윤칠영(尹七榮)은 3월 3일 오후 5시경 읍내 예산리 권경화(權敬和)의 음식점 집에서 친구 4명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 이어 뒤풀이로 8시 30분 경에 요리점 명월관(明月館)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 자리에서 논의하던 중,

‘금회 내지(內地 ; 일본) 기타 경성(京城) 방면에서는 유학생 기타 학생들이 단결하여 성대히 한국독립운동(韓國獨立運動)을 하고 있다’

라는 풍문을 화제로 대화를 나누었다. 이에 젊은 혈기에 의기를 투합(投合)하여 저녁 11시 30분경 예산읍내 동쪽 산 위로 올라갔다. 누구의 지시를 받았거나 주도나 권유가 없이 자발적으로 산 위에 오른 이들은 ‘대한국독립만세(大韓國獨立萬歲)’라고 연호(連呼)하였다. 한밤중에 젊은 청년 5명이 소리 높여 외친 독립만세는 읍내까지 울려 퍼졌다. 독립만세 소리를 듣고 놀란 예산현병분대 현병들이 즉각 산으로 출동해 5명을 현장에서 체포하였다. 이어 현병분대로 강제 연행하여 신문조사를 실행하였다. 이에 대한 원문 자료는 다음(우측) 쪽에 제시하였다.

현병들이 윤칠영 등을 조사한 후 현병분대장은 ‘평소 온순하고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여 정상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학식과 소양 등이 전혀 없다. 이전에 불온 과격한 언동을 한 적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수사 결론을 내리고 석방하면서 ‘엄중한 훈계’를 하였다.



1919년 3월 7일 충청남도장관이 조선총독부 내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문건(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실제 이들은 3.1운동을 추진한 세력이나 종교 단체들과도 관련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사전에 독립청원 등의 준비나 연락도 받지 않았으며 예산에서는 독립선언서도 교부받지 않았다. 따라서 3.1운동의 민족대표나 추진 세력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지 않은 청년들이 ‘대한국독립만세’를 외친 것이다.

3월 31일에는 읍내 시장에서 지역민들이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날 오후 2시쯤 예산리 예산시장에서 군중이 독립만세를 불렀다. 시장 군중 50~60명이 독립만세를 합창하고 시장 북쪽에 있는 예산군청으로 이동하여 독립만세를 외쳤다. 또한 예산현병분대 앞에서도 만세를 연호하였다. 이때 기독교 신자 부인이 군중을 향해 ‘조선독립만세’를 크게 소리쳤다. 이에 열기가 고조되어 독립만세 합성은 더욱 커졌다. 하지만 출동한 현병들에게 만세 행렬이 저지되었고 주도 인사로 4~5명이 체포당하고 제압됨으로써 만세 군중은 점차 사방으로 흩어져 해산하였다.

이어 4월 3일에는 신례원리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오후 10시 경에는 신례원현병주재소 부근 산 위에서 인근 마을 주민들이 집합해 불을 피우고 독립만세를 외쳤다. 기록에는 참가 인원이 150명 또는 300명 또는 수백 명이라고 전한다. 주재소 현병은 만세 군중이 주재소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형세로 판단하여 예산현병분대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다음날인 4월 4일에는 예산 군내 9개 면에서도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되었다.

4월 5일 오후 예산시장에서 장을 보던 군중들이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 이들은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시장 일대를 활보하고 이어 예산현병분대를 향해 이동하였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5일에는 예산 장날을 이용하여 오후 1시경에 장꾼 일동이 소요하며 행동이 불온하였으므로 현병분대에서 출동하여 진압한 바 군중 편에 중상자가 4~5인에 달하였고(하략) (『매일신보』, 1919. 4. 10.)

최문오(崔文吾)는 대정 8년(1919년) 4월 5일 오후 3시경 예산군 예산면 예산시장에서 박대영(朴大永) 외 약 50명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동소(同所)를 행진함으로(하략) (『최문오 판결문』)

동군(同郡) 예산 - 4월 5일 오후 4시 약 2,000명의 폭민이 예산시장에서 폭행을 함으로 의해 발포 해산시켰는데(하략)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 공 7 책기 7, 고제10371호, 「독립운동에 관한 건(제39보)」, 1919. 4. 6, 경무총감부 고등경찰과)

라고 전해지고 있다.

예산시장에 전개된 오후 1시경, 3시경, 4시경의 독립만세운동 상황이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오후 1시경부터 시장에서 군중이 운집하여 독립만세를 외치기 시작하였고, 오후 3시경 예산현병분대로 만세 행진을 전개하였다. 이때 박대영 등의 주도로 제지하는 현병들과 격투하였으며, 오후 4시경에는 만세 군중이 2,000명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들 가운데 약 50여 명은 박대영, 최문오 등의 지휘하에 시장에서 현병분대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시장을 순찰 중이던 육군 현병 상등병 소기 아키하데(曾木秋秀)가 군중을 진압하려고 몇 차례에 걸쳐 해산을 명령하였다. 군중은 명령을 거부하고 더욱 거세게 조선독립만세를 열창하였다. 오후 3시경 현병은 박대영을 주도자로 지목하고 체포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박대영은 현병이 휴대한 3척(尺) 정도 곤봉의 양 끝을 양손으로 잡고 현병 몸을 움켜잡고 조이면서 항거하였다.

결국에는 박대영이 체포되자, 옆이 있던 최문오가 현병에게서 박대영을 탈환하기 위해 두 주먹을 휘둘러 현병을 구타하고 넘어뜨렸다. 하지만 현병들이 합세하여 달려들어 박대영과 최문오는 체포당하였다. 주도 인사들이 체포되고 이어 현병의 발포로 부상자가 발생하자 만세 군중은 점차 흩어져 해산하였다.

그리고 이날 오후 8시경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예산 읍내 주변 산 위에서 재현되었다. 예산 읍내의 주위 동쪽의 시산리의 시산, 서쪽 관영산, 남쪽 대홍 갈산리로 넘어가는 형제고개, 북쪽 금오산에서 인근 주민들이 봉화를 들고 독립만세를

외쳤다. 각자로 출동한 현병들이 ‘해산하라’고 명령조로 소리쳤고 불응하는 군중을 향해 발포하여 해산시켰다. 또한 궂은 봄비까지 내리면서 군중은 하산하여 귀가하였다.

2) 기타 지역

대홍면에서는 3월 3일 첫 독립만세를 외친 10일 후인 3월 13일 학생들이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오후 2시경 동서리 대홍공립보통학교에서 전교생들이 학교 앞 대홍시장으로 나가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모인 군중 수는 300명에 이르렀다. 전교생이 120명 정도였으므로 시장에 있던 사람들 180여 명이 학생들과 합세하여 만세를 외친 것이다. 이에 대홍현병주재소 현병들이 출동해 제지하고 주도 학생 3명을 체포하여 해산시켰다.

고덕면에서는 4월 3일 대천리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오후 2시 한내 장터에서 지역민 수백 명이 모여 ‘조선독립시위운동’으로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 상궁리 통장 인한수(印漢洙)는 대천 다리 옆에서 시장 군중에게 독립만세를 권유하며 주도하였다. 기록에는 참가 군중이 수백 명, 500명, 1,000명, 2 ~ 3,000명이라고 전해진다. 상인들이 각 점포 문을 닫고 상품을 거두어 정돈하여 시장은 파장(罷場)이 되었다. 이에 고덕현병주재소 소장인 육군 현병 오장(伍長) 시무라(志村松太郎)와 소속 현병들이 총출동해 군중을 진압하려고 총검을 휘둘렀다. 이때 부상자가 발생하자, 인한수가 말을 타고 지휘하던 시무라에게 달려들어 다리를 끌어당겨 말에서 떨어뜨렸다. 넘어졌다가 일어난 시무라가 반격하여 군도(軍刀)로 그의 목을 찔렀다. 인한수는 피를 토하며 현장에서 순국하고 말았다.

다. 이어 주도 인사 7명이 현병에게 체포되어 주재소 유치장에 구금되었다. 그러자 상궁리 마을 이장 장문환(張文煥)이 이인성 등 15 ~ 6명과 함께 인한수의 시신을 현병주재소로 운구하였다. 그리고 주재소 구내로 들어가 시무라에게 ‘어찌하여 인민(人民)을 살해하는가! 이 분을 살려내라! 그렇지 못하면 우리들 모두를 죽여라!’고 유행하였다. 아울러 구금된 7명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현병이 석방을 거부하자, 이들은 구금된 7명을 탈출시키고자 시도하였다. 곧 현병이 ‘행동을 중지하라, 해산하라’고 명령하였으나 장문환 등 일행은 그들에 맞서 저항하였다. 현병들이 무력으로 이들을 밖으로 몰아내고 인한수의 시신도 밖으로 밀어내었다. 이를 보고 격분한 장문환은 시무라에게 ‘우리들도 죽여라!’라고 하며 주먹으로 시무라의 앞가슴을 가격하였다. 이러한 군중과 현병들의 대치 상황이 지속되었다.

이때에 현병이 요청한 홍성에 주둔해 있던 수비대 보병 80연대 소속 보병 하사 이하 7명이 주재소에 도착하였다. 현병과 보병들이 합세하여 발포하면서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끝내 주도 인사 7명이 구금되면서 고덕면의 만세운동 대열은 해산하였다.

덕산면에서는 4월 4일 오후 1시 30분 읍내 덕산시장에서 30명의 군중이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장날이라 면 내의 신평리, 사동리, 옥계리, 시량리, 대치리 등 마을 주민들이장을 보러 읍내 장터로 모였다. 이들 각 마을 주민들이 시장 일대에서 독립만세를 불렀다.

대술면에서는 4월 4일 오후 9시경 산정리에서 민제식(閔濟植)이 마을 주민 약 30명과 함께 마을의 높은 곳에 올라 구 한국 깃발을 세우고 ‘한국독립만세(韓國

獨立萬歲'를 외쳤다.

같은 날 4월 4일 밤 광시면 하장대리에서는 횃불독립만세를 펼치고, 그 여세가 이어져 다음날 4월 5일 새벽 3시경 면 소재지인 광시리에 면민 40여 명이 집결하였다. 이들 군중이 독립만세를 외치며 광시면사무소로 이동하여 면사무소를 공격하였다. 공격 소식을 접한 광시현병주재소에서는 현병들을 보내 발포하면서 군중을 해산시켰다. 이때 9명이 체포되었고, 그중 7명이 태형의 고초를 겪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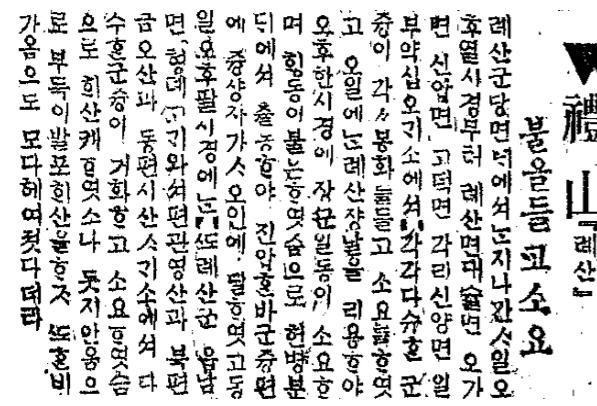
삽교면에서는 4월 5일 밤 목리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박성식(朴性植)이 주민 약 40명과 함께 마을 뒷산에 올라가서 불을 피우고 '대한국독립만세'를 절규하였던 것이다.

3) 9개 면의 횃불독립만세운동

4월 4일 예산, 홍성, 당진은 횃불독립만세운동으로 '불바다'가 되었다. 이날 예산에서는 덕산면 읍내리 시장, 대술면 산정리에서 독립만세를 외치고 예산면, 대

술면, 오가면, 신암면, 고덕면 각 마을과 신양면 일부 마을 등 18개소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오후 10시경부터 예산면, 대술면, 오가면, 신암면,



4월 4일과 5일 예산 횃불만세운동 보도 기사
《매일신보》 1919년 4월 10일 3면 4단

고덕면, 대홍면 등 면내 주민들이 마을 주위 산에 올라가서 각각 '봉화'를 들고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는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광시에서는 오후 8시경부터 횃불독립만세를 시작하였다. 하장대리 주민 250명이 마을 주위의 산에서 불을 피우고 독립만세를 외쳤다.

판결문에 의하면, 대홍 대율리에서 밤에 정인하(鄭寅夏)가 '조선의 독립을 위해 시위운동'을 전개할 목적으로 주민 수십 명을 이끌고 마을 동쪽 산(東方山) 위에 올라가서 횃불을 밝히고 조선독립만세를 화창(和唱)하였다. 또한 신양 연리에서 오후 8시경 성원수(成元修)가 '조선독립시위운동'으로 마을 뒷산 위에서 횃불을 놓고 주민 수십 명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불렀다.

수령 자료인 『응봉면범죄인명부』에 의하면, 10개 마을 12명이 예산현병분대에서 즉결처분으로 태형의 고초를 겪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이들은 4월 4일 예산 군내에서 전개된 횃불독립만세운동 때 독립만세를 외친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4월 4일 예산 군내의 9개 면인 예산·대술·오가·신암·고덕·대홍·광시·신양·응봉의 18곳에서 마을 주민들이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독립운동은 3월 31일부터 아산 군내에서 전개된 횃불독립만세운동의 영향을 받았다. 4월 3일 아산과 인접한 예산 신례원에서 인근 마을 주민들이 도고 시전리의 도고산에서 남쪽으로 뻗친 덕봉산(德鳳山) 자락에서 불을 놓고 독립만세를 연호하였다. 이어 4월 4일 예산 군내 9개 면의 18개소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된 것이다. 이날의 횃불독립만세의 외침이 예산군의 남쪽 홍성, 북쪽 당진에서도 울려 퍼졌다. 홍성에서는 금마, 장곡, 구항, 홍동 등 24개소에서, 당진에서는

면천의 8개 마을, 순성의 10개 마을에서 주민들이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예산을 중심으로 홍성, 당진의 3개 군 15개 면 60개소 산 위에서 횃불이 올라 ‘불바다’를 이루었고 대한독립만세의 함성은 인접 군면(郡面)에 까지 울려 퍼져 나아갔다. 다음날 4월 5일에는 서산 운산을 시작으로 4월 8일 운산, 음암, 정미, 4월 10일 운산, 음암 등 서산 지역의 횃불독립만세운동으로 이어졌다.

④ 3.1운동 기타 활동

5월 8일 신양 연리의 성원수가 체포하려 온 현병을 응징하였다. 신양현병주재소는 연리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는 정보를 뒤늦게 감지하였다. 주도 인사로 성원수를 지목하고 5월 8일 현병보조원 박동진(朴東鎮)이 체포를 위해 연리로 출동하였다. 현병이 자신의 집으로 출동하는 것을 본 성원수는 집을 뛰쳐 나가 피신하고자 하였다. 이에 박동진이 계속 추적하며 성원수를 뒤쫓았다. 박동진이 뒤쪽에서 그의 상의를 잡고 당겨서 두 사람은 한 땅어리로 엉켜서 다투었다. 그는 박동진을 논바닥에 넘어뜨리고 얼굴을 가격하고 무릎으로 가슴과 배를 구타하며 제압한 후 현장을 벗어났다. 하지만 끝내 체포된 그는 보안법 위반에 전치 3일의 가료(加療)를 요하는 상해 혐의가 추가되어 가중 처벌을 받았다.

예산현병분대 현병에게 정보가 사전에 탐지되어 현병이 출동함으로 독립만세를 외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3월 초생(初生)부터 장날’이 되면 만세를 부르려는 기미가 있어 ‘관헌(官憲)’ 현병의 경계를 엄중히 하여 3월 9일 예산 읍내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려는 움직임이 사전에 제지되었고 10여 일 후인 3월 21일에도

예산리에서 독립만세를 부르고자 시도하였으나 현병에게 탄압되었다.

한편 예산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한 인사들이 홍성에서 독립만세운동의 참가를 독려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4월 4일 대홍에서 독립만세를 외친 정인하는 4월 24일 홍성군 결성면 용호리 강진호 집에서 그에게 ‘이승만(李承晚) 등이 미국 대통령 월슨에게 독립운동을 한 결과, 조선이 독립을 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독립만세를 부르고 있다’며 ‘이번에 이태왕(李太王) 전하의 흥거(薨去)는 병사(病死)한 것이 아니라 일본인이 독살(毒殺)한 것이다’라며 독립만세를 주창하며 고종 독살설을 설파하였다.

또한 4월 5일 삽교에서 횃불독립만세를 외친 박성식은 다음날인 4월 6일 오후 7시경 홍성군 홍북면 상하리 엄중삼의 집에서 김현식과 음주를 하게 되었다. 그가 술을 권하였으나 김현식이 거절하여 다툼이 발생하였다. 고종의 국상(國喪)에 백립(白笠)을 착용하지 않고 ‘어찌하여 너는 흑립(黑笠)을 쓰고 다니냐!’며 따지고 ‘어찌하여 만세를 외치지 않느냐! 형편없이 무례한 놈이 아닌가!’라며 꾸짖었다. 이어 흑립 갓을 탈취해 망가뜨리고 목덜미를 잡고서 주먹으로 뺨을 가격하여 폭행 혐의가 추가로 기소되었다.

이상과 같이 예산에서 전개된 3.1운동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예산의 3.1운동 전개

일자	장소	주도 인사	주요 사항	전거
3.3.	예산 읍내	윤칠영	5명, 동쪽 산, 만세	도장관보고철, 독립운동사

일자	장소	주도 인사	주요 사항	전거
3.9.	예산 읍내	.	사전 제지	일람표
3.13.	대흥 동서리	학생	300명, 대흥시장, 만세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 개람표, 외무성기록, 독립운동사
3.21.	예산 읍내	.	사전 제시	일람표
3.31.	예산 읍내	군중 야소교도	5~60명, 예산시장, 군청 현병분대 이동, 만세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 외무성기록, 일람표, 매일신보, 독립운동사
4.3.	고덕 대천리	인한수 장문환	2~3,000명, 한천시장, 무력 진압, 만세, 발포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 외무성기록, 개람표, 일람표, 매일신보, 판결문, 독립운동사
4.3.	예산 신례원	군중	300명, 현병주재소 부근, 횃불만세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 개람표, 일람표
4.4.	덕산 읍내리	군중	30명, 덕산시장, 만세	외무성기록, 개람표, 범죄인명부
4.4.	대술 산정리	민제식	30명, 산정리 산, 구한국기, 만세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 판결문, 형사사건부, 매일신보, 신한민보
예산 군내	군중	18개소, 횃불만세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 매일신보, 신한민보	
광시 하장대리	군중	250명, 횃불만세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 외무성기록, 일람표	
4.4.	대흥 대율리	정인하	수십명, 동쪽 산, 횃불만세	판결문
	신양 연리	성원수	십수명, 뒷산, 횃불만세	판결문
4.5.	광시 광시리	군중	40명, 면사무소 공격, 만세, 발포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 일람표
4.5.	예산 읍내리	박대영 최문오	2,000명, 예산시장, 만세, 현병과 충돌, 발포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 외무성기록, 영사관문서, 개람표, 일람표, 판결문, 매일신보, 신한민보
4.5.	예산 읍내리	군중	읍내 주위 4곳, 횃불만세, 발포	매일신보, 신한민보
4.5.	삼교 목리	박성식	40명, 뒷산, 횃불만세	판결문
5.8.	신양 연리	성원수	현병보조원 응징	판결문

* 전거 자료 - 도장관보고철 ; 『대정8년소요사건에 관한 도장보고철』(7책의 내2) /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 ;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공7책기1, - 공7책기4, - 공7책기7) / 외무성기록 ; 『불령단관계잡건』(조선인의 부 재내지4) / 개람표 ; 소요사건경과개람표(『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공7책기7)-소요사건보고임시보제12호, 1919.5.10.) / 일람표 ; 조선소요사건일람표에 관한 건(『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공7책기1)-조현경제 107호, 1919.10.2.) / 영사관문서 ; From SEOUL PRESS, April 8, 1919. /Agitation in Chosen, SEOUL PRESS, Seoul, Korea (Records from Pusan included) Volume 228.

3. 3.1운동의 양상

예산 3.1운동은 3월 3일 처음 독립만세를 외친 이후 4월 5일까지 34일 동안에 걸쳐 전개되었다. 이 기간에 3월 3일, 3월 13일, 3월 31일, 4월 3일, 4월 4일, 4월 5일 여섯 날에 독립만세를 연호하였다. 이 운동은 독립만세를 외치는 독립만세운동과 야간에 높은 곳에 올라 불을 지피고 독립만세를 부르는 횃불독립만세운동으로 전개되었다. 독립만세운동은 3월 3일 예산 읍내 동쪽 산, 3월 13일 대흥 동서리 시장, 3월 31일 예산시장, 4월 3일 고덕 대천(한천)시장, 4월 4일 덕산 덕산시장, 4월 5일 광시 면사무소와 예산시장 등 7회에 걸쳐 전개되었다. 횃불독립만세운동은 4월 3일 예산 신례원현병주재소 부근 산, 4월 4일 예산 군내의 예산·대술·오가·신암·고덕·대흥·광시·신양·응봉 등 9개면 18개소, 4월 5일 삽교와 예산 읍내 주위 4개소 등 24회(개소)가 실행되었다. 전체 31회 독립운동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24회로 77.42%에 해당된다. 이는 독립만세운동이 확산됨에 따라 일제의 무력적 탄압도 강화되는 상황에서 '야간'에 '산 위'에서 전개되어 일본 군경들의 출동이 어렵다는 점, 현장에서 직접 대치를 하지 않음으로 무력에 의한 폭력 진압을 피할 수 있다는 점, 이로 인해 비교적 자유롭고 안전하게 독립만세를 외칠 수 있다는 점, 참가자 확인이 곤란하여 추적을 피할 수 있다는 점, 주변 산에서 활동하므로 익숙한 자연 지리적 여건을 활용해 이동과 활동이 자유롭고 군경의 출동에도 신속히 피신할 수 있다는 점, 준비물과 도구 없이 간편히 독립만세를 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독립만세를 외치기 시작한 시간대는 오전 3시 1회(4월 5일 광시 광시리), 오후

1시·1시 30분 2회(4월 4일 덕산시장, 4월 5일 예산시장), 오후 2시 3회(3월 13일 대홍 동서리, 3월 31일 예산시장, 4월 3일 고덕 대천시장), 밤과 오후 8시 및 이후 24회(횃불독립만세운동) 였다. 광시에서 4월 4일 밤 횃불독립만세운동에 이어 다음 날 새벽 3시에 광시면사무소에서 독립만세를 외친 사례 외에는 모두 오후 시간대, 그 가운데 오후 8시 이후에 독립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는 횃불독립만세 운동이 활발히 전개된 영향이다. 즉 예산에서는 횃불독립만세운동의 이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한 독립운동을 전개한 것이다.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된 곳은 주로 시장이었고 횃불독립만세운동은 마을 주위의 산에서 실행되었다. 전체 31회의 만세운동이 35곳에서 전개되었다. 즉 예산 3.1독립운동은 대부분 독립만세의 외치며 전개지를 이동하는 만세 행진을 전개하지 않고 처음 만세를 외친 곳에서 해산하였다. 반면, 대홍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동서리 시장으로 이동하였고, 3월 31일 예산시장에서 독립만세를 외친 군중이 예산현병분대로 이동하여 현병분대 앞에서 만세를 고창하였다. 고덕 대천시장에서는 시장 군중이 독립만세를 외치며 고덕현병주재소로 이동하자, 시장 상인들은 상점 문을 닫고 상품을 거두어 정리하는 철시를 단행하기도 하였다.

구금자를 석방시키려거나 체포자를 탈출시키려는 활동이 4월 3일 고덕 대천, 4월 5일 예산시장에서 전개되었다. 일제의 말단행정기관인 면사무소 공격은 4월 5일 새벽 3시에 광시 광시리에서 실행되었다. 또한 식민지배체제의 최하위 말단조직인 마을 이장과 구장이 4월 3일 고덕 대천시장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다가 순국하였거나 체포되어 고초를 겪기도 하였다.

독립만세를 외치는 도구로 태극기를 제작하여 활동한 사례로 4월 4일 대술 산 정리에서 민제식이 마을 뒷산 정상 위에 ‘구 한국국기’ 깃발을 세우고 주민들과 함께 한국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4. 일제의 탄압

1) 무력 진압

충남지방은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 경찰과 조선주차군의 조선헌병대사령부 헌병들이 치안을 담당하였다. 공주현병대 예하 부대로 예산현병분대가 온천리 현병분견소(아산)를 관할하며 예산·아산을 지배하였다. 1914년 3월 1일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8월 27일 조선총독부령 제125호에 근거한 조선주차현병대사령관의 현병대사령부 고시(告示) 제1호로 공주현병대 - 예산현병분대 - 신례원·신양·응봉·광시·대천 출장소, 대홍·덕산 파견소가 설치되었다. 이후 주재소로 개칭되어 현병분대 1개소, 현병주재소 7개소가 예산의 치안을 담당하였다.

3월 3일 윤칠영 등 5명이 독립만세를 외칠 때 산 위의 현장으로 출동한 헌병들이 이들을 연행하여 현병분대에서 신문조사를 실시하며 3.1운동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다. 헌병들은 자신들의 문초에 대한 청년들의 응답에서 아무런 독립운동 관련 혐의를 찾아내지 못하였다. 헌병들은 ‘평소 온순하고 열심히 생계’를 이야기며 ‘학식과 소양’ 등이 없고 ‘불온 과격한 언동을 한 적이 없다’는 조사 결정을 내렸다. 이들 청년들이 분명히 독립의식을 갖고 ‘대한국독립만세’를 외쳤지

만, 현병들은 독립운동과 관련한 ‘어떠한 맥락이나 계통 등은 없다’고 단정하고 압박을 가하는 훈계를 한 후 석방하였다.

이 3.1운동은 예산현병분대장에게 보고를 받은 충청남도장관 쿠와바라(桑原八司)가 충청남도 경무부장의 경무총장 보고에서 누락되었다며 내무부장관 우사미(宇佐美勝夫)에게 3월 7일에 보고하여 기록에 남게 되었다. 즉 단순한 독립만세로 경미한 것으로 보고 더 이상 독립만세운동으로 확산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경무기관에서는 보고하지 않았던 것이다. ‘50명’ 이하의 소수 인원이 외친 독립만세운동은 추후에 치안 책임 문제가 제기되거나 사무의 번잡 등으로 타 지역에서도 보고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일제측 자료인 「소요사건경과개람표(騷擾事件經過概覽表)」(1919. 5. 10.)와 「조선소요사건일람표(朝鮮騷擾事件一覽表)에 관한 건」(1919. 10. 2.)은 사후 종합 보고 문건임에도 기재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 또한 판결문이 유일한 자료인 3.1운동은 보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독립만세운동인 것이다.

3월 13일 대홍공립보통학교 전교생들이 동서리 시장에서 독립만세를 외쳐 현병에게 3명이 체포되었다. 이어 3월 31일 예산시장에서 남녀 4명이 체포되었고 추가로 2명이 검거되어 6명이 구금되었다. 체포된 여성은 현병분대 앞에서 군중을 향해 조선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친 기독교 신자의 부인으로 보인다. 4월 3일 고덕 대천시장에서 대규모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함에 따라 고덕현병주재소 현병들의 무력 진압으로 사상자가 발생하고 7~8명이 체포 구금되었다. 유치장에 구금된 인사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구출 탄환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야간에는 신례원현병주재소 부근 산 위에서 전개된 햇불독립만세운동에서 현병들이 3명

을 체포하고 군중을 해산시켰다. 이어 4월 4일 덕산시장에서 덕산현병주재소 현병들에게 만세운동을 펼치던 3명이 붙잡혀 감금되었다. 그리고 4월 5일 광시면 사무소 공격에 참가한 군중 가운데 9명이 광시현병주재소 현병들에게 체포를 당하였다. 예산시장에서 박대영과 최문오가 예산현병분대 현병들과 격투를 벌인 후 만세 군중을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무력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하고 현장에서 3명이 체포된 이후 검거 작전으로 35명이 체포당한 기록이 전해진다.

이상과 같이 독립만세를 외친 현장에서 최소 37명이 체포되었고 군중을 해산시킨 이후 수색, 탐문, 구금자 신문 등을 통한 검거 작전으로 72명 이상이 체포되었다. 햇불독립만세를 주도하고 재판에 회부된 성원수, 민제식, 정인하, 박성식 등을 포함하면 예산의 3.1운동에서 최소 40여 명에서 최대 80명에 가까운 인사들이 체포된 것이 기록상 확인된다. 그러나 체포되어 수형을 당한 인사들의 기록에서 현재 100명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6월 중순까지 체포된 인사는 100명 이상이었다.

3.1운동의 현장에서 참가 인원이 많아지고 열기가 고조되어 시위가 격렬해진 경우가 다수이였다. 이에 일제는 경찰, 조선주차군 군대, 조선현병대사령부의 현병을 동원하여 총검을 휘둘러 제압하고 공포탄과 실탄을 발사하여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또한 일본인 소방조, 재향군인 그리고 민간인 등도 진압 작전에 소집되거나 자발적으로 참가하여 무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예산에서는 무력 진압으로 4차례에 걸쳐 발포가 있었다. 4월 3일 고덕 대천시장에서 최대 3,000명이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때 인한수가 현병주재소장을 공격하다가 현장에서 순국하였다. 이어진 현병과 보병들의 발포로 한두 명이 추가로

부상을 당하였다. 4월 5일 예산시장에서 2,000명의 시장 군중이 만세를 고창하자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현병들의 무력 발포로 2~6명이 순국하고 3~5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광시면사무소 공격 때에도 광시현병주재소 현병들이 발포하여 군중을 해산시켰다. 그리고 야간에 전개된 예산 읍내의 햇불독립만세를 외치는 군중에게 현병들이 발포하였다.

이상과 같은 무력 진압에 예산현병분대과 군내 7개 현병주재소 현병들뿐만 아니라 수비대 보병들이 지원 출동을 하였다. 3월 31일 예산시장의 독립만세운동에 공주 보병 80연대 수비대의 하사 이하 7명을 급파하여 예산 현병들을 지원해 경계를 강화하였다. 4월 3일 고덕 대천시장에는 홍성에 증파되어 주둔하고 있던 수비대 보병 하사 이하 7명이 고덕으로 출동해 주재소 현병과 합세해 군중을 무력 진압하였다. 그리고 신례원에서 햇불독립만세를 외친 군중이 신례원현병주재소를 공격할 형세라고 판단하고 예산현병분대에 요청하여 현병 5명을 신례원으로 급파하여 경계를 강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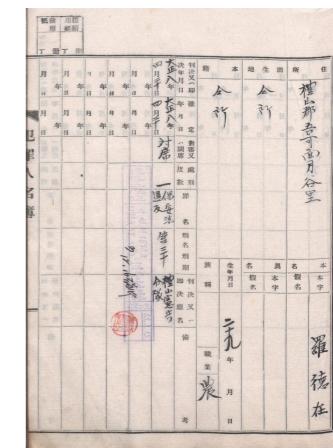
3.1운동으로 체포된 인사들은 1차로 순사나 현병들에게 조사를 받고 경찰서장이나 현병대장(분대장, 분견소장)이 직권으로 태형과 형량을 결정하여 해당 관서에서 집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체포 구금자는 구타, 고문 등의 비인간적 강압을 받았고, 신체적 물리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압박과 불안을 감내해야만 하였다. 조사 경찰·현병이 ‘범죄’ 성립 여부의 판단에 따라 훈방 조치가 되기도 하였으나 혐의가 있거나 불분명한 상황으로 보일 때는 피의자를 경찰서·현병분대·현병분견소로 이송하였다.

예산에서는 예산현병분대가 직접 체포한 인사나 각 현병주재소에서 이송된 인

사들을 심문조사하였다. 현병분대장은 즉결 처분을 결정하여 태형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독립운동의 혐의가 중대하거나 정식 재판에 회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문조서를 작성하고 일건 서류를 첨부하여 공주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송치하였다. 즉결 처분은 태(笞) 형량을 결정하고 현병분대에서 1일 30도(度)를 기준으로 집행하였다. 이어 처분 사항을 기재한 수형인명표·기결범죄사건통지서·즉결범죄사건통지서 등을 작성해 재적지·주소지 읍·면사무소에 통지하였다. 이 문건을 수령한 읍·면사무소 읍·면장은 수형인명표철·즉결범죄사건통지서철 등에 분철하고 수형인명부 혹은 범죄인명부를 작성해 영구 보존 문건으로 관리하였다. 예산군에 현전하는 수형 관련 문건은 대술면범죄인명부와 수형인명부, 덕산면범죄인명부, 봉산면범죄인명부와 수형인명표, 신암면범죄인명부, 오가면범죄인명부, 응봉면범죄인명부, 신양면수형인명표폐기목록(폐기일자 1981.4.28.)과 범죄인명부 등이 군청이나 면사무소 등에 보존되어 있다.



봉산면 수형인명표 표지



오가면 범죄인명부(나덕재)

4월 3일 고덕 대천시장과 4월 4일에 덕산시장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에 봉산면내 주민들이 참가하였다. 봉산면에서는 금치리 한명석 등 5명, 마교리 심낙선 등 6명, 시동리와 하평리 2개 리의 각 1명이 60대, 90대의 태형을 겪었다. 덕산면에서는 대치리 최승구(崔昇九), 사동리 한복록(韓福祿), 시량리 박덕준(朴俊俊), 신평리 4명, 옥계리 2명 등이 60대의 태형을 겪었다.

4월 4일 군내 9개 면 18개소에서 일어난 횃불독립만세운동으로 신암면에서는 탄중리·종경리 2개 리의 각 3명, 계촌리·두곡리·조곡리·용궁리 4개 리의 각 2명, 별리·신종리·예림리·오산리·중례리·하평리 6개 리의 각 1명이 60대 태를 맞았다. 신양면에서는 가지리·대덕리·무봉리·시왕리·차동리·하천리·황계리 7개 리의 각 1명이 60대, 90대의 태형을 겪었다. 오가면에서는 신석리·신장리·양막리·오촌리·원천리 5개 리의 각 1명, 월곡리·효림리 2개 리의 각 2명, 좌방리 4명이 30대, 60대, 90대의 태형을 겪었다. 응봉면에서는 건지화리·등촌리·송석리·신리·입침리·증곡리·지석리·계정리 8개 리의 각 1명, 노화리·주령리 2개 리의 2명이 60대, 90대의 태형을 겪었다. 광시면에서는 구례리 3명, 은사리 2명, 광시리·대리 2개 리의 각 1명이 60대, 90대의 태형을 겪었다.

이상과 같이 태형을 당한 인사가 덕산면 9명, 봉산면 13명, 신암면 20명, 신양면 7명, 오가면 13명, 응봉면 12명, 광시면 7명 등 81명이다. 예산현병분대장의 즉결처분으로 현병분대에서 4월 1일부터 5월 28일까지 사이에 태 30도 8명(9.87%), 50도 1명(1.23%), 60도 50명(61.73%), 90도 22명(27.16%)이 태형을 당하였다.

태형 처분의 면별 일자와 인원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2> 태형 처분의 면별 일자와 인원

면/일자	4. 1	4. 7	4. 8	4. 15	4. 18	4. 19	4. 20	4. 22	4. 23	4. 25	4. 26	4. 28	4. 29	4. 30	5. 2	5. 6	5. 8	5. 9	5. 10	5. 28	합계(명)
응봉	1														7	3	1				12
덕산		1							1	5	2										9
봉산		1	1				4			4				1	2						13
오가		1			1	2	7		1		1										13
신암			1												8	9	2				20
광시				5					1					1							7
신양												1			2	3	1	7			
합계	1	4	1	5	1	7	12	2	6	7	1	4	2	1	2	8	11	2	3	1	81

태형 처분 일자가 아산이 4월 3일, 청양이 4월 6일, 홍성이 4월 7일인데 비하여 예산은 가장 이른 4월 1일부터 있었다. 짧게는 1 ~ 2일, 길게는 6 ~ 7일간의 간격을 두고 태형 처분이 있었다. 단 신양의 신인선은 5월 10일부터 18일째 되는 날인 5월 28일에 태 90도 처분을 받았다. 이는 다른 지역보다 예산에서 지속적으로 탄압이 실행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군내의 처분 상황으로 응봉은 4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29일간 4회에 12명, 덕산은 4월 7일부터 4월 22일까지 16일간 4회에 9명, 봉산은 4월 7일부터 5월 2일까지 26일간 6회에 13명, 오가는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간 6회에 13명, 신암은 4월 7일부터 5월 9일까지 33일간 4회에 20명, 광시는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16일간 3회 7명, 신양은 4월 28일부터 5월 28일까지 31일간 4회 7명이 태형 처분을 받았다.

이를 통하여 첫째 예산 3.1운동의 탄압이 지속적인 체포와 태형이 집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제는 독립만세를 외친 주도자나 참가자들을 일시에 체포하여

처벌하지 못하였다. 처분 일자를 기준으로 덕산과 광시는 16일, 오가는 20일, 봉산은 26일, 응봉은 29일, 신양은 31일, 신암은 33일간에 걸쳐 현병들이 각 마을을 조사하고 수색하여 체포하였다. 독립만세를 외친 현장에서 체포하지 못하고 2~3명의 현병주재소 인원으로 참가자를 전부 파악하지 못하였다. 이에 최초 체포자에 대한 갖은 고문과 악행으로 심문 조사를 통해 참가자를 발설(發說)케 하고, 이를 근거로 체포한 참가자를 동일한 수법으로 또 다른 참가자를 파악하고 수색 잠복하여 체포하였다. 따라서 수사 기간이 장기화 되고 계속해 체포 구금자가 있음으로 처벌 또한 지속되었다. 특히 봉산의 경우는 4월 7일, 8일, 19일, 23일, 29일과 5월 2일의 26일간 6회에 걸쳐 체포와 태형 처분이 자행되었다. 이는 봉산 면내 마을 주민들이 고덕 한내장터와 덕산 읍내시장 독립만세 등에 참가하여 마을마다 태형을 받은 인원과 일자가 달랐기 때문이었다.

둘째 2차례의 집중 검거 작전이 실시되었다. 4월 20일 전후와 5월 8일 전후에 태형 처분이 2~3개 면 주민들에게 있었다. 4월 19일과 25일 사이에 7일간 5회에 5개 면 34명이 처분을 받았고, 5월 6일과 8일 사이 3일간 2회에 2개 면 19명이 처분을 당하였다. 이 기간에 7개 면 53명이 태형을 당하여 전체 81명의 65.43%로 10명 가운데 6~7명이 이 시기에 체포되고 태형의 고초를 겪었다.

셋째 태형은 대체로 면 단위의 체포와 마을 단위로 실행되었으나 예산의 경우 체포와 처분이 장기간에 이루어 짐에 따라 마을 단위의 체포와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면 기준으로 처분 일자가 길어지면서 면내 같은 마을 주민들도 여러 날에 걸쳐 태형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넷째 동일 처분일의 태형 도수(度數)가 대체로 동일하다. 수십 명의 처분 도수

가 동일한 사례가 많았다. 예산에서는 처분 인원이 적음에도 도수가 30도와 60도, 60도와 90도로 나누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5월 6일부터는 같은 일자에 같은 면과 마을 인사들이 동일하게 태 60도 처분을 받았다. 5월 6일 신암 8명, 5월 8일 신암 9명과 신양 2명, 5월 9일 신암 2명, 5월 10일 신양 3명이 모두 태 60도 처분을 받았다.

다섯째 횃불독립만세운동 전개지의 면민들은 늦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체포와 처벌을 받았다. 이는 횃불독립만세 때 산과 접한 참가 마을을 특정하거나 아울러 참가자를 확증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4월 4일 군내 9개 면의 18곳에서 전개된 횃불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한 인사들은 20여 일 후부터 본격적으로 체포되었다. 응봉에서 4월 25일, 28일, 29일의 11명, 신암에서 5월 6일, 8일, 9일의 18명, 신양에서 4월 28일, 5월 8일, 10일의 6명이 체포되어 즉결 처분을 받았다. 반면에 26일간 6일(회)에 걸쳐 처분을 받은 봉산과 같이 오가는 4월 7일, 18일, 19일, 20일, 23일, 26일의 20일간이지만 6일(회)에 걸쳐 체포와 처분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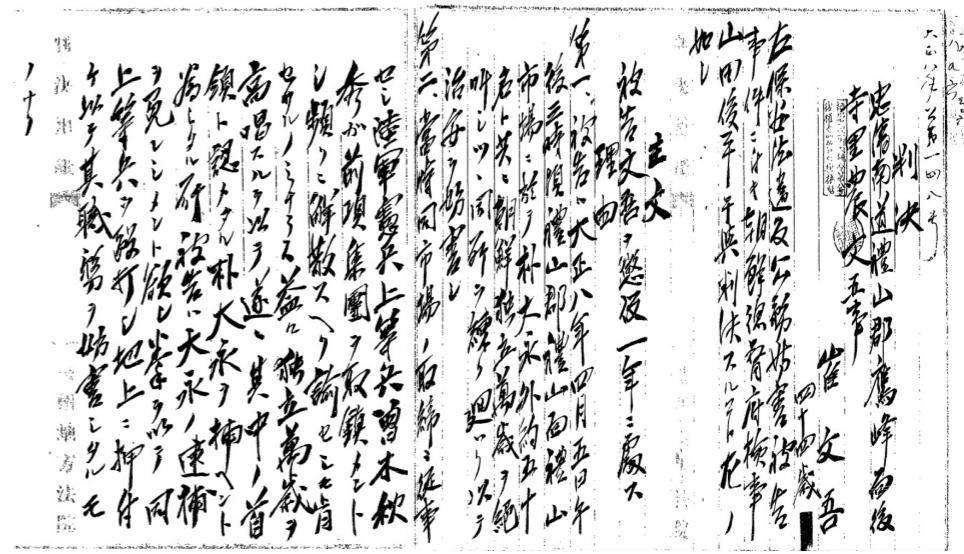
2) 사법적 탄압

예산현병분대에서 공주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송치된 인사들은 공주감옥에 구금된 상태에서 현병분대의 심문조서를 근거로 수시로 검사에게 호출되어 검사국에서 각종 신문 조사를 받았다. 야마다(山田 俊平), 모리우라(森浦 雄藏) 2명의 검사가 불기소 처분의 재량권을 행사하였다. 범죄 사건의 조서 등 일건 서류를 송치받은 검사는 불체포 등의 사유로 인신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기소중지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이 처분은 범죄의 기소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 추후에 체

포하여 신변이 확보되면 기소 절차를 거쳐 곧바로 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었다. 또 법령의 적용이나 범죄 혐의의 경증 등의 사유로 기소를 하지 않은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다. 때로는 범죄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빙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기도 하였다. 기소유예나 혐의(죄) 없음 및 증빙 불충분 등 불기소 처분을 검사가 결정하며 즉시 결정일에 석방되었다.

국가기록원의 형사사건부에 의하면, 예산현병분대에서 공주검사국으로 송치된 인사 가운데 11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고덕의 상장리 이종갑은 5월 9일, 상궁리 방계환은 5월 11일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을 받고 석방되었다. 대술 산정리의 이명진·이기선은 5월 14일 기소중지로 불기소 처분되었다. 광시 시목리의 권병기, 대홍 교촌리의 김용태, 신양 서계양리의 김이기, 죽천리의 박복동, 응봉 주령리의 정옥섭·이희주, 계정리의 김동욱 등 7명의 대홍공립보통학교 학생은 4월 2일 '범방 없음'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고 공주감옥에서 석방되었다.

범죄 혐의가 입증되어 검사가 신문조서를 작성하고 기소 의견으로 공주지방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구금자인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으로 구속 기소되었다. 공주지방법원에서 후카다 루우지(深田留治), 히키치 토라지로(弓地寅治郎) 2명의 판사는 검사의 공소를 기각하거나 예심에 회부한 후 예심종결결정에 따르거나 곧바로 정식 재판에 회부하였다. 판사는 법정을 개정하여 공판을 진행하며 심리를 한 후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우 진술이 있은 후 판결을 선고하였다. 예산현병분대에서 검사국으로 송치된 인사들 가운데 7명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다.



최문오의 공주지방법원 판결문(1919년5월9일, 국가기록원 소장)

장문환, 정인하는 모리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였고 최문오, 박대영, 민제식, 박성식, 성원수는 야마다 검사가 재판을 청구하였다. 장문환, 성원수는 히키치 판사가 김종협을 서기로 공판을 개정하였고 민제식, 정인하, 박성식, 최문오, 박대영은 후카다 판사가 나가오 치카요시(中尾親義)를 서기로 재판을 진행하였다.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으로 삽교의 박성식이 1919년 4월 30일 첫 판결을 시작으로 예산의 최문오 5월 9일, 대술의 민제식 5월 19일, 예산의 박대영 5월 21일, 고덕의 장문환과 신양의 성원수 5월 26일에 판결 선고가 있었으며 대홍의 정인하 5월 30일 판결 선고가 공주지방법원에서 마지막이었다. 형량은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한 민제식 태 90, 박성식과 정인하 징역 6월이었다. 현병보조원을 응징한 성원수(상해죄)와 독립만세를 외치며 현병과 격투를 한 박대영(직무집행방해)과 최문오(공무방해)는 징역 1년이었다. 고덕현병주재소에서 소장을 구타

하고 구금자의 석방을 요구하며 군중을 이끈 장문환은 소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어 성원수, 박대영, 최문오는 경성복심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공소 기각이나 동일 형량(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고등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 기각되었다. 장문환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로써 형량이 확정된 인사들은 공주감옥 등에서 옥고를 겪었다.

검사국의 결정과 처분, 법원의 판결은 검사국에서 본적지·주소지 등지로 통지하여 수형 문건에 기재되어 관리되었다. 또한 만약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때는 구(舊) 거주지 면장이 신(新) 이주지 면장 앞으로 ‘범죄인명부 정리의 건’를 발송하여 신 이주지에서도 범죄인명부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독립만세운동가들은 수형의 고초를 겪은 추후에도 ‘범죄자’로 관리 통제되는 탄압을 받았다. 박덕준(朴德俊, 부록 연번3)은 덕산 시량리에서 1921년 10월 5일 오가 원천리로 이전(移轉)하여 덕산 면장이 ‘범죄인명부 정리의 건’을 오가 면장에게 발송하였다. 그리하여 박덕준은 덕산면과 오가면 2개면의 범죄인명부에 기재되어 있다.

3) 회유책

3.1운동 당시 일상에서 경제적 고통을 강요당한 것은 시장 폐쇄이었다. 군중이 시장에서 독립만세를 외치고, 상인들은 상점을 폐점하여 시장의 개시(開市)를 거부하는 철시(撤市)를 단행하였다. 이에 지방관과 경찰은 개점하도록 상점마다 찾아다니고 상인들을 압박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군중이 집결하는 시장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방관이나 경찰은 시장을 폐쇄하기 시작하였다. 3월 하순과 4월 초에 독립만세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자, 충청남도에서는 4월 4~5일 전후로 도내 40개소 시장의 개시를 정지시켰다. 시장 폐쇄 기간이 길어지자 시장을 통한 경제 활동이나 물품 교류가 끊어지면서 상인이나 일반인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지역민들의 불편과 불만도 점차 고조되었다. 이 때문에 시장 관계자나 지방 유력자들이 ‘금후로는 결코 소요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연명 서약서를 관계 기관에 제출하였다. 군수와 경찰서장이 서약서의 확실성 여부를 확인한 후 도장관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 시장 폐쇄가 해제되었다. 당시 예산 군내에는 대흥(2, 7일), 신례원·대천·광시(3, 8일), 신양·덕산(4, 9일), 예산(5, 10일)의 7개 시장이 있었다. 이들 시장 가운데 독립만세를 외쳤던 대천, 광시, 예산 등 3개 시장이 4월 5일 이후에 폐쇄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장 폐쇄는 5월 1일 천안에 이어 5월 2일 논산·공주·아산의 장시들부터 해제되었다. 청양의 화성시장은 5월 27일에 이르러서 해제조치되었다. 이에 예산시장의 3개 시장은 적어도 1개월에서 길게는 2개월 가까이 잠정적으로 폐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도장관 이하 관리와 도 경무 당국은 독립만세 제지와 확산 방지의 1차적 목적 외에 보다 근본적 대책으로 민심의 동요를 막는 사전 사후의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선전 홍보하는데 총력을 다했다. 4월 초순 이후 그들은 민심의 안정과 융화를 도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믿고 강연회, 간담회, 일본인과 조선인 회합, 지방 유력자의 의견 청취 및 의견 교환, 종교단체의 활용 등 가능한 방안들을 실행하였다.

도에서 도장관이나 부장 및 참사들이 군청이나 특정 면 지역에 출장을 나가 지역민들의 의견을 조사하거나 청취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4월 19일 시부야 제1부장이 대전에서 9명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한 이후 6월 5일까지 대전, 논

산, 공주, 부여, 아산, 서천, 천안, 홍성, 청양, 연기, 서산, 당진, 병천 등지에서 21회에 걸쳐 2,410명이 간담회에 참가하였다. 예산에서도 5월 14일 쿠와바라 도장관과 정(鄭) 참여관이 40명이 참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정 홍보와 훈시를 한 후 참석자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 군에서는 군수가 직접 참가하거나 지역에 ‘신망’이 두터운 군참사를 각 면리(面里)에 출장 보내 순회 강연회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지역 주민들을 직접 상대하는 강연회를 제외한 모임의 참석자들은 ‘지방의 유력한 양반’들이 대부분이었으므로 민심 수습책으로써 한계가 있었다.

총독부의 정책을 선전 홍보하고 충청남도의 시책과 군의 선정이나 모범적인 사례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 3.1운동으로 발생한 각종 구제나 전염병 예방 및 구휼 등 대민 활동을 선전하고 지역민의 미기(美擧)들을 널리 알렸다. 예산군수가 대홍면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다가 부상당한 인사 1명을 도(道) 자혜의원(慈惠醫院)에 입원하도록 주선하여 부상자를 치료하게 되었다고 홍보하라고 도에서 일선 기관에 지시하였다.

아울러 그 비용은 지방비나 기타 예산(豫算)에서 확보하여 지급할 방침이라고 선전하였다. 그리고 총독부에서는 ‘불온한 무리’를 응징하는 한편 범죄자에게도 인자하게 구제를 베풀어 치료한다는 사실을 일반에게 주지시키도록 조치하며 선정을 베풀다고 대대적 선전 선동을 하는 등 민심 수습이란 미명하에 회유책을 실행하였다.

5. 3.1운동의 참가자

예산 3.1독립운동으로 독립만세운동과 햇불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한 인원은 당시 일제측의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3.1독립운동 참가 인원

(단위: 명)

일자	3.3.	3.13.	3.31.	4.3.	4.3.	4.4.	4.4.
장소	예산읍내	대홍 동서	예산 읍내	예산 신례원	고덕 대천	덕산 읍내	대술 산정
최소(명)	5	300	50	150	500	30	30
최대(명)	5	300	60	300	3,000	30	30
일자	4.4.	4.4.	4.4.	4.5.	4.5.	4.5.	합계
장소	광시 하장대	대홍 대율	신양 연리	광시 광시	예산 읍내	삽교 목	(13곳)
최소(명)	250	30	십수(10)	40	400	40	1,835
최대(명)	250	300	십수(15)	40	2,000	40	6,100

*근거: <표1>의 전거 자료

**‘십수명’은 최소 10명, 최대 15명으로 추산했다.

위 참가 인원은 근거 자료를 교차 검토한 인원으로 최소한으로 집계하면 1,800여 명이고 최대한으로 합산하면 6,100명이다. 이 인원에는 4월 4일 야간에 군내 18곳의 햇불독립만세운동 중 대술, 광시, 대홍, 신양의 4개소를 제외한 14 개소의 참가자 인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4월 5일 예산 읍내 주위 산 4개 소에서 햇불독립만세를 외친 인사도 합산되지 않았다. 마을 단위의 햇불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한 인원이 신양 10~15명, 대술 30명, 대홍 대율 30명, 삽교 목리 40명, 광시 하장대리 250명이었다. 야간에 전개된 햇불독립만세운동의 참가 인원은 대부분 탐문이나 추정된 인원으로 대체로 50명에서 100명 전후의 주민들이 만세를 외쳤다. 하지만 예산의 경우에 확인된 인원은 30~40명이고 광시 하장

대리 250명이다. 그리하여 참가 인원으로 최소 40명, 최대 50명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참가 인원이 확인되지 않은 18개소를 환산하면, 참가 인원은 최소 720명에서 최대 900명으로 추산된다. 이를 확인된 참가 인원과 합산하면 최소 2,555명, 최대 7,000명이다. 즉 예산 3.1독립운동의 참가자 연인원은 최소 2,500명에서 최대 7,000명으로 추산된다.

예산 3.1운동을 주도한 인사들은 명문 집안의 후손으로 지역적 기반을 갖고 지역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었다. 박대영은 영해 박씨로 조선 전기에 증판 중부 박치안(朴致安)이 사육신 사건이 있은 후 낙향하여 신양면 죽천리로 입향하여 세거(世居)한 후손이다. 장문환은 인동 장씨로 조선 중기에 삽교 평촌리로 입향하여 13대째 세거한 집안의 인물이었다. 성원수는 창녕 성씨로 중선 중기 삼괴당 성흔(成忻)이 광해군의 학정을 피해 신양 연리(귀곡리, 불원리)로 입향하여 14대째 세거하고 있었다. 민제식은 여흥 민씨로 대술 산정리에서 세거하고 있던 인물이었다. 이들은 거주지 마을에서 여러 대를 거쳐 세거해 온 집안의 후손으로 유학적 학풍을 가진 인사들이었다. 이러한 지역적 기반을 갖고 지역민이나 마을 주민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던 인사들이 예산의 3.1독립운동을 이끌었다.

반면에 참가자들의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었다. 또한 학생들이 독립만세를 외치고 지역의 3.1독립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대흥 동서리에서 3월 13일 독립만세를 외친 대흥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은 대흥면과 광시면, 신양면, 응봉면 등 인접 면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이다. 3월 3일 예산 읍내 독립만세운동에 이어 3월 31일 예산 읍내 시장에서 독립만세를 외치기까지 28일 사이에 학생들이 독립만세를 외쳤다. 즉 학생들이 예산의 3.1운동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한 것이다.

종교인들의 참여와 활동도 활발하였다. 3월 29일 덕산 읍내시장에서 천도교 인사와 교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이끌었다. 또한 4월 3일 고덕 한내장터에서 독립만세를 외치고 고덕현병주재소에서 항거와 독립만세의 외침에 천주교 신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다.

여성의 활동으로 3월 31일 예산 읍내 시장에서 독립만세의 함성이 울리자, 기독교 신자의 부인이 앞장서 시장 군중에게 ‘조선독립만세’를 외쳐 군중의 호응을 이끌었다.

참가자는 예산군 12개 면의 모든 지역에서 독립만세를 외쳤고 일제의 무력 진압을 받아 순국하고 부상을 당하였으며 태형을 당하거나 실형의 고초를 겪었다. 현재까지 순국 인사인 인한수 외에 수형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99명과 관련 인사(이발원) 1명으로 모두 101명의 인적 사항이 확인된다. 그 가운데 태형을 받은 인사 81명, 불기소 인사 11명, 실형을 언도받은 인사 7명 총 99명을 분석하여 그 인적 사항과 탄압 사항을 <부록>에 게재하였다. 이중 정인하는 홍성 광천 내죽리 거주자로 예산군 거주 참가자는 98명이다. 이들의 거주별 분포는 다음의 <표 4> 과 같다.

<표 4> 참가자 거주별 분포(수형자 인원)

면	법정 마을 수	참가 마을(인원)	참가(수형) 마을 수	인원(명)	마을 참가비율
고덕	12	상장리, 상궁리(2명)	2	3	
광시	20	은사리(2명), 구례리(3명), 광시리, 대리, 시목리	5	8	
대술	12	산정리(3명)	1	3	
대흥	14	교촌리	1	1	
덕산	16	대치리, 사동리, 시랑리, 신평리(4명), 옥계리(2명)	5	9	

면	법정 마을 수	참가 마을(인원)	참가(수형) 마을 수		마을 인원(명)	참가비율
			마을 수	인원(명)		
봉산	15	금치리(5명), 마교리(6명), 시동리(1명), 하평리(1명)	4	13		
삽교	18	목리	1	1		
신암	13	계촌리(2명), 두곡리(2명), 별리, 신종리, 예림리, 조곡리(2명), 오산리, 용궁리(2명), 종경리(3명), 중례리, 탄중리(3명), 하평리	12	20	92.31%	
신양	16	무봉리, 시왕리, 차동리, 가지리, 하천리, 황계리, 대덕리, 서계양리, 죽천리(2명), 연리	10	11	62.5%	
오가	13	신석리, 신장리, 양막리, 오촌리, 원천리, 월곡리(2명), 좌방리(4명), 흐림리(2명)	8	13	61.54%	
응봉	13	건지화리, 노화리(2명), 등촌리(2), 송석리, 신리, 입침리, 주령리(3명), 증곡리, 지석리, 계정리(2명), 후사리	11	16	84.62%	
합계	162		60	98		

* 참가 마을명에 부기한 괄호는 마을의 수형 인원이고, 마을명만 있는 마을은 수형 인원이 1명이다.

위와 같이 98명은 11개 면 60개 마을에 거주하였다. 예산면 읍내 시장에서 3월 31일과 4월 5일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예산 읍민들도 참가하였으나 자료상 한계로 참가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오가면, 신양면, 응봉면, 신암면의 경우 면내 대다수 마을에서 독립만세에 참가하였다. 오가면의 13개 마을 가운데 8개 마을(61.54%), 신양면의 16개 마을 가운데 10개 마을(62.5%), 응봉면의 13개 마을 가운데 11개 마을(84.62%), 신암면의 13개 마을 가운데 12개 마을(92.31%)에서 독립만세를 외친 주민들이 현병들에게 체포되어 고초를 겪었다. 이 4개 면에서 고초를 겪은 인원이 60명으로 전체 98명의 61.22%이다. 이 4개 면에서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람은 4월 4일 신양 연리에서 횃불독립만세를 주도한 성원수 1명이다.

〈표 4〉의 참가자 거주별 분포에서 마을별 수형 인원의 분포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마을별 수형 인원 분포

수형 인원 마을 수(마을)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합계
마을 수 비율(%)	63.33	21.67	8.33	3.33	1.67	1.67	100
마을 인원(명)	38	26	15	8	5	6	98
마을 인원 비율(%)	38.78	26.53	15.31	8.16	5.10	6.12	100

마을별 수형 인원은 봉산 마교리 6명, 금치리 5명, 덕산 신평리와 오가 좌방리 2개 마을 4명, 광시 구례리·대술 산정리·신암 종경리와 탄중리·응봉 주령리 5개 마을 3명씩이다. 반면에 수형인이 2명인 마을이 13개 마을이고 1명인 마을이 38개 마을이다. 수형인 1인 마을이 38개 마을로 전체 60개 마을 중 63.33%이다. 이에 수형인이 2명인 마을 13개 마을을 합산하면 51개 마을로 전체 마을에 85%이고, 이어서 수형인이 3명인 마을 5개 마을을 합산하여 56개 마을로 전체 마을에 93.33%이다. 인원 분포로 보면, 수형인이 1명인 38개 마을의 38명은 전체 98명의 38.78%이다. 이에 수형인이 2명인 13개 마을의 26명은 합산하면 64명으로 전체 인원에 65.31%이고, 이어서 수형인이 3명인 5개 마을의 15명을 합산하면 79명으로 전체 인원에 80.61%이다. 이로써 1개 마을에 수형인 1 ~ 3명인 마을이 56개 마을로 전체 60개 마을에 93%이고 이를 마을에 수형인 인원이 79명으로 전체 수형인 98명에 81%에 해당된다. 이를 통해 보면, 예산 3.1독립운동에 대한 현병들의 탄압은 각 마을에서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인사 1 ~ 3명을 체포하여 처벌하는 양상이었다. 특히 1명만 처벌받은 마을이 38개 마을로 마을의 만세운동 대표자 1명만을 처벌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참가자 98명의 연령별 분포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참가자 연령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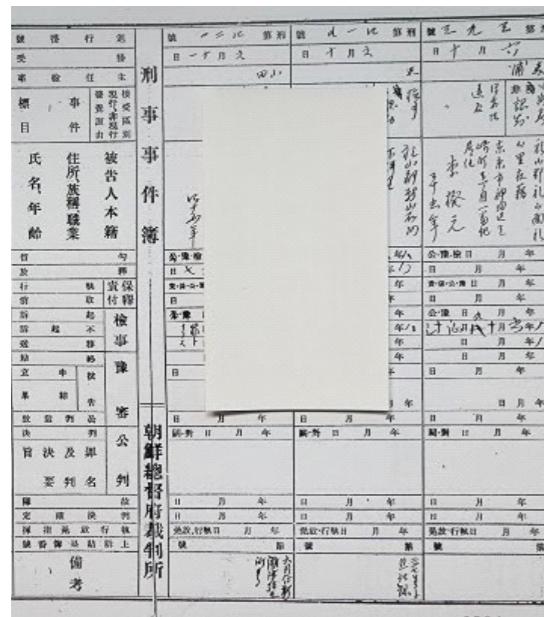
연령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합계	미기재	총합
인원(명)	6	38	30	17	5	96	2	98
비율(%)	6.25	39.58	31.25	17.71	5.21	100		

위와 같이 예산의 3.1운동은 20대를 중심으로 30대가 적극 참가하여 20~30대가 주도하였다. 20대가 38명, 30대가 30명으로 전체 참가자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25세까지 참가자가 32명으로 전체 참가자의 1/3에 해당 된다. 또 20세 8명, 21세 4명으로 20대 초반인 청년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이는 대홍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이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20~30대의 주도적 참여는 인접한 아산, 청양, 홍성의 3.1독립운동 참가자 분석에도 유사한 양상으로, 3.1운동 참여자층의

보편적 양상이다.

직업별 분포를 보면, 음식점 영업이 1명, 학생 7명, 농업 75명이며 미기재가 15명이다. 미기재 15명도 농업 종사자로 보인다. 다른 농촌사회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과 같이 예산에서도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3.1 운동이 전개될 수 있었다.

한편, 이발원(李撥元)이 불



이발원의 형사사건부(국가기록원 소장)

기소 처분을 받은 자료가 있다. 그는 당시 25세로 '예산군 예산면 예산리' 재적, '일본 동경시 시전구 삼기정 3정목 1번지' 거주로 공주지방법원 검사국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6월 10일 송치되었다. 주임검사 모리우라가 10일째 되는 날인 6월 19일 '증빙 없음(證ナシ)'으로 불기소를 결정하여 석방되었다. 그의 구체적 활동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20대 청년들과 교류하면서 일본과 서울의 독립운동 등 당시의 시국 상황을 전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발원을 통해 독립선언서도 전달되지 않고 3.1독립운동의 추진 세력과도 연계되지 않은 상황에서 3월 3일 예산에서 청년들이 '대한국독립만세'를 외쳤던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 것이다.

6. 역사적 의의

예산 3.1운동은 첫째 충남 3.1운동의 첫 함성으로 '대한국독립만세'를 외쳤다. 1919년 3월 3일 저녁 11시 30분 예산 읍내 동쪽 산에서 '대한국독립만세'를 윤칠영 등 청년 5명이 외쳤다. 이는 청년들의 의기(義氣)로 실행된 독립만세로 헌병의 즉각 체포 조치로 지역의 독립만세운동으로 확산되지 않았다. 하지만 민족 대표와 독립선언 추진 세력과 연계되지 않은 최초의 대한독립만세 외침으로 3.1 운동사에 있어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

둘째, 학생 독립만세운동이 지역사회의 3.1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3월 하순 3.1독립운동이 '일반화'되면서 각지에서 누구나 지역민들을 이끌고 독립만세

를 외쳤다. 그러나 3월 초 단계에서는 학생들을 주축으로 전개되었고 점차 확산되었다. 예산에서는 3월 13일 대홍공립보통학교 학생 전교생들이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학생들은 20~21세로 대홍면 외에 인근 광시면, 신양면, 응봉면 등에 거주하여 각 면내로 독립만세를 전파하고 확산시켰고, 4월 초순 각 면에서 독립만세운동과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는데 기여하였다. 학생들이 예산 3.1독립운동에 선구적 역할을 한 것이다.

셋째, 독립선언서 정신인 비폭력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31회의 만세운동 중 현병과의 마찰이 2회 있었고 면사무소 공격이 1회뿐이었다. 즉 대술 산정리에서 구한국기를 세운 것 외에 어떠한 도구나 수단 없이 맨손을 흔들거나 횃불을 피우고 소리 높여 대한독립만세만을 외쳤다. 따라서 예산 3.1운동은 대표적인 평화 독립운동이었다. 또한 횃불독립만세운동은 일제의 군경과 부딪치지 않고 독립만세를 외칠 수 있는 방안으로 3.1운동의 발전적 양상으로 확산되었다.

넷째,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활발히 전개되었다. 3월 3일부터 4월 5일 사이 3.1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 사이 4~6일 또는 8~10일의 간격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이는 독립만세를 계획, 준비 및 추진할 조직이나 주도 인사들이 규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립만세를 외쳤을 때에도 참가 인원이 적고 전개 시간도 짧았다. 만세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지속성과 활동성이 미약하여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고 인접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또한 4월 3일~5일 사이 28회의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예산에서 일어난 31회 가운데 90.32%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3일간의 짧은 기간에 약 90% 이상이 전개된 지역

은 전국에서 극히 드문 사례이다.

다섯째, 4월 4일 밤 예산 군내에 ‘횃불 불바다’를 재연하였다. 4월 4일 횃불독립만세가 9개 면 18개소에서 전개되었다. 다만, 기록보다는 많은 곳에서 횃불을 들고 독립만세를 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독립만세를 외쳤다는 기록이 없는 데도 봉산면 등의 범죄인명부 등에 보안법 위반으로 태형을 당한 인사들이 기재되어 것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여섯째, 12개 면민 모두가 참가하여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기록상 독립만세를 외친 지역은 예산, 대홍, 고덕, 덕산, 대술, 광시, 신양, 오가, 신암, 삽교 등 10개 면이다. 또한 수령 자료인 응봉면의 범죄인명부, 봉산면의 범죄인명부와 수령인명표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예산현병분대에서 태형을 당한 인사들의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일곱째, 전개시간에 있어 독립만세운동은 시장에서 오후 2시 이후, 횃불독립만세운동은 마을 인근 산에 오후 8시 이후 전개되었다. 대홍시장, 예산시장, 대천(한내장)시장, 덕산시장에서 시장 군중이 독립만세를 고창하였고, 횃불독립만세운동은 마을 단위로 주민들이 뒷산 등 마을 주위 산에 올라 불을 피우고 독립만세를 연호하였다.

여덟째, 현병과 증파된 수비대가 무력으로 탄압하였다. 예산현병분대 및 7개 소 현병주재소의 현병과 공주, 홍성에서 증파된 수비대 보병들이 독립만세를 제지하고 만세 군중을 해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4차례의 발포로 3~6명이 순국하고 4~7명이 부상당했다. 또한 현장에서 70여 명을 체포하고 이어진 검거 작전으로 100여 명 이상이 구금되어 탄압을 받았다. 예산현병분대장이 구금 인사들

에게 보안법 위반을 적용한 즉결 처분권을 행사하여 예산현병분대에서 태형을 집행하였다.

아홉째, 마을별 수형 인원이 3명 이하로 대부분 1 ~ 2명이었다. 군내 12개 면의 60개 마을에서 98명이 예산 3.1독립운동을 전개하여 처벌을 받았다. 각 마을에서 독립만세에 참가한 인원은 최소한으로 1, 2명에서 최대한으로 수십, 수백 명에 이르렀을 것이다. 하지만 현병에게 체포되어 수형을 받은 인사는 1 ~ 3명인 마을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1명만 처벌받은 마을이 38개 마을이었다. 이들 마을에서는 마을 대표로 1명만을 체포하여 처벌한 것으로 보인다.

열 번째, 유학적 기반으로 가진 인사들이 독립운동을 주도하였다. 조선 전기부터 명문 대가들이 낙향하여 세거하던 집안의 인사들인 명문가의 후손으로 지역적 기반을 가진 박대영, 장문환, 성원수, 민제식 등이 시장의 지역민이나 마을 주민들에게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참가를 권유 독려하여 시장에서, 마을에서, 마을 주위 산에서 함께 독립만세운동과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참가자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었고 종교인, 여성들도 적극 참여하였으며 이장과 구장이 독립운동을 이끌기도 하였다. 그리고 20대를 주축으로 30대 연령층이 주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참고문헌〉

- 『매일신보』『독립신문』(상해)『신한민보』
『판결문』, 『형사사건부』(<https://theme.archives.go.kr>)
『범죄인명부』(광시면, 덕산면, 봉산면, 신암면, 오가면, 응봉면)
『수형인명표』(봉산면)
『수형인명표폐기목록』(신양면)
『소요사건에 관한 도장관보고철(道長官報告綴)』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
『불령단관계잡건(不逞團關係雜件)』
국가보훈부, 『공훈록』(<https://e-gonghun.mpva.go.kr>)
김병조, 『한국독립운동사략(韓國獨立運動史略)』, 상해, 192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제3권), 1971.
충청남도·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충남독립운동사』2, 2020.
김진호, 「예산지역의 3·1운동 전개와 의의」, 『충청문화연구』8, 충청문화연구소, 2012.
_____, 「아산지역 3·1운동의 전개와 일제의 탄압」, 『한국근현대사연구』75, 한국근현대사학회, 2016.
_____, 「충남지방 횃불독립만세운동의 전개와 일제의 탄압」, 『충청문화연구』21, 2018.
_____, 「충남지방의 횃불독립만세운동」, 『3·1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지역적 전개』(한국사연구회 편), 경인문화사, 2019.
_____, 「홍성지방 3·1만세운동의 전개와 성격」, 『충남지방 3·1운동 재조명』, 당진역사문화연구소·충남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2019.
_____, 「예산지역의 3·1독립운동 전개와 의의」, 『예산지역 3·1운동과 역사적 의의 학술세미나』, 예산군·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9.
한성준, 「예산지역의 3·1운동 관련 참여자와 독립운동가」, 『예산지역 3·1운동과 역사적 의의 학술세미나』, 예산군·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9.

[부록] 예산 3.1독립운동 수형인 현황

연번	성명 한자	생년연월일 죄명	신분 직업 형명형기	주소 처분일자	활동	
					처분청	전거
1	최승구 崔昇九	명치30년12월25일 보안법 위반	농 태60	덕산 대치리 1919.4.19. 예산현병분대 범죄인명부	4.4. 덕산시장 독립만세	
2	한복록 韓福祿	명치39년11월1일 보안법 위반	농 태60	덕산 사동리 1919.4.20. 예산현병분대 범죄인명부	4.4. 덕산시장 독립만세	
3	박덕준 朴德俊	명치21년7월15일 보안법 위반	농 태60	덕산 시량리 1919.4.20. 예산현병분대 범죄인명부	4.4. 덕산시장 독립만세	
4	김석종 金奭鍾	명치31년5월3일 보안법 위반	농 태60	덕산 신평리 1919.4.7. 예산현병분대 범죄인명부	4.4. 덕산시장 독립만세	
5	김우제 金宇濟	명치20년1월13일 보안법 위반	농 태60	덕산 신평리 1919.4.20. 예산현병분대 범죄인명부	4.4. 덕산시장 독립만세	
6	신춘복 沈春福	명치27년5월18일 보안법 위반	농 태60	덕산 신평리 1919.4.20. 예산현병분대 범죄인명부	4.4. 덕산시장 독립만세	
7	沈宇濟 심득춘 沈得春	보안법 위반	태60	1919.4.20. 예산현병분대 범죄인명부	예산현병분대 범죄인명부	
8	이기삼 李己三	명치19년6월19일 보안법 위반	농 태60	덕산 옥계리 1919.4.22. 예산현병분대 범죄인명부	4.4. 덕산시장 독립만세	
9	최중교 崔仲交	명치원년12월12일 보안법 위반	농 태60	덕산 옥계리 1919.4.22. 예산현병분대 범죄인명부	4.4. 덕산시장 독립만세	
10	한명석 韓明錫	37년 보안법 위반	농업 태60	봉산 금치리 1919.4.8. 예산현병대 범죄인명부	4.3. 대천시장 만세 추정	
11	강재룡 姜在龍	20년 보안법 위반	농업 태60	봉산 금치리 1919.4.19. 예산현병대 수형인명표	4.3. 대천시장 만세 추정	
12	박공삼 朴公三	41년 보안법 위반	농업 태60	봉산 금치리 1919.4.19. 예산현병대 범죄인명부	4.3. 대천시장 만세 추정	
13	심삼만 沈三萬	16년 보안법 위반	농업 태60	봉산 금치리 1919.4.19. 예산현병대 범죄인명부	4.3. 대천시장 만세 추정	
14	정병희 鄭秉喜	18년 보안법 위반	농업 태60	봉산 금치리 1919.4.19. 예산현병대 범죄인명부	4.3. 대천시장 만세 추정	
15	심낙선 沈樂先	36년 보안법 위반	농업 태90	봉산 마교리 1919.4.23. 예산현병대 범죄인명부	4.3. 대천시장 만세 추정	
16	이순광 李順光	20년 보안법 위반	농업 태90	봉산 마교리 1919.4.23. 예산현병대 범죄인명부	4.3. 대천시장 만세 추정	
17	임창배 林昌培	25년 보안법 위반	농업 태90	봉산 마교리 1919.4.23. 예산현병대 범죄인명부	4.3. 대천시장 만세 추정	
18	조창교 趙昌教	50년 보안법 위반	농업 태90	봉산 마교리 1919.4.23. 예산현병대 수형인명표	4.3. 대천시장 만세 추정	
19	방면용 方冕容	32년 보안법 위반	농업 태90	봉산 마교리 1919.5.2. 예산현병대 수형인명표	4.3. 대천시장 만세 추정	

연번	성명 한자	생년연월일 죄명	신분 직업 형명형기	주소 처분일자	활동	
					처분청	전거
20	이민승 李敏承	53년 보안법 위반	농업 태90	봉산 마교리 1919.5.2. 예산현병대 수형인명표	4.3. 대천시장 만세 추정	
21	최병일 崔柄一	19년 보안법 위반	농업 태60	봉산 시동리 1919.4.7. 예산현병대 수형인명표	4.4. 덕산시장 만세 추정	
22	강필성 姜必成	明治32년2월6일 보안법 위반	농업 태90	봉산 하평리 1919.4.29. 예산현병대 수형인명표	4.4. 덕산시장 만세 추정	
23	박창로 朴昌魯	明治29년2월25일 보안법 위반	농업 태60	신암 계촌리 1919.5.8. 예산현병분대 범죄인명부	4.4. 신암 햇불독립만세	
24	이순학 李順學	明治3년2월15일 보안법 위반	농업 태60	신암 계촌리 1919.5.8. 예산현병분대 범죄인명부	4.4. 신암 햇불독립만세	
25	이원석 李元石	明治9년7월15일 보안법 위반	농업 태60	신암 두곡리 1919.5.8. 예산현병분대 범죄인명부	4.4. 신암 햇불독립만세	
26	최정렬 崔定烈	明治8년12월5일 보안법 위반	농업 태60	신암 두곡리 1919.5.8. 예산현병분대 범죄인명부	4.4. 신암 햇불독립만세	
27	안순甫 安田順甫	明治28년4월12일 보안법 위반	농업 태60	신암 별리 1919.5.6. 예산현병분대 범죄인명부	4.4. 신암 햇불독립만세	
28	김명옥 金明玉	明治23년3월23일 보안법 위반	농업 태60	신암 신종리 1919.5.8. 예산현병분대 범죄인명부	4.4. 신암 햇불독립만세	
29	이종오 李鍾五	31년 보안법 위반	농업 태60	신암 예림리 1919.5.8. 예산현병분대 범죄인명부	4.4. 신암 햇불독립만세	
30	김유희 金有熙	明治14년7월21일 보안법 위반	농업 태60	신암 조곡리 1919.5.6. 예산현병분대 범죄인명부	4.4. 신암 햇불독립만세	
31	최성춘 崔成春 崔城成春	33년 보안법 위반	농업 태60	신암 조곡리 1919.5.6. 예산현병분대 범죄인명부	4.4. 신암 햇불독립만세	
32	배운보 裴云寶	32년 보안법 위반	농업 태60	신암 오산리 1919.5.8. 예산현병분대 범죄인명부	4.4. 신암 햇불독립만세	
33	김정묵 金廷默	24년 보안법 위반	농업 태60	신암 용궁리 1919.5.9. 예산현병분대 범죄인명부	4.4. 신암 햇불독립만세	
34	이광하 李光夏 宮本光夏	明治25년3월7일 보안법 위반	농업 태60	신암 용궁리 1919.5.9. 예산현병분대 범죄인명부	4.4. 신암 햇불독립만세	
35	김보익 金甫益 金光甫益	40년 보안법 위반	농업 태60	신암 종경리 1919.4.7. 예산현병분대 범죄인명부	4.4. 신암 햇불독립만세	
36	김필선 金弼善	42년 보안법 위반	농업 태60	신암 종경리 1919.5.6. 예산현병분대 범죄인명부	4.4. 신암 햇불독립만세	
37	백남신 白南信	48년 보안법 위반	농업 태60	신암 종경리 1919.5.6. 예산현병분대 범죄인명부	4.4. 신암 햇불독립만세	

연번	성명 한자	생년연월일 직명	신분 직업 형명형기	주소 처분일자	활동		
					처분청	전거	
38	김동섭 金東燮	明治27년6월19일 보안법 위반	농업 태60	신암 종경리 1919.5.6.	4.4. 신암 햇불독립만세 예산현병분대 범죄인명부		
	전백삼 田伯三	43년 보안법 위반	농업 태60	신암 탄중리 1919.5.6.	4.4. 신암 햇불독립만세 예산현병분대 범죄인명부		
39	田伯三 天田伯三	보안법 위반	농업 태60	1919.5.6.	예산현병분대 범죄인명부		
40	홍종필 洪宗弼	농업 보안법 위반	농업 태60	신암 탄중리 1919.5.6.	4.4. 신암 햇불독립만세 예산현병분대 범죄인명부		
	황옥동(룡) 黃玉童(龍)	明治29년5월30일 보안법 위반	농업 태60	신암 탄중리	4.4. 신암 햇불독립만세		
41	黃原玉童 黃玉童	보안법 위반	농업 태60	1919.5.8.	예산현병분대 범죄인명부		
	이춘원 李春元	明治14년12월20일 보안법 위반	농업 태60	신암 하평리	4.4. 신암 햇불독립만세		
42	坂本春元 이원복	보안법 위반	농업 태60	1919.5.8.	예산현병분대 범죄인명부		
43	李元福 정낙호	24년 보안법 위반	농업 태60	신양 무봉리 1919.5.8.	4.4. 신양 햇불독립만세 예산현병분대 수형인폐기		
44	鄭洛好 李順泰	36년11월15일 보안법 위반	농업 태60	신양 시왕리 1919.5.10.	4.4. 신양 햇불독립만세 예산현병분대 수형인폐기		
45	朴榮鎮 高德鎮	38년 보안법 위반	농업 태60	신양 차동리 1919.5.8.	4.4. 신양 햇불독립만세 예산현병분대 수형인폐기		
46	고덕진 高德鎮	1884년1월27일 보안법 위반	농업 벌금90원	1919.4.28.	조선총독부 수형인폐기		
47	한흥석 韓興錫	34년 보안법 위반	농업 벌금60원	1919.5.10.	4.4. 신양 햇불독립만세 조선총독부 수형인폐기		
48	윤상옥 尹相玉	03년8월21일 보안법 위반	농업 벌금60	1919.05.10.	4.4. 신양 햇불독립만세 조선총독부 수형인폐기		
49	신인선 申仁善	농업 보안법 위반	농업 태50	1919.5.28.	4.4. 신양 햇불독립만세 예산현병분대 수형인폐기		
50	박치덕 朴致德	34년 보안법 위반	농 태60	오가 신석리 1919.4.18.	4.4. 오가 햇불독립만세 예산현병분대 범죄인명부		
51	강덕몽 姜德夢	25년 보안법 위반	농 태90	오가 신장리 1919.4.19.	4.4. 오가 햇불독립만세 예산현병분대 범죄인명부		
52	윤희두 尹熙斗	명치24년3월27일 보안법 위반	농 태60	오가 양막리 1919.4.23.	4.4. 오가 햇불독립만세 예산현병분대 범죄인명부		
53	오민영 吳民泳	35년 보안법 위반	상민 농 태60	오가 오촌리 1919.4.7.	4.4. 오가 햇불독립만세 예산현병분대 범죄인명부		
54	이명로 李明魯	27년 보안법 위반	농 태30	오가 원천리 1919.4.19.	4.4. 오가 햇불독립만세 예산현병분대 범죄인명부		
55	고성보 高聖保	33년 보안법 위반	농 태30	오가 월곡리 1919.4.20.	4.4. 오가 햇불독립만세 예산현병분대 범죄인명부		
	高聖甫						

연번	성명 한자	생년연월일 직명	신분 직업 형명형기	주소 처분일자	활동		
					처분청	전거	
56	나덕재 羅德在	29년 보안법 위반	농 태30	오가 월곡리 1919.4.20.	4.4. 오가 햇불독립만세 예산현병분대 범죄인명부		
57	김덕삼 金德三	42년 보안법 위반	농 태30	오가 좌방리 1919.4.20.	4.4. 오가 햇불독립만세 예산현병분대 범죄인명부		
58	박영근 朴永根	32년 보안법 위반	농 태30	오가 좌방리 1919.4.20.	4.4. 오가 햇불독립만세 예산현병분대 범죄인명부		
59	박인석 朴仁錫	25년 보안법 위반	농 태30	오가 좌방리 1919.4.20.	4.4. 오가 햇불독립만세 예산현병분대 범죄인명부		
60	전봉석 田奉石	26년 보안법 위반	농 태30	오가 햇불독립만세 1919.4.20.	4.4. 오가 햇불독립만세 예산현병분대 범죄인명부		
					오가 효림리 134/청양 화성 산정리		
61	엄양섭 嚴陽燮	개국486년2월3일 보안법 위반	상민 농업 태30	1919.4.26.	4.4. 오가 햇불독립만세 예산현병분대 범죄인명부		
	이순태 李順泰	26년 보안법 위반	농 태30	오가 효림리 1919.4.20.	4.4. 오가 햇불독립만세 예산현병분대 범죄인명부		
62	이덕칠 李德七	1886년5월5일 보안법 위반	농업 태90	1919.4.28.	4.4. 응봉 건화지리 예산현병분대 범죄인명부		
63	김치국 金致國	1886년12월26일 보안법 위반	농업 태60	1919.4.25.	4.4. 응봉 노화리 예산현병분대 범죄인명부		
64	이회원 李會元	1889년11월21일 보안법 위반	농업 태60	1919.4.25.	4.4. 응봉 햇불독립만세 예산현병분대 범죄인명부		
65	이은배 李殷培	1898년6월16일 보안법 위반	농업 태60	1919.4.29.	4.4. 응봉 햇불독립만세 예산현병분대 범죄인명부		
66	이승배 金承培	1880년4월7일 보안법 위반	농업 태90	1919.4.25.	4.4. 응봉 송석리 예산현병분대 범죄인명부		
67	손매손 申梅孫	1890년1월6일 보안법 위반	농업 태90	1919.4.25.	4.4. 응봉 햇불독립만세 예산현병분대 범죄인명부		
68	박동근 朴東根	1895년4월3일 보안법 위반	농업 태90	1919.4.25.	4.4. 응봉 입침리 예산현병분대 범죄인명부		
69	정대홍 丁大洪	27년 보안법 위반	농업 태90	1919.4.25.	4.4. 응봉 주령리 예산현병분대 범죄인명부		
70	정순도 丁順道	1887년10월21일 보안법 위반	농업 태90	1919.4.1.	4.1. 이전 독립만세 예산현병분대 범죄인명부		
71	전우기 田禹基	1900년3월11일 보안법 위반	농업 태90	1919.4.25.	4.4. 응봉 햇불독립만세 예산현병분대 범죄인명부		
72	최옥동 崔玉童	1901년5월29일 보안법 위반	농업 태90	1919.4.25.	4.4. 응봉 지석리 예산현병분대 범죄인명부		
73					4.4. 응봉 햇불독립만세 예산현병분대 범죄인명부		

연번	성명 한자	생년연월일 직명	신분 직업 형명형기	주소 처분일자	활동		
					처분청	전거	
74	김월성 金月成	1891년9월20일 보안법 위반	농업 태90	응봉 계정리 예산현병분대	4.4. 응봉 햇불독립만세 범죄인명부		
75	고문학 高文學	21 보안법 위반	태60	광시 은사리 예산현병분대	4.5. 광시 독립만세 범죄인명부		
76	노길용 盧吉用	22 보안법 위반	태60	광시 구례리 예산현병분대	4.5. 광시 독립만세 범죄인명부		
77	서유풍 徐有風	24 보안법 위반	태60	광시 구례리 예산현병분대	4.5. 광시 독립만세 범죄인명부		
78	최한모 崔漢某?	.		광시 구례리 예산현병분대	4.5. 광시 독립만세 범죄인명부		
79	김치호 金致湖	51 보안법 위반	태60	광시 은사리 예산현병분대	4.5. 광시 독립만세 범죄인명부		
80	조병익 趙炳翊	29 보안법 위반	태90	광시 광시리 104 예산현병분대	4.5. 광시 독립만세 범죄인명부		
81	박수천 朴壽天	41 보안법 위반	태60	광시 대리 468 예산현병분대	4.5. 광시 독립만세 범죄인명부		
82	이종갑 李鍾甲	44 보안법 위반	기소유예	고덕 상장리 1919.5.9.	4.3. 대천시장 독립만세 공주지청 형사사건부		
83	방계환 方季煥	41 보안법 위반	기소유예	고덕 상궁리 1919.5.11.	4.3. 대천시장 독립만세 공주지청 형사사건부		
84	권병기 權炳譏	20 보안법 위반	학생	광시 시목리 증거불충분	3.13. 대흥시장 독립만세 공주지청 형사사건부		
85	김용태 金容泰	21 보안법 위반	학생	대흥 교촌리 증거불충분	3.13. 대흥시장 독립만세 공주지청 형사사건부		
86	김이기 金利基	20 보안법 위반	학생	신양 서계양리210 증거불충분	3.13. 대흥시장 독립만세 공주지청 형사사건부		
87	박동복 朴同福	20 보안법 위반	학생	신양 죽천리 증거불충분	3.13. 대흥시장 독립만세 공주지청 형사사건부		
88	김동욱 金東旭	20 보안법 위반	학생	응봉 계정리 증거불충분	3.13. 대흥시장 독립만세 공주지청 형사사건부		
89	이희주 李羲周	20 보안법 위반	학생	응봉 등촌리 증거불충분	3.13. 대흥시장 독립만세 공주지청 형사사건부		
90	정옥섭 丁玉燮	20 보안법 위반	학생	응봉 주령리 증거불충분	3.13. 대흥시장 독립만세 공주지청 형사사건부		
91	이기선 李起先	49 보안법 위반	기소중지	대술 산정리 1919.5.14.	4.4. 대술 산정 독립만세 공주지청 형사사건부		
92	이명진 李明鎮	32 보안법 위반	기소중지	대술 산정리 1919.5.14.	4.4. 대술 산정 독립만세 공주지청 형사사건부		

연번	성명 한자	생년연월일 직명	신분 직업 형명형기	주소 처분일자	활동		
					처분청	전거	
93	장문환 張文煥	33 소요	농업	고덕 상궁리 정역1년6월	4.5. 예산시장 독립만세 공주지방법원	판결문	
94	민제식 閔濟植	49 보안법 위반	농업	대술 산정리 태90	4.4. 대술 산정 돋립만세 공주지방법원	판결문	
95	박성식 朴性植	37 보안법 폭행	농업	삽교 목리 징역6월	4.5. 삽교 목리 돋립만세 공주지방법원	판결문	
	성원수	46	농업	신양 연리	4.4. 신양 연리 돋립만세/5.8. 현병 구타		
96	成元修 成允京	보안법 상해	징역1년/ 공소기각/ 상고기각	1919.5.26./ 7.19./9.25.	공주지방법원/ 경성복심법원/ 고등법원	판결문	
	최문오	44	농업	응봉 후사리	4.5. 예산시장 돋립만세		
97	崔文吾 崔文五	보안법 공무방해	징역1년/ 징역1년/ 상고기각	1919.5.9./ 7.3./9.6.	공주지방법원/ 경성복심법원/ 고등법원	판결문	
	박대영	37	농업	신양 죽천리	4.5. 예산시장 돋립만세		
98	朴大永	보안법 직무집행방해	징역1년/ 징역1년/ 상고기각	1919.5.21./ 7.17./9.20.	공주지방법원/ 경성복심법원/ 고등법원	판결문	
99	정인하 鄭寅夏	29 보안법 위반	농업	홍성 광천 내죽리 징역6월	4.4. 대흥 대율 돋립만세 공주지방법원	판결문	
100	이필원	25	농업	종남 예산 예산 예산리 재적/일본 동경 거주	종남 예산 예산 예산리 재적/일본 동경 거주	독립운동 권리 활동	
	李撥元	보안법 위반	증거불충분	1919.6.19.	공주지청	형사사건부	

* '수형인폐기'는 '수형인명표폐기목록'이다.

** 형명 형기에 '벌금90원', '벌금60원', 벌금60은 각각 태 90, 태60, 태60으로 환형(換刑)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 이필원의 거주는 일본 동경시 신전구 삼기정 3정목 1번지이다.

**** 박덕준(3번)은 1921년 10월 5일 오가면 원천리로 이거하여 오가면 범죄인명부에도 기재되어 있다.

***** 정대홍(70번)은 태형처분일자가 4월 1일이다. 따라서 4월 4일 응봉의 햇불독립만세운동 보다 앞선 시기의 독립운동으로 체포되었다가 태형 처분으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

***** 기소유예, 기소 중지, 증거불충분은 모두 불기소이다.

제6장

예산지역 청년운동

허 종 충남대 국사학과 교수





예산지역 청년운동



허종

1. 1920년대 사회운동과 청년의 등장
2. 1920년대 전반 청년단체의 결성과 활동
 - 1) 예산청년회의 결성
 - 2) 청년단체의 활동
3. 1920년대 후반 청년단체의 혁신 추진과 활동
 - 1) 사회주의 세력의 등장과 청년단체의 결성
 - 2) 청년단체의 활동
4. 1930년대 전반 청년단체의 혁신과 활동
 - 1) 삽교청년회와 예산청년회의 혁신
 - 2) 청년단체의 활동
5. 청년운동의 특징과 의의



1. 1920년대 사회운동과 청년의 등장

1920년대는 각계각층의 대중들이 빼앗긴 권익을 되찾고 식민지 지배체제를 무너뜨리려는 활동을 활발하게 벌인 ‘사회운동의 시대’였다. 사회운동은 일제 식민지 지배정책이 변화하고 대중이 3·1운동의 영향을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1920년대 일제 식민지 지배정책은 총칼을 앞세운 기준의 ‘무단정치’에서 ‘문화정치’로 전환하였다. 지배정책의 변화로 한국어로 된 신문과 잡지의 발행을 허용되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 비록 기만과 협구로 가득 찬 정책에 지나지 않았지만 대중은 제한적으로나마 열린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였다.

3·1운동은 대중의 인식을 크게 변화시킬 정도로 영향이 더 컸다. 3·1운동에 직접 참가하거나 이를 경험하면서 일제의 침략성과 폭력성을 인식하고 권익을 옹호하려는 의식이 높아졌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으로 널리 확산된 세계 개조 사상에도 영향을 받았다. 또한 독립운동 세력은 3·1운동 이후 독립운동을 확산시킬 새로운 사상과 방략을 모색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 사상을 비롯한 다양한 이념이 국내에 확산되면서 독립운동이 발전하였다.

1920년대 전반부터 노동자는 임금 인상과 노동환경 개선 등 권익을 옹호하는 활동을 벌였다. 농민들도 소작료 인하와 소작권 이동 반대 등 권익을 획득하려는 활동을 벌였다. 이와 같은 활동을 기반으로 1924년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의 전국 연합조직인 조선노농총동맹을 결성하였다.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이 점차 발전함에 따라 이 단체는 1927년 조선노동총동맹과 조선농민총동맹으로 분리하여 두 운동의 독자적인 지도조직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학생들도 열악한 교육 환경과 민족 차별적인 식민지 교육정책을 규탄하고 개선하려는 활동을 벌였다. 또한 여성도 가부장제를 비롯한 봉건적 인습을 타파하고, 나아가 여성해방을 쟁취하려는 여성운동을 벌였다.

1920년대 가장 활발하게 전개된 사회운동은 청년운동이었다. 청년은 근대의 시작과 함께 역사적 존재를 드러냈다. 19세기 후반 청년은 근대 지식과 사상을 갖추어야 할 교육과 계몽의 대상인 동시에 근대 사회를 수립하고 국권 회복을 이끌어 내야 할 역사의 주체로 호명되었다. 나라가 식민지로 전락한 후에는 자주 독립을 이끌어 내야 할 존재로 호명되었다. 역사적 사명 앞에서 청년은 학생과 함께 3·1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대중화시켜 거족적인 민족운동으로 발전

하는 데 기여하였다.

청년은 계급과 계층에 따라 노동청년, 농민청년, 지식청년, 학생청년, 여성청년 등으로 존재하였다. 각 계급과 계층의 중추였기 때문에 농민운동, 노동운동, 학생운동, 여성운동 등 사회운동의 중심에 있었다. 동시에 진취적이고 개방적인 존재적 특성을 살려 독자적인 청년운동을 벌이고, 다른 부문의 사회운동 세력과 연대하여 사회운동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2. 1920년대 전반 청년단체의 결성과 활동

1) 예산청년회의 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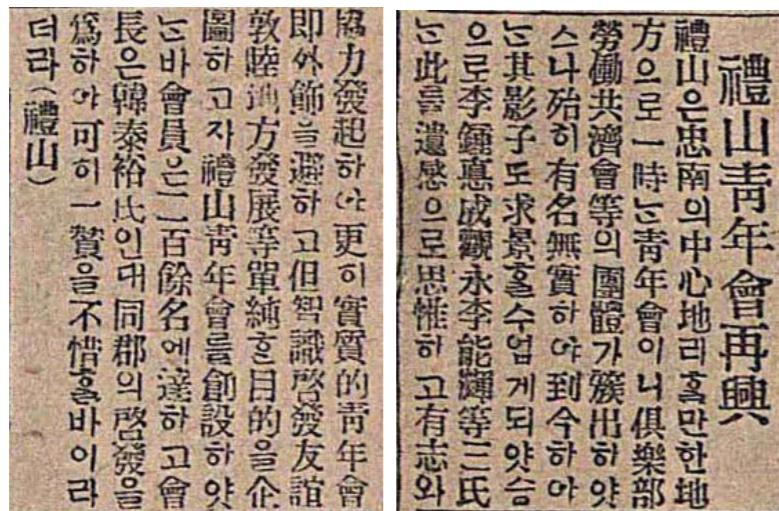
청년단체는 이미 1910년대 후반 전국의 일부 지역에서 결성되었다. 이 시기 청년단체는 일제가 ‘천황제’ 국가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 청년단체를 관변 주도의 청년단체로 정비하는 상황과 관련이 있었다. 한국으로 이주해 온 일본인이 본국의 상황에 맞추어 청년단체를 결성하자, 한국인들도 영향을 받아 청년단체를 결성하였다. 청년단체는 대한제국기 관리를 지내거나 경제력을 가진 지역 유지들이 결성했으며, 당시 군수를 비롯한 일제 관리의 권유로 결성된 경우가 많았다. 충남에서도 논산, 공주, 당진, 홍성 등지에서 청년단체가 결성되었다. 그러나 청년이 청년운동의 위상과 역할을 인식하고 단체의 필요성을 자각하여 결성한 것이 아니었다.

1920년에 들어서 미국 대통령 윌슨(T. W. Wilson)이 주창한 민족자결주의가

고양되고, 정의와 도덕이 지배하는 새로운 세계가 도래했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었다. 세계정세의 변화와 새로운 사상에 영향을 받아 1920년대 전반 전국 각지에서 청년회, 청년구락부, 수양청년회, 구락부 등 다양한 이름의 청년단체들이 결성되었다. 1920년 12월 전국적 청년연합 조직인 조선청년회연합회가 결성될 정도로 청년운동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다. 조선청년회연합회는 사회 혁신, 지식 광구(廣求), 건전한 사상으로의 단결, 덕의(德義) 존중, 건강 증진, 산업 진흥, 세계문화에 공헌을 강령으로 채택하고 활동하였다.

예산에서도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새로운 사조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청년단체를 결성하였다. 처음 결성된 청년단체는 결성 시기와 명칭이 분명치 않으나,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볼 때 1920년에 구락부의 명칭으로 결성된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지만 결성 후 활동이 미약하여 유명무실한 상태에 빠졌다. 전국으로 널리 확산되는 청년운동의 영향을 받아 1921년 10월 이종덕(李鍾德), 성관영(成觀永), 이능휘(李能輝) 등이 발기하여 재조직하는 수준으로 예산청년회를 결성하였다. 예산청년회는 지식 계발, 우의 돈독, 지방 발전을 목적으로 표방했으며, 회원이 2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청년과 지역민의 호응이 많았다. 회장으로는 한태유(韓泰裕)가 추대되었다.

회장 한태유는 천안의 북부교회에서 시무하다가 감리교 예산교회(지금의 예산제일교회)로 파송 받아 목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발기인으로 참여한 이종덕은 1896년 예산 출신으로 1917년 보성전문학교 법과를 중퇴하고, 1920년 충남상업주식회사 감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예산청년회의 결성 기사 (『매일신보』 1921년 10월 15일자)

성관영은 1910년 예산의 사립 배영학교를 졸업한 충남상업주식회사의 주주였다. 이들 외에 예산청년회의 임원진이 확인되지 않아 청년단체를 주도한 인물과 경력을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회장과 발기인으로 참여한 이들의 연령과 경력, 이 시기 다른 지역 청년단체의 임원진을 미루어 볼 때 예산청년회는 다른 청년단체처럼 지주와 자본가를 포함한 지역 유지들이 주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 청년단체는 지역 유지와 청년이 결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지만, 종교적 성격의 청년단체도 결성되었다. 천도교 세력이 강했던 예산에서는 천도교 청년회 예산지부가 결성되었다. 1923년 천도교청년회가 천도교 신파와 구파의 갈등으로 천도교청년당으로 전환된 후 천도교청년회 지부도 천도교청년당으로 전환하였다. 종교 청년단체는 포교를 포함한 종교 차원의 활동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였다.

1920년대 전반 예산은 일반적 청년단체 한 곳과 종교 청년단체 한 곳이 결성되었다. 예산은 12개 면으로 구성되어 충남지역 다른 군의 권역에 비해 넓었거나 비슷한 규모의 권역이었으나 청년단체의 설립은 저조한 편이었다.

2) 청년단체의 활동

1920년대 전반기는 ‘문화운동’이 풍미했던 시기였다. 문화운동은 실력양성운동의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청년단체는 회원을 대상으로 지식을 계발하여 인격을 향상하고, 덕성을 함양하여 사회의 모범이 되며, 체력을 증진하여 정기를 배양하는 청년을 지향하였다. 즉 지(智)·덕(德)·체(體)를 겸비한 청년을 지향하였다. 대중에게는 봉건 의식을 타파하고 새로운 지식과 사상을 보급하는 활동을 벌였다. 청년단체가 청년과 대중의 봉건 의식을 타파하고 근대 지식을 보급하기 위해 벌인 주된 방식은 강연회였다. 강연회는 청년단체 주최로 지역 유지 또는 청년이 강연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외부 강연단의 강연으로 진행되었다. 서울의 ‘조선학생대회’와 ‘조선청년회연합회’, ‘천도교청년회 도쿄(東京)지회’ 등이 구성한 순회강연단의 강연회가 대표적이었다. 충남 출신으로 서울이나 일본에서 유학하는 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하여 구성한 강연단의 강연도 있었다. 강연은 주로 사회 개조, 문화 생활, 여성 해방, 풍속 개량, 생활 개선, 실력 양성 등을 강조하는 내용이었다. 강연회에는 회원뿐만 아니라 지역민도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1923년 8월 예산공립보통학교 강당에서 열린 ‘남선여자순회강연단(南鮮女子巡廻講演團)’의 강연에는 1천여 명이 운집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어 청년을 포함한 지역민이 새로운 지식과 문화에 대한 열망과 욕구를 잘 보여주

었다.

예산청년회가 노력을 기울인 활동은 체육이었다. 청년단체는 체력도 민족의 실력이라는 인식에서 지역의 학교, 사회단체 등과 연합으로 정구 등의 운동경기를 가지거나 인근 지역 청년단체와 연합하여 운동대회를 개최하였다. 1923년 6월 예산청년회는 충남농업학교, 청주농업학교 학생들과 정구대회를 가졌으며, 같은 해 7월에도 온양, 홍성지역 청년회와 공동으로 정구대회를 주최하였다. 10월에도 제1회 충남연합정구대회를 후원하는 등 1925년까지 지속적으로 체육 활동을 벌였다.

이 시기 예산청년회의 활동 가운데 눈에 띄는 활동은 실력양성운동의 일환으로 별인 물산장려운동과 민립대학 설립운동이었다. 물산장려운동은 경제적 실력양성운동으로서 1920년 평양에서 한국이 실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산업발전과 한국인 자본의 육성을 주장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운동에 영향을 받아 1923년 2월 서울에서 조선물산장려회가 창립되었다. 조선물산장려회는 각종 강연회를 개최하고 유인물 등을 배포하며 물산장려운동을 전개하였다.

1923년 1월 예산청년회는 전국 현안으로 떠오른 물산장려운동을 포함한 활동 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임원 회의를 개최하였다. 임원들은 물산장려운동의 일환으로 금주(禁酒)와 단연(斷煙)운동을 벌이고, 한국 제품의 옷을 착용하되 흰색 옷을 염색하여 착용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회원부터 실행하고 일반 대중에게도 선전 활동을 벌이기로 하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청년과 지역민의 소비를 절약하기 위해 소비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결의하였다.



예산청년회의 소비조합 설립 활동 기사(《조선일보》 1923년 2월 26일자)

예산청년회는 결의에 따라 1923년 음력 설날인 2월 16일부터 담배를 끊고 술을 먹지 말며, 옷은 조선 물산으로 물들여 입을 것을 권장하는 내용의 선전 전단을 수만 장 만들어 살포하였다. 또한 소비조합을 조직하기 위해 15명의 위원을 선정하고, 지주·자본가를 포함한 지역 유지들에게 협조를 구해 설립 자금 2만 원을 모금한 후 창립총회를 열고 4월 개업할 목표를 세웠다. 같은 해 3월 중순 예산청년회는 예산면과 대홍면에서 소비 절약을 선전하는 연극을 여러 차례 공연하였다. 또한 연극 공연의 입장료와 지역 유지들의 동정금으로 소비조합의 설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벌였다.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소비조합의 결성이 무산되는 등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예산처럼 물산장려운동은 초기에 대중들의 열띤 호응 속에 진행되었으나, 1923년 후반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여 일부 자본가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어 대중들이 외면하면서 종료되었다.

민립대학설립운동은 고등교육을 가로막는 일제 식민지 교육정책에 맞서 민

족의 힘으로 대학을 설립하여 민족 교육과 민족 간부를 양성하려는 취지에서 전개되었다. 1923년 1월 예산청년회는 회장 한태우를 비롯한 간부를 민립대학 설립 발기인으로 선출하여 활동에 들어갔다. 2월 한태우는 지역 유지 신익교(辛益教), 임명호(任命鎬), 성낙현(成樂憲), 김현상(金顯相) 등과 함께 민립대학의 발기승인을 요청하였다. 같은 해 3월 서울에서 개최된 민립대학기성회 창립총회에도 대표를 파견하였다. 또한 청년들이 민립대학 설립의 필요성을 선전하는 강연회 등을 열거나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위원들이 각 면에 파견되어 활동하였다. 그 결과 같은 해 8월 12일 예산공립보통학교에서 한태우가 중심이 되어 민립대학기성회 예산지방부의 창립총회를 가졌다. 총회에서 간부로 선출된 이들은 다음과 같다.

□ 집행위원(執行委員)

신익교(辛益教) 김현상(金顯相) 최규석(崔圭錫) 이원종(李完鍾) 성낙규(成樂奎)
이현영(李鉉永) 정낙훈(鄭樂勳) 이현영(李顯榮) 방원직(方圓直) 박시양(朴始陽)
유치경(兪致競) 오건영(吳建泳) 이명세(李明世) 김홍국(金興國) 성천영(成天永)
임양재(任良宰) 이삼규(李三珪) 정성용(鄭成鎔) 박제형(朴濟衡) 이승국(李秉國)
윤재신(尹在信) 김현기(金玄基) 이장재(李昌載) 이용재(李容宰) 정기

호(鄭祺好)

박상진(朴相鎮) 백낙균(白樂均) 김건식(金健植) 윤돈구(尹墩求) 정봉화(鄭鳳和)

김광현(金光鉉) 이순규(李舜圭) 장기봉(張基鵬) 이봉주(李鳳周) 정대균(丁大均)

서정철(徐廷哲) 박돈규(朴敦圭) 김창수(金昌秀) 최두영(崔斗榮) 김건제(金建濟)

이강령(李康烈) 백충기(白忠基) 심익진(沈益鎮) 박양화(朴陽和) 이정복(李廷馥)

신태용(申泰庸) 김동욱(金東旭) 윤명수(尹明秀) 이중현(李重鉉) 박성래(朴成來)

서규석(徐圭錫) 어재승(魚在乘) 전석주(全錫周) 유관희(柳觀熙) 임명호(任命鎬)

장석구(張錫九) 임승재(任承宰) 서정섭(徐廷燮)

□ 감사위원(監查委員)

성관영(成觀永) 이종대(李鍾大) 이남종(李楠鍾)

□ 회금 보관위원(會金保管委員)

성낙현(成樂憲) 이종덕(李鍾德) 장석구(張錫九) 정봉화(鄭鳳和) 최규석(崔圭錫)

민립대학기성회 예산지방부에는 예산청년회 임원과 자본가, 지주를 비롯한 지

역 유지가 대거 참여하였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예산군 12개 면의 전·현직 면장들이 전부 참여한 사실이다. 신익교, 이삼구, 이병국, 이용재, 김건식, 이순규, 서정철, 김건제, 심익진, 김동욱, 서규석, 임명호는 예산군 12개 면의 현직 면장이었으며, 이봉주 등은 전직 면장이었다. 또한 최규석, 박시양, 유치궁, 정봉화, 성낙현, 이종덕, 장석구 등은 충남상업주식회사의 중역이거나 주주였다. 이 운동은 예산지방부가 설립된 이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별다른 활동 없이 몇 달 만에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 시기 전국의 청년단체는 청년, 아동, 일반 대중의 문맹을 퇴치하고, 근대 지식과 사상을 보급하려는 교육 사업을 벌였다. 청년단체는 독자적으로 또는 지역유지와 함께 학원, 강습소, 야학 등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1920년에 예산 12개 면 가운데 공립보통학교가 설립된 곳은 예산, 대홍, 덕산 세 곳에 불과하였다. 1925년에 기존 세 곳과 고덕, 오기, 신양, 광시면 일곱 곳으로 증가했으나 여전히 교육 기관이 많이 부족하였다. 더욱이 많은 아동이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진학하지 못하고, 청년들은 연령을 초과한 이유 등으로 입학이 허용되지 않아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교육 환경에서 예산에서도 청년단체가 야학을 운영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 청년이 지역 유지와 함께 야학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된다. 예산면 산성리에서는 1925년 1월 유지 이연(李燃)의 집에 노동야학을 설립하여 사범학교를 졸업한 청년 장용기(張龍基)가 무료로 교육하였다. 학생은 남녀를 포함하여 60여 명에 이르렀다.

예산면 관작리에서도 예산금융조합 감사로 있으면서 훗날 신암면장이 된 성

낙원(成樂遠) 등이 노동자와 연령 초과 아동을 위한 야학회를 설립하고 서울에서 중학을 졸업한 청년 이민재(李敏載)가 교육하였다. 학생은 30여 명에 이르렀다. 봉산면에서도 무산 아동을 위한 청년학원이 설립되어 운영하였다. 이외에도 대술면 마전리의 고성강습소, 형평사 예산분사가 설립한 신진강습소 등이 운영되었다. 야학의 교과목은 일반적으로 일본어, 산술 한국어, 영어 등이었으며, 학비는 무료였다.

1920년대 전반 예산청년회는 다른 지역의 청년단체와 같은 내용의 활동을 펼쳤으나 부진한 양상을 보였다. 청년단체의 구성원과 설립 목적이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예산청년회는 지주, 자본가 등이 중심이 된 지역 유지가 임원을 맡아 활동을 주도하여 명실상부한 청년단체라고 할 수 없었다.

지역 유지는 청년운동에 대한 뚜렷한 인식 없이 친목단체 또는 수양단체로 간주한 측면이 강했고 사회적 활동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 또한 청년운동의 사상적 기반인 문화운동이 가진 한계도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는 예산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 문제였다.

3. 1920년대 후반 청년단체의 혁신 추진과 활동

1) 사회주의 세력의 등장과 청년단체의 결성

1920년대 중반 이후 전국에서 청년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은 사회주의 세력이 주도하면서 변화하였다. 충남에서도 청년 사회주의자들이 등장했으며, 1924

년 9월 전북에서 결성된 사회주의 사상단체 ‘민중운동자연맹(民衆運動者同盟)’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1925년 3월 충남의 사회주의자들은 충청 지역을 포괄하는 독자적인 사회주의 사상단체로서 ‘제일선동맹(第一線同盟)’을 결성하였다. 제일선동맹은 한국의 사회운동 방침, 도내 지역과 단체 상황의 조사, 기관지 발간, 청년운동과 노농운동의 조직과 교양 등 사회운동을 지도하고 조직을 결성하기 위해 활동하였다. 충남 당진, 논산, 홍성, 천안, 보령 등지에서 사회주의자 50여 명이 이 단체에 참여했지만 예산지역의 활동가는 없었다.

사회주의 세력은 당시 고양되던 각 부문 사회운동의 전국 단위 단체의 결성을 추진하였다. 청년운동에서는 1924년 4월 전국 청년단체의 역량을 결집하고 통일적으로 지도할 중앙집권적 조직으로서 조선청년총동맹을 결성하였다. 조선청년총동맹은 청년에게 계급의식을 주입하고 청년의 계급적 단결을 기본 방침으로 삼았다. 당진, 부여, 홍성 등지의 청년단체가 조선청년총동맹에 가입했지만, 예산청년회는 가입하지 않았다.

조선청년총동맹은 청년단체를 혁신하고, 흩어져 있던 지역 청년운동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도와 부·군 단위의 청년연맹의 결성을 추진하였다. 1925년 1월 충남의 청년단체들은 지역 청년운동의 방향을 논의할 충남청년대회를 열기로 결정하였다. 2월 천안에서 충남청년대회발기회를 열기 위해 충남청년대회발기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을 순회하며 선전할 위원을 선정하였다. 예산은 당진 출신의 정형택(鄭亨澤)과 배기영(裴基英)이 담당하였다. 그러나 일제 경찰이 대회 개최를 불허하여 대신 충청지역 청년을 망라한 ‘충남북청년연합대회’를 열기로 결정하였다.

충남북청년연합대회에서 논의할 내용은 청년운동의 노선을 무산계급 중심의 청년운동으로 전환하며, 명실상부한 청년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회원 연령을 제한하고, 고립 분산적인 청년단체를 군 단위의 연합청년단체로 전환하는 문제 등이었다. 청년단체 혁신의 관건은 회원의 연령과 운영 체제의 문제였다. 청년들은 중장년 중심의 간부와 회장 중심의 운영 체제를 청년운동의 걸림돌로 간주하여 회원 자격을 일정 연령 이하로 제한하고, 집행위원회 체제를 채택하여 민주적인 운영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조선청년총동맹은 회원 연령을 만 16세 이상 만 30세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과 청년단체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충남북청년연합대회도 일제 경찰이 불허하여 열리지 못하였다. 충남 각지의 청년단체는 조선청년총동맹과 충남북청년연합대회 준비위원회의 방침을 중심으로 혁신을 추진하였다. 그렇지만 예산의 유일한 청년단체였던 예산청년회는 혁신은 고사하고 활동이 전무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

1920년대 후반 청년운동은 다시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사회주의 세력이 그 동안의 내부 분열을 극복하여 통일을 이루고, 거리를 두고 있었던 민족주의 세력을 동맹 세력으로 인정하여 적극적으로 제휴하는 노선으로 전환하였다. 사회주의 운동의 방향 전환은 청년운동에도 영향을 주었다. 조선청년총동맹은 기존 무산계급 중심의 청년운동에서 민족주의 계열의 청년과 연합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전환하였다. 활동 방향에 맞추어 한국 청년의 정치적·경제적·민족적 이익의 획득, 한국 청년의 의식 교양과 훈련, 한국 청년의 공고한 조직의 완성이라는 내용의 강령을 채택하고, 민족단일당 결성의 촉진 등을 당면 정책으로 채택하였다. 또한 지역 청년운동의 역량을 결집하고 민족협동전선을 실현하기 위해 각계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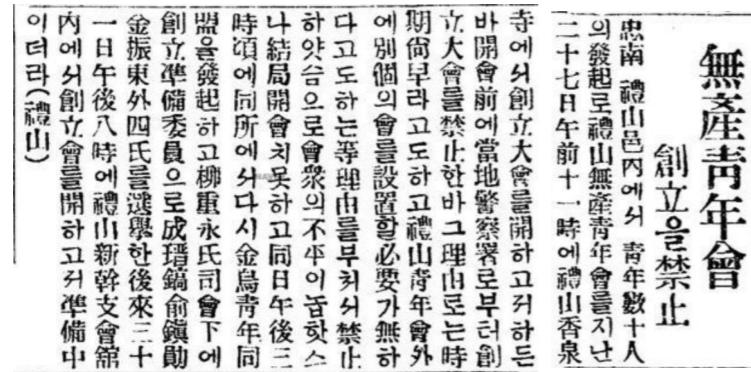
총과 민족주의 성향의 청년까지 포괄하는 군·부 단위의 청년동맹을 결성하는 조직 방침을 채택하였다. 전국 각지의 청년단체는 조선청년총동맹의 방침에 따라 단체 혁신을 추진하였다. 혁신 추진은 1927년 후반에서 1928년 전반에 집중되었으며, 1929년까지 전국에서 170여 개 군·부 단위의 청년동맹이 결성되었다.

예산에서도 1927년 11월 예산청년회가 혁신을 추진하였다. 당시 예산청년회는 한 신문이 “8년 전에 창설되어 설립 당시에는 지방 발전과 세간의 사조를 따라 만든 활동을 했으나 점차 열이 식어 아래 3, 4개년 동안 유야무야의 상태로 간판까지 철폐”했다고 보도할 정도로 유명무실한 상황이었다. 11월 7일 청년들은 임시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예산청년회의 부흥과 혁신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어 11월 11일 감리교 예산교회당에서 혁신총회를 열어 그동안의 경과와 회계를 보고하고, 회칙을 수정한 후 임원을 선출하였다. 안석원(安鉢遠)과 이종대를 각각 회장과 부회장으로 선출했으며, 이종승(李鍾承), 김세환(金世煥), 김진동(金振東), 성춘경(成春慶), 유중영(柳重永), 유진훈(兪鎮勛)을 간사로 선출하고 평의원 20명을 선임하였다.

회장으로 선출된 안석원은 30대 후반으로 보통학교 교원을 거쳐 청양군의 청소공립보통학교 교장을 지낸 후 1927년 사직한 교육가였다. 부회장 이종대는 1917년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동아일보 예산지국장을 지내고 예산에서 순천의원을 개업하여 의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종승은 예산의 대표적인 지주·자본가인 이종덕의 동생으로서 일본 메이지(明治)대학을 졸업한 후 귀향해 있었으며, 김진동은 동아일보 예산지국장, 성춘경은 20대 초반으로 지주·자본가인 성낙순(成樂舜)의 아들로서 호서은행 주주로 참여한 바 있었다. 예산청년회는

간부 연령이 이전에 비해 낮아지고 지역 유지 중심의 간부에서 탈피하여 지식인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기존 회장 중심의 운영 체제를 유지하여 제한적인 혁신에 그쳤다.

1928년 3월 예산청년회에서 활동하던 일부 청년은 청년회의 한계를 인식하고 혁신적인 청년단체의 결성을 추진하였다. 3월 27일 청년 수십 명이 발기하여 예산 향천사에서 예산무산청년회(禮山無產青年會)의 창립대회를 가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제 경찰이 이 단체의 결성이 시기상조이며, 예산청년회 외에 다른 청년회를 설립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창립대회를 금지하였다. 청년들은 즉석에서 금오청년동맹(金烏青年同盟)을 발기하고 성진호(成瑨鎬), 유진훈, 김진동 등 7명을 창립준비위원으로 선출하여 창립 준비에 들어갔다. 3월 31일 금오청년동맹의 창립대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청년동맹이 아닌 금오청년회(金烏青年會)를 설립하였다. 이들이 설립을 추진했던 단체 명칭을 볼 때 사회주의 사상을 수용했거나 호의적인 입장을 가진 청년으로 짐작된다. 금오청년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김석배(金石培)는 부여 출신으로 1920년 임시교원양성강습회를 수료한 후 대전과 예산 등지에서 보통학교 교원을 지냈으며, 예산에서 소비조합 성격의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었다. 성진호는 1927년 인천공립상업학교를 중퇴하고 예산의 금오인쇄소 서기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성진호, 유진훈 등은 예산공립보통학교 동창이었다.



일제 경찰의 탄압으로 창립이 좌절된 예산무산청년회 기사(《동아일보》 1928년 4월 1일자)

1920년대 후반에는 예산군의 다른 지역에서도 청년단체가 설립되었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청년단체는 덕봉청년회(德鳳青年會)이다. 1928년 9월 14일 고덕, 봉산, 덕산면 세 개 면에서 성낙훈(成樂薰), 홍병철(洪炳哲) 등 11명의 청년은 청년회를 발기하여 청년단체 설립을 준비하였다. 9월 25일 봉산면에서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덕봉청년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창립총회는 성낙훈의 사회로 진행되던 중 임석한 일제 경찰이 표어가 불온하다는 이유로 해산 명령을 내려 산회하고 창립총회를 연기하였다. 덕봉청년회는 이후 창립총회를 가지지 못한 채 활동하였다. 성낙훈은 당진 출신으로 신합청년회와 합덕청년회에서 활동하고 1925년 충남청년대회발기준비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있으며, 홍병철은 천안 출신으로 당진의 합덕청년회 집행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었다. 덕봉청년회의 결성을 주도한 두 사람이 인근 당진에서 활동한 점, 다른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한 개 면 단위로 청년단체가 결성된 사실을 고려할 때 그만큼 예산지역 청년운동의 역량이 미약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외에도 예산에서는 1926년 12월 민립대학 설립운동에 참여하고 봉산면장 을 지낸 이정복(李廷復)을 회장으로 하는 덕풍청년회(德豐青年會)가 결성되었으며, 1927년 11월 오가면에서는 김병현(金炳憲)을 회장으로 하는 자구청년회(自救青年會)가 설립되었다. 1928년 12월 고덕면 대천리에서 배형수(裴亨洙)를 회장으로 하는 대천수양청년회(大川修養青年會)가 설립되었다. 또한 삽교면에서도 1927년 2월 청년들이 윷놀이 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아 이 무렵 삽교청년회가 설립되어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예산에서는 일반 청년단체 외에 특수 목적의 청년단체가 결성되었다. 백정의 신분 해방을 표방하며 결성된 형평사가 형평운동의 활동가를 양성하고 훈련시키기 위해 무산청년을 대상으로 덕산형평청년회(德山衡平青年會)를 결성하였다. 형평청년회는 해방운동의 선구와 새로운 사회 건설을 강령으로 채택하고 형평운동의 전위대가 될 것을 선언하고 활동하였다. 또한 1927년 7월 예산기독청년회도 창립되었다.

1920년대 후반 예산에서는 예산청년회, 금오청년회, 자구청년회, 덕풍청년회, 덕봉청년회, 대천수양청년회, 덕산형평청년회, 예산기독청년회가 재조직되거나 새로 결성되었다. 1920년대 전반에 비해 청년단체가 많이 결성되었으며, 중장년층 지역 유지 중심에서 벗어나 연령이 비교적 낮은 청년이 많이 포진하였고 일부 청년 사회주의자들이 참여한 청년단체로 변모하였다. 그러나 청년 사회주의자들이 주도하는 것으로 파악한 예산무산청년회와 금오청년동맹, 덕봉청년회의 설립에 대해 일제 경찰이 금지하거나 방해하였다. 또한 대천수양청년회도 일제 경찰이 회원들을 소환하여 청년회 배후에서 '불온분자'가 지도한다는 이유로 청

년회의 해산을 명령하였다. 이처럼 청년단체가 많이 결성되고 청년 사회주의자가 청년운동을 벌였지만, 일제 관헌의 민감한 반응과 탄압으로 설립이 순탄치 않았다.

2) 청년단체의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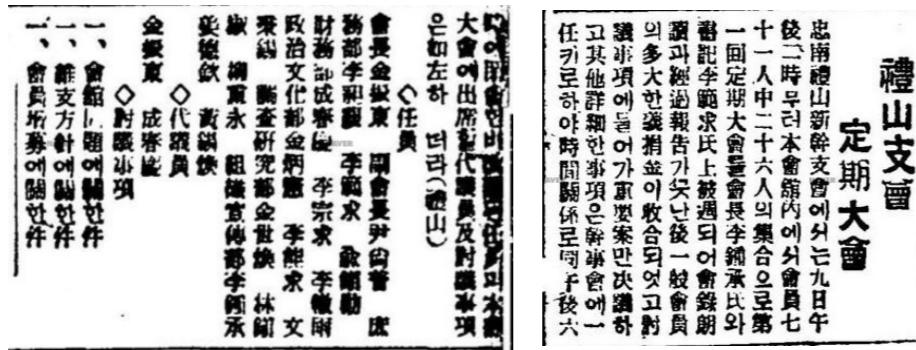
이 시기 청년단체의 주요 활동은 새로운 사상의 선전과 계몽 활동, 전국과 지역 현안에 대한 대응 등이었다. 선전과 계몽 활동은 강연회, 문화 공연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예산청년회는 1927년 11월 450여 명의 청중이 운집한 가운데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강연회는 해동의원 원장 오도영(吳道泳)과 순천의원 원장 이종대의 위생과 생활 개선을 강조하는 내용과, 김진동, 이종승, 성낙고(成樂囂)가 새로운 사상의 소개와 수용 필요성, 한국과 세계 각국의 운동 방향 전환 등을 설명하는 강연으로 진행되었다.

덕풍청년회는 1927년 8월 덕산공립보통학교의 학부형회·동창회와 연합하여 농촌 개량, 교육 장려를 주제로 마을을 순회하며 강연하였다. 특히 삽교에서 열린 강연회에는 800여 명이 운집할 정도로 호응이 높았다. 자구청년회도 1928년 4월 오가면 각 동리를 순회하며 농촌 개선을 주제로 농촌 금주, 조흔 폐지, 옷의 염색 장려, 자작 자급 내용의 강연과 연극을 공연하였다. 예산기독청년회도 금주를 선전하는 전단을 만들어 군악대를 선두로 금주가를 고창하며 살포하고 강연하였다. 이처럼 강연은 새로운 사상의 선전과 세계 민족운동의 추이 등 사회운동과 관련된 내용도 있었으나, 농촌 개량과 생활 개선, 봉건 의식의 타파 등 농촌 계몽을 강조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었다.

청년단체는 국외에서 침해당하는 한국인의 권익을 옹호하는 활동도 벌였다. 1927년 12월 만주의 한국인이 국적 문제와 토지소유권 문제로 중국 관헌에게 박해를 당하자, 전국에서 중국 관헌을 비난하면서 중국인 상점을 공격하고 철시와 퇴거를 촉구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이때 예산에서는 중국 상인들이 예산군 내 각 단체와 지역민의 대응을 두려워하여 모두 철시한 채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고 있었다. 12월 12일 예산청년회는 재만 동포에 대한 중국 관헌의 폭거에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일제 경찰이 재만 동포 옹호에 대한 선전운동을 금지하여 재만 동포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못하고 중국인 상점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포목과 주단을 취급하는 한국인 상인들에게 상권 회복을 선전하는 한편 매 장시일 전날 밤에 포목·주단과 그 외 중요 잡화의 물가를 논의하여 똑같이 저렴하게 판매할 것, 고객에게 친절히 할 것, 기회주의적 폭리를 취하지 말 것, 상품을 제대로 구비할 것 등을 요구하기로 결의하였다.

청년들은 사회운동의 방향 전환과 민족협동전선 결성의 일환으로 설립된 신간회의 예산지회 설립에도 앞장섰다. 1927년 11월 4일 예산청년회의 김석배, 김세환, 유중영, 유진훈, 성춘경 등은 신간회 예산지회 설립준비위원회의 구성을 주도하고 준비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이들의 노력으로 11월 14일 예산교회에서 신간회 예산지회 설립대회가 열렸으며 이종승이 회장, 김진동이 부회장, 성춘경이 정치문화부 간사, 김세환이 조사연구부 총무간사, 유중영과 유진훈이 조직연구부 간사, 김석배가 서무부 총무간사를 맡는 등 예산청년회에서 활동했거나 간부로 활동했던 이들이 예산지회의 간부로 선임되었다. 같은 해 12월 정기총회에서

단행된 간부 개편에서도 김진동이 회장이 선출되고 유진훈, 성춘경, 김세환, 유중영, 이종승 등이 간부로 선출되었으며, 자구청년회 회장이던 김병현도 정치문화부 간사로 선출되어 예산지회의 활동을 주도하였다. 예산지회는 1929년 8월 신간회 본부의 지시로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준비 활동을 벌이던 덕봉청년회의 성낙훈과 홍병철이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에 신간회 본부는 집행위원 김병로를 예산에 파견하여 이들의 석방을 교섭하는 활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신간회 예산지회의 간부로 선임된 청년들 기사(《조선일보》 1927년 12월 21일자)

청년들은 농민을 계몽하고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도 벌였다. 김진동, 김석배, 이종대, 이종덕 등은 1927년 11월에 발기된 예산농인자구회(禮山農人自救會)에 지역 유지와 함께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 이 단체는 농촌을 교화하여 자구적 발전을 촉진하고 농촌의 경제상 편익을 줄 목적으로 설립이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출자로 자본을 모아 소비품의 조달과 농산물의 위탁 판매와 중개를 하 고 '농촌월보(農村月報)'도 발간할 예정이었다. 예산농인자구회의 설립으로 이어 지지 못했으나 1928년 5월 김석배 등 30여 명이 다시 예산협동조합을 발기하여

6월 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협동조합은 농가에 필요한 소비품을 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농산물을 위탁 판매하는 활동을 벌였다.

청년단체는 청년을 비롯한 아동과 대중의 문맹을 퇴치하고, 근대 지식과 사상을 보급하려는 교육 사업도 벌였다. 자구청년회는 산하에 학원을 설립하여 운영 했으며, 기독청년회도 산성리에 노동야학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예산청년회와 예산기독청년회는 노동야학을 설립하고 운영 경비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앙학을 지원하기 위해 자선음악회를 열기도 하였다. 예산기독청년회는 생활이 어려운 지역민을 위해 자선품 모집대를 만들어 구호 활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1920년대 후반 청년운동은 이전에 비해 청년단체가 많이 결성되고 청년단체의 조직력과 활동이 강화되었지만, 일제 관헌의 지속적인 탄압과 통제로 활동의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성진호, 성낙훈, 홍병철 등이 일제 경찰에 체포된 사례에서 보듯 사회주의 성향의 청년들이 활동을 주도한 청년단체에 대한 탄압이 극심하였다. 또한 청년단체의 총회와 회의 등을 정치적 성격을 띠거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금지당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4. 1930년대 전반 청년단체의 혁신과 활동

1) 삽교청년회와 예산청년회의 혁신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확산된 경제대공황은 자본주의 체제를 위기에 빠트리고, 일제도 체제 유지가 위태롭게 되었다. 일제는 위기에서 벗어날

활로를 찾기 위해 1931년 9월 ‘만주사변’을 일으켰다. 일제는 대륙 진출을 위한 식민지 지배체제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한국에 경찰과 군대를 강화하고, 사회주의 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을 탄압하였다. 또한 식민지 지배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방제도를 일부 개편하여 자본가와 지주 등 지역 유지들의 참여를 유도하며 민족 분열을 조장하였다.

독립운동 세력은 1920년대 후반 일제의 대대적인 탄압으로 대부분의 조직이 붕괴되거나 활동 정지 상태에 빠졌고, 사회주의자들이 대거 붙잡혀 대중운동이 어렵게 되었다. 사회주의 세력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1930년대 들어 대중 중심의 활동을 강화하여 기반을 다지고, 이를 발판 삼아 조선공산당을 다시 조직하고자 하였다. 청년운동은 1931년 1월부터 지방의 청년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조선청년총동맹이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따른 투쟁을 벌이지 못하고, 지식인 집단으로 전락했다는 이유로 해소를 결의하면서 유명무실한 단체로 전락하였다.

전국에서 청년운동이 약화되어 갈 무렵 예산에서는 오히려 청년운동을 강화하려는 활동이 이어졌다. 오랫동안 침체 상태에 있던 삽교청년회는 1930년 8월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직 강화, 무산아동 교양, 이재민 구제 등을 토의하고 임시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일제 경찰이 시국이 엄중하다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여 9월에야 임시대회를 열 수 있었다. 청년들은 임시대회에서 삽교청년회의 활동 지역을 넓히기 위해 명칭을 예산청년동맹으로 변경하였다.

다른 지역에서는 군내의 각 면 단위 청년회가 모두 청년동맹 산하에 들어가 지부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양상과는 달랐다.

1927년 혁신대회를 가진 후 침체 상태에 있던 예산청년회도 1931년 6월 혁신

총회를 개최하였다. 예산청년회의 활동 재개는 같은 해 4월 시민대회가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시민대회는 충남전기회사의 전기료와 가설비의 인하, 경남철도의 운임료 인하가 주된 내용이었다. 유중영, 성낙훈, 성진호, 안석원, 이만섭(李萬燮), 이명식(李命植) 등이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였다. 1931년 6월 예산청년회는 혁신총회를 열어 회장에 성낙훈, 부회장에 안석원, 서무부 간사에 이만섭·이명식, 체육부 간사에 황석환(黃錫煥), 평의원에 박재성(朴在成) 외 9인을 선출하였다. 예산청년회는 혁신총회를 통해 간부들의 연령이 낮아지고 사회주의 성향을 가진 이들이 기용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특히 부회장으로 선출된 안석원과 이전 예산청년회 간부로 활동했던 이종대가 1931년 면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식민지 지배체제에 편입되었다.



예산청년회의 혁신 기사(《동아일보》 1931년 7월 7일자)

결국 예산청년회는 혁신총회를 가진 지 불과 10여 일 만인 6월 하순 회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에서 회장제를 집행위원회 체제로 바꾸고 각 분야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농민부, 노동부 등을 새로 설치하

였다. 또한 강연회와 토론회 개최, 정세 조사, 회람 문고 설치 등을 토의하였다. 집행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만섭, 집행위원으로 서무부 이명식, 문화부 윤영순(尹暎淳), 체육부 황성주(黃性周), 농민부 박태원(朴泰遠), 노동부 황석환(黃錫煥), 조사부 성진호(成瑨鎬) 등이 선출되었다. 이만섭, 성진호, 성낙훈은 신문사 지국장이거나 기자였으며, 성낙훈은 호서기자동맹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이르러 비로소 예산청년회는 조선청년총동맹이 제시했던 연령 제한과 민주주의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회장제에서 집행위원회 체제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1920년대 후반에 결성되었던 덕봉청년회, 금오청년회 등은 활동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

2) 청년단체의 활동

1930년대 전반 청년단체는 조직의 강화, 봉건 의식의 타파와 근대 지식의 선전, 무산아동을 위한 야학 운영, 지역과 전국 현안에 대한 대응 등의 활동을 벌였다. 삽교청년회는 1930년 9월 태풍으로 전국 곳곳에서 수해를 당하자, 시장을 중심으로 물건을 팔아 모은 돈으로 수해민을 지원하기 위해 행매대(行賣隊)를 조직하였다. 금홍(琴鴻), 민태원(閔泰元), 이영갑(李泳甲) 등을 행매대의 집행위원으로 선출하고 수건 등의 물품을 팔아 구제금을 마련하여 수해민을 지원하였다. 또한 이영갑은 장교면 상성리에서 무산아동과 연령 초과로 보통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아동을 위해 야학회를 설립하고 운영하였다.

예산청년회는 봉건 의식을 타파하고 근대 지식을 보급, 선전하는 활동을 벌였다. 이를 위해 청년회 회관에 회람 문고를 설치하고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다. 회

람 문고에는 일본에서 발간된 사회주의 잡지 『전기(戰旗)』와 아나키즘(Anarchism) 관련 서적을 포함한 사상과 농촌 계몽에 관한 책을 비치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1932년 9월 이혼 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일제 경찰이 30여 명을 내쫓고 시작되었으며, 성진호와 윤영순의 발언을 문제 삼아 여러 차례를 주의를 받은 끝에 중지 명령으로 해산하였다.

예산청년회는 대중의 민족의식을 마비시키고 일제를 미화하는 공연을 규탄하는 활동을 벌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친일 내용을 담은 연극을 규탄하는 활동이었다. 1931년 8월 29일 대동가극단이 예산에서 춘향전의 순회공연을 가지던 배우들이 일본말로 공연하자 이를 규탄하였다. 이 활동으로 윤영순, 이만섭, 성낙순, 성진호, 김현창(金顯昶) 등이 일제 경찰에 붙잡혀 성낙순, 윤영순, 이만섭은 구류 처분을 받았다.

1932년 11월 예산에서 극단 만경좌(萬鏡座)가 연극 '동방의 빛'을 공연하였다. 연극은 만주에서 생활하던 한국인이 마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살해되려는 순간 일본군이 나타나 구원하고 보호해 준다는 내용이었다. 공연이 끝난 후 청년회의 김현창과 예산공립농업학교 학생 강봉주(姜鳳周) 등은 공연 내용을 일본군의 만행을 미화, 왜곡하고 민족의식을 약화시키는 친일 연극으로 간주하였다. 이들은 극단 간부를 불러 민족 치욕의 공연이므로 중지할 것을 요구하여 충돌을 빚었다. 김현창이 붙잡혀 검사국에 송치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예산천년회의 친일 연극 규탄 활동 기사 (《조선일보》 1931년 9월 4일자)

청년단체의 활동에 대해 일제 경찰은 전방위로 탄압을 가하였다. 1932년 9월 토론회가 파행으로 끝난 후 일제 경찰이 집행위원회 위원장 이만섭을 소환하여 보안법 제2조에 따라 청년회의 모든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고하였다. 청년회의 활동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이에 앞서 1932년 4월 무렵 청년회의 회람 문고에 서적을 제공했던 성진호가 금지된 출판물을 판매하고 반포한 혐의로 일제 경찰에 붙잡혀 공판에 넘겨졌다. 성진호는 1933년 7월 1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으나 일제 경찰의 고문의 후유증으로 1933년 8월 20대의 젊은 나이에 순국하고 말았다.

친일 내용의 연극을 규탄한 활동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풀려났던 김현창을 포함한 네 사람은 1933년 7월 일제 경찰에 다시 붙잡혀 공판에 넘겨졌으며,

김현창은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일제 경찰의 탄압으로 예산청년회는 유명무실한 상태에 빠졌다.

장전학으로 경성제대병원에 입원
치료중 불행이 지난 18일 오
전 3시에 별세하였다. 유해는 즉
시 영구자동차로 예산자택에도착
하였다.

【예산】 작년四월 二十八일에
온양경찰서에 피검되어 공산주의
기판지 전기(戰記)를 선전하였다
는 치안유지법위반으로 경성부심
법원에서 그년진여 五년간집행유
예로 출판한 예산성전호(成瑨鎬)
(成瑨鎬)는 출간이래 자례에서 전양
중 지단[十一]월에 들여히 급성

예산청년회 가부 성진호의 순국 기사 (《동아일보》 1933년 9월 2일자)

한편 활동이 없어 사실상 해체 상태에 있었던 삽교의 예산청년동맹도 일제 경찰의 탄압을 받았다. 1934년 3월 무렵 일제 경찰이 삽교의 예산청년동맹 집행위원 금홍을 소환하여 청년동맹의 해체를 강요하였다. 금홍은 개인 자격으로 결정할 수 없고 전체 대회를 열어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제 경찰이 집회를 금지하고 집행위원 개개인에게 단체의 해체 승인을 얻겠다고 밝혀 예산 청년동맹도 해체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청년운동의 특징과 의의

일제 강점기의 청년운동은 각 부문의 사회운동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전개된 사회운동이었다. 1920년대 전반 예산에서도 청년운동의 발흥에 맞추어 일반적 청년단체와 종교 청년단체가 결성되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청년단체의 설립이 저조한 편이었으며, 지주와 자본가 중심의 지역 유지가 임원을 맡고 활동을 주도 하여 청년운동의 위상과 역할에 충실했던 청년단체라고 할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는 예산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 문제였다.

1920년대 후반에는 이전에 비해 많은 청년단체가 결성되었으며, 일부 청년단체는 지역 유지 중심에서 벗어나 연령이 비교적 낮은 청년이 많이 포진하고, 청년 사회주의자들이 참여하였다. 설립 과정에서 일제 경찰이 개입하여 통제하거나 탄압하여 설립이 순탄치 않았다. 이 시기 청년단체는 청년을 비롯한 아동과 대중의 문맹 퇴치와 근대 지식과 사상을 보급하려는 교육 활동을 벌였으며, 농민을 계몽하고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도 벌였다. 또한 국외에서 침해당하는 한국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민족협동전선의 일환으로 전개된 신간회 예산지회의 설립을 주도하였다. 이 시기 청년운동은 청년단체의 조직력과 활동이 강화되었지만, 일제 관헌의 지속적인 탄압과 통제로 활동의 어려움을 겪었다.

1930년대 전반 전국의 청년운동이 약화되던 무렵 예산에서는 오히려 청년운동이 강화되었다. 회원 자격을 청년운동에 적합한 연령으로 제한하고 집행위원회 체제를 채택하여 민주주의 운영을 강화하였다. 1930년대 전반 청년단체는 조직 강화, 봉건 의식 타파와 근대 지식의 선전, 무산아동을 위한 야학 운영, 지역과

전국 현안에 대한 대응 등의 활동을 벌였다. 특히 대중의 민족의식을 마비시키고 일제를 미화하는 반민족 행위를 규탄하는 활동이 돋보였다.

일제 강점기 예산지역의 청년운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 청년단체의 규모와 활동이 미약한 상황에서 출발했지만, 시기를 거듭할수록 단체 설립이 많아지고 활동도 보다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제 경찰의 지속적인 통제와 탄압, 지주와 자본가 등 지역 유지들의 강한 기반으로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운동은 청년은 물론 일반 대중들의 민족의식과 현실인식을 심화시키고 일제 식민지 지배체제를 균열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참고문헌〉

《동아일보》《매일신보》《시대일보》《조선일보》《조선중앙일보》《중외일보》《중앙일보》
경성복심법원, 「成瑨 鎭 판결문」(1933년 7월 10일)
공주지방법원, 「金顯昶 외 판결문」(1933년 2월 1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지개혁시 피분배지주 및 일제하 대지주 명부』, 1985.

고숙화, 『형평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박철하, 『청년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예산제일교회, 『예산제일감리교회 100년사』, 2016.
_____, 『예산지역 민족운동과 예산제일교회』 2023.
이균영, 『신간회연구』, 역사비평사, 1993.
이기훈, 『청년아 청년아 우리 청년아』, 돌베개, 2014.
전명혁, 『1920년대 한국사회주의 운동연구』, 선인, 2006.
충남대학교 내포지역연구단, 『근대이행기 지역엘리트 연구Ⅱ -충남 내포지역의 사례』, 경인문화사, 2006.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충남독립운동사3-1920~40년대 국내 독립운동』, 2021.
_____, 『충남독립운동사5-충남의 독립운동가 인명사전』, 2022.
한국역사연구회 근현대청년운동사연구반, 『한국 근현대 청년운동사』, 풀빛, 1995.

김남석, 『1920년대 당진의 청년운동』, 《충청문화연구》2, 충청문화연구소, 2009.
김상기, 『예산지역 독립운동의 전개』, 《충청문화연구》27, 충청문화연구소, 2022.
김성보, 「일제하 조선인 지주의 자본전환 사례-예산의 성씨가」, 《한국사연구》76, 한국사연구회, 1992.
소요한, 「예산지역 3.1 독립운동과 기독교:예산제일감리교회를 중심으로」, 《신학과 세계》104, 감리교신학대학교, 2023.

허수열, 「일제하 충남제사(주)의 경영구조-내포지방 경영진 지배기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7, 역사문화학회, 2004.

허종, 「1920년대 충남지역의 청년운동-공주·논산·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55, 호서사학회, 2010.

제7장

예산지역의 농민운동과 노동운동

박성섭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원





예산지역의 농민운동과 노동운동

박성섭



1. 사회경제적 배경
2. 예산지역의 농민운동
 - 1) 소작쟁의
 - 2) 임야 대부 반대운동
 - 3) 수리조합 설립 반대운동
3. 예산지역의 노동운동
4. 예산지역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의 성격

1. 사회경제적 배경

충남 예산은 고려시대 예산현, 대흥현, 덕풍현 지역에 해당한다. 덕풍현은 조선시대에 덕산현으로 개칭되었다. 1896년 지방제도 개편에 따라 예산군, 대흥군, 덕산군으로 편제되었다가 1914년 3개 군을 합쳐 예산군으로 하여 12개 면을 관할하였다. 1940년 예산면, 1973년 삽교면이 읍으로 승격되어 현재는 2개 읍, 10개 면으로 편제되어 있다.

예산은 지리적으로 충남 서북부에 위치하며, 동쪽으로는 차령산맥, 서쪽으로는 가야산이 남북 방향으로 뻗어 있다. 이 사이를 무한천과 삽교천이 흐르고 있고, 두 하천을 끼고 평야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육로를 통해서는 교통이 불편한 편이지만, 아산만 일대에는 항구가 발달하여 해로를 통한 유통경제가 발달하였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 아래 예산은 내포 일대의 미곡 집결지로서 발전하였다.

예산을 비롯한 내포 지역에서 생산된 미곡은 해로를 통해 서울로 운반되었고, 개항 이후에는 인천항을 거쳐 일본으로 빠져나갔다.

일제는 해운에만 의존하여 미곡을 수탈하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18년 경남선 철도 부설이 추진되어, 1920년 2월 조선경남철도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1922년 6월 천안에서 예산까지 개통된 이후, 1931년 8월 천안에서 장항을 연결하는 철도가 완공되었다. 이로써 예산평야에서 생산된 미곡은 경남선을 이용하여 장항으로 운반되었고, 일본으로 반출되었다.

미곡 집산지였던 예산지역은 내포 일대의 시장을 포섭하면서 유통경제의 중심지로 발전하였다. 1913년 충남에는 86개의 장시가 있었는데 이중 연간 거래액이 10만 엔 이상인 장시는 19개였다. 예산지역에서는 예산 읍내장과 덕산 대천장이 포함되었다. 특히 예산 읍내장은 은진 강경장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장시였다.

이러한 경제 여건을 기반으로 1913년 예산에 호서은행이 설립되었다. 전국에서 9번째였고, 한국인이 세운 은행으로만 하면 5번째 은행으로 매우 이른 시기에 설립되었다. 대부분의 은행이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 세워졌던 것에 비해 호서은행은 비도시 지역에 설립되었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비도시 지역에 세워진 은행은 밀양의 밀양은행 외에는 호서은행뿐이었다. 호서은행의 설립은 예산지역의 경제적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호서은행은 유통경제가 발달했던 예산을 기반으로 하여 성장해 나갔다. 광천·천안·홍성·대천 등 충남 지역을 비롯하여 안성·장호원 등 경기 지역에도 지점을 설치하였다. 호서은행은 충남 서북부 지역의 유일한 은행으로서 지역의 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었다. 충남제사회

사를 비롯하여 충남상업, 백제상사, 홍성상사, 대성무역 등이 호서은행의 금융지원을 받아 활발한 영업을 해나갈 수 있었다.

충남제사회사와 충남상업은 예산에 세워진 기업이었다. 특히 충남제사회사는 대전군시제사공장과 충남 지역의 임업 산업을 양분한 회사였다. 이러한 기업의 설립과 성장으로 예산지역의 상공업이 발달할 수 있었다. 1929년 3월 당시 상업(교통업 포함), 공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각 4,928명, 1,770명으로 총 6,698명이었다. 예산 전체 인구의 7%에 달하였다.

이처럼 예산지역은 평야가 발달한 미곡 집산지였지만 일찍부터 한국인이 상업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제의 식민 침탈 기관이나 일본인 자본가의 진출이 활발하지 못했다. 1910년까지 일본인 이주자는 29호, 81명에 불과하였다. 1920년대에도 큰 변화는 없었다. 1929년 예산인구가 91,913명이었는데, 일본인은 598명이었다. 20여 년의 기간 동안 약 5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그리고 농림목축업에 종사하는 일본인은 9호, 43명에 불과하였고, 100정보(1정보는 약 3,000평) 이상의 토지를 가진 대지주는 덕산농장을 경영하는 코지 켄키치(小寺謙吉)뿐이었다.

예산지역의 한국인은 일제강점기 많은 지역에서 그러하듯이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였다. 1929년 직업별 인구 현황을 보면, 농림목축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예산 인구 91,913명의 약 87%에 해당하는 80,744명이었다. 이들은 대부분이 농업이었을 것이며, 그들의 농업 경영 형태를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충남 지역 농업 인구 현황(1929)

단위: 호

구분	지주(갑)	지주(을)	자작	자작겸소작	소작	화전	계
공주	101(0.64)	428(2.70)	980(6.19)	4,218(26.65)	10,046(63.46)	57(0.36)	15,830(100)
연기	52(0.63)	140(1.69)	767(9.27)	2,231(26.97)	5,083(61.44)	-	8,273(100)
대전	83(0.68)	225(1.83)	1,397(11.39)	3,575(29.15)	6,986(56.95)	-	12,266(100)
논산	49(0.31)	300(1.92)	555(3.54)	3,188(20.35)	11,559(73.78)	15(0.10)	15,666(100)
부여	34(0.22)	309(1.95)	1,598(10.09)	5,803(36.65)	8,075(51.00)	13(0.08)	15,832(100)
서천	8(0.06)	291(2.31)	1,580(12.53)	4,395(34.86)	6,333(50.23)	-	12,607(100)
보령	27(0.26)	422(4.03)	974(9.31)	4,576(43.74)	4,458(42.61)	5(0.05)	10,462(100)
청양	40(0.41)	213(2.17)	958(9.76)	2,823(28.77)	5,780(58.90)	-	9,814(100)
홍성	30(0.26)	343(2.97)	1,235(10.68)	4,559(39.42)	5,398(46.68)	-	11,565(100)
예산	47(0.35)	223(1.64)	1,154(8.50)	5,111(37.64)	7,043(51.87)	-	13,578(100)
서산	38(0.18)	515(2.48)	2,038(9.80)	8,862(42.60)	9,349(44.94)	2(0.01)	20,804(100)
당진	23(0.19)	336(2.76)	723(5.93)	3,751(30.76)	7,363(60.37)	-	12,196(100)
아산	91(0.83)	190(1.72)	487(4.41)	2,357(21.36)	7,899(71.59)	9(0.08)	11,033(100)
천안	36(0.28)	318(2.50)	972(7.65)	2,494(19.64)	8,880(69.92)	-	12,700(100)
계	659(0.36)	4,253(2.33)	15,418(8.44)	57,943(31.73)	104,252(57.09)	101(0.06)	182,626(100)

조선총독부, 『충청남도농업요람』, 1930

* 지주(갑)은 모든 토지를 소작지로 운영하는 자이고, 지주(을)은 대부분을 소작지로 하고 일부만 자신이 경작하는 자를 말한다.

** 팔호 안의 수치는 비율이다.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예산지역의 농가 호수는 13,578호로 지주(갑) 47호, 지주(을) 223호, 자작농 1,154호, 자작겸소작농 5,111호, 소작농 7,043호였다. 농업 형태별 비율을 살펴보면 대체로 충남 평균 수준과 비슷하였다. 지주(갑)과 지주(을)을 합한 비율이 1.99%로 충남 도내에서 가장 낮았다. 모든 농지를 소작으로 경영하는 지주(갑)의 비율은 높은 편이었으나, 이들 모두를 대지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100정보 이상을 소유한 일본인 대지주가 1명이었다는 점

은 앞서 밝힌 바 있으면, 30정보 이상으로 넓혀 보아도 6명에 불과하였다. 한국인 대지주도 많지 않았는데, 예산지역에서 100정보 이상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지주는 4명이었다.

예산에 거주하면서 인접 지역인 홍성과 아산의 토지를 함께 소유한 사례까지 확대해 보아도 4명만 추가될 뿐이다. 재지지주는 적은 반면 부재지주는 많은 편이었다. 예산과 인근의 토지를 소유한 부재지주로는 서울의 박인근·조명구·박홍일·천주교회 경성구·이석구·민규식이 있었고, 인천의 구창조, 고양의 임호상, 대구의 김태원, 홍성의 박돈규 등이 있었다. 부재지주는 지역에 사음을 두고 소작지를 경영하였다. 이로 인한 사음과 소작인 사이의 분쟁이 다수 발생하였다.

자작농의 비율은 높은 편이었다. 순수 자작농은 충남 평균 수준이었지만, 자작겸 소작농은 37.64%로 충남 평균보다 약 6% 높았다.

자작농과 자작 겸 소작농을 합하면, 46.14%로 충남에서 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소작농은 51.87%로 충남 평균보다 낮았다. 보령, 서산, 청양, 서천에 이어 5번째로 낮았다.

정리하면, 예산지역은 대체로 소작인이 적고 토지를 소유한 자작농 계층이 많았다. 이러한 특징은 예산지역의 농민운동 양상과 긴밀한 관련을 갖는다. 즉 소작쟁의보다는 토지 소유자 중심의 수리조합 반대운동이 더욱 활발했던 배경이 되었다.

2. 예산지역의 농민운동

한국은 봉건사회의 생산관계인 지주·소작 관계를 청산하지 못한 채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농민들의 대다수였던 소작인들은 지주·소작 관계를 청산해야 하는 동시에 식민지 지배와 수탈을 무너뜨리고 민족해방을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이러한 목적 아래 전개된 농민운동은 1919년 3·1운동을 통해 성장한 민족의식과 계급의식을 바탕으로 1920년대 발전하였다. 소작쟁의를 중심으로 대두하기 시작한 농민운동은 일제의 미곡수탈정책인 산미증식 계획이 실시되면서 고양되어 갔다. 농민조합 운동, 소작쟁의, 수리조합 설립 반대운동, 삼립조합 반대운동 등 다양하게 분화·발전하였다.

예산지역의 농민들도 일제의 침략적인 농업정책과 지주들의 탄압에 저항하며 민족운동과 계급투쟁을 전개하였다. 소작쟁의, 임야 대부 반대 투쟁, 수리조합 설립 반대운동 등 그 형태도 다양하였다. 부재지주가 많은 편이었던 예산에서는 소작인과 사음 사이에서 분규가 자주 일어났다. 무리하게 소작권을 박탈하거나 수확량 이상의 소작료를 요구하여 소작인의 원성이 커졌다. 또한 예산의 농민들은 일제가 민유지였던 임야를 일본인 회사에 대부하자 반대운동을 벌였다. 임야 반대운동은 여성·노인 구분 없이 서울로 상경하여 투쟁하는 등 지역 주민이 일치 단결하여 격렬하게 전개하였다. 그리고 미곡수탈을 위한 산미증식계획이 추진되면서 지역 농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리조합을 설립하려고 하자 반대운동을 일으켰다.

1) 소작쟁의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대부분은 농민들이었다. 농민 중에서도 소작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다. 대지주를 앞세운 일제의 농업 침탈 정책으로 인해 농민층의 분화는 심화되어 갔고, 자작농 계층도 토지와 유리되면서 소작인으로 전락되어 갔다. 여기에 일제의 식민기관에 더해 일본인에게 유리한 농업정책이 수립·실시되면서 중층적인 착취의 대상이 되었다. 결국 소작인들은 지주 계층의 착취와 일제의 수탈 정책에 대해 소작쟁의의 형태로 직접적으로 투쟁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소작쟁의는 주로 소작료 인하와 소작권 이동에 대한 반대였다.

이러한 소작쟁의는 1920년대 들어서 나타나기 시작하여 1920년대 중후반으로 가면서 증가하였다. 1920년 15건, 1921년 27건이었던 것이 1925년 204건으로 늘어났다. 1928년에는 1,590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소작쟁의의 전개 양상도 합법적에서 비합법적으로, 타협적에서 폭력 혁명적으로 변화해 가며 일제의 식민 통치 기관을 공격하기도 하였다.

1920년대 소작쟁의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3·1운동 이후 민중들의 의식 성장에 기반하여 소작인 조합 등 농민조직이 결성되어 지주 계층에 대해 나갔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사회주의가 유입되고 확산되어 가면서 사회운동가를 비롯한 지역 혁신청년들이 성장하면서 농촌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활동하였기 때문이었다.

충남 예산에서도 1920년대 중반부터 소작쟁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1923년 가을 덕산면 옥계리에 거주하는 소작인들의 소작권이 박탈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들은 옥계리에 소재한 성낙규의 토지를 소작하였는데, 봉산면 사석리

에 살고 있던 사음 이정복(李廷復)이 사석리 주민들에게 소작권을 이동시켰다. 소작권을 잃은 옥계리 주민들은 사음은 물론 지주와 관공서 등에 탄원을 하였으나 소작권을 돌려받지 못하였다.

예산면 예산리의 지주 왕길두(王吉斗)는 1920년경 예산 오가면 원평리의 토지를 매입하여 소작을 주었다. 이 토지는 본래 도조 90석을 받는 것인데, 왕길두가 매입하고 나서는 150석을 요구하면서 소작인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1924년 가뭄이 발생하여 예산군에서는 원평리 지역에 대해 지세를 면제해 주었다. 그러나 왕길두는 그대로 150석을 요구하면서 소작인들과 분규가 일어났다.

1926년 1월 부재지주였던 임호상(林昊相)의 토지를 소작하던 삽교면의 10여 호 소작농가는 소작권을 박탈당하자 소작쟁의를 일으켰다. 사음이었던 정운식(鄭雲植)이 소작인들에게 돈을 빌려달라 하고 빌려주지 않으면 강제로 소작권을 박탈하였던 것이다. 소작인들은 김재희(金在希) 외 2명을 대표로 하여 임호상을 찾아가 교섭하였다. 임호상은 원만히 해결해 줄 것을 약속하였으나 1926년 2월 정운식이 임호상을 방문한 이후 상황이 돌변하였다. 오히려 소작쟁의에 참여한 이들의 소작권을 박탈하겠다고 경고하였다. 삽교면의 소작쟁의는 예산군청과 『조선일보』 예산지국에서 조사위원을 파견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한편 삽교면의 소작인 40여 명은 1927년 4월 저수지 소유권 문제로 일본인 지주 야스다 카츠사부로(安田勝三郎)에 반발하면서 소작쟁의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예산지역에서의 소작쟁의는 1930년대에도 계속 이어졌다. 1931년 10월 예산의 소작인 50여 명은 동양척식주식회사의 과도한 소작료에 대항하여 동양척식

주식회사 사무소에 몰려가 소작쟁의를 일으켰다. 1933년 연초에는 부재지주 소유의 토지를 소작하던 농민들 사이에서 소작쟁의가 일어났다. 서울에 사는 정도는 1932년 신암면과 오가면의 토지를 매수하여 300석이었던 도조를 500석으로 올렸다. 이에 소작인들은 수확량 전부를 납부하여도 부족하였기 때문에 해를 넘기면서까지 도조 납부를 거부하였다.

1933년 1월 삽교에서는 높은 소작료로 인한 소작쟁의가 일어났다. 서울에 거주하는 부재지주 한모의 토지는 도조 300여 석이었는데, 사음 최모가 지주에게 600석을 상납하기로 하고 소작인들에게 700석의 도조를 요구하였다. 소작인들은 도조조차도 납부할 수 없는 농사는 할 수 없다면서 소작쟁의를 일으켰다.

봉산면에서도 유사한 소작쟁의가 발생하였다. 서울의 부재지주 김모의 소유 토지는 130석의 도조를 받는 토지였다. 그런데 1932년 김모 소유가 되면서 사음이 교체되었고 도조도 200여 석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소작인들은 추수할 때 연서하여 지주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소작료 감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소작인들은 소작료 납부 거부투쟁을 다음 해 1933년 2월까지 이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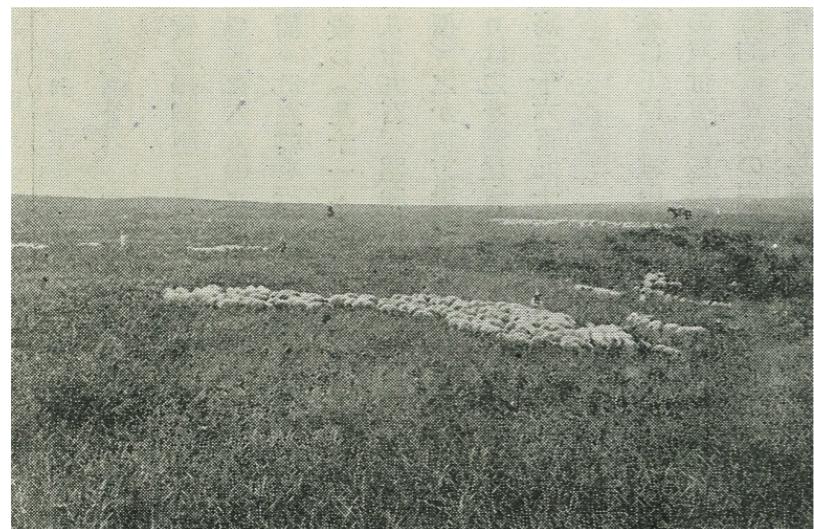
이처럼 예산에서는 1920~30년대에 걸쳐 줄기차게 소작쟁의가 일어났다. 신문에 보도되지 않은 크고 작은 소작쟁의가 많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소작쟁의 원인은 소작료 인상과 무리한 소작권 이동 때문이었다. 예산 소작쟁의에서 주목되는 것은 사음과 소작인 간에 일어난 것이 많았다는 점이다. 이는 예산 지역에 부재지주가 많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었다.

2) 임야 대부 반대운동

일제는 1908년 삼립법을 실시하여 지적신고 여부를 기준으로 민유림과 국유림을 정한 다음 부분림을 설정하여 산림육성과 처분 방안을 강구하였다. 이어 1911년에는 삼립령을 발포하여 대부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조림을 조건으로 국유림을 대부하는 규정을 설치하여 조림에 성공하면 삼립을 양여하는 제도였다. 결국 조림 대부제는 일제가 국유림 처분을 위해 마련한 대표적인 제도로 강제 창출된 국유림을 일본인 임업 자본가나 이민자에게 제공하려고 취한 수단이었다. 그 결과 소수의 몇몇 기업이나 개인에게 산림이 집중되어 갔다. 그리고 부당한 대부 과정에서 원래 소유였던 한국인들과 일본인 대부자 사이에 끊임없는 소유권 분쟁이 초래되었다.

충남 예산에서도 일제의 불법적인 임야 대부가 있었고, 이에 대한 반대투쟁이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일제는 1922년 8월 4일 오가면 내량리·방천리·원천리 소재 목초지 약 168정보를 일본의 해외척식주식회사에 대부하였다. 해외척식주식회사는 목축을 위해 1928년 12월 말까지 이용하겠다는 대부 신청을 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러나 해당 임야는 오가면민들의 민유지였다. 일제는 해당 토지를 임야조사사업을 통해 강제로 국유지에 편입시켜 버렸다. 지역민들은 민유지로 인식하고 있던 임야가 대부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들의 토지가 국유지로 편입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당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 언론들은 일제가 오가면의 민유지인 임야를 국유지로 강제 편입시켜 해외척식주식회사에 대부한 사실을 일제히 보도하였다.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오가면민들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땔감을 구하거나 조상의 묘

를 써왔던 임야였기 때문에 본인들 소유로 인식하고 있었고, 임야조사사업 기간 내에 임야 신고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임야 사정이 있을 때에도 오가면장이었던 임명호(任命鎬)의 말을 듣고 소유관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임야는 어느 순간 민유지가 아닌 국유림으로 강제 편입되어 버렸다.



해외척식주식회사 목장 (1932년, 오가면 내량·방천·원천리 일대, ©『충청남도발전사』)

대부 사실을 알게 된 오가면민들은 곧바로 오가면사무소를 비롯하여 예산군 청·충남도청 등에 대부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오가면민 70여 명은 1923년 6월 11일 유기홍(柳基弘)·이문환(李文煥)·이종은(李鍾殷)·김원식(金元植)·박상용(朴相龍) 5명을 대표로 하여 조선총독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토지개량과장은 “충분한 조사를 한 뒤 목장으로 대부허가를 한 것 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으며 국유림 편입에 대해 불복하지 않아 그렇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분개한 면민들은 임야

대부가 취소될 때까지 돌아가지 않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6월 12일 100여 명이 추가로 상경하면서 반대운동은 더욱 거세졌다. 170여 명의 면민들은 다음 날인 13일에 조선총독부를 방문하고 교섭을 계속해 나갔다.

오가면민의 반대운동은 점점 고조되어 갔고, 언론에서는 오가면의 대부 문제를 집중 보도하였다. 이에 일제는 이미 대부한 건에 대해서는 취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모양새를 취하였다. 우선 해외척식주식회사와 교섭에 나섰다. 해외척식주식회사 측에서는 대부 허가를 받고 이미 여러 시설들을 공사하였기 때문에 취소를 할 경우 그에 대한 배상 청구를 요구하였다. 해외척식주식회사의 요구는 조선총독부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다.

다음으로 취한 조치는 오가면 해당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였다. 현장조사를 위해 1923년 6월 21일 조선총독부 사무관 이종국(李鍾國)이 예산에 방문하였다. 예산에 도착해서 지역 유지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였다. 오가면 현장을 찾은 것은 23일이었고, 예산경찰서장과 한국인 순경 1명을 대동하고 이루어졌다. 면민 400여 명은 대부된 임야가 국유지가 아닌 민유지라는 사실, 분묘 훠손과 송림 채벌 등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종국에게 진술하였다. 이종국은 면민들의 사정을 사실대로 보고하기로 약속하면서도 대부 허가 취소에 대해서는 자기 권한 밖의 일이라면서 확답을 피했다.

현장조사가 있은 후 한 달 여가 지났으나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면민들은 그사이 개별적으로 해외척식주식회사에 진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해외척식주식회사의 횡포만 심해질 뿐이었다. 이원영(李元榮)은 조상의 분묘가 파

해쳐지는 것에 대해 항의를 하였으나 해외척식주식회사 직원에 폭행당해 중상을 입었다. 해외척식주식회사 사장 이노우에 쇼지(井上嚴二)는 총기를 가지고 위협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예산군과 예산경찰서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무마하고 면민을 회유하려고 시도하였다. 임야와 산소 이전 비용을 해외척식주식회사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소요를 일으키지 말라고 종용하였다. 또한 충청남도 참여관 한규복(韓圭復)은 “이번 사실은 전부 면장이 불민한 탓이니 결코 군청까지도 원망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오가면장 임명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은 1923년 7월 말 유기홍·이문환·이종은·김원식·박상용 등 5명을 대표로 선정하여 다음의 3가지 이유를 들어 다시 조선총독에게 진정을 하였다.

1. 예산경찰서장과 군수는 중요 당국자의 엄밀한 사사로운 부탁에 끌리어 인민의 정형을 동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강제적 압박을 하니 그것은 문화정치를 평하는 조선총독의 선언에 맞지 않음

2. 군청과 경찰서에서 산 값과 면례(緬禮) 비용을 받아준다 하니 그것으로만 보아도 그 산의 소유권이 민간에 있었던 것을 인정하는 증거가 분명하니 민유로 돌려줄 것

3. 해외척식주식회사에 그 산을 대부할 때에 남의 분묘는 하나도 침범하지 말라는 조건이 있었을 것이 분명한 일인데 해외척식주식회사에서는 이미 70여 곳의 남의 무덤을 훼손하였으니 대부를 취소할 만한 이유가 됨

오가면민들은 지속적으로 진정을 하였으나 조선총독부로부터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가면장 주도로 국사보수리조합을 설립하여는 움직임이 일어나자 면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이에 1923년 8월 20일 해외척식주식회사 목장에 모여 교섭을 벌이고, 면장에게도 책임을 묻고자 하였다. 그러나 많은 인원이 모이지 않아 해산하였다. 이 소식을 접한 예산경찰서에서는 문순동을 불러 경고하였고, 문순동을 비롯한 30여 명은 23일 임명호가 경찰에 밀고한 것으로 여기고 그를 찾아가 일제 당국과 교섭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임명호가 자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권리도 없다고 하자 면민들은 분개하여 그를 끌고 다니면서 폭행하였다. 예산경찰서에서는 문순동, 이정칠(李正七), 김재현(金在鉉), 박상용, 김재숙(金在肅), 김기원(金基元) 등 6명을 체포하였다. 면민 100여 명은 이튿날인 24일 경찰서에 모여 체포된 6명의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예산경찰서에서는 관할 각 주재소에 비상소집을 내리고 현장에 출동하여 군중을 해산시켰다. 한편 체포된 문순동 등 6명은 27일 공주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압송되었고, 이후 유기홍·이문한도 체포되어 9월 19일에 공주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압송되었다. 이들은 1924년 5월 6일 소요죄로 형이 확정되어 징역 1년에서 짧게는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오가면 임야 대부 반대투쟁 주도자

참여자	지역	죄명	형량	비고
유기홍	오가면 오촌리	소요죄	징역1년, 집행유예3년	
문순동	오가면 오촌리	소요죄	징역8월, 집행유예3년	

참여자	지역	죄명	형량	비고
이정철	오가면 원천리	소요죄	징역8월, 집행유예3년	
김재현	오가면 오촌리	소요죄	징역8월, 집행유예3년	
박상용	오가면 원천리	소요죄	징역8월, 집행유예3년	
김기원	오가면 내량리	소요죄	징역6월, 집행유예3년	대통령표창(2022)
김재숙	오가면 오촌리	소요죄	징역6월, 집행유예3년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소장,『범죄인명부』

임야 대부 반대운동은 주동자들이 체포되면서 구심점을 상실했다. 결국 반대 운동은 실패로 끝났고, 해외척식주식회사는 대부받은 임야에서 목장을 경영하였다. 비록 임야 대부 반대운동은 성공하지 못하였지만 일제의 침략정책에 저항했던 예산인의 민족정신을 볼 수 있는 사건이었다.

3) 수리조합 설립 반대운동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한 공업화가 추진되면서 쌀 생산이 정체되었다. 쌀 수급 상황이 악화되면서 쌀 가격이 폭등하였고, 1918년에는 '쌀 파동'까지 일어났다. 일제는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산미증식계획을 추진하였다. 산미증식계획을 '조선 내의 쌀 수요 증가 대비와 조선 농가경제의 성장'이라고 선전하였지만, 일본 자국 내의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방편일 뿐이었다.

산미증식계획은 토지개량과 농사개량의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며, 수리조합을 통한 토지개량 사업이 핵심이었다. 수리조합은 대규모 관개 개선, 개간, 지목 변환 등의 토지개량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수리조직이다. 수리조합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06년이었다. 한국에 진출한 일본인 대지주들의 필요에 의

해서 「수리조합 조례」를 공포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제도의 미비와 재정 부족으로 실적이 저조했다. 일제는 1910년대 말에 「조선수리조합령」, 「수리조합 보조규정」 등을 제정하면서 제도적인 보완을 해나갔다. 제2차 산미증식계획이 시작되는 1920년대 중반에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사업비 문제까지 해결하면서 수리조합 사업을 적극 지원했다.

수리조합 사업은 식민지 권력, 대지주, 금융기관, 토목업자와 같은 대행기관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다. 특히 대지주들이 가장 적극적이었다. 이들은 토지개량 사업이 절실한 미간지나 열등지를 소유하였거나 대부받은 자들로 동양척식주식회사와 같은 식민기관과 일본인 대지주가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대다수를 차지했던 지역 농민의 의사는 배제된 채 대지주들과 식민지 권력의 주도하에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추진되었다. 근본적인 설립 목적도 지역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산미증식계획의 실적 달성을 일부 대지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당연히 지역 농민들의 이해관계나 지역적 특성은 고려되지 않았고, 오히려 농민들의 몰락과 희생을 강요하는 측면이 강했다. 수리조합에 반대했던 농민들은 수리조합 구역에 강제 편입되어 조합비를 납부해야 했고, 거액의 사업비를 분담해야만 했다.

이처럼 수리조합 사업은 전형적인 식민지적 특성을 띤 채 일제의 요구와 대지주 등 추진 주체들의 필요성에 따라 일방적으로 전개되었다. 수리조합 사업의 식민지적 성격으로 인해 수리조합 설립 반대운동이 전국에서 일어났다. 수리조합이 설립되는 모든 지역에서 일어날 정도였다. 충남 예산도 예외는 아니어서 국사보수리조합과 예당수리조합 설립에 대한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충남 지역에는 제2차 산미증식계획이 중단되는 1934년까지 14개의 수리조합이 설립되었다. 1909년에 설립된 마구평수리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수리조합은 1920년대에 들어와서 설립되었다. 특히 토지개량 사업을 주축으로 하였던 제2차 산미증식계획 시기에 집중되었는데, 9개 수리조합이 이 시기에 설립되었다.

충남 지역 수리조합 설립 현황(1932년 3월 현재)				
조합명	조합구역	설치년월일	면적	조합장
마구평	논산군 부적면	1909.3.1	312	마츠모토 노부오(松本信夫)
신탄진	대전군 북면	1920.12.25	140	송을용(宋乙用)
오봉제	당진군 신평면	1922.1.23	414	이인성(李麟性)
서천	서천군 서천면 외 5면	1923.4.2	3,500	카네히라 토라이치(兼平虎一)
벽정제	홍성군 광천면 외 1면	1923.10.2	75	이태식(李泰植)
온양	아산군 온양면 외 2면	1926.1.26	1,282	이성우(李聖雨)
우성	공주군 우성면	1927.9.1	233	김갑순(金甲淳)
대홍제	천안군 성환면	1927.11.30	234	이현구(李憲求)
장남	연기군 남면 외 1면	1927.11.30	438	임봉수(林鵬洙)
도고	아산군 도고면 외 1면	1928.3.31	900	권인채(權仁采)
임천	부여군 임천면 외 1면	1929.3.30	644	김종흡(金鍾翕)
홍산	부여군 옥산면 외 2면	1929.3.30	670	임병학(林炳學)
세도	부여군 세도면	1929.10.10	461	유기찬(柳基粲)
신례원	예산군 예산면	1930.7.21	180	신현구(申鉉九)

*조선총독부, 「조선토지개량사업요람」, 각년도판에 의함

*신례원수리조합장 신현구는 《매일신보》, 1932년 6월 30일, 「신례원수조평의회」 기사에 의함

예산지역에는 1930년 7월 예산면 신례원리 일대 180정보를 조합구역으로 하는 신례원수리조합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신례원수리조합 외에도 2개의 수리조

합 설립 움직임이 있었다. 1920년대 초반 국사보수리조합과 1920년대 말의 예당수리조합이었다. 이들 수리조합은 지역 농민들이 수리조합 설립 반대운동을 전개하여 설립이 무산되거나 연기되었다.

우선 오가면에서 국사보수리조합 설립 움직임이 일어났다. 국사보는 조선 영조대에 무한천 상류에 축조된 국사당보를 말하는 것으로, 국사보의 관개 지역은 약 6,300두락(1두락=약 200평)이었다. 국사보를 수축하는 자리는 정해져 있었고, 축조는 나무와 돌을 이용하거나 모래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수해에 매우 취약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농민들은 자율적으로 국사보를 수축·보수하면서 이용하였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일제강점기에 들어와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국사보를 운영하는 전통적인 수리질서에 일제의 식민권력이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1917년 오가면장 임명호는 「수리계」를 조직하고 임원을 마음대로 정하였다. 그리고 국사보를 이용하는 농민들에게 과중한 부담금을 부과하였다. 기존의 수리질서를 해치고 손해를 끼치는 「수리계」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이 거세졌다. 결국 농민들은 충남도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1920년대 들어와서는 「수리계」가 아닌 수리조합으로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1922년부터 충남도의 지시를 받아 임명호가 주도하여 추진하였다. 당시에는 지주의 부담이 1단보(0.1정보)당 최고 1원 이하, 평균 50전이라 하여 지주와 농민들은 수리조합 설치안에 동의하였다. 이후 1924년 4월 22일에 오가면사무소 내에서 수리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지주들의 동의를 얻어 같은 해 5월 10일 설립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오가면 농민들은 6월 8일 예산공립보통학교에서 지주

총회를 개최하여 국사보수리조합 설립에 반대하였다. 수리조합 설립의 반대 이유는 농민들에게 말했던 평균 부담액이 50전이 아닌 4원 이상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수원이 풍부하고 관개가 편리한 곳이기 때문에 고액의 조합비를 부담하면서까지 수리조합을 설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수리조합 구역에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자가 창립위원회이라 하면서 농민들을 기만하여 동의를 받은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농민들은 수리조합 설립 신청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실행위원으로 성낙현(成樂憲)·성낙일(成樂一)·후쿠마 효노스케(福間兵之助)·성관영(成觀永)·오창영(吳昌泳)·나가요리(長賴喜代太)·권영보(權寧步)·이종익(李鍾翊)·이종덕(李鍾惠)·홍순승(洪淳昇)·구창조(具昌祖)·우에노 아키요시(上野爲吉) 등 12명을 선출하였다.

오가면 농민들의 지주총회 이후 국사보수리조합 설립 반대운동의 구체적인 전개 양상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리조합 설립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충청남도 참여관 한규복이 수리조합 설립 반대운동과 관련하여 오가면을 방문하였기 때문이다. 정확한 방문 시기는 알 수 없지만, 현장을 시찰하고 8월 14일 돌아갔다. 이때 국사보수리조합 설립에 반대하는 농민들의 의견을 확인하였을 것이다. 결국 오가면 농민들의 반대 의견이 받아들여져 수리조합 설립은 무산되었다.

국사보수리조합 설립 반대운동에서 주목되는 점은 반대했던 인물들이 자체적으로 국사보를 운영할 수 있는 조직체를 결성하였다는 점이다. 국사보의 수량이 부족하게 되어 생산량이 감소하자 국사보 주변 토지 소유자들이 발기하여 ‘국사

보유지계’를 조직하였다. 전통적인 수리질서 체제로의 환원이었다. 1924년 12월 14일 오가공립보통학교에서 지주와 소작인 200여 명이 모여 지주소작인회를 개최하였다. 임시의장 서정섭의 사회 아래 조사위원의 사무경과 보고, 수리조합 창립 중지 전말 보고, 종래 국사보 관리 및 수축 방법에 대한 설명, 국사보에 관한 이해 일체, 장래 유지 및 수축 방침의 개정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임원 선거도 이루어졌는데 계장 이종익, 부계장 권영보, 고문 이완종(李完鍾)·성낙현·유치극(兪致克) 등이 선출되었다. 이종익·권영보·성낙현은 국사보수리조합 신청을 취소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때 실행위원으로 활동한 인물이었다.

1920년대 말에는 예산·당진·아산 3개 지역 약 7,100정보를 물을 받는 몽리구역으로 하는 예당수리조합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러던 중 1930년 7월 10일 호서은행 회의실에서 창립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충남도지사부터 충남도 내무부장·농무과장·지방과장·산업과주사·도기사·도속 등 관료와 예산·당진·아산 3개 지역을 비롯하여 서울·대전·인천 등지의 대지주 22명이 참석하였다. 창립위원장은 성원경(成元慶), 부위원장은 박경래(朴慶來)가 선출되었다. 창립위원은 김성권(金星權)·이종덕·성관영·이현세(李顯世)·장석구(張錫九)·임명호·가와고에 세이키치(川越誠吉)·다카하시 켄(高橋健)·홍필구(洪必求)·이종익·타마키 세이이치로(玉置才一郎)·조동엽(趙東燁)·곽당(郭當)·원형근(元亨根)·유진태(兪鎮泰)·기타지마 죠시(北島常吉)·신태용(申泰容)·박홍식(朴興植)·요시무라(義村作藏)·마츠모토 이타로(松本一太郎) 등 20명으로 구성되었다.

예당수리조합 창립위원회가 개최되고 수리조합 설립 준비가 본격화되자 50여

명의 지주들은 1931년 1월 경 ‘수리조합설립반대기성회’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700여 명의 지주와 소작인들을 규합하여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농민들의 반대 움직임 속에서도 당국에서는 기본 측량을 실시하는 등 수리조합 설립을 강행하였다. 그즈음 창립위원장이었던 성원경도 수리조합 설립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충청남도 평의원에 출석하여 ‘1. 수리조합 수지계산에 있어 표준 곡가를 현하에 적합하게 할 것, 2. 수리조합 시공 후 반당 수확고를 2석 정도로 하여 수지 계산을 세울 것, 3. 국고금의 보조를 5할 증가하여 지주의 희생을 가볍게 할 것, 4. 인기부진한 차제에 수리조합 신설을 중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의안을 제출하였다. 이어 같은 해 3월 23일에는 사이토(齋藤) 총독을 만나 수리조합 설립 연기의 뜻을 밝혔다.

수리조합 설립 반대 여론이 거세어지는 가운데 1931년 3월 28과 29일 양일간 온양온천에서 제2회 창립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첫날 회의는 반당 공사비 감소 문제, 창립위원장 단독으로 대행회사를 계약한 점, 창립비 충당 건, 수리조합 설립으로 얻는 이익 등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특히 지주의 이익이 크지 않은 점에 대한 반대가 높았다. 이튿날에도 지주들의 이익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고, 결국에는 6개년 간 수리조합 설립을 중지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중지 의견에 당국자들은 분과회의를 열어 대책 마련에 급급하였고, 의장은 휴회를 선언하고자 하였다. 의장의 휴회 시도에 창립위원들이 격렬히 반대하자, 의장은 자신의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유회를 선언하였다. 의장이 유회를 선언하자 수리조합 설립 찬성파들도 의장을 따라 회의장에서 퇴장하였다. 그러나 반대파 측에서는 남아있는 인원이 과반 이상이므로 유효한 것

이라면서 규약에 따라 임시의장 장인성(長麟誠)을 선출하고 6개년 중지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11명이 중지안에 찬성하면서 중지안이 통과되었다.

예당수리조합 찬성·반대자 명단

찬성파	임명호, 이현세, 신태용 이종덕, 성관영, 다카하시 켄, 기타지마 죠시, 가와코에 세이키치, 성원경
반대파	박흥식, 흥필구, 장석구, 곽당, 이종익, 김성권, 장인성, 마츠모토 이타로, 요시무라, 유진태, 원형근, 박경래

*《동아일보》, 1931년 4월 3일, ‘문제의 예당수조’

농민들의 반대와 창립위원회의 6개년 중지안 결정에도 불구하고 예당수리조합 설립은 강행되었다. 1931년 5월 11일 일부 창립위원과 충남도 당국자, 대행회사인 토지개량회사 관계자들이 예산군청에서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회의를 가졌다. 그리고 불량수리조합 문제가 불거지던 1933년 3월에도 조선총독부 관계자 회의에서 예당수리조합 설립을 1934년도에는 인가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세계 경제대공황 이후 일본에서 미곡 가격이 폭락하였고, 일본 농민들은 한국에서 생산된 쌀의 과다 공급 때문이라며 ‘조선미 배척운동’에 나섰다. 일본 정부도 1933년 ‘미곡통제법’을 제정하여 한국에서 들어오는 미곡 통제에 나섰다. 조선총독부로서는 더 이상 대규모의 농업 투자를 통한 미곡증산의 명분을 상실하였다. 결국 1934년 5월 산미증식계획이 중단되면서 예당수리조합 설립도 자연스럽게 무산되었다.

예당수리조합은 일제 말기에 가서 재추진되었다.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1941년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태평양 전역으로 전선을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전쟁미 확보에 총력을 다하였고, 수리조합 사업도 재개되었다. 충남도에서

는 8,000정보 규모의 예당수리조합 설립을 계획하였고, 1943년 8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예당수리조합은 계획에만 머물렀고 실행에 옮기지 못하다가 1945년 2월에 가서야 무한천 상류에 저수지 공사를 시작하였다.

신례원수리조합은 예산지역에 설립된 유일한 수리조합이었다. 본래 1929년 충남도청 감독 아래 착수될 예정이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추진되지 못하다가 1930년 7월 21일 설립인가를 받았다. 총공사비 174,000원이 투입되어 1931년 7월 준공되었다. 신례원수리조합은 설립 이후 지주와 농민들의 반발이 있었다. 수리조합에서는 1933년 풍년을 구실로 삼아 전년도에 감액했던 조합비 전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110여 명의 농민들은 조합비를 낮춰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지주들은 지세, 소작인은 비료 대금 등을 지불하고 나면 손해라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예산의 농민들은 일제의 수리조합 사업에 저항하였다. 국사보수리조합은 설립이 취소되었고, 취소된 이후에는 농민들이 국사보를 자율적으로 유지 관리하였다. 예당수립조합은 농민들이 일제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사업 추진에 반대하였다. 결국 예당수리조합 설립은 연기되어 일제 말기에 재추진되었다가 광복 이후에 설립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설립된 신례원수리조합은 고액의 조합비로 인해 농민들의 반발이 계속되었다. 이처럼 예산지역의 농민들은 수리조합 설립 반대운동을 전개하여 일제의 식민권력의 일방적인 수리질서 파괴에 맞섰고, 결국에는 농민들의 자주권을 지켜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3. 예산지역의 노동운동

19세기 말엽 이전부터 임금노동이 형성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임금노동자들의 조직이 출현하였다. 1920년대 들어오면서 임금노동자의 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임노동 중심의 공장노동자층도 상대적으로 성장하였다. 여기에 식민지 기반시설의 구축에 따른 부두와 항만, 철도역 등이 늘어나면서 노동자층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회, 노동친목회, 노동조합 등 노동단체들이 조직되었다. 노동단체들이 활발하게 조직되는 가운데 전국적 범위에 걸친 노동조직들이 출현하였다. 대표적인 것으로 1920년 4월 서울에서 박중화(朴重華)를 중심으로 조직된 조선노동공제회를 들 수 있다. 조선노동공제회는 ‘노동의 신성과 노동자의 존귀’를 표방하는 설립 취지를 바탕으로 ‘민족적 계급적으로 이중의 압박과 착취의 대상’이면서 ‘박멸과 자멸의 운명밖에 없는 조선의 노동자 농민 대중’의 민족적·계급적 해방을 선언하였다.

조선노동공제회 발족과 함께 전국 곳곳에서 지부가 조직되었다. 충남 예산에서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예산지회가 설립되었다. 조선노동공제회 예산지회는 1920년 7월 21일 창립되었다. 조선노동공제회 본회 회장 박중화의 취지 설명이 있은 후 임원 선거에 들어갔다. 지회장 서정섭(徐廷燮), 의사장 유진상(俞鎮相), 총간사 홍건식(洪廷植)이 선출되었다. 회원은 300여 명에 달하였다.

지회장에 선출된 서정섭은 오가면 출신으로 예산지역에서 민족운동을 이끌어 갔던 인물이었다. 1919년 음력 6월경 당진과 예산의 자산가로부터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원이었던 신정식에게 전달했다. 그는 이 일

로 1920년 10월 ‘정치범처벌령 위반’ 및 ‘공갈’ 혐의로 체포되었다. 1921년 2월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을 받았고, 같은 해 3월 상고심에서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1922년 1월경 서대문감옥에서 가출옥하였다. 이후 1923년 8월 예산군에서 민립대학 설립을 위해 결성된 예산지방부의 집행위원으로 선임되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가면 국사보수리조합 설립을 반대하고, 국사보유지계 조직을 주도하였다.

유진상은 그의 10대조 유대기(兪大祺) 아래 충남 청양의 토호로서 1895년 진사가 되었다. 이후 예산으로 이주하여 예산지역의 자본가로 성장하였다. 그는 1908년에 성씨 일가와 함께 배영학교를 설립하여 근대교육에 힘썼다. 1913년 예산지역의 자본가들과 호서은행을 설립하였다. 초대 은행장에 선임되어 1922년까지 은행장을 역임하였고, 1924년까지 이사를 맡았다. 그러나 1922년 은행장을 성씨가에 양도하고 1924년경부터는 활동이 확인되지 않는다. 호서은행의 이사진 명단과 주주 명부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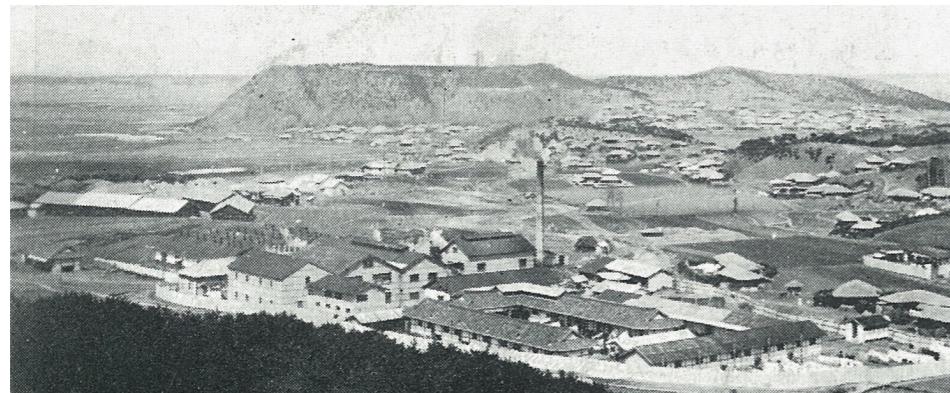
조선노동공제회 예산지회는 1920년 12월 조선노동공제회 지회장 회의에 참석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다만, 자료상의 한계로 조선노동공제회 예산지회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민족운동에 앞장섰던 서정섭과 근대교육에 힘썼던 유진상을 고려하면, 노동자의 권리 신장과 계급의식 고취에 노력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1920년대 전국적인 노동단체의 출현과 지식인의 활동은 노동자들의 의식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역별로 노동조합이 조직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노동운동이 전개되었다. 노동자들의 대우 개선을 요구하는 동맹파업 등 노동

쟁의로 이어졌다. 노동자들의 동맹파업은 1924년 45건, 6,000여 명이었던 것이 1927년 94건, 9,700여 명으로 1920년대 중후반으로 가면서 발생 건수와 규모가 늘어났다.

1930년대에도 노동자들의 동맹파업은 계속되었다. 1929년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 공업 생산이 위축되는 한편 폐업하는 소규모 공장들이 속출하였다. 이에 따라 실업자가 대량 양산되었다. 여기에 더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임금 저하로 노동자들의 불안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노동자들의 파업은 1931년 205건이 발생하였고, 16,000여 명이 참여할 정도였다. 이러한 양상은 1930년대 중반까지 유지되다가 후반에 가서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파업의 원인은 1930년대 전반에는 생활 조건의 악화나 임금 인하를 반대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화하였다.

예산에서는 1933년과 1935년에 충남제사회사의 노동자들이 동맹파업을 단행하였다. 충남제사회사는 1926년 3월 설립되었다. 충남제사회사 설립 당시의 주주들은 성낙규 등으로 대표되는 호서은행의 경영진과 주주가 대부분이었다. 당시 일제는 일본의 제사 독점자본들에게 전국의 양잠지대를 분할해 준 후 농회 등과 협조하여 누에고치의 생산에서부터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장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면서도 수출용 생사를 생산하는 제사공장에는 한국의 자본에도 양잠지대 분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이용하여 성낙규 등 호서은행의 경영진이 제사공장 설립을 추진하였다. 결국 일제의 침탈적인 잠업 정책에 부응한 성낙규를 중심으로 한 지역 자본가들은 예산·서산·당진·청양 4개 군의 양잠 지역을 기반으로 충남제사회사를 설립하였다.



충남제사주식회사 전경(1932년, 예산면 주교리, ©『충청남도발전사』)



충남제사주식회사 정문(1932년, 예산면 주교리, ©『충청남도발전사』)

창립 초기의 충남제사회사는 생사 가격의 하락, 낙후한 기술, 원료 부족, 자본 부족으로 인한 과중한 이자 부담 등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등의 열악한 근무 조건에서 직면하였다.

노동환경은 1931년 6월에서 1932년 5월까지 1년간 충남제사회사가 자체 조사한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동자의 대부분은 여성이었는데, 326명 가운데

데 무려 300명이 여성이었다. 특히 노동력의 주축이었던 조사공 260명은 모두 여성이었다. 이들의 연령은 20세 미만이 많았는데, 16~17세인 경우가 203명으로 전체 여성 노동자의 67.7%에 달하였다. 근속기간 역시 매우 짧았는데 1년 미만인 경우가 43%였고, 1년 이상 2년 미만의 사례를 포함하면 전체의 83%에 이르렀다. 이처럼 노동자의 대부분은 미혼의 여성 노동자이면서 근속기간이 짧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여성 노동자들은 농촌의 가계 경제를 돋기 위해 고용된 형태였을 것이다.

여성 노동자들은 저임금으로 고용되었다. 이들의 주축이었던 조사공의 기본 임금이 하루에 70전이었다. 그마저도 엄격한 상별 제도로 인해 실제 임금은 1일 평균 44.9전에 머물렀다. 일본 방적공업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86.5전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 정도의 저임금이었다. 더구나 노동시간은 11시간 10분에 달할 정도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던 충남제사회사의 여성 노동자들은 2차례 동맹파업을 일으켰다. 1차 동맹파업은 1933년 10월에 일어났다. 노동자 측에서는 기숙사의



충남제사주식회사 여성노동자들
(1932년, 예산면 주교리, ©『충청남도발전사』)

설비와 노동자의 대우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특히 제공되는 식사가 부실하여 환자가 속출하였기 때문에 10월 18일 경부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다. 이에 회사 측에서는 10월 27일까지 개선해 주겠다고 약속

하였다. 그러나 기한이 되었음에도 변화가 없자, 10월 28일 여성 노동자 260여 명은 ‘불식동맹’을 결성하여 식사를 하지 않고 일을 하는 형태로 동맹파업을 단행하였다. 주동자로 지목된 유경애(劉璟愛)를 비롯한 여성 노동자 9명과 강소성(姜小成) 등 남성 노동자 4명이 해고되었다. 이들은 29일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취조를 받고 같은 날 밤에 석방되었다. 1차 동맹파업은 주동자가 체포되고, 회사 측의 설득으로 노동자들이 복귀하면서 마무리되었다.

2차 동맹파업은 1935년 8월 일어났다. 2차 동맹파업의 원인은 임금 문제였다. 파업 단행 이전인 8월 26일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을 단축할 것, 임금을 정확한 시간에 지불할 것, 임금을 올릴 것’ 등 3가지 사항을 요구하였다. 회사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받아들였으나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거절하였다. 다음 날인 27일이 급여일이었는데, 그나마도 임금이 종전보다 10% 적게 지급되었다. 이에 대해 항의하자, 회사에서는 쌀값이 올라 식대를 올렸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일하기 싫으면 그만두라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단행하였다. 여성노동자 300여 명은 8월 29일 아침 식사를 거부하는 동시에 파업을 선언하고 집으로 돌아가려 하였다. 회사에서는 정문을 닫고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갈등이 고조되었다.

일제 경찰은 8월 25일 대전군시제사공장, 8월 27일 부산 삼화고무공장에서 동맹파업이 연이어 일어나는 상황에서 예산에서도 동맹파업이 일어나자 경계하였다. 사회주의 세력과 연계된 파업 가능성을 우려하였던 것이다. 이에 곧바로 현장에 출동하여 주동자 17여 명을 체포하였고, 충남제사공장 내외부를 차단하고 배후 세력이 있는지를 철저히 조사하였다. 배후 세력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

자 체포된 노동자들을 석방하였고, 경찰의 중재로 노동자들도 30일부터 복직하였다.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졌는지는 알 수 없다.

이처럼 충남제사회사 여성 노동자들의 2차례에 걸친 파업은 단기간에 끝이 났다. 조직적이지도 못했고, 사회주의 세력과의 연대 혹은 리더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의 동맹파업은 일본인 노동자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는 것에 대한 민족적 차별에 대한 항의였고,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계급투쟁이었다.

한편 예산 출신인 유진희(俞鎮熙)는 노동운동에 앞장섰다. 그는 1910년 예산의 배영학교를 졸업하고, 1914년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였다. 1921년 3월 13일 노동운동단체인 조선노동공제회 정기총회에서 대표 61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되어 활동하였다. 또한 1922년 11월 초 《신생활》 잡지사의 기자로 활동하면서 노동운동을 계속하였다. 그는 잡지에 「민족운동과 무산계급의 전술」이라는 글을 투고하였다가 저지당했다. 러시아혁명 5주년 기념 기사를 쓰고 자유노동조합 취지서를 인쇄·배부하였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일제 경찰에 붙잡혀 1923년 1월 1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1년 6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유진희는 풀려난 후에도 민족운동에 앞장섰다. 1925년 4월부터 제1차 조선공산당의 당수인 김재봉(金在鳳), 중앙집행위원인 김찬(金燦) 등과 함께 활동하였다. 1927년 2월 15일 민족협동전선을 표방하며 민족해방을 위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던 대표기관인 신간회 조직에 참여하여 항일운동을 전개하다가 또다시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1928년 2월 13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4. 예산지역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의 성격

일제강점기 일반 대중이었던 농민·노동자 계층은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존재였다. 이를 위한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이 일제 강점기 전 시기에 걸쳐 부단하게 전개되었다. 노농단체를 조직하거나 서로 연대하면서 일제의 식민정책에 저항해 나갔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소작쟁의나 동맹파업을 통해 지주와 자본가에 대항하면서 계급해방을 위해 노력하였다. 충남 예산지역에서 전개되었던 농민운동과 노동운동 역시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의 성격 모두 지니고 있었다.

예산의 소작인들은 사음의 무리한 소작권 박탈에 저항하며 소작인의 경작권 보호를 위한 쟁의를 일으켰다. 또한 지주와 사음이 과도하게 소작료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소작쟁의를 일으켰다. 특히 부재지주가 많았던 예산지역의 특징으로 소작인과 사음 간의 분규가 많았다. 일본인 지주와 저수지 문제로 소작쟁의를 일으키기도 하였고, 고율의 소작료를 징수하는 일제의 대표적인 식민기관이었던 동양척식주식회사에 대해서도 소작쟁의를 일으켰다. 비록 소작인 단체나 농민단체가 확인되지 않지만, 지주 계층에 저항하면서 소작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일제의 식민지적 농업 침탈에 대항했던 사례들이 확인되었다.

예산 오가면민의 임야 대부 반대운동에서는 일제의 침략정책에 저항했던 예산인의 민족정신을 볼 수 있었다. 일제는 민유지였던 오가면의 임야를 임야조사 사업을 통해 강제로 국유지로 편입시켰다. 편입된 임야는 해외척식주식회사에 대부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오가면 농민들은 반대운동을 일으켰다. 반대운동

은 진정서 제출, 상경 투쟁, 해외척식주식회사와의 교섭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임야 대부는 취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오가면장 주도로 수리조합을 설립하려는 시도가 있자 오가면장을 폭행하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이 일로 주동자들이 체포되면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예산의 농민들은 일제의 미곡 수탈의 핵심이었던 수리조합 사업에도 저항하였다. 일제는 지주와 농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당수리조합 설립을 강행하였다. 그러나 산미증식계획이 중단되면서 예당수립조합 설립도 연기되었다. 예산에서 유일하게 설립된 신례원수리조합에서는 고액의 조합비로 인해 농민들의 반발이 계속되었다.

국사보수리조합 설립 반대운동에서는 일제의 식민권력의 일방적인 수리질서 파괴에 맞섰고, 결국에는 농민들의 자주권을 지켜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일제는 전통적인 수리질서를 유지해 오던 오가면의 국사보를 농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국사보수리조합을 설립하려고 하였다. 농민들은 국사보수리조합 설립을 반대하였고 수리조합 설립을 무산시켰다. 이어 식민지 권력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국사보유지계를 조직하여 자율적인 수리질서를 유지해 나갔다.

예산지역의 노동운동 역시 일제강점기 전반의 노동운동의 양상과 같이 하면서 계급투쟁을 전개하였다. 노동자층의 증가와 의식의 성장 속에서 전국적 단위의 노동단체였던 조선노동공제회가 1920년 4월 출범하였다. 예산에서는 조선노동공제회가 조직된 지 3개월 만인 7월에 예산지회가 조직되었다. 조선노동공제회 예산지회는 민족운동가였던 서정섭, 자본가이자 교육사업을 벌였던 유진상 등이 참여하면서 노동운동을 전개하였다.

1920~30년대에 걸쳐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던 노동자들의 동맹파업이 예산에서도 일어났다. 1926년 설립된 충남제사회사의 여성 노동자들은 2차례의 동맹파업을 일으켰다. 동맹파업은 단기간에 끝이 났고, 조직적이지도 못했다. 사회주의 세력과의 연대 혹은 리더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의 동맹파업은 일본인 노동자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는 것에 대한 민족적 차별에 대한 항의였고,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계급투쟁이었다.

〈참고문헌〉

『동아일보』『매일신보』『시대일보』『조선일보』『조선중앙일보』『중외일보』『조선총독부관보』

『범죄인명부』

대전실업협회,『충남산업지』, 1921.

안자이 가도,『충청남도발전사』, 호남일보사, 1932.

예산군,『예산군세일반』, 1929.

조선총독부,『충청남도농업요람』, 1930.

_____,『조선토지개량사업요람』, 각년도판

조선총독부경무국,『조선고등경찰관계연표』, 1930.

조선현병대사령부,『최근 조선의 노동농민운동 정세』, 1928.

김경일,『노동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김용달,『농민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한기범,『인물로 본 예산의 정신』, 예산문화원, 20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지개혁시 피분배지주 및 일제하 대지주 명부』, 1985.

강영심,『일제의 한국삼립수탈과 한국인의 저항』,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강정원,『1910년대 일제의 국유림구분조사 과정과 법률적 성격』, 『한국사연구』187, 한국사연구회, 2019.

강정원·최원규,『일제의 임야대부 정책과 그 성격-1910, 1920년대 대부 실태와 경영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58, 2016.

김상기,『예산지역 독립운동의 전개』, 『충청문화연구』27,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2022.

김성보,『일제하 조선인 지주의 자본전환 사례-예산의 성씨가』, 『한국사연구』76, 한국사연구회, 1992.

제8장

예산지역의 학생운동

정내수 전(前)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연구실장

- 박범, 「조선후기 예산현 국사당보 설화의 전승과 역사적 사실」, 『역사와 담론』92, 호서사학회, 2019.
- 박성섭, 「1930년대 중반 이후 수리조합 정책의 전개와 성격 변화」, 『한국독립운동사연구』60,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7.
- 박수현, 「1920·30년대 수리조합 설치반대운동 추세와 그 원인」, 『사학연구』67, 한국사학회, 2002.
- _____,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수리조합사업의 실체」, 『내일을 여는 역사』76, 재단법인 내일을 여는 역사재단, 2019.
- 박찬승, 「근현대 예산지방의 정치사회적 동향과 지역엘리트」, 『근대이행기 지역엘리트 연구』Ⅱ, 경인문화사, 2006.
- 최병택, 「일제 하 임야조사사업의 시행목적과 성격」, 『한국문화』37, 2006.
- 허수열, 「일제하 충남제사(주)의 경영구조-내포지방 경영진 지배기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7, 역사문화학회, 2004.
- _____, 「호서은행과 일제하 조선인 금융업」, 『지방사와 지방문화』8, 역사문화학회, 2005.



예산지역의 학생운동



정내수



1. 식민지 교육정책과 학생운동

- 1) 일제강점기 학생운동
- 2) 식민지 교육정책
- 3) 예산지역의 교육기관
- 4) 기록에 남아있는 학생총

2. 예산지역의 학생운동

- 1) 수업을 거부한 동맹휴학
- 2) 사회진출을 준비한 예산공립농업학교
 비밀결사

3. 예산지역 학생운동의 의의

1. 식민지 교육정책과 학생운동

1) 일제강점기 학생운동

일제강점기 민족운동은 3·1운동, 독립군의 무장투쟁, 학생운동, 노동·농민운동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일반적으로 3·1운동이나 독립군의 무장투쟁에 관한 내용은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학생운동에 관해서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고, 일반인들의 관심도 적은 편이다.

근대적 학생운동이란 학생들에 의하여 조직되고 진행되는 정치·사회적 변혁 운동을 말한다. 학생들이 학구생활의 범위를 벗어나 집단적인 행동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의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학생총은 기성 세대와 다르게 오늘보다 내일을 기대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의욕과 투지가 강한

계층이다. 따라서 자기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현실에 대하여 굴복이나 타협보다는 그것을 개혁하려고 한다. 특히 일제강점기의 학생들은 대내적으로 사회 각 분야의 모순을 극복하고 정치·사회·문화운동을 일으켰으며, 대외적으로는 외세의 침략과 억압에 대항하는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

일제강점기의 학생운동은 민족 독립운동으로 시작되었다. 즉 일제에 의하여 국권이 박탈당하고 민족의 독립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이를 회복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따라서 일제강점기의 학생운동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의식에서 출발하여 항일 민족운동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민족운동이 학생총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이상세계를 지향하며, 젊은이로서의 정의감은 도피를 위한 구실을 찾기보다는 계기만 있으면 행동화하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학생들은 지적 엘리트로서 새로운 사조에 민감하여 기성세대보다 먼저 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고, 지성적이고 정열적이기 때문에 민족운동에서 전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학생들이 항일대열의 선두에 섰던 사실은 학생운동이 민족사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의 학생운동은 3·1운동 당시의 만세시위운동을 비롯하여 동맹휴학, 비밀결사운동, 농촌 계몽활동 등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되었다. 이 글에서는 3·1운동과 관련된 사례는 서술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1920년대부터 1930년대 초반까지 예산지역에서 전개되었던 학생운동 가운데 동맹휴학과 비밀결사운동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겠다.

2) 식민지 교육정책

1910년 8월 29일 일제는 ‘한일합방조약’을 발효하여 한국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일제는 한국에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헌병경찰에 의한 무단통치(武斷統治)를 실시하여 우리민족을 억압하고 한국인을 일본인처럼 만들고자 하였다. 이 시기에 진행된 한국인에 대한 교육정책은 한마디로 ‘충량(忠良)한 국민의 육성, 시세(時勢)와 민도(民度)에 맞는 교육’의 실시, 즉 동화교육과 노예교육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

이와 같은 교육방침 아래 1911년 8월 전문 30조의 ‘제1차 조선교육령’이 제정되었다. 이 교육령에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은 일본어의 보급과 실업교육의 치중이었다. 이는 한국인을 우민화(愚民化)하여 충성스럽고 선량한 제국 신민과 저급한 실용적인 근로자, 하급관리 및 사무원의 양성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면에서 볼 때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것이었다.

제1차 조선교육령 시기에는 우리 민족의 정기와 문화 요소를 제거하여 일제에 예속시키고, 한국인을 우민화하는 교육정책은 충성스러운 국민의 육성을 표방하여 일본어 교육에 주력하였다. 일제가 한국인을 일본인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본어의 비중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따라서 일본어는 모든 학교에서 한국어 및 한문을 제외한 모든 학과의 수업 용어가 되었고, 교과과정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실업교육을 중시하였다는 점이다. 일제의 실업교육 장려는 공립의 농업학교·상업학교·공업학교를 설립하여 실업 과목의 전문교육을 하는 한편, 간이실업학교를 보급시켜 실무자 교육을 장려하였다. 이 간이실업

학교는 보통학교 또는 실업학교에 부설하여 교육 정도와 연령을 무시하고 실업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실업교육은 당시 한국인에게 필요한 것이었지만, 이는 일제의 정치적 목적에 결부되어 있었음을 알아야 하겠다.

그러나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조선총독부는 만세운동의 가장 큰 원인을 우리 민족의 독립 욕구에 있다고 보고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1922년 2월 ‘제2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였다. 그리하여 3·1운동 이후 민족 말살의 식민지 교육정책은 더욱 강화되었고, 이는 학생운동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 제2차 조선교육령은 표면상 민족차별의 교육을 없앤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민족 말살을 위한 동화교육에 주력하는 것이었다. 제2차 조선교육령의 내용을 요약하면, 일본과 동일한 교육제도와 교육기관을 확충하여 일본식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한국인을 일본인화하고자 하였고, 종래 4년이던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연장하여 초등교육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한국어와 일본어를 같이 필수과목으로 하였으나, 형식적인 한국어 교육에 비하여 일본어의 교육을 강화하였다. 또한 일본의 역사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의 역사를 왜곡시켜 민족적 열등감을 조장함으로써 민족의식을 말살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제2차 조선교육령을 통해 외형상 일본식 학제의 채택으로 ‘내선공학(內鮮共學)’과 ‘일시동인(一視同仁)’ 등을 내세워 표면상으로 민족차별 교육을 없앤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우리 민족성을 말살하고 철저한 일본인화 교육을 위한 동화주의 교육의 본질이 1910년 이후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제3차 조선교육령(1938)과 제4차 조선교육령(1943)의 시기는 일제강점 말기의 민족 말살기이다. 이 기간에 일제는 중국 침략전쟁과 태평양전쟁을 도발하고,

한국을 병참기지화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공급하는 기지로 삼았다.

이러한 배경으로 1938년에 개정된 ‘제3차 조선교육령’은 일제의 황국신민화 정책을 위하여 종래 필수과목이던 한국어를 선택과목으로 돌려 그해 4월부터는 한국어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각급 학교의 교과목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제3차 조선교육령의 골자는 한국의 일본화를 위한 수단으로 ‘내선일체(內鮮一體)’를 앞세워 한국을 전쟁 도구화하는 것이다. 학교명을 일본인 학교와 동일하게 개칭하고, 일본어와 일본 역사 등의 교과를 강화하는 교육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은 당시 일제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도발하면서 한국을 병참기지로 만들고 전장에 한국인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내선일체’라는 명분을 내세울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일제는 전쟁 수행을 위한 전시 동원태세를 한국에도 적용하여 한국의 청년들과 학생들을 그들의 침략전쟁에 동원하였다.

1943년 3월 ‘제4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한 일제는 모든 교육에 군사교육과 노무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학생들을 전시 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였다. 즉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개칭하고, 중등학교의 수업연한을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였다. 특히 고등교육기관을 전시체제로 개편하고 이공계는 확대하면서 문과계를 축소 조정하였다.

또한 조선총독부는 그들의 식민지화 교육정책에 장애가 되는 사립학교에 대한 탄압책의 시행으로 민족주의 교육을 시행하던 사립학교를 공립학교로 강제 개편하였으며, 기독교 계통의 학교들은 폐교하였다. 이에 따라 민간 사립학교와 기독교계 학교의 교육목적도 강제적으로 바뀌었으며, 사립학교 설립 불허와 함께 한국인 교원이 축출되었다.

3) 예산지역의 교육기관

1911년 이전까지 공립학교는 대부분 행정 중심지역을 중심으로 적은 숫자의 공립보통학교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제1차 조선교육령 시기에는 지역을 막론하고 많은 보통학교가 증설되었고, 제2차 조선교육령 시기에는 제1차 조선교육령 시기보다 2배 이상에 달하는 보통학교가 증설되었다. 이것은 일제가 한국인 학생들에게 초보적인 교육에만 치중한 식민지 교육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었기 때문이다.

제2차 조선교육령이 발표된 1922년부터 초등교육기관인 보통학교만 증가하는 반면, 중등 이상의 교육기관인 고등보통학교와 실업학교 및 전문학교의 변동은 미비하거나 전혀 증설이 이루어지지 않는 매우 열악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당시 일제가 한국인 학생들에게 단지 초보적인 교육과 저급한 실업교육에만 치중한 것으로 일제강점기 지방 교육의 현실과 식민지 교육의 실상을 반영하고 있다.

예산지역도 마찬가지로 제1차 조선교육령 시기부터 제2차 조선교육령 시기까지 1면 1교의 방침에 따라 많은 보통학교가 증설되었다. 당시에 설립된 공립학교 현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예산지역 공립학교 설립현황

구 분	학 교 명	설립년월일	시기 구분	합 계
예산지역	대흥보통학교	1911. 7. 5.	제1차 조선교육령 (1911. 8 ~ 1922. 1)	15개 교
	예산보통학교	1912. 3. 8.		
	덕산보통학교	1912. 3. 19.		
	고덕보통학교	1920. 5. 16.		

구 분	학교 명	설립년월일	시기 구분	합 계
	오가보통학교 신양보통학교 광시보통학교 신암보통학교 삽교보통학교 대술보통학교 봉산보통학교 대율보통학교	1922. 4. 1. 1923. 3. 15. 1924. 4. 21. 1928. 3. 27. 1929. 6. 10. 1931. 5. 10. 1936. 4. 1. 1936. 7. 8.	제2차 조선교육령 (1922. 2 ~ 1938. 2)	
	신례원보통학교	1939. 9. 10.	제3차 조선교육령 (1938. 3 ~ 1943. 2)	
	예산고등여학교 수덕보통학교	1941. 4. 24. 1945. 6. 13.	제4차 조선교육령 (1943. 3 ~ 1945. 8)	

한편 보통학교 설립이 더딘 면 단위 지역의 아동들은 취학이 그만큼 더 어려웠다. 따라서 예산군의 일부 면 지역에서는 보통학교를 서둘러 설립하려는 운동이 전개되었는데 다음과 같다.

예산군 신양면에서 공립보통학교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중, 1922년 유자들의 발기로 영산 일어강습소를 설립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다른 한편으로 학계(學契)를 조직하여 계원들이 봄·가을로 쌀과 보리 1말씩을 내어 기부금을 모집한 결과 총액이 1만 원에 달했다. 이에 면 중앙에 2천여 평의 학교부지를 마련하여 교사를 건축하면서 공립보통학교 인가를 신청하였다. 이 학계의 계장은 김현기, 고문은 이병국이었음이 《조선일보》에서 확인된다.

또한 광시면에서도 보통학교 설립을 위해 1925년 면내 유자 이용재·이용칠·장기원 등이 발기하여 기성회를 조직하고 노력한 결과 1만 5천 원의 기금을 모집하였고, 당국에 보통학교 인가를 신청하여 인가를 얻어 1925년 4월 21일 교사 낙성식을 거행하였다.

신암면에서도 1921년 보통학교 기성회가 조직되어 면장이 중심이 되어 8천여 원을 모았으나, 기금이 부족하였고, 후임 면장 서규석이 노력을 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다가 다시 후임 면장 어재병이 노력한 결과 5천여 원의 예산으로 우선 2개 교실을 건축하면서 공립보통학교 인가를 당국에 신청한 사실이 《동아일보》에 기록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공립보통학교의 설립 운동은 대체로 면장과 면의 유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공립보통학교 설립이 충분하게 진행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학령 아동의 극히 일부만이 취학할 수 있었다. 따라서 3·1운동 직후인 1920년대에는 전국 각지에서 취학이 어려운 아동들을 위한 야학이나 강습소를 세워 학생들을 가르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는 예산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1920년대 말에 확인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1920년대 예산군의 야학·강습소 현황〉

교육기관명	설립지	설립연월일	설립자 (뒤의 원장)	설립시 학생수	교원수	자료출전
고성강습소	대변면 마전리	1923년 이전				《조선일보》 1923.3.20
계동학원	입침리	1923.4.1	조병희	27명	2명	《동아일보》 1929.1.13
산성노동야학	예산면 산성리	1925년		60명		《시대일보》 1925.9.10
영성강습소		1927	박홍원 (뒤에 24명)	4명 2명		《동아일보》 1929.1.13
오가자구청년회 부속학원	오가면	1927.11	김병현	40명	2명	《동아일보》 1929.1.13

교육기관명	설립지	설립연월일	설립자 (뒤의 원장)	설립시 학생수	교원수	자료출전
신암학교	신암면	1927.4.	면장 발기 (보통학교 승격노력)			《동아일보》1927.5.2
배재강습소		1927.4.1	이건섭 (이은술)	35명	2명	《동아일보》1929.1.13
산성리노동야학	산성리	1928.1.9	기독교청년회 (회장 고영기)	54명	12명	《동아일보》1929.1.13
형평강습소		1928.4.15	김성준 (소장 신희안)	23명	1명	《동아일보》1929.1.13
흥동강습소		1928.4.1	박기홍	42명	2명	《동아일보》1929.1.13
대흥사설 학술강습소	대흥면	1928.4.1	회장 박경현	40명	1명	《동아일보》1929.1.13
대술강습소	대술면	1928.4.1	박중연 (소장 김정선)	35명	2명	《동아일보》1929.1.13
명신학원		1928.4.1	박성룡 (최관일)	15명		《동아일보》1929.1.13
성광학원			예산 감리교			《동아일보》1939.11.8

예산군의 경우, 각 면에서 야학·강습소가 세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주목할 야학은 입침리의 계몽학원으로 1930년대 광주학생운동의 여파로 인하여 대흥학교 학생들의 백지동맹 사건이 있었을 때, 계몽학원 강사 조병언(趙昺彦)과 대흥면 교촌리 강경희(姜敬熙)가 검속되었다. 그것은 이들이 대흥학교 학생들에게 동맹휴교나 만세를 부를 것을 종용하였다는 혐의에서였다. 조병언은 계몽학원 설립자 조병희(趙昺熙)와 6촌간이었다. 예산에서는 개신교 쪽에서 두 곳에 강습소나 야학을 세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20년대 예산지역의 야학·강습소 설립 가운데 기록되지 못한 야학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30년대의 신문에는 야학이나 강습소 설립 관련 기사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야학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1930년대

들어 동아일보사의 브나로드 운동, 조선일보사의 문자보급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그 영향으로 각지에 야학이 다수 설립되었다. 당시 『조선중앙일보』의 기사에 의하면 예산군의 삽교·덕산·봉산·고덕 4개 면에 야학교가 100여 개나 되고, 학생 수는 남녀 합하여 2,900여 명에 달한다고 하였다. 거의 마을마다 야학이 들어서는 상황에서 야학 설립은 이제 더 이상 기삿거리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신문에도 야학이나 강습소에 관한 기사는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야학교 관련 기사(『조선중앙일보』, 1935년 1월 18일자)

4) 기록에 남아있는 학생층

일제강점기 예산지역에 설립되었던 학교의 기록을 모두 확보하여 당시에 교육을 받았던 학생들과 관련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면 예산지역 학생층의 성향과 특성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일제강점기의 학교기록이 거의 보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은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동맹휴학 및 비밀 결사의 학생운동이 있었던 일부 학교에서 『학적부』 및 『학교연혁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만으로는 예산지역 학생층 전체에 대한 분석에 한계가 있고, 학생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발견하기 어려우나 당시 학생들의 환경 및 교육상황에 대한 부분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대흥공립보통학교의 각 연도별 『학적부』의 기록을 보면, 부모의 직업은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소수의 학생만이 부모의 직업이 상업이나 관리 및 교원으로 확인될 뿐 82%에서 95%에 이르기까지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진학 학생들의 입학 전 교육상황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주로 사숙(私塾)이나 서당(한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가 점차로 다양한 내용이 확인된다. 예를 들어 타 공립학교에 다니다가 재입학한 경우도 나타나고 사립학교를 마치고 진학한 경우 등도 나타난다. 따라서 1910년대 후반부터 1920년대 중반까지는 지역의 사숙이나 서당 등에서 한문을 먼저 강독하고 보통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1930년대 이후부터는 취학 전 교육란에 기재된 내용이 없는 경우가 많이 보이는데, 이는 제2차 조선교육령 이후 보통학교의 수가 많아졌고 취학연령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대홍보통학교의 『학교연혁지』에 기록된 내용을 정리하면, 수학 연한이 1915년부터 1924년도까지 4년제였다가 1925년부터 6년제로 연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4년제로 입학생을 모집한 시기에는 남학생만 입학·졸업하였고, 1925년부터 여학생이 진학하였음도 알 수 있다. 졸업 후의 진로를 보면 상급학교 진학과 실업 종사로 구분할 수 있으나 70% 정도가 졸업 후 실업 종사로 나타나며, 그 대부분은 농업현장에 종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적은 학생들만이 상급학교로 진학한 것으로 보인다.

상급학교 진학의 경우도 1939년까지는 중학교나 고등보통학교와 같은 인문계에만 편중되다가 1940년도부터는 실업계 상급학교로의 진학이 진행되어 인문계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상급학교 진학의 진로를 실업계로 선택하였음이 확인된다. 이는 예산공립농업학교 학생현황에서도 나타나듯이 지역 출신의 보통

학교 졸업생들이 농업계 상급학교인 예산공립농업학교에 진학하였음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예산지역의 실업교육을 담당하였던 예산공립농업학교와 관련하여 현재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에서 11회(23명, 1923년 졸업)부터 22회(30명, 1937년 졸업)까지의 『예산공립농업학교학적부』를 확인하였다. 예산공립농업학교의 경우 학적부의 기록이 매우 소략하게 작성되어 있다. 연도별 학적부의 내용에 부모의 직업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부모의 직업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기재되어 있는 몇 건의 내용을 통해서 예산공립농업학교의 경우도 부모의 직업이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진학 학생들의 입학 전 교육상황은 기재 되어 있지 않은 몇 건을 제외한다면 전부가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 후에 진학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상과 같이 예산지역 공립학교 진학 학생층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부모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다만 부모 직업이 농업으로만 기재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농업 규모를 경영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자료상의 한계가 있다.

2. 예산지역의 학생운동

1) 수업을 거부한 동맹휴학

일제강점기 학생운동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바로 1920년대의 동맹휴학이다. 조선총독부에서 분석한 동맹휴학의 원인은 주로 학내문제나 학생 간 및

학생과 교사 간의 문제 등 사소한 이유에서 발생한 것처럼 분류하였고, 민족의식에 의한 것은 아주 소수인 것처럼 분류하였다. 이것은 일제가 동맹휴학을 단순한 학내문제로 파악하게 하여 식민지 교육과 통치의 실상을 숨기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동맹휴학 발생 이면에 내재되어 있는 민족의식과 민족 감정에 바탕을 둔 학생들의 항일 민족적 요소를 구별해내야 일제강점기의 동맹휴학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

동맹휴학은 원인별로 나누어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① 민족 감정 및 민족차별에 의한 발생, ② 교사의 자질 부족과 불성실한 태도 및 비교육적 행위에 의한 발생, ③ 학교 승격 및 전문지식의 교사 요구, ④ 학교 설비 개선요구 등이다. 예산지역은 ①의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가 덕산 공립보통학교(1926년 5월), 대흥공립보통학교(1926년 5월), 예산공립농업학교(1930년 1월)와 예산 대흥공립보통학교(1930년 3월)의 백지동맹 등 4건, ②의 원인으로 발생한 동맹휴학이 예산공립농업학교(1926년 6월) 1건, ③의 원인으로 발생한 동맹휴학이 예산공립농업학교(1924년 3월) 1건이다. 대부분 민족 감정 및 민족차별, 일본인 교사의 자질문제 등과 같은 항일적인 요소에서 동맹휴학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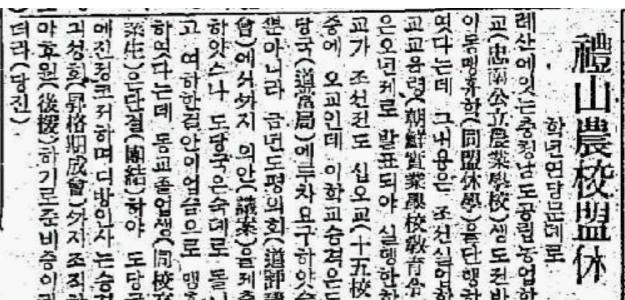
예산지역에서 1920년대부터 1930년대 초반까지 전개된 동맹휴학의 내용을 학교별 및 시기별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예산지역 동맹휴학 현황〉

지역별	발생 건수	발생 학교별 현황	발생 년월일	동맹휴학 원인 및 학생측 요구사항	동맹휴학의 결과
				학년연장(학교 승격문제)	
예산군	6건	예산공립농업학교 (중등)	1924.3.2	학년연장(학교 승격문제)	미확인
			1926.6.22	불성실한 일본인교사 배척	7명 퇴학, 92명 정학
			1930.1.22	동맹휴학계획 사전 발각	10명 검거
		덕산공립보통학교 (초등)	1926.5.4	순종 승하	미확인
		대흥공립보통학교 (초등)	1926.5.1	순종 승하	미확인
			1930.3.11	백지동맹	4명 검거

예산공립농업학교에서는 학교승격문제(1924년 3월 2일), 일본인 교사배척(1926년 6월 22일), 동맹휴학 계획 사전발각(1930년 1월 22일) 등 세 차례의 동맹휴학이 발생하였다. 1924년 3월 2일에 학생 전부가 학년 연장문제로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는데, 그 내용은 ‘조선실업학교 교육령’은 5년제로 발표되어 실행한 학교가 전국의 15개교 중에서 5개교인데, 학교 승격을 충남도 당국에 누차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에 도평의회에서 의안(議案)을 제출하였으나 도 당국에서 아무런 결정이 없자 동맹휴학을 전개하였다. 이에 학교 졸업생까지 도 당국에 진정을 준비하고 승격기성회를 조직하는 등 후원을 하였다. 이 동맹휴학은 학교승격문제가 주요 문제로 등장하였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다.

1926년 6월 22일에
는 1·2학년생들이 불성



〈동맹휴학 기사(《동아일보》, 1924년 3월 2일자)〉



동맹휴학 기사(《동아일보》, 1926년 6월 26일자)

실한 교사를 배척하여 재차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 그 원인은 교사들이 수업시간을 지키지 않고 학생의 질문에도 잘 설명해 주지 않았으며, 또한 일본인 교사는 학생들의 작은 잘못에도 퇴학 등 심한 징계를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이 회의를 하면 학교 당국에서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경찰서에 의뢰하였으며, 기숙사생에게 오는 편지를 학교에서 사전에 검사한다는 등의 이유로 동맹휴학을 하였다.

이 당시 학생들이 교장과 충남도청에 제출한 진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건

1. 교육에 열심히 하지 않음

가. 교육시간을 정당하게 지키지 않는 것

나. 생도의 질문에 대해 응답하지 않는 것

2. 사제간에 애정이 없는 것

가. 어떠한 일이든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퇴학 명령

나. 학생의 심리를 과도하게 의심하며 심야에 학생 숙소를 엿보는 것

3. 불온한 언어로 학생의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것

가. 어떠한 사실도 없을 때에도 이유를 붙여 이유 없이 학생을 징계하는 것

4. 학생에게 오는 편지를 이유 없이 개봉하는 것

5. 당연히 학교에서 처리할 만한 학생 신상 행동을 사법에 의뢰하는 것

6. 교문을 억제하고 자기의 의견만 주장하는 것

이에 대하여 6월 25일 학교 당국은 7명 퇴학, 92명 정학 처분을 하였다.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1학년은 6월 30일부터 등교하여 수업을 받았고, 2학년은 7월 1일에 교장에게 동맹휴학의 이유와 학교 당국의 불성실한 사실을 따져 물으며 7명에 대한 퇴학 처분은 너무 가혹한 일이라고 항의하였다. 그러나 학교 당국에서는 학생의 주장은 모두 부당하며 학교 측의 과실은 없다고 강조하자 2학년 학생이 전원 퇴학원서를 제출하였다. 학교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결국 2학년생인 유인무(柳寅茂), 오만근(吳萬根), 한춘근(韓春根), 최영환(崔榮煥), 이정하(李鼎夏)와 1학년생인 윤중섭(尹中燮), 권영범(權寧範) 등 7명을 퇴학, 92명을 정학 처리하였다. 2학년생의 동맹퇴교에 대하여 퇴교 학생의 학부형회에서는 학교 당국과 퇴교 학생의 복교를 교섭하여 7월 12일부터 복교되었고, 결국 퇴학 처분을 당한 7명만 회생되었다. 1926년 6월의 동맹휴학은 불성실한 교사의 태도와 학교 당국의 부당한 처사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그 사유가 구체적

인 부분이 주목된다. 이는 학생들의 의식이 성숙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이러한 학생의식의 성숙과 1929년 11월 광주학생운동의 영향으로 1930년부터 학생운동은 절정을 이루었다. 광주학생운동은 예산지역에도 파급되었다. 1930년 1월 22일 광주학생운동의 영향을 받은 예산공립농업학교 학생 233명이 시위를 계획하였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오후 11시경에 주동자 10여 명이 검거되었다. 그리고 1932년에 예산공립농업학교 학생 비밀결사로 이어지게 된다.

1919년 3·1운동 당시 전교생 300여 명 전원이 대홍시장에서 만세시위를 벌였던 대홍공립보통학교에서는 1926년 5월 1일 학생 전원이 동맹휴학을 하였다. 학생들은 융희황제(순종)의 승하에 일본인 교장이 조회에서 이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자 분개하여 동맹휴학을 하고 산에 올라 망곡(望哭)을 하였다. 학교장은 5월 4일 주도 학생인 이학구를 찾아가 심하게 구타하였고, 이학구는 5월 8일 학교장을 공주지방법원 홍성지청 검사국에 고소하였다. 또한 덕산보통학교 학생들도 5월 4일부터 융희황제(순종) 승하에 애도를 위해 휴학을 하지 않는다고 동맹휴학하고 4일 동안 애도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1929년 11월 광주학생운동의 영향은 예산지역에도 파급되었다. 1930년 3월 대홍공립보통학교 6학년 학생들이 광주학생운동에 호응하는 백지동맹(白紙同盟, 백지답안사건)을 단행하고 만세를 부르려다 발각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대홍보통학교 6학년인 윤소현(尹召鉉), 배덕근(裴德根), 신화균(申和均), 김창환(金昌煥) 등이 3월 11일 맹휴하고 오후 4시에 대홍면 동서리의 산 위에 올라 동급생 20여 명과 함께 만세운동을 전개한 것이다. 백지동맹이 발생하자 예산경찰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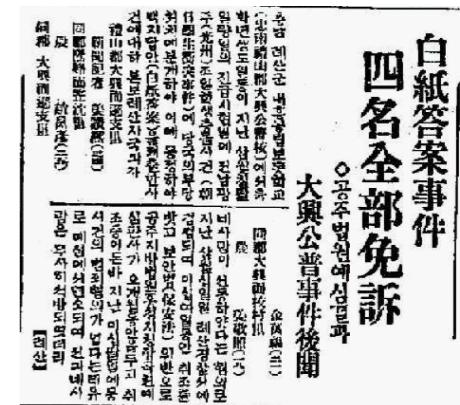
서는 선동혐의로 학생 여러 명을 검속하였으며, 이 사건의 주도자로 강경희(姜敬熙) 등이 체포되었다.

이들은 《동아일보》 예산지국 기자 강찬희(姜讚熙)와 이 학교 강사 김만복(金萬福)의 권유를 받고 동맹휴학을 일으켰다. 강찬희와 김만복 역시 체포되었는데, 강찬희는 1930년 1월 대홍면 손지리에 있는 야학회에서 대홍보통학교 6학년생인 윤소현에게 “작금 각지의 조선인 학생들이 동맹휴교하거나 또는 만세를 부르고 있다. 차제에 자네들도 실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김만복 역시 1930년 1월 20일경 응봉면 입침리 조병언의 집에서 보통학교 6학년생인 배덕근에게, 2월 10일경에는 강경희에게 광주에서의 학생운동을 설명하고 맹휴를 권하였다.

이들은 체포되어 1930년 7월 대전지검 홍성지청에서 강찬희, 김만복, 강경희, 조병언은 면소를 받았으나, 검사의 항고로 강찬희와 김만복은 공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이 백지동맹사건은 광주학생운동에 호응하여 전국적으로 학생들의 맹휴가 확대되어 가는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2) 사회진출을 준비한 예산공립농업학교 비밀결사

일제강점기 한국의 학생들은 자신들의 이해와 처지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내



〈동맹휴학 기사 (《중외일보》, 1930년 8월 1일자)〉

용으로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 식민지 상황 속에서 학생들은 노예교육을 철폐하기 위한 저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민·노동운동에도 기여하였다. 아울러 민족해방운동의 주요 지도자들은 대부분 학생운동을 통해서 활동가의 자질을 함양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사실은 1930년을 전후한 시기 중등교육의 기회가 확대되면서 두드러졌다. 이 시기 학생들은 사회과학 연구 및 동맹휴교 등을 통하여 생산현장 진출을 위한 사상·이론적 준비를 마친 뒤 졸업이나 제적과 동시에 현장에 진출하였다. 예산공립농업학교의 비밀결사는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예산공립농업학교는 1910년 7월 공주에 도립 공주농림학교로 설립된 2년제 학교이다. 1911년 11월 제1차 조선교육령이 공포될 때 명칭이 공주공립농업학교로 바뀌었다. 그러다가 1922년 4월 소재지를 예산군 예산면 예산리로 옮기고 학교명을 충청남도 공립농업학교로 변경하였다. 학교를 예산으로 옮긴 후 충청남도 공립농업학교의 입학지원자가 급증하여 성수기를 맞이하였다. 특히 산미증식계획으로 인하여 농업기술(農業技手)·면서기 등 농촌 하급관료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늘어나면서 충청남도 공립농업학교는 강경 공립상업학교와 함께 충남지방에서 취업률이 가장 높은 명문 학교로 성장하였다. 1926년 3월 수업연한이 5년인 갑종학교로 승격되었다. 그리고 충청남도 공립농업학교가 예산공립농업학교로 학교명이 바뀐 것은 1932년 4월이다.

1932년 당시 예산공립농업학교의 교과과목 및 시간표를 보면, 한국어의 교육 시간보다 일본어 수업시간이 더 많았다. 그리고 수학·영어보다는 작물·축산·양잠·삼림 등 전공과목의 비중이 더 높았다. 이를 통하여 교양수업을 통한 인성교

육보다는 한국인을 우민화시켜서 충량한 제국 신민과 저급한 실용적인 근로자와 하급관리 및 사무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식민지 실업교육 정책의 특징을 볼 수 있다.

예산공립농업학교의 학생 비밀결사운동은 대중적 기반이 취약한 조건에서 전개된 소수 학생들의 운동이었다. 물론 독서회 활동만을 한 것이 아니라 학교 측의 무리한 요구에 반대하는 투쟁, 친일연극 상연을 반대하는 투쟁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이를 주도한 학생들 가운데 예산 출신인 정종호(鄭鍾浩, 1991~1973)는 1928년 4월 윤봉길 의사 등 36인과 함께 월진회(月進會)를 조직하고 동회의 이사(理事)로 농촌개혁운동 및 부흥운동을 전개한 인물이다. 그는 1928년 예산공립농업학교에 입학하여 일본인의 한국인 학생 차별정책에 분노를 느끼고, 학우인 제주 출신 강봉주(姜鳳柱)·청양 출신 한정희(韓定熙) 등과 비밀리에 독서회(讀書會)를 결성하여 항일반제투쟁에 관한 서적 등을 윤독·토론하는 등 민족정신 배양과 항일의식 고취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더불어 당시 유행하던 문맹퇴치운동과 문자보급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학생운동의 세력 확대에 앞장서기도 하였다. 그들은 1931년경부터 좌경 서적을 보면서 사회과학을 연구하였다.

1932년 4월 윤봉길의 상해의거가 일어나자 예산지역 청년들의 항일의식이 더욱 고양되었다. 윤봉길과 함께 월진회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던 정종호는 상해의 거에 큰 자극을 받았다. 1932년 5월 1일 정종호는 강봉주·한정희와 함께 청양 출신 박정순(朴正淳)·당진 출신 박희남(朴熙南)·보령 출신 오일규(吳日圭)·천안 출신 김규환(金奎煥) 등 같은 학교 후배들이 조직·활동하던 독서회와 회합을 갖고 본격적인 학생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두 조직을 통합할 것을 제의하여 '좌익 협

의회(左翼協議會)’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였다. 이 조직은 연구부·선전부·에스페란토부의 3개 부서로, 이러한 부서의 체계는 학생들 스스로 자신들이 사상·이론적 무장을 강화하는 활동에 주력하였음을 보여준다.

좌익협의회에서 조직선전부를 담당한 정종호는 1932년 5월 14일과 22일경 두 차례에 걸쳐 회합을 갖고 김용재(金用在) 등 선배 졸업생들과 농업학교 학생 8명을 동지로 규합하여 조직을 강화해 나갔다. 그러던 중 1932년 6월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무리한 동원령을 내린 것을 계기로 맹휴투쟁을 주도하였다. 이 동맹 휴학은 학교 측이 폭우가 내리는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권농일 이양행사 준비 명목으로 학생들을 강제로 등교시켜서 발생한 것이었다. 정종호는 박희남·박정순·강봉주 등과 함께 동맹휴학을 결행하여 항일투쟁의 목표를 명백하게 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행사 강행을 위한 노력 동원의 부당성, 일본어 과목을 국어로 표기하는 반민족적 처사의 시정, 일본인 학생과 한국인 학생의 차별정책 개선, 한국인 교사의 확대 등을 주장하며 동맹휴학을 주도하였다.

동맹휴학을 주도한 학생들은 전체 학년 학생들을 규합하여 도청 학무과와 학교 당국에 건의서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일본과 조선의 차별을 철폐할 것, 학생들을 혹사하지 말 것” 등이었다. 동맹휴학은 1주일 가량 진행되다가 일제 경찰의 압력과 지방 유자들의 만류로 중단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좌익협의회의 오일규와 김규환은 퇴학 처분을 받았고, 좌익협의회는 해소되었다.

1932년 7월 학교 당국으로부터 좌익협의회의 회원들이 다수 학사 처분을 받게 됨과 동시에 일제의 감시 강화로 동회의 활동이 위축되자, 9월 18일 정종호는 강봉주·한정희·박희남 등과 함께 조직 재건을 도모하여 ‘예산학생동맹(禮山

學生同盟)’을 조직하고 정종호는 조직선전부를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지역별 항일학생 운동조직과 연계를 목적으로 학교 내에 김형래(金炯來) 등 5학년생과 이종규(李鍾圭) 등 3학년생들을 각각 대표로 임명하고 그들을 통해 동지를 규합하였다. 밖으로는 이강오(李康午) 등 지방의 청년 동지와 서울 YMCA를 비롯한 외지의 학생조직과 연계를 강화하는 등 학생운동의 기획과 기밀조직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를 눈치챈 일제 경찰이 감시를 강화하여 조직이 노출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조직관리를 맡았던 정종호는 같은 해 11월경 조직관리의 위장 방법으로 비밀결사 명칭을 ‘토요회(土曜會)’로 개칭하는 한편, 지방의 민족 청년들과 연대를 강화하면서 반일투쟁 방법을 협의하였다.

그러던 중, 1932년 11월 중순경 일제의 관제 연극단체인 극단 만경좌(萬鏡座)가 예산군 예산면 예산시장터에서 일제가 만주의 마적으로부터 재만(在滿) 한국인을 보호한다는 반민족적 내용이 담긴 ‘동방의 빛’이라는 연극을 공연하게 되었다. 정종호는 회원들과 함께 이 연극이 한국인의 민족의식을 말살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공연 관람 거부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극단에게 공연 중단을 요구하는 등 활동을 전개하다가 극단원들과 충돌하여 1932년 12월 27일 관련자 20여 명이 일제 경찰에게 체포당하였다.

경찰은 이 사건으로 정종호 등 관련 인물 9명을 검거하여 홍성지국으로 송치하였다. 그리고 실형을 받지는 않았으나 면서기, 농업기수, 금융조합 서기 등의 졸업생이 검거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으로 검거된 관련자는 대략 30명으로, 이 중에 일부는 석방하고 정종호 등 9명은 1933년 2월 17일 공주지방법원 검사국

에 송치되었다. 일제는 이 사건을 ‘예산공립농업학교 적색독서회사건’이라 명명 하였고, 1933년 3월 30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판결을 받았다. 강봉주는 징역 3년, 정종호와 한정희는 징역 2년, 박배훈(朴培薰), 김형래(金炯來), 김규환(金奎煥), 오일규, 박정순, 박희남은 각기 1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5월 21일 경성복심법원에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다음은 《동아일보》와 판결문 등에 기록된 농업농업학교 비밀결사 관련자들의 실형 선고 내용이다.

〈예산공립농업학교 비밀결사사건 관련자 신원 및 형량〉

성명	본적지	학년	형량	비고(서훈 및 포상)
강봉주(21세)	제주도 제주읍 이도리	5학년생	징역 3년	1995년 애족장
정종호(23세)	예산군 덕산면 삽교리	5학년생	징역 2년	1995년 애족장
한정희(21세)	청양군 사양면 흥산리	5학년생	징역 2년	1995년 애족장
박배훈(24세)	예산군 오가면 효림리	5학년생	징역 1년	미포상
김형래(20세)	천안군 풍세면 미죽리	5학년생	징역 1년	미포상
김규환(19세)	천안군 광덕면 신흥리	3학년 퇴학생	징역 1년	1990년 애족장
오일규(19세)	보령군 응천면 성동리	3학년 퇴학생	징역 1년	1995년 애족장
박정순(20세)	청양군 청양면 읍내리	3학년생	징역 1년	1995년 애족장
박희남(20세)	당진군 당진면 우두리	3학년생	징역 1년	1995년 애족장

3. 예산지역 학생운동의 의의

예산지역에서 전개된 동맹휴학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 시민지 교육에 항거하는 내용과 민족차별 교육과 일본인 교사의 자질문제 및 불성실한 태도로 인한 배척 등의 내용으로 1920년부터 1930년대 초반까지의 동맹휴학은 대부

분 항일 민족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예산지역 동맹휴학의 경우 보통학교와 중등의 실업학교에서 모두 발생하였다 는 특징이 있다. 당시 다른 지역에서 전개된 동맹휴학은 대부분 초등교육기관인 보통학교 중심으로 동맹휴학이 전개되었던 것과 다르게 예산지역은 중등 이상의 교육을 진행하는 실업계 학교에서도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실업계 중등 학교가 설립되어 있던 교육환경에 기인하기도 하겠지만, 보통학교를 졸업학교 실업계 상급학교로 진학한 학생들이 일제의 교육정책과 저급한 실업교육의 현실에 대한 저항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동맹휴학의 발생 요인이 1928년까지는 주로 일본인 배척과 민족 감정 및 학내문제에서 비롯되었던 것이 1929년부터는 일본인 교사 배척문제와 함께 식민지 교육정책과 식민지 통치방식에 저항하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맹휴 요인의 변화는 광주학생운동의 영향으로 학생들의 민족의식이 제고되었기 때문이었고, 이러한 학생들의 항일민족의식은 1929년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난 뒤에 적극적인 형태로 발전하여 1930년대로 이어져 비밀결사 운동이나 농촌 계몽운동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한편 예산공립농업학교 비밀결사는 독서회 활동, 에스페란토어 보급 활동, 동맹휴학 주도 활동, 친일연극 상연 반대투쟁 등을 주도하였다. 이는 학생이나 지역 대중들의 의식을 계몽하기 위한 활동과 조직원들의 사상·이론적 무장을 강화하여 현장 진출을 준비하는 활동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또한 농촌현장 진출을 위한 준비 활동으로서 주목되는 점은 독서회를 통한 사상·이론의 학습과 졸업한 선배와의 교류 활동 등이다. 면사무소, 금융조합 등 농촌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

었던 선배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현장 지식을 익힐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졸업 선배들과 연대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예산공립농업학교의 비밀결사는 식민지 노예교육에 대항한 민족적 색채를 확인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한국의 학생들은 식민지 노예교육을 철폐하기 위하여 투쟁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농민운동의 발전에도 기여했음을 예산공립농업학교의 비밀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학생운동의 민족운동사적 의미를 조명할 때, 민족운동의 주요 지도자들은 대부분 학생운동을 통하여 활동가로서의 자질을 함양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양상은 1930년을 전후한 시기에 중등교육의 기회가 확대되면서 두드러졌다. 이 시기에 이르면 학생들은 사회과학 연구 및 동맹휴학을 통해서 생산현장 진출을 위한 사상적·이론적 준비를 마친 뒤 졸업 후 현장에 진출하여 농민운동 등을 지도하였다. 예산공립농업학교 비밀결사 운동은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준 사건이다.

〈참고문헌〉

- 『대한매일신보』『황성신문』『매일신보』『동아일보』『조선일보』『중외일보』『기호홍학회월보』
국가보훈처,『독립유공자공훈록』9권, 1992.
국사편찬위원회,『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1989.
_____,『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199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독립운동사자료집』13, 1972.
_____,『독립운동사』9권, 1977.
예산 대홍공립보통학교『학적부』 및 『학교연혁지』
예산공립농업학교『학적부』
조선총독부 경무국,『朝鮮に於ける 同盟休校の考察』, 1929.

김호일,『한국근대 학생운동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예산농업전문대학,『예산농학 80년사(1910~1990)』, 1990.
정내수,『충남지역 항일학생운동 연구(1910~1930년대)』,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정세현,『항일학민족운동사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4.
_____,『항일 학생독립운동사연구』, 1975.

정내수,『항일대열의 선두에 선 학생들』,『삶이 있는 이야기 충남』, 2013.
지수걸,『충남 예산공립농업학교 학생비밀결사조직 사건에 대한 일고찰』,『창해박병국교수 정년기념사학논총』, 1994.

제9장

예산지역 신간회 운동

김남석 당진문화원 당나루향토문화연구소 소장





예산지역 신간회 운동



김남석



1. 신간회 예산지회 설립 배경
2. 신간회 예산지회의 설립과 주도 인물
3. 신간회 예산지회의 활동과 일제의 탄압
 - 1) 정기총회의 개최와 임원진 개편
 - 2) 일제의 탄압과 예산지회의 해소
4. 신간회 예산지회의 성격과 의의

1. 신간회 예산지회 설립 배경

신간회는 1927년 2월 15일 민족유일당운동을 염원하던 독립운동가들의 열망을 하나로 모으며 서울에서 설립되었다. 전국 각지의 독립운동가들은 신간회 창립을 크게 환영하였고, 지회 설립을 통해 신간회의 강령과 운동 방침을 계승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1931년 5월 해소될 때까지 만 4년 3개월간 120~150여 개의 신간회 지방 지회가 조직되었고, 회원 수도 2만~4만 명에 이르는 방대한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각 지회는 대부분의 군 단위에서 조직되었고 지역의 유지충, 민족운동가와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지역사회운동을 앞장서 이끌었다. 또한, 각 지역에서 개별적이고 은밀하게 전개되던 민족운동을 단일한 항일운동으로 조직화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신간회 지회는 예산군에서도 설립되었다. 예산지역은 일찍이 신간회 지회 설립의 기초적인 배경이 조성되어 있었다. 그것은 예산지역이 내포 지역 민족운동의 거점이라는 지역적 정체성에서 비롯되었다. 민족운동의 전통은 대한제국기 국권회복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가 홍주의병을 비롯한 항일 의병의 시작점으로 인식되었고, 충남 최초로 3.1운동을 일으키는 저력의 고장이라는 자부심이 작용하였다. 특히 예산 3.1운동은 1919년 3월 3일에 시작되어 예산 읍내와 신례원, 대홍면, 고덕면, 대술면, 신암면, 오가면, 신양면, 광시면, 덕산면, 삽교면 등 11개 면과 30여 개소에서 일어난 대규모 항일운동이었다. 이같이 예산지역은 척와양이의 성리학적 전통을 바탕으로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대항하는 항일 의식이 투철했던 고장이었다.

예산지회의 설립 배경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산은 예당평야(내포평야)라는 충남 제일의 광활한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예당평야는 신창, 예산, 홍주, 덕산, 당진, 아산 지역에 걸친 드넓은 평야를 지칭한다. 면적은 20세기 초 약 2만 8백 정보(1정보는 약 3,000평)에 달했다. 그 가운데 예산천(무한천) 부근의 평야는 약 6,670정보, 금마천(삽교천) 부근은 약 1만 1,127정보에 이르렀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막대한 쌀은 전국 각지로 보급되었고, 1883년 인천항이 개항되면서 일본 상인에 의해 일본으로 반출되었다.

선장 포구와 구만 포구는 쌀 유출의 거점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농업에 종사한 주민의 생활상은 상대적으로 피폐하였다. 농민의 절반 이상이 소작민이었으며, 자작 겸 소작민을 더하면 예산군 농민의 90%가 극빈 농민에 해당되었다. 예산지역 농민의 양극화된 경제환경은 민족주의 사상과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을

가속화 하였고, 소작쟁의를 비롯한 농민운동의 원동력이 되었다.

충남에 신간회 지회가 설치된 것은 1927년 8월 25일 설립된 홍성지회가 시초였다. 그후 9월 27일 공주지회, 11월 14일 예산지회, 12월 6일 당진지회가 설립되는 등 충남지역에는 모두 7곳에 신간회 지회가 설치되었다. 설립 시도가 있었던 대전과 강경, 논산을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10곳에서 신간회 지회 설립 움직임이 있었다. 예산지회는 충남에서도 비교적 일찍 설립한 지회에 속하였고, 내포 지역에서도 타 군에 비하여 빠르게 설립된 지회였다. 그것은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예산지역의 민족적 특성과 함께 경제적인 배경이 어우러져 만들어 낸 결과물이라 하겠다.

2. 신간회 예산지회의 설립과 주도 인물

신간회 예산지회의 설립 운동은 1927년 11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서울에서 신간회가 결성된 지 10개월 만이다. 예산지역의 인사들은 ‘신간회 지지’를 기치로 내걸고 예산지회의 결성을 추진하였다. 당시 모습을 신간회의 자매신문인 《조선일보》 1927년 11월 7일자에서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 예산지회 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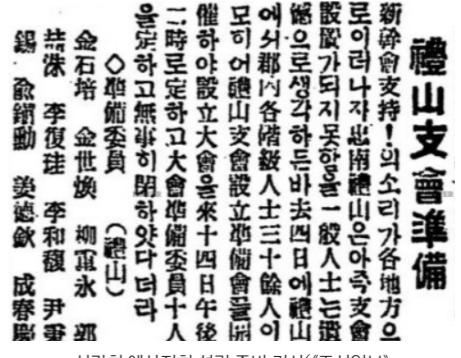
‘신간회(新幹會) 지지(支持) !’의 소리가 각 지방으로 일어나자 충남 예산은 아직 지회 설치가 되지 못함을 일반 인사는 유감으로 생각하던바 지난 4

일에 예산에서 군내 각 계급 인사
30여 인이 모여 예산지회 설립 준
비회를 개최하여 설립대회를 오는
14일 오후 2시로 정하고 대회 준비
위원 10인을 정하고 무사히 폐회하
였다더라.

◇ 준비위원 김석배(金石培), 김세

환(金世煥), 유중영(柳重永), 곽철수(郭喆洙), 이복규(李復珪), 이창복(李昶馥), 문병석(文秉錫), 유진훈(俞鎮勳), 강덕흡(姜德欽), 성춘경(成春慶)

1927년 11월 4일에 개최된 설립 준비 회에는 원래 예산의 민족운동가 39명이 참석하였다. 신간회 지회는 30명 이상 모집되면 본부에 지회 설립 신청을 할 수 있고, 승인되면 설립대회 날짜를 정하여 경찰에 집회 허가를 받아야 했다. 예산 지회 준비위원들은 설립대회까지 모두 69명의 회원을 충원하였다. 인원 점검을 마친 준비회에서는 회칙에 의하여 준비위원 10명을 선출하였다. 10명의 준비위원은 당시 예산지역 민족운동의 대표자들이었다.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준비위원 중에는 예산청년회에서 활동하는 인물이 다수 참여하였다. 성춘경과 김세환이 대표적이다. 성춘경은 예산청년회에서 핵심적인 인물로 활약하였는데, 1927년 11월 김세환과 함께 예산청년회의 부활과 혁신 운동을 전개한 바 있었다. 원래 예산청년회는 당시 사조에 따라 1921년경 창설되어 지방 발전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였으나 모호한 상태로 유지되다가 결국 간판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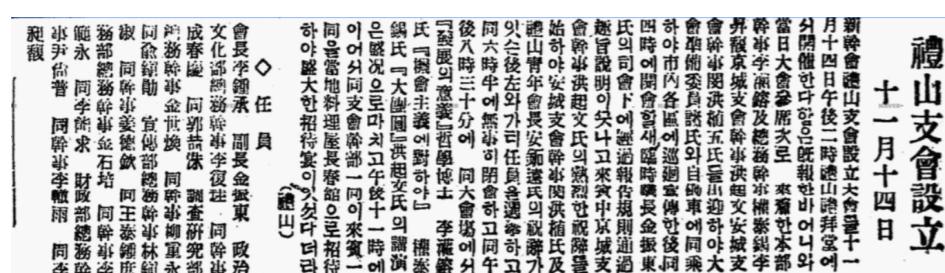
신간회 예산지회 설립 준비 기사(《조선일보》)

1927년 11월 7일)

내렸다고 한다. 이에 예산의 운동가들은 청년회의 부활을 도모하였고, 예산 미감리회 예배당에서 청년회의 혁신총회를 열고 부흥 운동을 전개한 것이다. 그리고 준비위원이었던 김석배와 유중영(柳重永)은 동아일보 예산지국의 기자와 지국장을 지낸 언론인들이었다. 이들은 신간회 설립과 아울러 청년회 활동을 동아일보에 상세히 기사화하고 있었다.

준비위원들의 종교적 색깔을 살펴볼 때, 유학과 더불어 기독교와 천도교 신자들을 아우르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기독교는 성춘경으로 대표되고 천도교는 문병석으로 연결되었으며, 다른 인사들은 유학으로 가를 수 있겠다. 결국, 예산지회의 준비위원들은 당대 예산지역의 가장 앞서나가는 지식인이면서 운동가였고, 종교인들이면서 경제적으로도 유력한 위치에 속한 유지들이었다. 예산지회 준비위원들은 지회의 설립대회를 1927년 11월 14일로, 설립 장소는 예산교회 예배당으로 정하면서 설립에 박차를 가했다.

신간회 예산지회 설립대회는 1927년 11월 14일 오후 2시에 개최되었다. 예산 예배당에 집결한 회원은 70여 명에 이르렀고, 대회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당시의 모습을 《조선일보》 1927년 11월 17일 자에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신간회 예산지회 설립기사(《조선일보》 1927년 11월 17일)

- 예산지회 설립, 11월 14일-

신간회 예산지회 설립대회를 11월 14일 오후 2시 예산 예배당에서 개최한다고 함은 기보한 바거니와 당일 대회 참석차로 내착한 본부 간사 이관용(李灌鎔) 및 총무간사 권태석(權泰錫), 이승복(李昇復), 경성지회 간사 홍기문(洪起文), 안성지회 간사 민홍식(閔洪植) 5씨를 출영하여 대회 준비위원 제씨와 자동차에 동승하여 시내 각 구에 순회 선전한 후 동 4시에 폐회할 새 임시의장 김진동(金振東)씨의 사회하에 경과보고, 규칙 통과, 취지설명이 끝나고 내빈 중 경성지회 간사 홍기문씨의 열렬한 축사를 시작으로 안성지회 간사 민홍식씨 및 예산청년회장 안명원(安銘遠)씨의 축사가 있고 난 뒤 아래와 같이 임원을 선거하고 동 6시 반에 무사히 폐회하고 동 오후 8시 30분에 동 대회장에서 「발전의 의의」 철학박사 이관용씨, 「기회주의에 대하여」 권태석씨, 「대단원」 홍기문씨의 강연을 성황으로 마치고 오후 11시에 이어서 동지회 간부 일동이 내빈 일동을 당지 요리옥 장춘관(長春館)으로 초대하여 성대한 초대연이 있었다더라.

◇임원

회장 : 이종승(李鍾承)

부회장 : 김진동(金振東)

정치문화부 총무간사 : 이복규(李復圭), 동간사 : 성춘경(成春慶), 동 과철수(郭喆洙)

조사연구부 총무간사 : 김세환(金世煥), 동간사 : 유중영(柳重永), 동 유진훈

(俞鎮勳)

선전부 총무간사 : 임진숙(林鎮淑), 동간사 : 강덕흡(姜德欽), 동 왕태종(王泰鍾)

서무부 총무간사 : 김석배(金石培), 동간사 : 이범영(李範永), 동 이능구(李能求)

재정부 총무간사 : 윤상보(尹尙普), 동간사 : 이철우(李轍雨), 동 이창복(李昶復)(한글병기-편집자)

위 내용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중앙회의 후원 인사가 5명이나 예산지회에 참석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서산지회의 설립일인 1928년 4월 22일에 최익환(崔益煥) 1명이 파견되었고, 1927년 12월 6일에 설립된 당진지회에 이관구(李寬求)와 이종린(李鍾麟) 2명이 파견되었으며, 1927년 8월 25일 홍성지회의 설립일에 본부 대표인 박동완(朴東完)과 경성지회 대표인 이관구 2명이 파견된 것과 비교될 정도로 다수의 인사가 중앙에서 파견되었다. 이들 5명의 면면은 신간회의 대표 인물로 부족함이 없었는데, 예산지회 설립에 대한 신간회 중앙조직의 기대가 매우 컸음을 방증하는 것이었다.

예산에 파견된 신간회 본부 간사 이관용(李灌鎔)은 이른바 ‘정미 7적’의 한 명인 이재곤(李載崑)의 4남이나,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파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독립운동가였다. 귀국 후에는 연희전문학교 교수와 동아일보 기자를 겸했다. 그리고 조선일보 편집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신간회 설립발기인과 간사로 활동하였다. 본부의 총무간사 권태석(權泰錫)은 경상북도 김천 출신으로

1919년 5월 대동단에서 주도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옥고를 치른 인물이다. 그는 출옥 후 서울청년회에 참가하여 사회주의 운동에 투신하였고, 조선민홍회 발기에 가담하였으며 신간회 창립대회 직후 서무부 총무간사에 선임되었다. 그 외 경성지회 간사 홍기문(洪起文)은 홍명희(洪命熹)의 장남으로 부친과 함께 신간회 설립에 참여한 인물이었다. 안성지회 간사인 민홍식(閔洪植)은 야학교사 이면서 중외일보 안성지국의 지국장으로 활동하였는데, 당시 안성제일교회 집사로 기독교인이었다. 민홍식은 특히 교회의 목사였던 박용희가 신간회 안성지회 회장으로 활동한 데 힘입어 신간회 활동에 매진하였다.

중앙에서 파견된 인물 가운데 예산지역과 연고가 있는 인사는 이승복이었다. 이승복(李昇馥, 1895~1978)은 1907년 온양 평촌 냇가에서 아버지 이남규(李南珪, 1855~1907)와 함께 일본군에 피살당한 이충구(李忠求, 1874~1907)의 아들이었다. 조부와 부친의 유업을 계승하여 노령과 북만주 지역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하였고, 귀국하여 임시정부의 국내 연통제 조직과 군자금 모금에 힘썼으며, 김상옥 의거에 연루되어 고초를 겪었다. 그는 신간회 결성에 발기인으로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설립 후에는 선전부 간사 등으로 지속해서 활동하였다.

이승복이 예산으로 귀향하여 예산지회의 설립을 지원하자, 예산군 대술면에 거주하던 한산이씨 문중 인사도 다수 예산지회에 참가하였다. 이능구(李能求), 이범구(李範求), 이종구(李宗求), 이창복(李昶復)이 그들이다. 이 가운데 이창복은 휘문고등학교와 일본 와세다(早稻田) 대학 정치경제과를 졸업하였는데, 대륙 물산주식회사 지배인 대리와 조선통운주식회사 지배인을 지냈고 해방 후에는 강원도 관재국장을 지낸 인물이다. 당시 이들은 3대에 걸쳐 독립투쟁에 헌신한

대술면 이남규 가문의 위업을 잊지 않고 있었다.

중앙에서 파견된 5명의 인사는 예산지회가 설립을 마친 저녁 8시 30분경 청중을 향해 강연함으로써 설립대회의 분위기를 돋웠는데, 이관용은 「발전의 의의」, 권태석은 「기회주의에 대하여」, 흥기문은 「대단원」이라는 주제로 열변을 토하였다.

한편, 예산지회는 설립대회에서 집행 체제를 회장과 부회장제로 하고, 그 아래에 정치문화부, 조사연구부, 선전부, 서무부, 재정부 등 5개 부서를 두었다. 이것은 신간회 본부의 조직을 참작한 것이다. 본부에는 정치문화부, 조사연구부, 조직부, 선전부, 서무부, 재정(회계)부, 출판부 등 7개 부서가 있었다. 예산지회는 이 중에서 조직부와 출판부를 제외한 것이다. 인근에 있는 당진지회가 조직부와 선전부를 통합하여 조직선전부를 설치하였는데 예산지회에서는 선전부만 두었다. 예산이라는 지역적 성향과 활동영역을 고려하여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예산지회는 각 부서에 총무간사 1명과 2명의 간사를 배치하였다. 다른 지역의 지회에서는 상무간사를 특별히 설치하여 지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보도록 하고 대표회원 혹은 대의원을 두어 지회를 대표하여 중앙회의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나, 예산지회의 경우 회장과 부회장이 전반적인 회의 사무를 감독하며 2명의 대의원을 선임하여 중앙회의에 참여하도록 조치하였다. 전체적으로 예산지회의 구성원은 회장과 부회장을 구심점으로 일원적으로 편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지회의 조직과 구성도 매우 간명하게 처리한 것으로 이해된다. 대의원은 김진동과 성춘경이었다.

예산지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임시의장으로 김진동을 선출하였다. 이에 김진동은 사회를 통해 예산지회의 설립 경과보고, 규칙 통과, 설립 취지를 설명하였다.

뒤이어 회원들은 초대 회장으로 이종승(李鍾承)을 선출하고, 부회장에는 임시의장을 맡아보았던 김진동을 선출하였다. 아울러 정치문화부 총무간사에 이복규(李復珪), 조사연구부 총무간사에 김세환, 선전부 총무간사에 임진숙(林鎮淑), 서무부 총무간사에 김석배(金石培), 재정부 총무간사에 윤상보(尹尙普)를 선출하였다. 동시에 각 부서의 총무간사에는 간사 2명을 선출하여 배정하였다.

회장이 된 이종승은 전의 이씨로 예산에서 사업가로 활동하던 이종덕(李鍾惠)의 동생이다. 이종덕은 원래 당진에 100정보 이상의 토지를 보유한 지주 출신이었다. 그는 1920년 충남상업주식회사에 감사로 참가하였고, 1928년 충남전기회사 전무, 1931년 예산 영조주식회사 사장, 1933년 충남 제사주식회사 감사 등으로 활동하였다. 1931년에는 예산 면장을 지냈으며 중추원 참의를 거쳐 1941년 조선임전보국단 평의원이 되었는데 해방 후에도 막대한 양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예산지회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예산청년회 활동을 전개한 이종대(李鍾大)도 같은 집안 출신이다. 이종대는 1922년경 동아일보 예산지국장을 지냈고, 의사 자격시험을 거쳐 1927년 예산에서 순천의원을 개업한 후 1931년에는 면협의회원을 맡았다. 당시 이종승은 일본 메이지(明治)대학을 졸업하고 귀향해 있다가 형과 함께 예산청년회에 참가하였고 신간회 예산지회 회장에 선임된 것이다. 그는 형인 이종덕의 경제적 후광과 자신의 학력을 바탕으로 예산지회의 대표에 선출된 것으로 보인다.

부회장으로 선출된 김진동은 1926년 1월 동아일보 예산지국이 예산 읍내에 설치될 때 초대 지국장에 임명된 인물이었다. 그는 1928년 지국장을 사임하고 기자로 활동하는데, 지국장을 하는 도중에 예산지회 부회장에 선임되었다. 그는

예산지회가 결성된 직후인 1927년 11월 이종승과 함께 예산청년회 강연회에 참여하여 「우리의 철학」이라는 주제로 열변을 토하였다고 한다. 그는 예산지역의 대표 언론인으로 신간회 운동과 더불어 청년운동에도 깊이 참여하였다.

예산지회 설립 당시의 신임 임원진은 대부분 1927년 11월 4일에 개최된 설립 준비회의 준비위원 가운데 선임되었다. 특별한 점은 설립준비위원 10명 가운데 문병석을 제외한 9명이 설립 임원진에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예산지회 설립 당시의 회원이 모두 69명에 이르렀기에 준비위원 이외의 인사를 임원으로 선출한 것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문병석 한 명만을 설립시 임원진에서 제외한 것은 다소 의문을 일으키게 한다. 그가 바로 내포 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산 중인이고 후에 예산지역 천도교의 대표 인물로 활동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1927년 12월 8일 예산지회 제1회 정기총회 임원개선에서 문병석이 정치문화부 간사에 복귀함으로써 해소되었다.

문병석은 문장로(文章魯)의 아들이었다. 문장로는 1893년 2월 동학에 입도하여 자신의 출신지인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의 접주가 된 인물이다. 그는 1894년 10월 태안에서 동학농민혁명의 기치를 올렸고, 서산을 거쳐 홍주성 전투에 참여하였다. 하지만 그는 홍주성에서 패퇴하면서 가족을 이끌고 피신하였다. 문병석은 이러한 부친을 모시고 1910년경 예산군 신암면 탄중리에 들어왔다. 그리고 무한천 변 갈대밭으로 이주하여 불모지를 개간하면서 천도교를 전파하였다. 문장로도 아들과 함께 예산에서 천도교의 포덕과 독립사상을 전파하다가 1919년에 작고하였다.

한편, 문병석은 1919년 4월 3일 300여 명의 군중을 이끌고 신례원 시장 만세

운동을 주도하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는 예산지역 천도교를 확장했는데, 1930년 6월 예산천도교 종리원에서 천도교 예산청년동맹을 설립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1936년 3월부터 6월까지 조선중앙일보 예산지국장에 임명되었다. 그 후에도 예산종리원 종리사와 예산교구장(1940~1943)을 지내면서 예산지역 천도교의 핵심 인물이 되었다.

6.25한국전쟁 직전인 1950년, 무한천 변에 살던 문병석은 홍수로 피해를 보자 안전지대인 예산군 오가면 오촌리로 이사하였다. 그 후 문병석의 아들인 문원덕(文源德)이 태안으로 거처를 옮겼고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그 결과, 태안 동학혁명기념사업회가 결성되었고 이들에 의하여 내포 동학 농민군의 명예도 크게 회복되었다.

3. 신간회 예산지회의 활동과 일제의 탄압

1) 정기총회의 개최와 임원진 개편

신간회 예산지회는 설립된 지 불과 한 달도 안 된 1927년 12월 8일(또는 9일), 제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곳에서 예산지회는 임원진을 새롭게 선출하고 서울의 중앙회에 파견할 대의원을 선출하였다. 아울러 예산지회의 회관 문제와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보도한 《조선일보》 1927년 12월 21일 자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예산지회 정기대회 -

충남 예산 신간지회에서는 9일 오후 2시(《동아일보》1927년 12월 13일) 자에는 '8일 오후 1시'로 기록되어 있다: 필자 주)부터 본 회관 내에서 회원 71인 중 26인의 집합으로 제1회 정기대회를 개최하고 회장 이종승(김진동)의 오기: 필자 주)씨와 서기 이범구(李範求)씨가 상피주(上被週)되어 회의록 낭독과 경과보고가 끝난 후 일반 회원의 다대한 의연금이 수합되었고 토의사항에 들어가 중요 안만 결의하고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간사회에 일임키로 하여 시간 관계로 동 오후 6시에 폐회한바 개선된 임원과 본부대회에 출석할 대의원급 토의사항은 다음과 같더라.

◇ 임원

회장 김진동(金振東) 부회장 윤상보(尹尙普)

서무부 이창복(李昶復) 이범구(李範求) 유진원(俞鎮勳)

재무부 성춘경(成春慶) 이종구(李宗求) 이철우(李轍雨)

정치문화부 김병현(金炳憲) 이능구(李能求) 문병석(文秉錫)

조사연구부 김세환(金世煥) 임진숙(林鎮淑) 유중영(柳重永)

조직선전부 이종승(李鍾承) 강덕흠(姜德欽) 황석환(黃錫煥)

◇ 대의원

김진동 성춘경

◇ 토의사항

1, 회관 문제에 관한 건

1, 유지 방침에 관한 건

1, 회원 증모에 관한 건

제1회 정기총회에서는 부회장이었던 김진동이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동아일보》 예산지국 기자였다. 그리고 설립 당시에 회장이었던 이종승은 간사로 내려왔다. 새롭게 부회장에 선출된 윤상보는 설립대회에서 재정부 총무간사로 활동한 인사였다. 설립대회의 임원진과 제1회 정기총회의 임원진은 거의 같았다. 설립대회에서 임원진에 속했으나, 제1차 정기총회의 임원진에서 제외된 인사는 곽철수, 김석배, 왕태종, 이복규 등 4명인데, 이중 김석배는 동아일보 예산지국의 기자였다.

설립대회에는 빠졌으나 정기총회에서 임원진에 포함된 인물은 김병현, 문병석, 이종구 등 3명이다. 예산천도교 교구장이었던 문병석이 정기총회의 임원진에 복귀한 것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목할 만한 점이고, 이종구(李宗求)는 이능구·이범구와 더불어 한산이씨 인물이었다. 아울러 김병현(金炳憲)은 예산군 오가면에 거주하던 유지였다. 그는 정기총회에서 정치문화부 간사로 선임되었는데, 1927년 11월 1일 오가면에 자구청년회를 설립하여 농촌 계몽운동을 전개한 인물이었다. 그는 1938년 5월 예산농업학교가 교실 부족으로 의연금을 모금할 때 총경비 4만 원 중 1만 원을 부담하는 선행을 하였는데, 이 사실이 《동아일보》 1938년 5월 21일 자에 소개된 바 있었다. 그는 오가면을 넘어 예산군의 대표적인 유지이자 재력가였다.

예산지회 임원진에는 청년운동을 전개한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이중 김세환은 줄곧 조사연구부 총무간사를 역임하였는데 원래 예산청년회에서 활동하

던 인물이었다. 예산청년회는 1921년 10월 성관영(成觀永), 이종덕, 이능구 등에 의하여 설립된 바 있었다. 이때 예산청년회는 예산감리교회 담임 목사인 한태유(韓泰裕)를 회장으로 선임하였다. 성관영은 예산에서 곡물상과 정미소를 경영하고 있었고, 이종덕은 100정보 이상 소유한 예산의 지주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예산청년회는 교회 지도자, 지주, 자본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단체로 개량주의적 성격을 지난 유지 단체이다. 하지만 예산청년회는 1923년 이후 활동이 미미하였고 유명무실한 단체로 전락하였다가 다시 부활 운동을 전개한 것은 1927년 11월 7일이었다. 신간회 예산지회가 결성되기 7일 전이다. 예산청년회는 11월 11일 교회 예배당에서 혁신총회를 개최하였다. 이곳에 참여한 인사는 대부분 신간회 예산지회의 인물들이었다.

1927년 11월 26일 예산교회 예배당에서 열린 예산청년회 강연회에서는 신간회 지회 창립회장인 이종승이 청년회 혁신 책에 대한 강연을 통해 “우리는 종래의 무의무신(無義無信)한 악습을 타파하는 동시에 보일보(步一步)의 분투, 총일층(層一層)의 노력으로 현 사회의 선구자가 되며 우리 근역(權域)의 모범 청년회가 되자”라고 주장하였다. 이때 신간회 지회 창립 부회장이며 정기대회에서 회장에 선임된 김진동은 「우리의 철학」이라는 연제로 강연한 바 있었다. 아울러 예산청년회의 신임 간사로 선출된 이종승, 김세환, 김진동, 성춘경, 유중영, 유진조 가운데 유진조를 제외한 5명이 신간회 지회의 임원들이었다. 이처럼 신간회 예산지회는 예산청년회와 혼합되어 활동하고 있었다. 예산지회의 임원진에는 동아일보 지국장이나 기자로 활동하던 언론인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김석배와 김진동, 유중영이 동아일보 지국장과 지국 기자 활동

을 하였고, 성낙훈과 홍병철도 동아일보 기자를 역임하였다. 그중에서 유중영은 예산지회 설립대회에서 조사연구부 간사를 역임하였는데, 1929년 3월부터 1939년 10월까지 동아일보 예산지국에서 기자와 총무, 지국장을 번갈아 가면서 맡아보았다. 특히, 그는 1930년 8월 1일부터 양일간 호서기자동맹 북구지부 창립대회를 예산 읍내 예배당에서 개최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곳에서는 ‘언론의 권위를 신장시키자’,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를 획득하자’라는 표어를 내걸고 토의하였으나 경찰의 제지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1931년 4월에는 예산 시민대회를 예산교회 예배당에서 개최하였는데, 이 대회는 예산전기회사의 잣은 고장과 정전, 전력 부족과 전기료 인하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신간회 예산지회에 관련하여 활동한 인물들의 명단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를 보면 예산지회 주도 인물들이 예산청년회 회원과 중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간회 예산지회 임원진 현황〉

성명	설립 준비위원	설립대회	정기대회	종교	언론	청년운동	기타
강덕흠(姜德欽)	준비위원	선전간사	정치문화간사				
곽철수(郭喆洙)	준비위원	정치문화간사					
김병현(金炳憲)		정치문화간사			자구청년회		
김석배(金石培)	준비위원	서무총무간사		동아기자		농인자구회	
김세환(金世煥)	준비위원	조사연구 총무간사	정치문화간사		예산청년회		
김진동(金振東)		부회장	회장, 대의원	기독교	동아 지국장	예산청년회	농인자구회
문병석(文秉錫)	준비위원		정치문화간사	천도교			
박병우(朴炳愚)					동아 지국장	임시총회 준비검거	
성낙훈(成樂勳)					동아기자	덕봉청년회	임시총회 준비검거
성춘경(成春慶)	준비위원	정치문화간사	재무간사, 대의원	기독교		예산청년회	

성명	설립 준비위원	설립대회	정기대회	종교	언론	청년운동	기타
왕태종(王泰鍾)		선전간사					
유중영(柳重永)	준비위원	조사연구간사	정치문화간사	동아 지국장	예산청년회	금오청년동맹	
유진훈(俞鎮勸)	준비위원	조사연구간사	서무간사				
윤상보(尹尙普)		재정총무간사	부회장				
이능구(李能求)		서무간사	정치문화간사		예산청년회		
이범구(李範求)		서무간사	서무간사				
이복규(李復珪)	준비위원	정치문화 총무간사					
이종구(李宗求)			재무간사				
이종승(李鍾承)		회장	정치문화간사		예산청년회		
이창복(李昶馥)	준비위원	재정간사	서무간사				
이철우(李轍雨)		재정간사	재무간사				
임진숙(林鎮淑)		선전총무간사	정치문화간사	기독교	기독청년회		
홍병철(洪炳哲)				동아기자	덕봉청년회	임시총회 준비검거	
황석환(黃錫煥)			조직선전간사				

신간회 예산지회는 1927년 12월 9일 제1회 정기대회를 종료한 뒤 각종 신문 기사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예산지회가 다시 나타난 것은 《동아일보》 1929년 1월 13일 자 기사에 의해서이다. 신문사에서 예산지역의 각 사회단체 현황을 보도하면서인데 해당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예산군- <사회단체>

▲ 금오청년회, 창립 소화 3년(1928) 3월 31일, 창립시회원 35, 현재회원 54, 회장 김석배(金石培)

▲ 형평사예산지부, 창립 대정 12년(1923) 6월 21일, 창립시회원 34, 현재회

원 34, 지부장 신희안(申喜安)

- ▲ 덕풍청년회, 창립 대정 15년(1926) 12월 1일, 창립시회원 40, 현재회원 40, 회장 이정복(李庭馥)
- ▲ 대천수양청년회, 창립 소화 3년(1928) 12월 11일, 창립시회원 27, 현재회원 27, 회장 배형수(裴亨洙)
- ▲ 강습소연합교육연구회, 창립 소화 2년(1927) 10월 1일, 창립시회원 8, 현재회원 17, 회장 이정하(李正夏)
- ▲ 응봉학우친목회, 창립 대정 9년(1920) 10월 1일, 창립시회원 51, 현재회원 82, 회장 조병시(趙昺始)
- ▲ 자구청년회, 창립 소화 2년(1927) 11월 1일, 창립시회원 30, 현재회원 63, 회장 김병현(金炳憲)
- ▲ 신간회예산지부, 창립 소화 2년(1927) 11월 14일, 창립시회원 69, 현재회원 77, 회장 김진동(金振東)

위 기사에 의하면, 신간회 예산지회는 적어도 1929년 1월까지 존재하였다. 김진동은 여전히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었다. 예산지회에서 정치문화부 간사로 활동하던 김병현은 예산군 오가면에서 자구청년회를 운영하며 농촌계몽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고, 김석배는 금오청년회를 이끌고 있었다. 금오청년회는 금오청년동맹으로 발전되었고 이곳에는 김진동과 유진훈도 창립 준비위원으로 참여하였다. 하지만, 금오청년동맹의 창립은 경찰의 억압으로 끝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위 신문기사에서 특별한 점은 예산지회의 대표자가 회장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회장과 부회장이 주도하는 조직은 1929년 6월 중앙 신간회의 복대표대회가 종료되면서 개편되었다. 신간회는 매년 2월 각 지회의 회원 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표위원들이 모여 정기대회를 개최하였고, 이곳에서 중요 사안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하지만, 1928년과 1929년의 정기대회가 일제에 의하여 금지당하자 신간회는 지역적으로 인접한 몇 개의 지회를 복대표(複代表) 1인으로 합동하여 정기대회를 대신하는 복대표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에 따라 신간회는 전국을 14개 구역으로 나누고 회원 수에 비례하여 다시 각 구역을 소 구역으로 나누었는데 충남에서는 홍성의 김연진(金淵鎮, 김좌진의 6촌 동생, 홍성지회 간사)이 복대표로 선정된 바 있었다.

복대표회의에서 신간회는 회장 중심제에서 벗어나 집행위원회 체제로 개편하기로 하였다. 그것은 사회주의 운동가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였다. 사회주의 운동가들은 하부 구조의 투쟁적 실천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래로부터의 조직’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지회의 규약은 새롭게 개편되었고 회장과 부회장 체제는 종료되었으며 집행위원장, 서기장, 회계, 부서장과 부원으로 재구성되었다. 예산지회의 회장과 부회장 체제는 1927년 11월 14일 예산지회가 설립되었을 때부터 1929년 1월까지는 잘 지켜졌다. 이때는 중앙 신간회의 복대표대회가 개최되기 이전이었다. 하지만, 이후의 예산지회 지도체제는 확인되지 않는다.

2) 일제의 탄압과 예산지회의 해소

몇 달 동안 소식이 없던 예산지회의 움직임이 신문기사로 다시 등장한 것은

1929년 8월이었다. 예산지회가 신문 지상에 모습을 나타낸 마지막 장면이다. 당시의 상황을 소개한 『동아일보』 1929년 8월 14일 자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간지회 금지, 준비위원 검거, 일반 경찰의 태도를 비난-

충남 예산 박병우(朴炳愚), 홍병철(洪炳哲), 성낙훈(成樂薰) 등 3씨를 11일 밤에 동지 경찰서에서 돌연 검속하였다는 바 그 이유를 들으면 전기 3씨가 신간지회를 창립(창립대회가 아닌 임시대회로 판단됨 : 필자 주) 하라고 만반의 준비하던 가운데 동지 경찰서에서는 동지 지회 창립을 금지함으로 전조선 각지에서 창립하는 신간지회를 하필 예산에서만 금지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항거를 하고 계속하여 창립 준비를 한 까닭이라는 바 일반은 경찰에서 취하는 태도를 비난하다더라.

- 김병로(金炳魯)씨 특파 -

예산 신간지회 임시대회
준비사건으로 박병우(朴炳
愚)씨와 2인이 검속된 사
건 교섭과 14일 임시대회
에 출석기 위하여 신간 본
부에서는 중앙상무위원 김
병로(金炳魯)씨가 13일 아
침 차로 출발하였다더라.



예산지회 글지 기사(《동아일보》 1929년 8월 14일)

위 신문기사는 예산지회 임시대회 개최가 경찰의 억압에 따라 금지되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임시대회를 창립대회로 잘못 기록한 것은 예산지회가 오랜 기간 개최되지 못하다가 새롭게 열림을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위 신문기사에 등장하는 3명의 준비위원, 즉 박병우(朴炳愚), 홍병철(洪炳哲), 성낙훈에 특이한 점이 있다. 이들은 당시 예산에 거주하고 있었겠지만, 원래 신간회 당진지회에서 활약하던 운동가들이었기 때문이다.

박병우는 당진군 합덕면(현, 당진시 합덕읍) 출신의 사회운동가였다. 그는 1925년 합덕면 합덕리에서 합덕구락부를 창립하였고, 1926년 '우리 상회'라고 명명한 합덕소비조합을 동아일보 합덕 지국에서 발기하였다. 그는 신간회 당진지회와 당진청년동맹에도 핵심 인물로 활동하였는데 1928년 당진청년동맹을 창설하였고, 1929년 1월에는 신간회 당진지회 설립 임원으로 참여하였다. 몇 달 뒤인 1929년 6월 박병우는 예산으로 이동하여 동아일보 예산지국장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예산지회의 임시대회 개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검거되었다. 하지만 1931년 1월 신간회 당진지회가 해소될 때에는 당진으로 돌아와 당진지회 집행위원을 맡았다.

성낙훈도 당진의 사회주의 운동가였다. 그는 1924년 당진소작조합 창립 시에 핵심 인물로 참여하였고, 1925년 충남 청년대회에서 준비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26년에는 범천(우강)청년 창립총회를 개최할 때 임시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한 바도 있었다. 이러한 활동 내용을 고려하면, 그의 거주지는 원래 당진군 우강면이었으며 추후 예산으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된다.

홍병철은 원래 천안군 입장면 도하리(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도하리) 출신

으로, 당진군 합덕면 대합덕리 240번지에 이사하여 거주하였다. 그리고 합덕면 합덕리에 있던 천주교회 부설의 매교학교를 졸업하였으며, 1919년 3월 합덕 독립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고 전한다. 그는 1925년 합덕면 삼호리에서 삼호야학회를 조직하여 어린이 교육에 힘썼고, 1927년 12월부터 신간회 당진지회와 합덕청년회, 당진청년동맹에서 활동하였다. 그는 신간회 활동 중에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공주형무소에서 복역하였으나 출옥 후에도 동아일보 기자로 근무하면서 사회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때 그의 가족은 합덕을 떠나 인근에 있는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로 이주하였다. 그 후 홍병철도 가족을 따라 활동 영역을 예산으로 넓혀나간 것으로 보인다. 1929년 6월 홍병철은 동아일보 예산지국의 총무 겸 기자로 취임하였고 예산지회 임시대회 개최를 위해 활동을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1929년 8월 이후의 예산지회 활동은 당진 출신의 사회주의 운동가들에 의하여 주도되었고, 일제 경찰의 억압으로 그 활동은 제지당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체포와 함께 예산지회의 활동도 신문기사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예산지회의 쇠퇴와 소



신간회 예산지회 설립 장소(예산교회 터, 예산읍 예산리 441-5/
예산군 예산로 202번길 8)

멸, 그리고 끝자락에 나타난 합덕 사람들, 지리적으로 당진군 합덕면은 당진 읍내보다 예산 읍내에 더 가까웠기에 각종 활동을 예산에서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원인은 다양하게 추론해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정치는 홍성, 경제는 예산’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일제강점기 예산 읍내는 내포에서 가장 활성화된 상공업 경제 중심지였다는 점일 것이다. 또한, 예산에는 공립농업학교가 있었다. 1922년 공주에서 이전해 온 예산공립농업학교는 전국적인 인지도를 바탕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하고 있었다. 합덕의 사회운동가들은 농업에 머물러있는 정체된 당진지역보다 교육과 상공업으로 활성화된 예산 읍내를 사회운동의 최적지로 판단하고 이주하였다 것이다.

예산지회 조직과 활동에서 반드시 추가해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예산지회의 회의 장소이다. 그 장소는 미감리회 예산교회(현, 예산제일감리교회) 예배당이었다. 이는 서산지회와 당진지회가 해당 지역 천도교 종리원에서 각종 행사를 치른 것과 비교하면 색다른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서산지회의 천도교 종리원은 지금도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그 자리에 남아있다. 그러나 예산지역에서만큼은 천도교보다 기독교가 강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예산 감리교회 한태우, 최성모(崔聖模) 목사와 예산 유지 성춘경의 역할이 컸던 때문으로 여겨진다.

한태우는 1920년 예산감리교회에 목사로 부임하여 1926년까지 담임하였다. 그는 예산지역 민족운동의 지도자였다. 1921년 예산청년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200여 명의 회원을 이끌었고, 1923년 8월에는 예산지역 민립대학 설립 운동의 임시의장으로 활동하였다. 한태우의 활동은 최성모로 계승되었는데, 최성모는

독립 만세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의 1인이었다. 그는 1929년 예산감리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1930년까지 사역(使役)하였다. 그의 만세운동 전력과 옥고 사실은 예산지역 민족운동에 보이지 않는 힘이 되었다.

한편, 성춘경은 예산 읍내의 가장 유력한 유지 중의 한 명이었다. 그는 원래 예산 경제를 주도하였던 창녕성씨 인물이었다. 종중의 대표 인물은 성조영(成祚永, 1840~1890)이다. 그는 슬하에 성낙규(成樂奎, 1873~1933), 성낙순(成樂舜, 1880~1918), 성낙현(成樂憲, 1883~1944) 등 세 아들을 두었다. 다시 성낙규는 성원경(成元慶), 성옥경(成頊慶), 성하경(成夏慶) 등 세 아들을 두었고, 성낙순은 성춘경, 성낙현은 성의경(成義慶), 성세경(成世慶), 성유경(成有慶), 성만경(成萬慶), 성오경(成五慶), 성시경(成始慶) 등 6명의 아들을 두었다. 이 중 성낙현은 1908년 기호홍학회가 창립되자 회원으로 활동한 애국계몽운동가였고, 가문의 경제력을 발판으로 1911년 자본금 10만 원으로 충남물산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며 1913년에는 이를 호서은행으로 발전시켰다.

성춘경은 아버지가 일찍 사망하였으나, 백부인 성낙규와 숙부인 성낙현의 후광 아래 예산 유지로 활동하였다. 특히 성춘경은 조부와 부친의 재력을 계승하여 호서은행과 충남상업주식회사에 일정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예산에 대동정미소를 운영할 정도로 부유층이었다. 특별한 점은 어머니가 예산감리교회 신자였다는 사실이다. 2016년에 발간한 『예산제일감리교회 100년사』에 의하면, 교회의 각종 공식기록이 제3대 한태우 목사 재직기간부터 시작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때 최초로 기록된 5명의 교인 가운데 정진수가 있었다. 그녀가 성춘경의 모친이다. 결국, 청년운동을 이끌었던 한태우, 최성모 목사와 성춘경 사이에는

중심 역할을 한 성춘경의 어머니가 있었다.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예산지회는 재력가 교인과 목사, 청년 운동가와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성립될 수 있었고, 교회 예배당은 청년단체와 예산지회 모임의 거점으로 활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일제 경찰에 억압받던 예산지회의 해소 문제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정확한 사실과 시기를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인근 고장인 당진의 신간회 지회가 1931년 3월경에 해소 절차를 밟고 있었고, 홍성의 신간회 지회가 1931년 4월경에 해소되었으며, 서산의 신간회 지회도 1930년 7월 이후 행적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예산지회도 1930년 말이나 적어도 1931년 초에는 해소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신간회 예산지회는 1929년 8월 일제 경찰의 억압으로 임시대회 개최가 금지당하면서 거의 폐쇄 상태의 단체로 전락하였다. 그리고 인근 고장의 신간회 지회가 해소하는 1931년을 전후한 시기에 해소함으로써 민족유일당운동으로 전개된 신간회 예산지회 운동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

4. 신간회 예산지회의 성격과 의의

신간회 예산지회는 내포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지회이다. 이것은 예산지역이 충청도 서북부의 내포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유다. 예산지회 설립의 모습은 인근에 있는 홍성과 당진 서산지회와 같은 모습으로, 혹은 그보다 더 비중 있게 출발하였다. 하지만, 예산지회의 구체적인 활동은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고, 해소의 모습도 불확실하다. 당시의 모습을 설명하는 신문 지상에는 예산지회의 출발 모습과 주요 참여 인사의 명단만 게재한 극히 제한된 자료만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예산지회의 몇 가지 중요한 성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산지회 설립 준비 단계 인사의 면면이 각계각층의 운동가를 망라하고 있다는 점이다. 10명의 설립준비위원은 민족운동은 물론, 천도교와 기독교 지도자를 균형 있게 포함하고 있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도 상류층에 속한 재산가로서 예산군의 유지 층이었다. 또한, 동아일보를 비롯한 신문사의 예산지국 언론인이 많았다. 이런 점은 다른 지회와도 비교되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당진과 서산지회의 경우는 천도교 중심 인사들이 주로 참여하였던 것과 다른 양상이다. 경제적으로도 재산가나 지역 유지보다는 농민운동을 이끌었던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많았다. 그런 점에서 예산지회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일반성과 보편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둘째, 설립대회 개최 시 신간회 중앙회의 지원이 남달랐다. 중앙회의 핵심 인사가 무려 5명이나 파견되어 예산지회 설립을 축하, 지원하고 있음을 이를 증명한다. 홍성지회와 당진지회, 서산지회의 설립 시에 1~2명의 중앙 간부가 파견된 것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5명은 본부 간사 이관용, 총무간사 권태석, 이승복, 경성지회 홍기문, 안성지회 민홍식 등이다. 이들은 대부분 민족주의 운동가였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승복의 귀향은 예산 지역사회에 파급력이 컸다. 이승복은 예산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 이남규의 손자로서 만주에서 활약한 독립투사 출신이었다. 이남규와 아들인 이충구, 이충구의 아들인 이승복으로 이어지는 독립

운동가 3대는 예산군 대술면에 세거지를 형성하고 있던 한산이씨의 정신적 지주였다. 5명의 축하 사절은 예산지회의 설립을 한층 뜻깊고 강고하게 만들었다.

셋째, 예산지회는 예산청년회와 함께 움직였다는 점이다. 이점은 내포 지역 대부분의 신간회 지회에서 공통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였다. 청년운동을 전개한 사회운동가나 민족운동가는 대부분 신간회 지회에서도 주요 요직을 차지하였다. 운동계열이 같은 가운데 인력풀도 같았기 때문이다. 다만, 내포 지역의 다른 지역의 경우에 혁신 청년단체가 설립하고 비슷한 시기에 신간회 지회가 결성됨으로 인하여 두 단체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사례가 많았다. 예산지회의 경우는 아쉽게도 그러지를 못했다. 예산청년회는 1920년대 초기의 지역 유지의 계몽단체적 성격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였고, 극렬한 투쟁을 동반하는 혁신단체로까지 발전하는 데 한계를 보였기 때문이다.

넷째는 예산교회가 예산지회에 주도적으로 참가한 점이다. 교회 목회자가 청년회 회장으로 청년운동을 주도하고, 신간회 지회 회의 시에 행사 장소로서 예배당이 제공된 사례가 내포 지역에서 유일하다. 이것은 당시 예산교회를 이끌었던 한태유, 최성모 목사의 민족운동에 대한 극진한 관심과 참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최성모 목사는 기미 독립 만세운동에서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명이었다는 사실도 빼놓을 수 없다. 또한, 예산교회가 청년운동에 깊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도 강조된다. 예산지회의 설립대회에 안성제일교회 집사였던 민홍식이 격려차 방문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안성교회 담임 목사였던 박용희가 신간회 안성지회 회장이었던 점도 예산과 동등하게 작용하였다.

전체적으로 신간회 예산지회는 설립 당시보다 후반기에 들면서 활동이 크게

약화하고 있었다. 그것은 예산지회의 자체 문제라기보다는 일제의 끊임없는 간섭과 탄압으로 인한 결과였고, 다른 원인으로는 1930년대 예산지역의 급속한 환경 변화 때문이었다. 당시 예산공립농업학교로 대표되는 교육 환경의 발전으로 전국에서 뛰어난 젊은이들이 예산으로 들어왔다. 동시에 예산지역의 상공업 발전으로 각종 회사와 은행, 공장이 세워짐으로써 많은 노동자가 예산에 유입되었다. 결국, 신간회 예산지회의 초기 활동에서 모아진 민족운동의 힘은 비밀결사와 같은 학생운동이나 노동쟁의, 그리고 소작쟁의를 비롯한 농민운동으로 다양하게 나누어졌다. 신간회 예산지회의 활동은 예산지역 민족의식 형성의 원동력이 되었고, 궁극적으로는 해방을 향해 나아가는 독립운동의 다양한 형태로 작동하였다.

〈참고문헌〉

『시대일보』『동아일보』『매일신보』『조선일보』『조선중앙일보』『중외일보』『안성자치신문』
『기호홍학회월보』1호, 응희 2년 8월.
전국기념사업회, 『전국십년』, 1956.
삼교음지편찬위원회, 『삼교음지』, 2006.
성낙서, 『창령성씨대동보』, 상곡공석연파(桑谷公石珊瑚派), 1960.
신양면지편찬위원회, 『신양면지』, 2015.
오가면지편찬위원회, 『오가면지』, 2009.

박성목, 『예산동학혁명사』, 도서출판 화담, 2007.
예산제일교회, 『예산제일감리교회 100년사』, 2016.
_____, 『예산지역 민족운동과 예산제일교회』, 2023.
이균영, 『신간회연구』, 역사비평사, 1993.
이동초 편, 『동학천도교인명사전』, 모시는사람들, 1994.
홍석표, 『당진인물지』, 1997.

김상기, 『예산지역 독립운동의 전개』, 『충청문화연구』 제27집, 충청문화연구소, 2022.
김성보, 『일제하 조선인 지주의 자본전환 사례-예산의 성씨가』, 『한국사연구』 76, 1992.
김남석, 『일제강점기 당진지역 민족운동연구』 충남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0.
_____, 『신간회 당진지회의 조직과 활동』, 『충청문화연구』 11, 충청문화연구소, 2013.
박찬승, 『근현대 禮山지방의 정치사회적 동향과 지역엘리트』, 『근대이행기 지역엘리트 연구』
Ⅱ, 경인문화사, 2006.
정을경, 『일제강점기 충남지역 천도교단의 민족운동』, 충남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

제10장

예산지역 종교계의 독립운동

정을경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예산지역 종교계의 독립운동

정을경

1. 천도교단의 독립운동

- 1) 동학의 유입과 천도교구 설립
- 2) 독립운동의 전개

2. 기독교회의 독립운동

1. 천도교단의 독립운동

1) 동학의 유입과 천도교구 설립

충청남도에서 가장 빠르게 동학이 유입된 지역은 예산이다. 아산의 도고, 선창, 선장은 뱃길과 육로길이 통하는 지역이었다. 동학은 아산을 거쳐 예산으로 유입되었고, 포구를 끼고 있던 예산의 농업지대를 중심으로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 당시 예산에는 교구가 설립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의 교인들은 개인적으로 치성을 드리는 등의 신앙생활을 하였다. 이후 예산 출신 박인호(朴寅浩)와 박덕칠은 점점 많아지는 교인들을 위해 조직화의 필요성을 느꼈고, 충남 내포 지역의 교인들을 조직화하였다.

이 시기 박인호를 통해 임도한 교인은 신창의 김경삼·곽완·정태영·이신교, 덕산의 김원배·최병현·최동신·이진해·고운학·고수인, 당진의 박용태·김현구, 서산의 장세현·장세화·최궁순·최동빈·안재형·안재덕·박인화·홍칠봉·최영식·홍

종식·김성덕·박동현·장희, 태안의 김병두, 홍주의 김주열·한규하·황운서·김양화·최준모, 예산의 박희인, 면천의 이창구·한명순, 안면도의 주병도·김성근·김상집·고영로, 해미의 박성장·김의향·이용의·이종보, 남포의 추용성·김기창 등이다.

내포를 포함한 충남지역의 동학 교세 확장과 내포의 동학농민혁명은 박인호의 역할이 커다. 박인호는 1885년 2월 충남 덕산군(德山郡) 양촌면(場村面) 막동리(幕洞里)에서 태어났다. 집안은 전형적인 상민 집안으로 매우 가난하였다. 그가 동학에 입도한 이유는 동학의 ‘귀천 구별 없는 만민평등의 사회 건설’이라는 이념 때문이었다고 전해진다. 그는 수련기간 동안 동학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동지가 많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이러한 깨달음을 실현하기 위해 옹기장수로 가장(假裝)하여 충남 일대를 떠돌면서 포덕활동을 펼쳤다. 박인호가 동학에 입도한 1883년부터 충남의 동학 교인은 눈에 띠게 증가했다. 충남지역의 동학 교세는 내포를 중심으로 북으로 아산·당진·경기, 서쪽으로 서산·태안, 중남부쪽으로 공주·회덕·진잠·연기, 금산·논산, 부여·서천까지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충남의 교인들은 공주집회·삼례집회·광화문복합상소·보은장내집회 등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처럼 박인호는 교인들을 인솔하여 집회에 참가하는 등 교단과 교인들을 위해 앞장섰다. 결국 그는 ‘덕의 대접주’에 임명되었고, 이후 덕산을 중심으로 충청도 해안지대의 책임자로 성장하였다. 박인호 이외에도 예산의 ‘예포’를 담당하던 박덕칠, 그리고 안교선, 이창구, 김기태, 조석현, 문장로, 문장준 등이 자신의 지역을 기반으로 세력권을 형성하였고, 결국 충남지역 동학 세력화의 기반이 되었다.



박인호 생가지

동학농민혁명 이후 박인호를 비롯한 교단 지도부는 적극적인 재건활동을 전개하였고, 충남지역에 있던 동학군들도 예산과 태안지역을 중심으로 동학 재건에 앞장섰다. 예산의 동학군은 동학농민혁명 직후 산속에 피신하였다가, 유림 세력들과 결탁하여 내포지역에서 의병활동을 전개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후 이들은 예산지역을 중심으로 동학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영규(李榮圭, 1863~1915)와 정규희(1895년생)는 동학재건 뿐만 아니라 천도교구 설립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결국 충남에서 가장 먼저 천도교 지회가 설립된 곳은 예산이었다. 1906년 4월 예산에서는 예산교구 설정과 관련한 아래의 보고가 확인된다. 당시 충남에는 천도교 충남총부가 조직되어 있었고, 김태영(金泰泳)이 사장을 맡고 있었다. 지회

는 교인들의 교섭과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아래의 보고에서 언급되는 지회는 교구와는 다른 개념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중앙총부는 도 단위로 총부를 설치하였고, 군 단위에는 지회를 설립하여 조직화를 모색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예산군수 이범소(李範紹)가 내부에 보고하였다. 충남총부 사장 김태영(金泰泳)의 공함에 의하면, 천도교가 안으로는 성(性)을 모으며, 밖으로는 인사(人事)를 닦는다. 세상 사람들이 악을 선하게 하기 위하여 같은 마음으로 서로 교섭하고 교육하고자 하여 지회를 파송(派送)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를 받들어 교구를 예산군에 정하려고 하니, 강론하여 임시개회를 열어 공론화 할 것을 보고하였다. (『天教公函』, 『皇城新聞』 1906년 4월 2일(大韓光武十年四月二日月曜)

위의 신문기사를 통해 살펴보면, 예산지회는 1906년 4월에 임시개회를 열어 예산교구를 설립하는 문제를 공론화하였다. 이는 천도교가 반포된 지 3, 4개월 만으로 전국적으로 비교해도 빠른 시기였다. 일제강점기 예산은 일제의 황무지 개척권, 을사늑약, 정미7조약 등의 침략행위에 끊임없이 저항했던 지역이다. 또한 예산의 동학군은 동학농민혁명에도 매우 적극적이었으며, 동학농민혁명 이후에도 유림 세력들과 연합하여 내포지역의 의병전투에 참여하였다. 이후 이들은 예산을 중심으로 동학 재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3.1운동, 6.10만세운동, 신간회운동, 무인멸왜기도운동 등 천도교가 전개한 독립운동에 지속적으로 앞장

섰다. 이러한 예산지역 천도교의 독립운동은 예산을 기반으로 천도교가 일찍 조직화되고 체계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예산의 천도교 설립은 이영규와 정규희의 역할이 컸다. 또한 문장로를 비롯하여 안재박·조석현·곽기풍·이광우 등이 태안지역 천도교 재건을 위해 앞장서면서, 인근의 예산 동학재건에도 크게 공헌한 덕택이었다. 이렇듯 지역 출신 교인들의 동학재건활동은 지역의 천도교 설립을 앞당겼고, 안정화에 이바지하였다.

충남지역에 천도교구가 설립되는 시기는 예산교구가 설립되는 1906년이다. 예산교구는 전국에서 62번째로 설립되었고, 당시 교구장은 송배현이 임명되었다. 아래의 신문기사를 살펴보면, 예산지역 천도교인들은 1906년 2월부터 신분금의 명목으로 매달 11전씩을 모금했고, 3월 7일에는 교구를 설립하기 위해 지도부를 구성하였다. 교구장으로 송배현(宋培憲), 이문원은 이옥영(李沃榮), 전제원은 김철수(金哲洙), 서옹원은 김건제(金建濟), 금옹원은 김기태(金基泰)·김도선(金道仙), 고옹원은 이원영을 선출하였다. 또한 교인들에게는 천도교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일종의 신분증인 ‘천도교 교빙’을 배포하여 조직화하였다. 손병희가 1906년 3월 7일 예산에 교구를 설정하였다는 기록으로 볼 때, 3월 7일을 전후한 시점에 예산교구가 설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1906년 2월부터 교인에게 신분금으로 사람마다 1달에 11전씩 조직되었으며, 성사님께옵서 병오년 3월 7일에 예산군에 천도교 제42교구를 설정하실 때 주임을 새로 정하되 교구장에 宋培憲, 이문원에 李沃榮, 전제원에 金哲洙, 서옹원에 金建濟, 금옹원에 金基泰, 金道仙을 재임으로 정

하고 천도교 교빙을 반포하였다.(조석현,『북접일기』, 태안군·충남역사문화연구원, 2006, 104쪽)

예산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박희인의 예포(禮包)가 있었던 곳으로, 교구가 설립될 당시 충남에서 천도교 교세가 가장 커던 지역이다. 1906년 당시 설립된 천도교당은 1906년 3월 원평리 597번지 김지태의 집이었으나, 1915년경 예산리 392-4번지 목조 초가집(대지 66평)으로 이전하였다. 1943년경 일제의 염탐과 감시로 인하여 활동이 어려워져 처분하여 석양리 정환석의 집으로 옮겼고, 해방 이후에는 예산읍 사거리로, 다시 현재 부일여관 자리인 예산읍 예산리로 옮겼다. 이후 현재의 역전상가 시장 부근의 주교리 336번지(마종의 교구장이 구입하여 이동춘이 논 다섯 마지기를 팔아 보수)로 이전하였으나, 현재 교당은 간양리 438-9번지에 위치해 있다. 예산교구는 설립 이후, 예산과 인접한 해미, 서산, 태안의 통로 기관자로 이광우·이원영·변봉호·김용세·이순화·박명환·곽기풍을 선정하였다. 기관자의 역할은 예산교구 인근 지역의 주민을 포교하고, 교구가 설립되지 않은 지역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체계는 중앙과 지방의 조직화를 통한 중앙집권적 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이었다.

1911년 예산교구의 일부 세력이 시천교(侍天敎)로 이적하였다. 예산의 시천교는 함한석(咸漢錫, 1870~1938)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던 세력이었다. 당시 시천교 교당은 예산읍 산성리 산성산 중턱에 위치했다. 교당은 동학농민군 김지태의 동생 김인태가 운영하던 천도교리강습소와 인접한 곳으로, 광복을 전후한 시기까지 존재했다.

이후 교인이 증가하면서 예산지역에 해미교구, 덕산교구, 예산교구 총 3개의 교구가 설립되었다. 지역마다 천도교가 설립되고 조직화 되기 위해서는 교구장의 역할이 커졌을 것이다. 예산은 1908년~1915년까지 김기태(金基泰)가 대교구장을 맡았다. 교구장 이외에 교단을 이끌었던 지도부의 명단은 지역마다 자료의 한계로 모두 파악되지 않지만, 예산교구는 설립시기부터 1940년대까지 모두 확인이 가능하다. 지도부의 구성은 중앙총부와 같은 체제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일반적으로 1910년대는 강도원, 공선원, 금옹원, 전제원, 서기 등을 지도부로 구성하였고, 1920년대는 성도집, 경도집, 신도집 등을 지도부로 확대하였으며, 1930년대는 법도집, 지도집, 감사원, 현기원, 심사원을 비롯해 교화부장, 경리부, 감사장을 지도부로 확대하였다. 1940년대는 교화원, 교리원, 법리원, 감사원, 교무원, 경리원 등을 임명하여 지도부를 구성하였다.

〈예산교구 지도부 명단〉

일시	명단
1906년 3월	교령 박희인(朴熙寅), 서무 김철제(金哲濟), 금옹 김기태(金基泰), 이문 이광우(李廣宇), 전제 전양진(田良鎮)
1908년 4월	서무 유용근(劉容根), 금옹 김재희(金在熙), 이문 김현수(金憲洙), 전제 김철수(金哲洙)
1911년 12월	서무 최찬각(崔燦珏), 금옹 김재희(金在熙), 이문 김현수(金憲洙), 전제 김철수(金哲洙)
1913년 10월	서무 고운학(高雲鶴), 금옹 조석현(曹錫憲), 이문 최찬각(崔燦珏), 전제 곽완(郭琬)
1915년 3월	서무 고운학(高雲鶴), 금옹 조석현(曹錫憲), 이문 최찬각(崔燦珏), 전제 정태영(丁泰榮)
1919년 2월	서무 정태영(丁泰榮), 금옹 조석현(曹錫憲), 이문 최찬각(崔燦珏), 전제 이진해(李鎮海)
1921년 4월	서무 고운학(高雲鶴), 금옹 문병석(文秉錫), 이문 최찬각(崔燦珏), 전제 이진해(李鎮海)
1924년 6월	총리원 종리사 조석현(曹錫憲), 서무부원 이진해(李鎮海), 경리부원 박동화(朴東和), 교화부원 문병석(文秉錫), 교무부원 이태근

일시	명단
1928년 5월	교구포덕사 조석현(曹錫憲), 서무부원 이태근, 경리부원 박동화(朴東和), 교화부원 이진해(李鎮海), 교무부원 고운학(高雲鶴)
1930년 10월	교구종리원장 문병석(文秉錫), 서무부원 이완의, 경리부원 박동화(朴東和), 교화부원 이진해(李鎮海), 교무부원 고운학(高雲鶴)
1933년 1월	서무부원 고운학(高雲鶴), 경리부원 박동화(朴東和), 교화부원 이진해(李鎮海), 교무부원 조석현(曹錫憲)
1936년 2월	서무부원 박동화(朴東和), 경리부원 문병석(文秉錫), 교화부원 박영봉(朴英奉), 교무부원 윤중현(尹仲鉉)
1940년 4월	서무부원 박영봉(朴英奉), 경리부원 윤중현(尹仲鉉), 교화부원 장석준(張錫俊), 교무부원 이기철(李起喆)
1941년	감사장 이동선(李同仙), 교무부장 인래환(印來桓), 교화부장 방구권(方久權), 도훈 문병석(文秉錫), 교훈 정규희(丁奎熙), 신훈 임덕성(林德成)·유재권(劉在權)·조관성(趙寬成)·최덕구(崔德久)·김복흥(金福興)·박월례(朴月禮)·한도수(韓道洙)·김용의(金容儀)·인공형(印恭亨)·임노학(林魯鶴)·조병철(曹秉哲)·조용석(曹龍錫)·이동준(李同春)·김문화(金文嬪)·문원덕(文源惠)·문원정(文源貞)
1943년 3월	서무부원 박영봉(朴英奉), 교화부원 이홍운(李興雲), 교무부원 정남수(鄭南壽), 경리부원 윤중현(尹仲鉉)
1945년	교화부장 윤중현(尹仲鉉), 교무부장 마종익(馬鍾益), 경리부장 조병철(曹秉哲), 감사장 정원규(鄭原圭)

※ 천도교단에서 발행한 기관지 『천도교회월보』와 『신인간』, 『동학천도교인명사전』(이동조, 2015)에서 충남지역과 관련된 자료를 발췌하여 지역별, 시기별로 정리하였다. 다른 지역과 다르게 예산교구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소장하고 있는 『천도교내수회 예산부 회원명부』에 예산교구의 약력이 기록되어 있다. 당시의 자료와 교차하여 보완 정리하였다.

지방 포덕의 방법으로 지방 순회가 전개되었다. 특히 1940년의 순회 포덕은 충남에서는 예산에서만 진행되었는데, 내수회(內修會)의 대표 손광화(孫廣嬪)가 함께 순회하였다. 순회 포덕활동은 중앙에서 지방으로, 지방에서는 각 시군으로 구체화되었다. 지방 순회는 중앙에 비해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없는 지방교구에 대한 배려였다. 동시에 지역을 분담하여 책임을 지우는 적극적인 포덕 방법이었다.

현재 확인되는 예산교구의 자료로는 1913년의 예산교구, 1937년~1953년 예산교회, 1949년 예산교구의 연원록이다. 이 자료는 연원록, 교보, 천도교인 명단 등 다양한 명칭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모두 교구가 교인을 관리하기 위해 교인의

신상을 기록한 것이다. 1913년 당시 예산교구의 교인은 98명이었다. 같은 시기 충남지역의 교인수는 2,160명으로 예산교구는 충남 교인의 4.53%를 보유하였다. 연원록을 분석해 보면, 1913년 당시 예산교구의 교인은 1861년생부터 1929년생까지 다양하고 고르게 분포했다. 당시 교인들 중 최고령은 52세였던 점으로 보아, 비교적 젊은 층의 비율이 높았다. 연원록에서 나타나는 1913년 이후의 출생 기록은 후세에 첨삭된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시기 서산교구와 비교하여 볼 때, 예산교구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젊은 층이 주축을 이루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특히 21세부터 32세까지의 젊은 층이 많았다.

예산교구 교인의 출신지는 예산군 73명, 아산군 6명, 당진군 4명, 천안군 1명, 서산군 3명, 청양군 4명, 공주군 2명, 홍성군 2명이다. 서산교구의 교인이 모두 서산이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예산교구의 설립은 1906년으로 충남에서 가장 빠른 시기였다. 따라서 예산 인근 교인들이 자신의 지역 교구가 설립되기 전까지 예산교구에서 활동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산교구의 교인은 1913년에는 98명이었으나, 1937년~1953년에는 273명, 1949년에는 577명으로 증가했다. 정확한 연도별 수치 파악은 어렵지만, 1913년 이후 꾸준하게 교인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예산교구는 1930년대에도 꾸준히 예산 지역민으로 국한되지 않고, 인근의 청양·서산·홍성·당진·아산·공주·천안 등의 교인이 참여, 활동하는 교구였다.

2) 독립운동의 전개

전국적으로 3.1운동이 전개되던 시기, 천도교단은 3.1운동의 연락책으로 예산

출신 마기상을 선정하였고, 그를 통해 만세운동을 계획하게 하였다. 마기상은 장 흥마씨로 초명은 기상, 자는 학순, 호는 용암(龍菴)이다. 19세가 되던 1916년에 국권회복의 의지를 갖고 천도교에 입교한 인물이다. 그는 생선장수로 위장해 청 어의 백속에 밀지를 숨겨 예산으로 내려왔다. 이후 자신이 거주하는 마을 주민들을 조직하여 만세운동을 이끌었다. 마기상과 함께 3.1운동을 주도한 문병석은 일제에게 모진 고문을 받아 곰보와 짹귀가 되었다.

다음으로 천도교단의 청년운동은 1910년대 교단에서 설립한 교리강습소부터 시작되었다. 1912년 당시 교리강습소는 예산군에서 2곳이 확인된다. 이 중 한 곳은 산성리 무한산성이 있는 산성산 중턱에 위치했고, 동학농민군 김지태의 동생 김인태가 운영했다고 전해진다. 1910년대 당시 천도교의 지방 교구는 190개였고, 청년회 지회는 118개였는데, 충남지역은 10개의 교구에서 3개의 청년회 지회가 설립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충남의 청년회 지회 3곳은 모두 1920년 초에 설립되었다. 특히 천도교 청년회 예산지부는 중앙 지부가 설립되기 이전에 설립되었을 정도로 시기가 빨랐다. 당시 천도교 청년회 예산지부의 지회장 이종만은 서산교구에서 전교사, 전제원, 교구장을 역임했던 서산 천도교구의 주요 인사였다. 또한 천도교 청년회 서산지회 지회장 강창주도 예산지부의 주요 인물이었다. 즉, 서산지회와 예산지회는 지역의 구분 없이 서로 인사를 교류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긴밀하게 활동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예산지회보다 서산지회가 먼저 설립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서산지회의 강창주와 이종만이 예산지회 설립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천도교 청년회 예산지회는 1920년 1월에 설립되어 1921년 1월까지 이종만이 회장을 맡았고 이후에는 김재명이 맡았다. 회원수는 23명이었고, 주요 활동 인물로는 강창주와 김영준이 확인된다. 청년회 지회는 중앙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위해 의무금 납부를 철저히 하겠다는 결의를 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정기총회에서는 3개월 이상 지회에 의무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지회의 명칭을 삭제한다는 결의를 하기도 했다. 예산지회는 25원 80전을 납부했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또한 1921년에는 청년회 동경지회 유학생들이 여름방학 동안 전국 순회강연을 전개하였다. 순회강연은 6월 19일부터 3개의 강연단으로 나누어 경상·전라·충청지역을 순회하였다. 충남을 포함한 충청대(忠淸隊)는 전민철(全敏徹)·정중섭(鄭重燮)·김홍식(金弘植)이 강사를 맡았고, 청주·공주·예산·홍성·태안·서산·당진·횡성 등을 순회하였다. 충남에서는 5차례 강연회를 개최하였는데, 강연회의 청중은 평균 500여 명으로 지역민들에게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강연 내용은 교육, 종교, 사회, 신시대, 신풍조, 신문화, 여자해방 등 문화와 신문화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1922년에는 천도교의 신파와 구파의 분열이 일어나자 혼란한 상황에서 천도교 청년들은 1923년 9월 2일 청년회를 해체하고 천도교청년당을 창립하였다. 교단의 혼란함을 수습하고 민족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의지였다. 천도교청년당 창립을 주도했던 인물 중 충남 출신으로는 박래홍과 이종린, 홍세환(洪世煥) 등이 있다. 천도교청년당 창립 당시 예산 출신인 박래홍은 상무위원, 이종린(서산 출신)은 위원, 홍세환(서산 출신)은 중집위원을 맡았다. 박래홍과 이종린은 청년

회에서 간무원과 간의원을 맡았던 경력을 갖고 있었다. 특히 홍세환은 1928년 청년당본부 상민부위원, 1928년에는 청년당경성부 대표를 맡는 등 천도교청년당 창립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천도교청년당은 각 지방의 순회·교리연구·노동야학·농민강습 등 수양과 관련된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학생회·내수단·영우회 등을 조직하여 세력을 확장하였다. 1924년 4월 천도교청년당은 당의 핵심 역할을 위해 신임위원 21명을 선출하였다. 이 신임위원에 서산의 이종만(李鐘萬)이 선출되었다. 박래홍과 이종린, 이종만 등 충남 출신 인사들이 중앙에서 활약했던 점은 충남 천도교청년당 조직의 정비와 강화를 수월하게 만들었다.

이 밖에도 1920년대 후반 충남지역 교인들이 중심이 된 문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예산의 마기상은 1920년대 중외, 동아, 조선일보 예산지국 기자로 활동하였다. 1927년 3개 신문(중외, 동아, 조선일보)의 삽교지국을 운영하였고, 동시에 신간회 활동 때문에 7회 이상 체포되는 등 문화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또한 노동당의 성격을 띤 청우당의 예산 대표로도 활약하였다. 1929년에는 조선농민사의 삼남구 선전원으로서 교단의 농촌계몽운동을 전개하였고, 계몽지 『조선농민』·『농민독본』·『농민』 등을 보급하여 지역의 계몽운동에도 앞장섰다. 그의 문화운동은 1930년까지도 이어졌다. 1930년 3월 중외일보 예산지국 기자의 신분으로 홍성공업전수학교 학생운동을 주도하여 체포되었다. 또한 1932년은 충남연합포덕대장으로 포덕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윤봉길에게 농촌계몽지를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한편 문원덕(文源德, 1915. 11. 10, 예산 신암면 탄중리 출생)은 1931년 천도

교 야학단을 조직하여 예산·당진·합덕 등지의 문맹퇴치와 계몽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는 1940년대 이후까지도 동아일보 예산지국 주재기자의 신분으로 언론운동에 적극적이었다. 그를 중심으로 예산지역 천도교인들은 문화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처럼 충남지역 천도교의 문화운동은 교인들을 중심으로 예산과 당진을 무대로 194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예산지역 천도교 청년단체의 문화계몽운동은 초기에는 교육에 치중하였으나, 1920년대에는 언론을 통한 계몽활동과 함께 경제적 실력양성운동을 추진하는 등 활동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특징을 갖는다.

1920년대 후반 천도교 청년동맹이 서울을 중심으로 지방까지 설립되었는데, 서울을 제외한 이남에서는 충남지역 지부가 제일 빨리 설립되었다. 특히 충남에서도 천도교 청년동맹 예산 지부가 다른 지역보다 가장 앞선 시기에 설립되었다. 1927년 10월 28일에 설립된 예산지부의 대표는 윤옥(尹玉)·최장환(崔章煥), 상무위원은 정규희(丁奎熙)·문재석(文載錫)·이기철(李起哲), 집행위원은 박동화(朴東和)가 맡았다. 상무위원 이기철은 오호준·오픸준과 함께 애국독립운동을 전개한 인물이기도 하다. 1929년 2월 20일 예산동맹의 임원진은 대표 이완의(李完儀), 상무집행위원 윤중현(尹仲鉉), 집행위원 이홍운(李興雲)·조병인(曹秉仁), 반대표 오호준·이홍운(李興雲)·문병석·조병인이었다. 1930년 6월 1일에 다시 대표가 최장환(崔章煥)으로 바뀌었고, 집행위원은 정환석(鄭煥奭)·윤중현·이기철·이홍운, 상무위원은 조병인·최병욱(崔秉旭)이었다. 같은 해 9월에는 대표위원을 박양신(朴陽信)이 맡았다.

천도교 구파의 신간회 활동은 주로 서울과 기호·호남지역을 중심으로 펼쳐졌다. 이종린과 구파 지도자들은 교인들의 신간회 참여 독려를 위해 빈번하게 지방

순회강연을 전개하였다. 청년동맹도 신간회 창립에 적극적이었다. 1927년 12월 25일 동맹대회를 개최하여 신간회에 대한 적극 지지를 결의하였다. 구파도 역시 청년동맹을 통해 신간회 본부와 청년동맹 지부가 설립된 곳을 중심으로 신간회 조직을 도왔다. 이때 구파가 예산지회의 설립에 참여하였다.

강연회 이후 부문 결정과 임원 선거 등이 진행되었는데, 간사에 선출된 정환석(鄭煥奭)은 예산지회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것이 확인된다. 3.1운동의 경험을 통해 조직과 지하 활동에서 비상한 수완을 발휘했던 인물로 평가된다. 이뿐 아니라 문병석은 교단에서 감사원, 집행위원, 포덕과 대표위원을 역임했는데, 1927년 11월 신간회설립준비위원회로 활동하였다. 구파 인물은 대부분 지방 교구의 간부들이었다. 그러나 신간회 활동에는 구파뿐 아니라 신파의 인물들도 참여하였다. 예산은 정규희(丁奎熙)·문병석(文秉錫)·마기상(馬驥賞) 등이 신간회 활동에 참여하였다.

청년단체는 구파와 신파가 연합하면서 단일당을 구성하였다. 1931년 2월 16일 구파의 천도교청년동맹과 신파의 천도교청년당을 통합하여 천도교청우당을 결성하였다. 천도교청우당은 1931년 5월 처음으로 충청도와 전라도 지방 당부를 순회하였다. 이때 당무지도위원 김병제가 충남의 예산을 비롯해 각 지역의 당부를 5월 5일부터 25일까지 순회하였다. 이들은 순회를 통해 합당 후에도 분화 당시의 명칭을 쓰고 있는 당부의 이름을 청우당 지방부로 바꾸었고, 예산여성동맹은 내성단으로 변경하였다. 예산에서는 충남 일대를 연합하여 도강도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1931년의 지방 당부 순회는 분화의 혼란함을 잠재우고 청우당을 정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현재 예산의 청우당 위원 명단이 파악된다. 1931

년 3월부터 8월까지 위원이 임명되었는데, 예산의 청우당은 지방 당부 순회 이전에 조직이 정비되었다.

〈청우당 예산당부위원 명단〉

지역	당부	위원직	성명
예산	청우당 예산당부	접대표	문병석(文秉錫, 1931.4) 이기철(李起哲, 1931.4) 이흥운(李興雲, 1931.4) 조명승(曹明承, 1931.4)

특히 예산교구 내수회는 중앙 교단에서 회원을 일일이 방문할 정도로 주목받던 단체였다. 내수회는 여성계동운동을 중점적으로 전개하였고, 예산을 중심으로 서산과 당진, 홍성 교인이 속해 있었다. 또한 충남에서 유일하게 예산교구는 부인교당을 갖고 있었다. 1908년 [음] 11월 11일 금요일 예산 부인교당일에 참여했다는 기록이 있다. 예산교구는 1908년을 전후한 시기에 부인교당이 있었을 정도로 여성 교인에 대한 체계를 갖추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처럼 충남에서도 예산지역은 교구와 교인의 결집이 강했던 지역이었다.

천도교단의 마지막 독립운동은 멸왜기도운동(滅倭祈禱運動)이었다. 천도교가 멸왜기도운동을 전개한 시기는 일제가 민족말살정책을 강행했던 시기였다. 천도교인은 이를 극복하고 일제를 패망하게 하기 위해 가장 종교인다운 독립운동을 계획하였다. 예산 출신으로 당시 제4대 교주였던 박인호를 중심으로 구파와 교인들은 왜적을 멸해달라는 기도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는 천도교단이 꾸준히 전개해 왔던 독립운동의 맥을 잇는 과정이었다. 동시에 일제의 탄압에 맞선 가장 종교적이지만 당시의 시대 상황을 고려한 적극적인 독립운동이었다.



충암상사 박인호 유허비

멸왜기도운동은 1938년 4월 30일 일제 경찰에 의해 발각되기 전까지 세 가지 단계로 계획되었다. 충남지역에서 멸왜기도운동에 참여했던 예산출신 인물은 정환석·문병석·마기상이 확인된다. 이들 이외에도 예산의 임덕성(林德成, 1906~1983)은 멸왜기동운동에 참여했다가 예산경찰서에 체포되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문병석도 멸왜기도운동에 참여했다는 죄목으로 체포되었고, 안재박(安在璞, 1868~1942)의 후손들, 방학삼의 셋째 아들 방윤권도 멸왜기도운동에 참여했다. 방윤권은 예산교구 교무부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이들 이외에도 예산의 많은 교인이 멸왜기도운동에 참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천도교는 중앙집권적 체제였기 때문에, 교주 박인호의 지시였던 멸왜기도운동의 파급력을 켰을 것이다. 특히 멸왜기도운동은 기도를 하는 방식의 독립염원이었다는 점에서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한 최대한의 일제에 대한 저항이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2. 기독교회의 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예산군 내에는 예산읍교회(禮山邑教會), 좌방교회(佐方教會), 양막교회(良幕教會), 송석교회(松石教會), 삽교교회(插橋教會), 송산교회(松山教會), 덕산교회(德山教會), 효교교회(孝橋教會), 내리교회(內里教會), 산직리교회(山直里教會)가 설립되어 있었다. 예산지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것으로 파악되는 예산제일교회는 3.1운동의 민족대표였던 최성모 목사가 1929년부터 담당 목사로 활동하였다. 또한 3.1운동에서 충남과 호서지방의 선전책임자로 활약하고 이후 상하기(上海)로 망명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교통국 특파원 및 예산군 조사원으로 활동한 독립운동가 이명제가 제8대 목사를 맡았던 교회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예산지역의 기독교는 일제강점기 청년회를 중심으로 교육계몽활동 및 문화운동을 전개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1927년 7월 31일 예산기독청년회는 ‘예산 야소교 예배당’에서 창립되었다. 이들은 예산기독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28년 1월 9일에 문맹퇴치운동의 일환으로 산성리에 노동야학회(성광강습소, 무산아동교육기관)를 개설하였다. 이 야학회는 당시 회장 고영기(高永琦), 학생수는 67명 정원에 54명이 다니고 있었으며 교원수는 12명이었다.

설립 이후 기독청년회는 지역민 중 무지남녀를 교육하겠다는 목적으로 자선음악가극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도 전개하였다. 1927년 12월에 개최한 음악회는 참석자가 600명에 달할 정도로 성대하게 개최되었으며, 참석한 단체와 유지

들의 기부금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외에도 아래의 기사를 통해 살펴보면, 기독청년회는 동정금품을 모집하여 극빈자에게 베푼다거나, 명절맞이로 떡국 동정을 호소하는 등 지역의 소외계층을 돌보는 등의 구제활동을 하였다.

충남 예산읍내 기독청년회에서 금번 음력설에 동정금품을 모집한다 함은 이미 보도한 바이어니와 동회 간부들은 자선상자를 가지고 호별방문을 한바 다수의 동정을 받아 현금 84원 20전과 백미 1포(俵) 5승(升)에 달하여 지난 음력 설 29일 오후 7시에 예산 예배당에서 극빈자 61인에게 백미 1두 2승(소두)씩을 배분하고 식구 6인 이상에는 1두 5승씩을 주었다더라.(「禮山基青會」, 《동아일보》1928. 1. 25일 자)

충남 예산군 예산 기독청년회에서는 돌아오는 음력 정초에 조석 한 그릇 따스이 먹지 못하고 참혹한 가운데 있는 동포를 위하여 작년과 같이 제2회 세모 동정구제품 모집을 위하여 조금씩이라도 나누어 구 명절에 다 같이 따스한 떡국 한 그릇이라도 동정하여 주라고 돌아오는 오일에 회원이 총출동하여 구루마를 끌고 대대적으로 모집한다는데 예산 일반 유지의 많은 동정있기를 바란다더라.(「禮山基青會 同情品募集」, 《동아일보》1929. 2. 5일 자)

이뿐 아니라 기독청년회는 창립 1주년기념행사로 악대를 동원하여 대대적인 금주단연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오인(吾人)의 생활’이라는 주제로 강연회

를 개최하는 등 계몽운동에도 앞장섰다. 이러한 활동은 농촌계몽운동과 맞물려 193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었다.

특히 예산제일교회 제3대 목사였던 한태유(1920~1926)가 주목되는데, 예산제일교회 청년과 예산농업학교 청년회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던 인물이다. 그는 1922년 예산청년회 회장을 맡아 강연회를 개최하거나, 소비절약을 선전하는 등의 계몽활동을 전개하였다. 예산청년은 ‘금주단연, 의복은 조선 산물을 착하고 차에 염색할 것’을 결의하였고 일반인들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술과 담배를 먹지 맙시다, 우리가 만든 옷감에 물들여 입읍시다’, ‘일년 동안 조선에서 소비하는 술 값이 십억 팔천만 냥, 담배값이 육억 만 냥이다’라고 적힌 안내문인 일명 ‘뼈라’를 만들어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 1920년대 초 우리 민족 손으로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 전개된 민립대학설립운동이 예산지역에서는 한태유에 의해 전개되었다. 그는 1923년에는 민립대학설립을 위한 예산지역 발기인으로 참여하였으며, 지방부가 조직되었을 때 임시의장을 맡아 민립대학 추진에 노력하였다.

이후 예산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성진호가 농민잡지 《문예광(文藝狂)》을 창간하였다. 성진호는 1931년 8월 가설극장에서 흥행하고 있던 대동가극단(大同歌劇團)의 춘향전을 일본말로 한다는 점과 극의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장료가 비싸다는 이유를 들어 야유를 하였다. 이 일로 3일 동안 검거되었다. 이후에도 좌익출판물을 배포하였다는 죄로 1933년 5월 징역 2년을 구형받기도 했다.

전국적으로 학생결사운동이 전개되던 시기, 예산지역에서도 1939년 6월 예산제일교회 제12대 김희운 담임목사(당시 전도사)를 중심으로 윤영원, 최경용, 이

민구, 장준환, 김동식, 박대영, 안세영, 이완승 등 예산농업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비밀리에 ‘예산속회(禮山屬會)’를 결성하였다. 김희운은 경성 아현교회 목사이자 감리교연맹 이사였으며, 그 이전에는 예산교회에서 전도사로 활동한 인물이었다. 그는 1939년 6월 예산교회 전도실에서 윤영원, 최경용, 이민구와 함께 조선 독립을 목적으로 예산속회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였다. 강령으로 ‘조선민족정신을 잊지 말 것, 조선어를 연구 사용할 것, 조선민족의 단결을 굳게 할 것, 비밀을 엄수하고 동지를 많이 모을 것, 조선민족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 민족의식을 양양할 것’을 약속하고 여러 차례 회동하여 활동방침을 협의하였다. 이들은 주로 민족 차별에 대해 분노하고 중일전쟁의 장기화로 일본이 패배할 것이기 때문에 조선 민족이 일치단결한다면 독립이 가능하다는 등의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파악되었다.

예산속회는 결성 3년 후인 1942년 조직원 윤영원이 예산농업학교를 졸업하고 수원군농회(지금의 농협)에 근무할 때 일제 경찰의 불신검문에서 검거되었고, 조선총독부의 내선일체 방침에 반대한 것을 비롯해 불온한 청년가와 국가를 작곡한 사실 등이 드러나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검거되었다. 이들이 당시 작곡한 ‘조선국가’는 ‘금수강산 계림반도(鷄林半島) 내 사랑하는 곳/억천만년 무궁도록 그 이름 빛내리 무궁화 화려한 이 강산에 청년들아/무궁화 화려한 이 강산에 청년들아 우리 적후(跡後)들아’라는 내용이었고, ‘조선청년가’는 ‘1. 백두산 장한 기세 타고난 우리/무쇠 같은 팔다리 움직이니니 설움아 탄식아 물려 가거라/반만년 꽃동산을 다시 빛내자 2. 군셈과 날램은 우리 것이니/세상에 겹낼 것 없네 이천만 한마음으로 혜불을 들어/조선 하늘에 둑을 트이세 3. 군세라 참다워라

씩씩하여라/우리는 조선에 억센 젊은이삼천리 금수강산 좋은 곳에/이 인생 젊어
뛸 때 조선도 고(告)하네’라는 내용이었다. 결국 김희운은 1943년 3월 전주지방
법원 재판에 회부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이외에도 예산읍에 위치한 예산제일교회의 유중영 권사는 극장(현재 예산극
장)을 지어 예산지역 대중문화의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엡엣청년회’는 모사편물
강습회를 개최한다거나, 신춘대음악회를 예배당에서 여는 등 지역민들에게 문
화운동을 전개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산은 동학이 천도교로 개편되면서 교단이나 교
인들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전개된 지역이다. 예산 천도교단은 순회강연이나
노동야학과 농민강습을 통한 문화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청년회나 청년당의 청
년 교인들은 청년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교인들은 문맹퇴치와 계몽운동에 앞
장섰으며, 언론을 통한 문화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천도교단의 문화계몽운동은
초기에는 교육에 치중하였으나, 1920년대에는 언론을 통한 계몽활동을 전개하

거나 경제적 실력양성운동을 추진하는 등 활동 범위를 넓혀갔다. 이후 내수회를
중심으로 여성계몽운동을 전개하였고, 1938년에는 일제의 패망을 기원하는 멸
왜기도운동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독립을 염원하였다.

기독교의 청년회도 교육계몽활동 및 문화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예산제일교
회의 활약이 두드러졌는데, 3대 목사였던 한태우는 계몽활동 및 민립대학설립운
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12대 목사였던 김희운을 중심으로 예산농업
학교 학생들이 함께 ‘예산속회’라는 비밀결사를 결성하여 활동방침, 조선국가 등
을 만들어 독립을 염원하며 활동하였다.



예산제일교회 앱엣회원들의 모습(출처:『예산제일감리교회 100년사』)

제11장

예산인의 국외독립운동

이양희 충남대 충청문화연구소 연구원

〈참고문헌〉

『신인간』『천도교회월보』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천도교회사초고』

『천도교회공문집』

김정인,『천도교 근대 민족운동 연구』, 한울, 2009.

동학혁명기념사업회 편,『동학농민혁명과 농민군 지도부의 성격』, 서경문화사, 1997.

박성묵,『예산동학혁명사』, 화담, 2007.

성주현,『천도교청년당(1923~1939)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예산제일교회,『예산제일감리교회 100년사』, 2016.

_____,『예산지역 민족운동과 예산제일교회』, 2023.

이동초 편,『동학천도교인명사전』,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2015.

조기간,『천도교종령집』, 천도교중앙총부, 1983.

조석현,『복접일기』, 태안군 충남역사문화연구원, 2006.

홍장화,『천도교운동사』, 천도교중앙총부, 1990.

박성묵,『내포 동학혁명 지도자의 활약상과 역사 문화적 의의』,『동학학보』29, 2013.

박창건,『3·1운동과 천도교 지방교구의 활동』,『신인간』458, 1988. 3.

성주현,『천도교청년회 지방조직의 설립과 운영』,『한국민족운동사연구』60, 한국민족운동사학

회, 2009.

채길순,『충청남도 중남부 지역의 동학혁명 전개과정 연구』,『동학학보』18, 2009.



예산인의 국외독립운동



이양희

1. 이명제·서정섭·조인원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원 활동
2. 김영진의 대한건국단 활동
3. 박우균의 한국혁명청년회 활동
4. 신현상의 독립운동과 호서은행 사건
 - 1) 중국 망명과 아나키즘 수용
 - 2) 호서은행 사건
 - 3) 무정부주의자 대표자회의 개최와 체포
5. 윤봉길의 독립운동과 상해의거
 - 1) 항일의식의 형성과 국내독립운동
 - 2) 상해 망명과 의거 과정
6. 예산인 국외독립운동의 역사적 의의



1. 이명제·서정섭·조인원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원 활동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후 독립운동의 본거지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이하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는 특파원을 국내에 파견해 국내외를 연계하는 조직 기반을 구축해 나갔다. 수립 직후에는 연통부 및 교통국을, 1920년에는 선전대를 설치했다. 임시정부 국내 조직은 소속에 따라 약간씩 임무를 달리하였지만, 대부분 선전, 국내외 독립운동 조직 연락, 군자금 모집, 항일운동 지원 등을 맡았다. 무엇보다 군자금 모집은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서 매우 중요했다. 이를 위해 국내 조직을 이용해 인구세 징수, 공채 발행, 각종

회비와 기부금 납부를 호소했다. 하지만 일제의 탄압도 거셌다. 점점 좁혀오는 감시망으로 국내 비밀결사 연계 및 군자금 모집 등의 활동이 여의찮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군자금 모집은 방법을 달리하여 재력가를 대상으로 강제 ‘탈취’의 형태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임시정부에 참여해 지원활동을 전개한 예산 사람은 이명제·서정섭·조인원이 있다.

이명제(李明濟, 1893. 5. 8~1987. 12. 13)는 1893년 출생으로 판결문상 오가면 원천리 출신이다. 신분장지문원지에 본적은 충남 예산 삽교면 두리 8번지로 기록되어 있으며, 출생지는 충남 아산군 선장면 대정리로 확인된다. 기독교 전도사였던 그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만세운동에 나섰다. 한반도를 넘어 국외까지 만세소리가 뒤덮였으나 ‘조선의 독립’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같은 해 4월 27세의 청년 이명제는 독립에 대한 열망을 안고 상하이(上海)로 망명했다.

그는 곧바로 임시정부 조직에 참여해 교통국 직원이 되었고, 교통차장 김철(金澈)의 권유로 충청도 교통특파원으로 임명되었다. 8월 임시정부가 발행한 문서를 가지고 국내로 들어와 임시정부를 선전하고 독립사상을 고취해 동지를 규합하는 동시에 교통분국을 설치하는 임무를 띠고 국내로 잠입하였다. 서울에 도착해 매동보통학교 교사였던 신기덕(申基德)과 서산 출신으로 서울 종로 관훈동에 거주하고 있던 이원생(李源生)을 찾아갔다. 즉시 전후 사정을 밝히고 교통분국장이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임시정부에서 보내온 문서를 받아 지정된 동지들에게 배포할 것을 요청했다. 인사동 이종구(李鍾龜)에게 가서도 자신이 임시정부의 특파원임을 밝히고 임시정부를 위해 일해 줄 것을 권유했다.

이와 같은 그의 활동은 1921년 체포될 때까지 계속하였다. 5월 6일 ‘대정 8년

제령 제7호'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해 공소를 제기했지만, 6월 15일 기각되어 서대문감옥에서 옥고를 치르고 10월 29일 가출옥했다. 이를 인정받아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에 서훈되었다.

서정섭(徐廷燮, 1891. 8. 15~1927. 6. 24)도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군자금 모집을 했다. 오가면 오촌리 출신이다. 1919년 28세의 서정섭은 3·1운동을 경험했다. 비록 즉각적인 독립을 이루어내지는 못했지만, 전 민족의 독립에 대한 열망은 더욱 커지고 있었다. 그만큼 3·1운동 직후 수립된 임시정부에 대한 기대 또한 높았다.

그는 이원생과 함께 임시정부 지원 활동에 투신하기로 했다. 선택한 지원 방법은 군자금 모집이었고, 곧바로 실천에 옮겼다. 1919년 7월 말경 당진군 순성면 백석리 이희성(李希性)의 집을 찾아가 명함을 내보였다. 엽서보다 작은 두꺼운 종이에 '수금원(收金員)'이라고 써있었고,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는 "상해 임시정부에서 파견한 수금원이다. 임시정부는 조선의 독립을 위해 운동하는 곳이다. 곧 조선이 독립하겠지만 지금은 자금이 부족해 곤란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5,000원을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이희성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것을 염려해 예산읍내의 재산가들을 언급하며 위협성 발언을 덧붙였다. 얼마 지나지 않은 8월 초순 이원생의 집에서 이희성을 만나 500원을 수령했다. 이 자금은 이원생을 거쳐 그 자리에 있던 임시정부 파견원 신정식(申定植)에게 건네졌다.

활동은 계속 이어졌다. 10월경 이희성의 친척인 이석형(李錫澄)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500원을 받았다. 급기야 체포되었고, 서정섭은 정치범으로 몰려 이른바 '공갈·협박'의 혐의가 씌워졌다. 1920년 12월 2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

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해 공소를 제기하여 1921년 2월 25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되었다. 상고도 제기하였으나 3월 31일 기각되어 서대문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다 1922년 1월 가출옥하였다. 이후 1923년 8월 민립대학 설립을 위해 민립대학설립기성회 예산지방부가 결성되자 집행위원으로 선임되었다. 이를 인정받아 2021년 건국훈장 애족장에 서훈되었다.

임시정부는 3·1운동 후 국내에서 조직된 비밀단체와의 연계도 추진했다. 3·1운동으로 고조된 독립에 대한 열망은 비밀단체 조직으로 이어져, 전국적으로 100여 개가 넘는 비밀단체들이 조직되었다. 3·1운동 이후 조직된 비밀단체들은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조직되는 일도 있었으나 임시정부 및 국외 독립운동단체와 연계되어 조직되었다. 이들 비밀단체는 국내독립운동의 근간을 형성하면서 국외독립운동단체와 연결해 항일투쟁을 전개했다.

조인원(趙仁元, 1875. 4. 19~1950. 4. 17)은 대한독립애국단에 참여해 임시정부 지원 활동을 전개했다. 대한독립애국단은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직후 4월에 논산 출신 신현구(申鉉九)를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서울에 본부를 두고 그 아래 도단(道團), 군단(郡團)을 설치했다. 본부에는 단장·서무·통신·외교·학무 등의 부서가 있었으며, 도단에는 국장, 군단에는 과장을 두었다. 도단은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에 있었다. 강원도단(江原道團)에 비해 규모가 작았지만, 조직과 활동면에서 두드러진 모습을 보였다. 예산인으로 대한독립애국단 활동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조인원이다.

그는 봉산면 시동 출신이다. 자(字)는 백효(伯孝), 호(號)는 야운(冶雲)이다. 가명으로 신효균(申孝均)을 사용했는데 이는 외가의 성(性)을 따른 것이다. 1875년

한양조씨 33대손으로 아버지 조종호(趙鍾灝), 어머니 평산신씨(平山申氏)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 조종호는 사헌부 감찰을 역임했던 인물로, 1907년 국채보상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덕산지소장(德山支所長)으로 활동했다. 조인원은 대한제국기 중추원 의관(議官)을 지냈으며, 아버지의 영향으로 국권회복운동에 참여했다. 이와 같은 구국 활동은 일제강점 이후 독립운동으로 이어졌다.

1919년 4월 대한독립애국단이 서울에서 비밀리에 결성된 후, 5월 조인원은 임시정부 파견원 이영식(李英植)과 연계하여 대한독립애국단 충청도단을 조직하는 데 참여했다. 단장은 서병익(徐丙益), 부단장은 김석주(金錫周), 그는 서무부장으로 연락교통원 서정환(徐廷煥)과 함께 각종 독립운동 문서 배포와 선전, 군자금 모집의 임무를 맡았다. 일련의 활동을 펼치다가 1920년 12월 20일경 서울에서 보낸 임시정부 군정서 이름으로 된 선전문을 받아 삽교면 역촌리 도로 옆 계시판에 붙였다가 체포되었다.

선전문에는 ‘독립정부는 열국이 승인해도 정치적 명령을 국내에서 떨치지 못함은 섬나라 오랑캐의 탐욕과 포악이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하니 조선인은 세금을 납부하지 말라. 만약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독립군이 조선 안으로 들어올 때 후회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었다. 체포 후 6개월이 넘도록 취조를 받다가 1921년 8월 21일 경성지방법원 공판에 회부되었다. 한 달만인 9월 12일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이를 인정받아 1991년 건국훈장 애족장에 서훈되었다.

2. 김영진의 대한건국단 활동

김영진(1880~미상)은 김좌진(金佐鎮)과 종질 간으로, 1920년 대한건국단(大韓建國團)에서 ‘조선의 독립을 희망하고 중국 길림에 있는 조선독립운동의 기관인 길림군정부의 군무독판 겸 총사령관이라는 김좌진 등의 행동에 조선독립운동을 달성시킬 목적으로 동지인 윤상기·이치국·백남식·윤태병 등과 공모하고 조선 각지의 부자들에게 독립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도록 하여 이를 위의 김좌진에게 보낼 것을 계획’하였다. 당시 김좌진은 대한군정부(大韓郡政府, 이후 대한군정서)에 참여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한건국단의 자금모집은 김좌진뿐만 아니라 대한군정서에 대한 지원 활동이었다.

그는 삽교면 창정리 출신으로, 조병채(趙炳彩)와 함께 독립을 희망하며 대한건국단 지원 활동에 참여했다. 당시 윤상기(尹相起), 이치국(李致國), 백남식(白南式), 윤태병(尹太炳) 등과 협동하여 각지의 부호에게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여 김좌진 등에게 보낼 것을 계획했다. 노재철(盧載喆), 김명수(金明秀), 유기종(柳冀宗), 이완백(李完伯), 이창호(李昌鎬), 김백순(金伯順), 이상설(李商雪) 등이 뜻을 같이하여 합류하였다. 이들은 논산, 금산, 부여, 익산 등 금강을 끼고 있는 충청남도 남부와 전라북도 북부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특히 김영진은 부여에서 집중적으로 군자금 모집 활동을 전개했다.

1920년 11월 이창호의 집에서 노재철을 만났다. 그는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 자금 모집 활동을 위해 파견되었으나 동지가 없어 곤란한 상황을 설명했다. 동시에 임시정부에서 내어준 경고문, 유고문, 군자금 청구서 등을 보여주며 참여해



〈대한건국단원 체포(《동아일보》 1921. 5. 15)〉

터 100원을 받으며 ‘납부지원서’를 쓰게 했다.

이후 그는 직접적인 활동보다 주로 군자금 모집 활동을 지도했다. 우선 노재철에게 익산군 용안면 흥왕리의 이규석(李圭錫)에게 가서 군자금을 요구하도록 했다. 그러나 자금을 받아오지는 못했다. 지도 활동은 계속되었다. 1921년 1월 김영진의 지도에 따라 노재철과 이치국은 부여군 충화면 청남리 김영만(金領滿)의 집으로 갔다. 이들은 김영만에게 임시정부 경리국 경고서(警告書)를 주며 군자금을 요청했다. 결국 400원과 납부지원서를 받아냈다.

같은 시기 김백순도 김영진의 지도를 받아 부여군 석성면 현내리 이태현(李台憲)을 찾아갔다. 휴대한 권총으로 압박하며 군자금 납부를 요구해 1,000원을 수령하는데 성공했다. 부여의 임천면 구교리에 거주하던 김명규(金明奎)도 노재철의 방문을 피하지 못했다. 그러나 군자금 수령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이 또한 김영진의 지도를 받은 것이었다. 노재철은 이치국과 함께 같은 면의 만지리 김재철

줄 것을 호소했다. 곧 부여군 규암면 석동리에 있는 임성재(任性宰)의 집을 찾았다. 임시정부에서 군자금 모집을 위해 왔다며 금전적 지원을 요구했다. 불응하면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은근한 협박도 잊지 않았다. 이에 임성재로부터

(金在哲)에게도 갔다. 김재철에게서는 300원을 수령할 수 있었다. 부여군 구룡면 동방리 박남규(朴南奎)에게는 1,000원을 받았다. 이와 같은 활동은 1921년에도 이어졌다.

1921년 3월 24일경 김영진은 이완백과 함께 부여군 남면 대송리 최문기(崔文基)의 집에 갔으나 부재중이어서 군자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4월 초 김영진을 비롯한 동지들은 군자금 모집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보령군 청라면 장산리 김명수의 집에서 임시정부 군정서와 재무서 도장 등을 조각하고, 자금 모집시 필요한 문서들을 작성해 인장을 찍었다. 이어 5월 2일 김명수, 이완백과 함께 보령군 대천면 화산리 황오현(黃五顯)의 집에 가서 860원을 받아왔다.

한편 김영진은 군자금 모집 때 권총을 휴대했다. 당시 일제 경찰은 이들을 체포하며 권총을 비롯해 임시정부 경리국 경고장, 특파원증, 납금명령서, 군정부 영수증 용지, 군정부 포상장 용지, 임시정부 영수증 등을 압수했다.

일제는 이와 같은 군자금 모집 활동을 ‘정치적 변혁을 목적으로 다수 공동의 안녕질서를 방해한 행위’로 상정했다. 이에 1922년 4월 19일 공주지방법원에서 ‘대정(大正) 8년 제령 제7호’ 및 ‘총포화약류 취체령’ 위반과 함께 이른바 ‘강도’의 죄명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체포된 동지 중 가장 무거운 판결이었다. 노재철이 징역 9년, 나머지는 징역 3년 이하였다. 이들은 굴복하지 않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9월 18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가장 형량이 커던 김영진과 노재철의 공소는 기각되었다. 이를 인정받아 1995년 건국훈장 애국장에 서훈되었다.

3. 박우균의 한국혁명청년회 활동

박우균(朴禹均, 1907. 7. 25~1986. 8. 9)은 예산면 주교리에서 출생했다. 중국으로 건너가 1924년 9월 상하이의 3·1공학(公學)을 거쳐 황포군관학교(黃埔軍官學敎) 우한(武漢)분교에 입교했다.

황포군관학교는 1924년 중국 광저우(廣州)에서 있었던 국공합작(國共合作)의 결실로, '혁명군의 근간으로 삼아 제국주의와 봉건 군벌을 타도해 국민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세워졌다. 정식명칭은 '중국국민당 육군군관학교(中國國民黨 陸軍軍官學校)'였지만 '황포군관학교'로 잘 알려져 있다. 황포군관학교의 소재지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황포도(黃埔島)였기 때문이다. 박우균이 입교할 때의 정식 교명은 '국민혁명군 중앙군사정치학교(國民革命軍 中央軍事政治學校)'였다. 황포군관학교에는 의열단원을 비롯해 통의부(統義府) 등 만주 지역 독립군단체의 한인이 다수 입교하고 있었다.

우한분교는 군벌 타도를 목적으로 한 북벌전(北伐戰)의 초급간부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1926년 황포 본교 5기생 중 일부가 우한으로 이동하는 한편 추가모집이 있었다. 이때 박우균은 우한분교 5기생으로 입학했다. 특히 한인 입교에는 광저우와 우한 지역의 한인독립운동단체 유월한국혁명동지회(留粵韓國革命同志會), 유악한국혁명청년회(留鄂韓國革命青年會)와 관련이 깊었다.

박우균도 유악한국혁명청년회(留鄂韓國革命青年會)에서 활동했다. 이 단체는 1927년경 우한 지역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와 우한분교 한인 입교생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것으로, '한국민족혁명 및 사회혁명, 세계혁명군중과 연합을

통한 세계혁명 완성'을 기치로 내세웠다. 4월 장제스(蔣介石)의 '반공 쿠데타' 이후 5월 우한분교 입교생 대부분이 중앙독립사(中央獨立師)로 편제되었으나 중국의 제1차 국공합작이 붕괴하면서 1927년 8월 이후 폐쇄되었다. 이후 중국군 장교로 복무하다가 광복 이후 귀국해서 육군사관학교 제5기로 임관했다. 1960년 육군 대령으로 예편했다. 이를 인정받아 1990년 전국훈장 애족장에 서훈되었다.

4. 신현상의 독립운동과 호서은행 사건

1) 중국망명과 아나키즘 수용

신현상(申鉉商)은 1905년 1월 충남 예산군 예산면 신례원리(新禮院里) 용곡(龍谷)에서 태어났다. 호적상의 이름은 신현정(申鉉鼎)이며, 호는 일연(一鷺), 본관은 평산(平山)이다. 아버지 신학균(申學均)은 간재(艮齋) 전우(田愚)에게 가르침을 받은 척사유림(斥邪儒林)으로 항일적 성향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신현상은 부친의 영향으로 항일의식을 형성했고, 독립운동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

그의 국외 망명은 당진 출신 최석영(崔錫榮)과 만나면서 구체화되었다. 최석영은 당진·예산 일대에서 미곡상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신현상의 민족의식과 항일 의식을 보고 상하이 망명을 권유했다. 최석영의 권유에 따라 1926년 3월 중국 상하이로 망명하였고,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아나키즘을 받아들였다. 수용하게 된 계기는 중국에서 아나키즘운동을 벌이던 백정기(白貞基)·유기석(柳基石)·이을규(李乙奎)·이정규(李丁奎)·정화암(鄭華岩) 등과 교유하면서 이루어졌다. 정화

암과 이을규·이정규 형제는 1921년 5월 중국으로 망명한 후 이회영(李會榮)과 함께 영정하개간사업(永定河開墾事業)을 추진했으며, 1924년에는 베이징(北京)에서 재중국조선무정부주의자 연맹을 결성했다. 백정기는 1924년 베이징으로 망명해 이을규·이정규와 교유하면서 아나키스트가 되었고, 재중국조선무정부주의자 연맹에도 참여했다. 유기석은 1924년경 베이징에서 아나키즘 연구·선전 활동을 전개했으며, 베이징 민국대학에서 중국 아나키스트들과 흑기연맹을 조직했다. 이처럼 신현상이 상하이에서 교유했던 이들은 중국 관내 지역에서 활동 하던 대표적인 아나키스트였다.

그러나 신현상의 상하이 생활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자금의 부족으로 생계조차 어려웠기 때문이다. 동지들과 아이스크림을 팔거나 글씨를 써서 팔아 생계를 유지해야 할 정도였다. 이러한 생활이 지속되자 유기석은 신현상의 국내 복귀를 권했다. 언어가 통하지 않고 풍토와 사정을 잘 모르기에 상하이에서 독립운동은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독립운동은 고사하고 생계를 걱정해야 할 정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신현상은 유기석의 권유에 따라 국내로 돌아왔다. 유기석은 동갑이었으나 중국 아나키즘운동의 지도적 위치에 있었기에 신현상은 그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다. 국내로 돌아오기 직전 난징(南京)에서 유기석을 만나 국내로 돌아가는 일을 상의했으며, 호서은행(湖西銀行)에서 자금을 탈취한 후 중국으로 돌아와 처음 찾아간 이도 유기석이었다. 유기석은 국내로 돌아가는 신현상에게 다시 중국으로 돌아올 때는 자금을 마련해 올 것을 당부했다.

2) 호서은행 사건

신현상은 1929년 봄 국내로 돌아왔다. 돌아온 후 동지들을 규합하며 자금 모집을 추진했고 호서은행에서 자금을 탈취했다. 이 일은 최석영과 함께 추진했다. 신현상은 귀국한 후 최석영을 만나 아나키즘을 소개하고 중국에서의 독립운동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상하이에서 활동하는 아나키스트들이 자금 문제로 활동이 어렵다는 점을 알리고 자금을 모집해 중국으로 망명할 것을 제안했다. 최석영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대상은 호서은행이었다. 호서은행은 1913년 충남 예산에서 설립된 은행이었다. 지방에서 설립된 은행임에도 내포 지역의 미곡 무역을 기반으로 충남 서북지역 금융을 장악하고 있었다. 본점을 예산에 두고 충남 광천(1917년)·천안(1919년)·홍성(1921년), 경기도 안성(1919년)에 지점이 있었다. 1927년에는 본점을 천안으로 옮기고 충남 대천(1929년)과 경기도 장호원(1928년)에 지점을 추가로 설치했다.

호서은행의 주요 영업 대상은 예산 일대 미곡 무역을 하는 지주와 곡물상들이었으며, 이들에게 어음거래를 통한 대출이 주요 수입이었다. 따라서 호서은행과 미곡상들은 어음에 의한 신용거래를 관행으로 하고 있었다. 최석영은 당진·합덕·삽교·예산·신례원·선장 등에서 정미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최석영이 운영했던 정미업의 규모는 알 수 없으나 충남의 당진·예산·아산 등지에서 정미업을 운영한 것을 보면 상당한 규모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호서은행과 신용거래를 할 수 있었고, 신현상과 함께 자금을 탈취한 것이다.

신현상과 최석영은 인천기선주식회사(仁川汽船株式會社)의 인장(印章)을 조각했고, 그것으로 인천기선주식회사 선하증권(船荷證券) 15통을 위조했다. 신현

상과 최석영은 위조한 선하증권을 가지고 위조어음을 발행했고, 1930년 3월 호서은행에서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인출했다. 이들이 위조한 어음의 액면가는 7만 원이었으며, 할인을 받아 찾은 금액은 5만 8,000원이었다. 자금인출은 호서은행 예산지점과 천안본점에서 이루어졌다. 위조한 금액이 거금인 관계로 예산



대한건국단원 체포(《동아일보》 1921. 5. 15)

지점에서 모든 금액을 인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호서은행 사건에는 신현상과 최석영 외에도 정만희(鄭萬熙)·석윤옥(石潤玉)·김학성(金學成)·신현국(申鉉國)·장재욱(張在旭)·인각수(印玗洙)·최병하(崔秉夏) 등도 참여

했다. 석윤옥은 인장을 위조한 조각가였으며, 인각수와 신현국은 탈취한 자금 일부를 보관하고 있다가 체포되었다. 최병하는 최석영의 친족이었으며, 신현국은 신현상의 집안 인물로 보인다.

장재욱은 예산 출신의 아나키스트였다. 신현상은 국내로 돌아온 후 관서흑우회(關西黑友會)가 주최한 전조선흑색사회운동자대회(全朝鮮黑色社會運動者大會)에 참여했다. 관서흑우회는 1927년 12월 평양에서 이홍근(李弘根)·최갑룡(崔甲龍) 등이 조직한 아나키즘단체였으며, 흑색운동자대회는 관서흑우회가 1929년 11월 10·11일 평양에서 개최하려 했던 아나키스트 대회였다. 신현상은 11월 7일 대회 참석을 위해 평양에 갔다가 평양경찰서에 체포되었고, 장재욱은 같은

날 평안남도 대동경찰서에 체포되었다. 신현상은 11월 11일, 장재욱은 11월 12일에 풀려났다. 신현상은 국내로 돌아온 후 국내에서 아나키스트들을 중심으로 동지를 규합했고, 이들과 함께 호서은행 사건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3) 무정부주의자대표자회의 개최와 체포

1930년 3월 신현상은 탈취한 자금을 가지고 베이징에 도착했다. 신현상이 베이징으로 간 이유는 유기석 때문이었다. 국내로 돌아온 후에도 계속해서 유기석과 연락을 취하며 활동했고, 자금 탈취 후에도 베이징에서 활동하고 있던 유기석을 찾아갔다. 신현상과 유기석은 탈취한 자금을 의열투쟁에 사용하고자 했다. 신현상은 텐진(天津)에 있는 일본영사관을 공격하기 위해 무기를 구입했고, 유기석은 상하이에서 1930년 4월 남화한인청년연맹(南華韓人青年聯盟)을 결성했다.

신현상이 베이징에 도착하면서 중국 관내와 만주 지역 독립운동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신현상이 거금을 탈취했다는 소식은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독립운동가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이 소식은 '천우신조·기사회생'으로 인식될 정도였으며, 임시정부의 김구(金九)도 이 자금을 활용하고자 했다. 신현상과 유기석은 탈취한 자금을 아나키즘운동에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무정부주의자대표자회의(無政府主義者代表者會議)를 소집했다.

무정부주의자대표자회의는 중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던 아나키스트들을 소집해 독립운동의 새로운 방략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대표자회의는 1930년 4월에 개최되었다. 대표자회의에서 탈취한 자금을 만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민족해방운동기지 건설지원과 중국 관내에 분과별로 분배할 것을 결의했다. 그러나

이 결의안은 수포로 돌아갔다. 1930년 4월 28일 일본영사관과 결탁한 중국 경찰의 습격을 받아 신현상을 비롯해 유기석·김종진·이을규·최석영·정래동·오남기·국순엽·차고동·김지강 등 참석자 대부분이 체포되었기 때문이다. 5월 16일 이들은 베이징시에 근무하는 유기석의 노력으로 모두 석방되었다.

그러나 신현상과 최석영은 풀려난 직후 다시 체포되었다. 일제가 호서은행 사건의 주범으로 그들을 지목하여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서였다. 유기석은 여론을 조성해 이들의 국내 송환을 반대하는 활동을 벌였다. 그의 노력으로 베이징의 신문들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신현상과 최석영의 일본영사관 인도에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텐진의 일본영사관에 인도되었고, 1930년 7월 국내로 송환되었다. 12월 신현상과 최석영은 공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1931년 2월 경성복심법원에서 3년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독립운동에서 자금의 탈취는 수없이 전개되었다. 그럼에도 호서은행 사건이 주목되는 이유는 재중국 한국인 아나키즘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1920년대 중국에서는 많은 아나키즘 단체들이 조직되었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자금 부족으로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랐다. 물론 무정부주의자대표자회의에 참석한 이들은 체포되었고, 구입한 무기와 탈취한 자금도 빼앗겼다. 그러나 호서은행 사건은 중국에서 활동하던 아나키스트들이 투쟁방략을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했고, 남화연맹(南華聯盟)이 결성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남화연맹은 1930년대 대표적인 아나키즘단체로 발전했다. 이 단체는 재중국 한국인 아나키즘운동의 구심체가 되었으며, 1930년대 중국 관내에서 전개된 의열투쟁의 선구적 역할을 담당했다.

5. 윤봉길의 독립운동과 상해의거

1) 항일의식의 형성과 국내독립운동

윤봉길(尹奉吉)은 1908년 6월 21일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에서 아버지 윤황(尹璜)과 어머니 경주김씨(慶州金氏)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본명은 우의(禹儀)이며, 어릴 때 호는 매현(梅軒), 자는 용기(鏞起)이다. ‘봉길’은 별칭이다. 파평(坡平) 윤씨 시조 태사공 신달(莘達)의 31대손이며 판도공파(版圖公派)이다. 판도공승례(承禮)는 고려 공양왕 시기 판도사(版圖司) 판서였다. 또한 윤관의 28대손이다. 그의 집안은 6대조 사수(仕守) 때 충청남도 당진으로 옮겨와 살기 시작했고 3대조 즉 증조부 윤재(尹梓) 때부터 예산 덕산 시량리에 정착했다. 조부는 윤재의 막내 윤진영(尹振榮)으로, ‘땅 두더지’라 불릴 정도로 부지런히 농사한 덕에 부농이 되었다.

윤봉길은 어릴 때 말더듬이 심했다. 한글과 소학(小學)을 배운 어머니는 어린 윤봉길의 말더듬을 교정하기 위해 매일 밤 천자문 발음을 바로잡아 주었다. 또한 성삼문 등 옛이야기를 들려주며 나라에 대한 충심을 길러주었다. 이는 장남이었던 윤봉길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1918년 봄 11세의 윤봉길은 덕산공립보통학교에 입학했다. 다음 해 3·1운동이 일어나 3월 3일 예산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충청남도에서는 최초였다. 4월 3일 고덕 한천시장에서 만세운동이 다시 일어나 1,000여 명의 주민들이 만세를 부르며 행진했다. 만세운동은 다음날 예산 전역으로 퍼졌다. 4월 4일 오후 1시가 지나 덕산면 덕산시장에서도 약 30명의 군중이 모여 만세를 외쳐 3명이 체

포되었다. 12세의 윤봉길은 이와 같은 만세운동을 목격했다.

그는 교장과 교사가 대부분 일본인인 학교에서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곧바로 부모님에게 ‘일본 사람이 되라는 학교는 가지 않겠다’라며 덕산공립보통학교를 자퇴했다. 부모님은 배워서 힘을 길러야 한다며 만류했지만, 윤봉길은 결정을 변복하지 않았다. 어린 나이였지만 식민지교육의 한계를 간파했던 것이다. 서당에 들어간 윤봉길은 스승 최은구로부터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수탈한 우리 땅에 대해 들었다. 더구나 조선총독부의 서당규칙령에 의해 서당이 폐지되면서 식민지 아래 조선의 전통 교육이 파괴되는 것을 몸소 경험했다. 1921년 14세의 윤봉길은 둔지미에 있는 오치서숙(烏峙書塾)에 들어가 유학자 성주록(成周錄) 선생에게서 사서삼경과 한시를 배웠다. 이듬해인 1922년 3월 22일 삽교면 신리에 살던 성주 배씨 배용순(裴用順)과 결혼했다.

한편 윤봉길은 한학을 공부하면서도 『동아일보』, 『개벽』 등 신문과 잡지를 읽으며 신학문과 세계의 변화상에 대한 배움을 놓지 않았다. 16세에는 ‘적국(敵國)인 일본을 알기 위해서는 그들의 말을 배워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일어속성독본』을 구입해 1년 동안 스스로 익히기도 했다. 이때 익힌 일본어는 후일 상해의 거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

17~18세 무렵 자기 집 한쪽에 서당을 차렸다. 인근의 7~8세 어린이들에게 천자문과 한글을 가르쳤다. 당시 그 유명한 묘묘 사건이 있었다. 어느 날 공동묘지의 나무 묘묘를 한 아름 든 젊은이가 찾아와 본인 아버지를 찾아달라고 했다. 젊은이에게 부친의 이름을 묻자, ‘김선득’이라는 대답을 듣고 바로 찾아주었다. 하지만 젊은이는 묘묘를 뽑으면서 자신 아버지의 묘묘 찾는 것에 몰두하여 각 묘묘

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표시하지 않았다. 결국 자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묘까지도 알 수 없게 만든 것이다. ‘무지!', 윤봉길은 충격을 받았다. ‘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일제의 무력통치보다 더 무섭지 아니한가’라고 생각하였다.

윤봉길은 마을 어른들과 상의한 후 세 칸짜리 강당을 세웠다. 그리고 덕산공립보통학교 및 오치서숙 동문들과 함께 야학을 열었다. 1926년 가을 그의 나이 19세 때였다. 당시 야학운동이 농촌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그는 야학 교재로 『농민독본』 3권을 저술했다. 이는 천도교 계통 농민 잡지인 『조선농민』을 참고한 것이었다. 제1권은 조선글 편, 제2권은 계몽 편, 제3권은 농민의 앞길 편으로, 농민 해방, 농촌경제 구제, 농촌계몽운동을 통한 국권회복이 그 취지였다.

한편 농민 경제 자립을 목적으로 농민회를 조직했다. 1927년 3월 목계농민회(沐溪農民會)의 시작이었다. 목계농민회는 두레 정신을 바탕으로 공생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증산운동을 전개하고 공동구매조합을 만들었다. 이어 1929년 2월 22일 시량리에서 동지들과 함께 위친계(爲親契)를 조직했다. 목적은 효와 상례(喪禮)를 정성껏 하는 것이었다.

1929년 3월 본격적인 농촌계몽운동을 위해 짓기 시작한 부흥원(復興院) 건물이 완공되었다. 같은 날 야학 어린이들의 학예회가 있었는데, 이솝우화 ‘토끼와 여우’를 각색한 연극이 공연되었다. 거북이와 토끼가 빵을 나눠 먹으려고 하는데, 여우가 나타나 둘로 갈라 나누고서는 한쪽 빵이 더 크다는 평계를 대며 양손의 빵을 번갈아 베어 무는 내용이었다. 거북이와 토끼를 힘없는 한국에 비유한 것이었다. 이 일로 이튿날 윤봉길은 덕산경찰주재소에 불려 갔다. 아이들의 촌

극이었다는 변명으로 풀려났지만, 일제 식민지하 한국인의 현실을 빼서리게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4월 3일에는 농민회원 및 야학생들과 산림 녹화사업 일환으로 마을의 목독 마련을 위해 식목 행사를 개최해 포플러 6,000주와 밤나무 1,000주를 심었다. 4월 23일에는 월진회(月進會)를 조직하고 회장에 추대되었다. 목적은 상애상조, 근검절약, 양풍미속 함양이었으며 나아가서는 생존경쟁 시대 살아남기 위한 자급자족과 운명 개척을 취지로 했다. 월진회의 주요 사업은 농촌부흥운동이었지만 문맹퇴치 및 애국사상 고취 활동, 저축증대 사업, 수암체육회 발족 등 다양한 운동을 전개했다.

이처럼 윤봉길은 어릴 때부터 형성된 항일의식을 바탕으로 10대 후반부터 문명퇴치운동과 농촌계몽운동을 지속해서 전개해 나갔다. 하지만 1929년 11월 일어난 광주학생운동으로 이를 지속해 나갈 수 없었다. 윤봉길은 광주학생운동의 정신과 희생된 학생들의 참상에 대해 역설하면서 야학생들에게 항일정신을 고취시키고 투쟁할 것을 호소했다. 이 일로 결국 체포되고 말았다. 3주 동안 취조와 옥고를 치른 후 야학을 계속해 나갈 수 없었던 것이다. 윤봉길은 조국의 독립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섰다.

2) 상해 망명과 의거 과정

윤봉길은 홍주의병장 김복한(金福漢)의 유지를 이어가는 유교부식회(儒敎扶植會)의 민족정신에 감화되었다. 스승 성주록의 주선으로 유교부식회에 입회하여 항일 강연회에 참석하는 등 김복한의 의병정신을 내재화해 갔다. 이는 그의 상하이 망명의 정신적 근간이었다. 하지만 윤봉길의 출가(出家)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친 것은 광주학생운동이었다. 광주학생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투쟁 호소로 체포된 후 일제 식민지하 한국인의 처참함을 빼서리게 절감했다. 더구나 광주학생운동 이후 야학이 강제 폐쇄되면서 항일투쟁 의지는 더욱 굳건해졌다. 윤봉길은 이미 신문을 통해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이에 상하이 망명을 결심했다.

1930년 3월 6일 아침 23세의 청년 윤봉길은 사랑방을 정리하고 정갈히 앉아 붓을 들고 결의에 찬 출사표를 썼다. '장부출가생불환(丈夫出家生不還)'. 그리고는 집에서 마지막 식사를 했다. 아버지께는 여동생의 남편감을 선보려 간다는 핑계로 마지막 인사를 했다. 어머니는 외가에 가셨기 때문에 인사조차 못했다. 그리고는 월진회 공금 60원을 노자로 챙겼다. 갓 두 살 된 큰아들을 한 번 안고, 부엌에 있는 아내에게 멋쩍게 물 한 잔을 부탁해 마시고는 집을 나섰다.

그는 삽교역에서 경남선 열차를 탔다. 서울역에 도착해 신의주행 열차로 갈아탔다. 이튿날 아침 9시경 선천역에 도착할 즈음 월진회 동지 황종진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미처 다 쓰지 못했는데 차표 검사가 있었다. 조사원이 신의주에 가는 이유, 친척의 이름과 주소를 물었다. 윤봉길이 당황하자 사복 경찰이 소리를 지르며 몸을 수색했다. 마침 편지가 발견되었다. 일제 경찰은 편지 내용의 '만주 별판'을 들먹이며 윤봉길의 따귀를 때렸다. 이에 저항하자 선천역에서 끌어내려졌다. 선천경찰서에서 열흘 남짓 취조를 받고 나온 윤봉길은 정주여관이라는 곳에서 얼마간 머물렀다. 여기에서 김태식, 선우옥, 한일진 등을 만났다. 이들을 통해 만주의 독립군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3월 압록강을 건너 중국 안동(安東, 현 단동)으로 넘어갔다. 3월 31일 한일진

과 동행해 배를 타고 칭다오(青島)를 향했다. 칭다오에서 미국으로 떠나는 한일진에게 자신이 갖고 있던 여비를 모두 주고서는 헤어졌다. 말도 통하지 않는 중국에서 졸지 간에 유랑자 신세가 된 윤봉길은 가까스로 한국인이 운영하는 송죽당이라는 음식점을 찾았다. 자신의 처지를 동정한 음식점 주인을 통해 나카하라 켄타로(中原兼太郎)라는 일본인이 경영하는 세탁소 점원 자리를 얻었다. 이때 『일어속성독본』으로 일본어를 익힌 것이 도움이 되었다. 윤봉길은 월급을 모아 자신이 예산을 떠날 때 가지고 온 월진회 공금 60원을 보냈다. 한편 1930년 10월 어머니와 큰아들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이 집을 떠나온 이유와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집에는 떠나올 때 미처 알지 못했던 둘째 아들이 태어나 있었다. 칭다오의 생활이 1년이 되어 노자가 마련되자, 세탁소를 그만두고 상하이를 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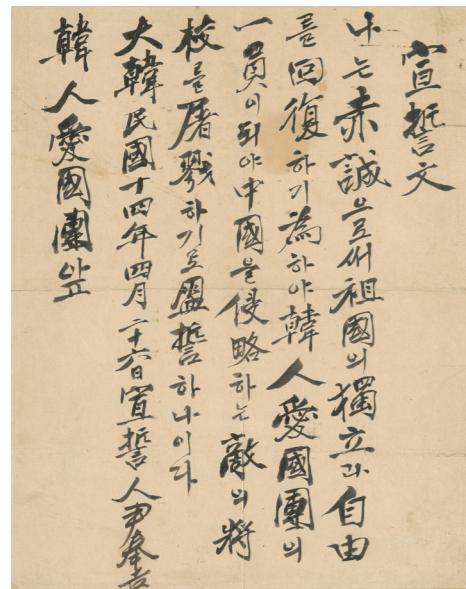
1931년 5월 3일 칭다오에서 상하이행 배를 탔다. 닷새 후 상하이에 도착했다. 한 달간 프랑스 조계 하비로(霞飛路) 화합방(和合坊) 안명기의 집에서 지내면서 한국교민사무소에 신고 수속을 마치고 김구, 이유필 등 임시정부 요인들을 만났다. 이곳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중국에서 영약으로 알려진 인삼 장사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국어가 어설픈 데다가 도매가가 상당히 비쌌다. 무엇보다 고집스럽고 무뚝뚝한 천성에 맞지 않았다. 결국 한 달간의 인삼 장사는 본전도 찾지 못한 채 접어야 했다.

이후 말의 털로 모자를 만드는 프랑스 조계지의 종품공사에 일자리를 구했다. 이곳은 한국인 박진이 공장주였다. 윤봉길은 남들이 몇 달씩 걸린다는 모자 제조 기술을 한 달 만에 익혔다. 게다가 한 사람의 하루 생산량이 2개 정도였는데 그는

3~4개를 만들어 다른 직공들보다 높은 일당을 받았다. 윤봉길은 직공 17명의 뜻을 모아 친목회를 조직해 직공 간 다툼, 공장 간부들의 분쟁으로 인한 원료 공급의 지연, 그로 인한 직공 급여의 불안정 등을 해결하기로 했다. 윤봉길을 비롯한 친목회원들은 일정한 급여 지급과 견습생의 생활보장금 지급을 요구하여 관철시켰다. 한편 그는 친목회비로 중국과 한국의 신문 및 잡지 구독을 늘려 직공들의 지식을 높이고 새로운 직공의 생활비를 보조해 주기도 했다. 1931년 2월경 윤봉길과 친목회는 공장주 측의 경계를 받았다. 친목회 조직 이후 직공 상호 간 신뢰가 높아지고 더불어 생산량이 늘어났지만, 공장주 측에서는 임금을 낮추었다. 친목회는 직공들의 임금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이로 인해 윤봉길과 서상석이 해고당했다. 직공들은 파업에 들어갔다. 안창호와 교민단장 이유필이 중재했지만 결국 복직되지 못했다.

당시 한인애국단은 임시정부의 국무원 의결을 통해 ‘특무대’로써 설립되었다. 조직의 활동 및 책임은 김구에게 전권이 있었다. 1932년 1월 8일 한인애국단 제1호 단원 이봉창(李奉昌)이 일본의 수도 도쿄(東京)에서 일왕(日王)에게 폭탄을 던져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의 주무대였던 중국에서 악화된 중국인의 감정을 풀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봉창 의거와 같은 의열투쟁을 통해 국면을 타개할 필요가 있었다. 이봉창 의거는 시작에 불과했다.

1932년 3월부터 윤봉길은 프랑스 조계 마랑로 보경리(普慶里) 전차 검표원인 계춘방(桂春方)의 집에 기숙하며 흥커우(虹口) 시장에서 밀가루와 채소 장사를 했다. 그는 남루한 차림이었으나 항상 당당했다. 4월 20일 김구를 찾아갔다. 사해다관(四海茶館)에서 김구가 상하이에 온 목적을 물었을 때 윤봉길은 ‘독립운동



윤봉길 한인애국단 가입 선서문

본부가 상하이에 있다고 해서 왔다'라고 대답했다. 이어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마땅히 죽을 자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는 동경사건과 같은 경륜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저를 믿으시고 지도해 주시면 은혜는 죽어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김구는 감복했다. 이후 윤봉길은 같은 찻집에서 김구를 여러 번 만나 독립운동에 대해 토론했다. 두 사람은 상하이 점령 전승 축하식과 일왕

생일인 천장절(天長節) 기념식이 열리는 4월 29일을 거사 날짜로 정했다. 일제의 만주사변 이후 중국 전 대륙에서 항일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 와중에 1932년 1월 8일 일본 도쿄에서 있었던 이봉창(李奉昌) 의거는 중국인들의 항일의지를 북돋웠다. 상하이도 마찬가지였다. 이봉창 의거로 촉발되어 1월 29일 상하이 조계지(租界地)에서 중국군과 일본군의 전투가 벌어졌다. 이로 인해 일본군 3개 사단이 상하이에 파병되었고 결국 점령하였다. 중국은 참패했으며, 일본은 이승리를 자축하고자 축하식을 마련했다. 4월 29일은 중국, 일본을 비롯해 영국, 미국 등 이해 관계국들의 정전협정 조인 예정일이기도 했다.

4월 26일 윤봉길은 한인애국단 제2호 단원으로 가입하고 '적의 장교를 도륙하기로 맹세한다'는 선서문을 쓰고 서약을 했다. 4월 27일에는 흥거우공원을 사전

답사하고 사열대를 만드는 것을 보고 거사할 위치를 잡았다. 일본인 상점에서 보자기 한 자를 구입하고 호텔 동방공우(東方公寓)로 숙소를 옮기고 숙박부에 '이남산, 국적 한국, 25세'라고 적었다. 4월 28일 12시 김구를 만나 중국기독교청년회관에서 점심을 먹고, 일본인 상점에서 시라카와 요시노리(白川義則) 대장과 우에다 겐키치(植田謙吉) 중장의 사진 한 장씩과 일장기를 샀다. 같은 날 저녁 김구의 요청으로 자서 약력과 시 3편을 써서 건넸다. 윤봉길은 김구를 따라 프랑스 조계 화룡로(華龍路) 원창리(元昌里) 13호 김해산 집으로 갔다. 여기에서 폭탄 사용법을 배웠다.

일제는 수뇌부 안전 보장을 위해 입장권을 일본인 거류민에 한정하여 사전 배포했다. 일본인 거류민들은 일장기와 물통 및 도시락 각 1개만 반입할 수 있었다. 통제는 엄격하게 이루어졌다. 4월 29일 아침 7시경 윤봉길은 전날 구입한 시계를 김구의 시계와 바꾸고 김구로부터 폭탄 2개를 받았다. 폭탄은 행사장 반입이 가능하도록 도시락형과 수통형으로 제작되었다. 자동차를 불러 타고 김구와 작별 인사를 했다. 7시 45분 흥거우공원 정문에 도착했다. 망설이지 않고 중국인이 지키고 있는 공원 정문을 통해 입장했다. 곧바로 일반관람석에 섞여 자리를 잡았다.

이날 일본거류민단장 가와바타 사다지(河端貞次), 거류민단 서기장 토모노 모리(友野盛) 등 일본인 거류민 1만 명이 입장했다. 축하식 단상에는 상하이파견군 사령관 시라카와 요시노리와 상하이 침공 주력부대였던 제9사단장 우에다 겐키치 등 상하이 점령의 수뇌부들이 자리했다. 주중 일본공사 시게미쓰 마모루(重光葵), 상하이 일본총영사 무라이 쿠라마쓰(村井倉松) 등 외교 간부, 각국 외교관, 무관들을 합해 참석자는 약 2만 명에 달했다. 윤봉길은 관병식과 축하식을 하나

라도 놓칠세라 관찰했다. 2개의 폭탄을 모두 투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수통형 폭탄을 던지기로 결정했다.

일왕 생일 기념식이 시작되고 일본국가 기미가요가 합창되기 시작했다. 합창이 끝나갈 무렵 단상으로 뛰며 전진했다. 곧바로 단상 위의 시라카와 대장과 우에다 중장을 향해 폭탄을 던졌다. 일본군과 수뇌부 7명 모두가 쓰러졌다. 행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1932년 4월 29일 오전 11시 40분경이었다.

일본군 총사령관 시라카와 요시노리는 중상을 입고 입원했다가 사망했다. 제9사단장 우에다 겐키치, 일본해군 제3함대 사령관 노무라 기치사부로(野村吉三郎) 등은 중상을 입었다. 주중 일본 공사 시게미쓰 마모루는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였다. 상하이 거류민단장 가와바타 사다지는 중상을 입고 즉사했으며, 상하이 총영사 무라이 쿠라마쓰와 거류민단 서기장 토모노 모리도 중상을 입었다.

윤봉길은 의거 즉시 체포되었다. 홍커우공원 맞은편 상하이 일본 제1현병분대에 유치되었다. 심문은 10시간이나 이어졌다. 그는 폭탄 투척 사실을 인정했다. 신분, 폭탄의 입수 경로 등 온갖 질문과 육박이 이어졌다. 그 사이 일제는 이우필(李裕弼), 안창호(安昌浩) 등 의심이 드는 한국인의 거주지를 급습하여 체포해 심문했다. 5월 9일 김구는 상해의거에 대한 영문 성명서를 로이터 통신과 중국 신문사에 발송했다. 한인애국단의 의열투쟁이었음을 밝힌 글이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윤봉길 사진과 선서문도 공개했다.

5월 2일 일본군의 상하이파견군 현병대는 윤봉길에 대한 예심 청구를 했다. 윤봉길은 5월 4일부터 조사를 받았다. 5월 19일 예심이 종결되었고, 5월 20일 이른바 ‘살인, 살인미수 및 폭발물취체벌칙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5월 25

일 윤봉길은 일본군 상하이파견군 군법회의에서 단심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상해의거가 있은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이었다. 그러나 10월 11일 일본군 육군사법경찰관의 취조를 받는 등 조사는 계속되었다. 11월 18일 체포된 지 약 7개월 동안 상하이에 구금되어 있던 윤봉길은 일본우편수송선 대양환(大洋丸)에 실려 고베(新戸) 와다미사키(和田岬)로 보내졌다. 곧바로 사복 현병들에게 인계되어 오사카(大阪) 육군위수형무소 기

결감 중앙 건물 독방에 갇혔다. 12월 18일 오사카 위수형무소장, 제5사단 검찰관 및 사복 현병 4명 등이 동행한 가운데 가나자와(金澤)로 이송되었다. 가나자와 모리모토(森本)역에 내리자, 현병대와 일제 경찰에 둘러싸여 군용차에 실렸다. 오후 5시경 제9사단 위수구금소에 도착해 건강진단을 받았다. 사단장 아라미키 요시카쓰(荒蒔義勝)는 윤봉길의 사형명령서를 받았다. 사형 예정지는 가나자와 육군작업장 서북쪽 골짜기였다.

12월 19일 오전 6시 30분 간수와 현병들이 윤봉길을 불렀다. 오전 7시 15분 짐



1932년 12월 19일 윤봉길 의사의 사형 모습
(『만밀대일기(滿密大日記)』, 1933)

은 쟁빛의 중절모에 양복을 입은 윤봉길은 육군작업장에 도착했다. 검찰관은 윤봉길에게 유언이 있는지 물었다. 윤봉길은 “사형은 이미 각오하여 이에 임하여 하등의 할 말이 없다”라고 답했다. 그는 십자형 틀에 묶였다. 오전 7시 27분 사격명령이 떨어졌고 한 발의 총알이 윤봉길의 미간을 명중했다. 오전 7시 40분 끝내 순국하고 말았다. 유해는 약 3km 떨어진 가나자와 육군 공동묘지 서쪽 한 구석, 안내소에서 감시가 쉬운 공동묘지 통로 쓰레기 적치장 아래에 아무런 표시도 없이 묻혔다.

광복 후 1945년 11월 예산군 덕산면에서 ‘윤봉길선생 유골 봉환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위원회는 김구에게 그 취지를 전달했고, 곧바로 윤봉길·이봉창·백정기(白貞基)의 유해봉환단이 꾸려졌다. 유해봉환단은 도쿄에 있는 박열(朴烈)·이강훈(李康勳)·서상한(徐相漢) 등 일본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청년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1946년 3월 2일 ‘임시정부 유해발굴단’이 가나자와에 도착했다. 며칠 동안 일본군 제9사단 사령부를 비롯해 일본 현병 출신자 가족들 등 인근 지역의 고령자들을 수소문해 매장지를 찾아 헤맸다. 드디어 3월 6일 매장할 때 독경했던 여승의 증언으로 유해를 수습할 수 있었다. 유해는 5월 15일 부산에 도착해 6월 16일 동생 윤남의(尹南儀)의 품에 안겨 서울로 옮겨졌다. 7월 6일 윤봉길·이봉창·백정기 3의사(義士) 국민장이 거행되었고 현재의 효창공원에 안장되었다.

6. 예산인 국외독립운동의 역사적 의의

예산인의 국외독립운동은 3·1운동 이후 본격화된 국외독립운동의 맥락과 일치한다. 만세운동 이후 독립에 대한 열망으로 만주 지역에는 많은 청장년이 모여들었고, 각 지역에서 무장투쟁을 위한 단체가 조직되었다. 하지만 군자금이 늘 부족했다. 예산인들은 우선 군자금을 모집해 국외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투신했다.

이명제와 서정섭은 임시정부 군자금 모집에 일조했다. 이명제는 교통국 직원으로서 국내로 특파되어 이원생 등 동지들과 군자금을 모집했고, 서정섭은 임시정부 군자금 모집원으로 활동했다. 조인원은 대한독립애국단원으로서 충청도단을 조직하는 데 참여했으며, 독립운동 문서 배포와 군자금 모집 임무를 맡아 수행했다. 모은 군자금은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 단체들의 무기 구입과 독립군 양성의 자본이 되었다.

1930년에 있었던 신현상의 호서은행 사건은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군자금 모집 활동 중 하나였다. 이 자금은 의열투쟁을 지원하는 데 쓰였다. 군자금 탈취에 성공하였으나 자금 지원까지 미치지는 못했다. 그러나 남화한인청년연맹이 조직되는 데 기여하였다. 1931년 8월 이후 남화한인청년연맹에 재만조선무정부공산주의자 연맹원들이 일부 합류하면서 조직이 재정비되어 1930년대 대표적인 한국인 아나키즘 조직으로 발전했다. 따라서 신현상의 호서은행 사건은 1930년대 재중국 한국인 아나키즘 운동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예산인 국외독립운동의 대표는 윤봉길 의거이다. 윤봉길의 상해의

거는 김구가 1946년 상해의거 기념식에서 “윤봉길 의사의 거사는 세계를 진동시켰고 우리 조선 사람이 살았다는 것을 세계에 알린 것이다”라고 했듯이, 한국인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우선 한국인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천명한 것이었다. 이는 미국의 「The Daily Telegraph」의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신문은 ‘폭탄 투척자가 조선인이라는 것은 사실이며, 그는 1910년 일본의 조선합병 후 조선독립운동에 가담해 테러 행위에 적극 참가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다. 비록 ‘테러’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독립을 위한 목숨 건 투쟁이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린 것이다.

다음으로 중국 상하이를 침략, 점령한 파견군 사령관 시라카와를 비롯하여 군정 수뇌를 폭살시킴으로써 일제에 큰 타격을 준 대대적인 의거였다. 특히 시라카와의 사망은 일본 정부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일제는 시라카와의 사망과 제3함대 사령관 노무라, 제9사단 사단장 우에다의 부상을 전쟁터에서의 전상사와 부상으로 처리했다. 시라카와의 장례식도 육군장으로 치렀다. 이는 윤봉길의 의거가 단순한 테러가 아닌 한인애국단의 정당한 전투행위였음을 일제가 스스로 입증한 것이었다. 또한 독립운동의 고양과 임시정부 회생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일제의 끊임없는 압제에 침체되어 있던 국내외 한국인들에게 민족의식을 일깨워 주었고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게 하였으며, 항일전선으로 나아가게 하였다.

남화한인청년연맹을 조직한 아나키스트 정화암이 “1932년에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없었으면 임정이라는 것은 거기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략) 그저 백 범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임정의 간판을 메고 다녔지요. 이러다가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있게 되어 임정이 되살아납니다. 중국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되고, 또 해방과 더불어 귀국할 때 그래도 임정을 앞세워 떳떳하게 나서게 되는 것도 모두 윤봉길의 피나는 결과입니다”라고 의거를 평한 데서도 알 수 있다.

나아가 중국 국민당이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장제스는 윤봉길 의거 직후 김구를 만난 자리에서 임시정부를 적극 지원하고, 중국군과 연합 전선을 펴서 일본군과 싸우겠다고 천명했다. 이후 남경중앙군관학교(南京中央軍官學校) 내에 한인훈련반이 편성되었으며, 1943년 11월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을 연합국에 의해 보장받게 된 계기가 되었다. 결국 예산인의 국외독립운동은 1930년대 해외에서의 한국 독립운동을 활기차게 하고 1945년 8월 광복을 맞이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참고문헌〉

- 김상기,『윤봉길』, 역사공간, 2013.
- 김은지,『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내활동 연구(1919~1921)』, 단국대학교, 2019.
- 박환,『만주지역 한인민족운동의 재발견』, 국학자료원, 2014.
- 조은경,『중국 광주(廣州)지역 한인 독립운동 연구(1910~1948)』,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 황민호·홍선표,『3·1운동 직후 무장투쟁과 외교활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 김상기,『윤봉길의 상해의거에 대한 일본 언론의 보도』,《한국독립운동사연구》32, 2009.
- _____,『윤봉길의 金澤에서의 순국과 순국지』,《한국독립운동사연구》41, 2012.
- _____,『윤봉길의 수학과정과 항일독립론』,《한국근현대사연구》67, 2013.
- _____,『윤봉길 상해의거의 국내외적 영향과 의의』,《한국독립운동사연구》61, 2018.
- 김영범,『1920년대 전반기 의열단의 민족운동과 노선 추이』,『한국사회사연구회논문집』, 한국사회사연구회, 1992.
- 김은지,『대한민국 임시정부 초기의 상해-국내간 교통·통신망』,《동국사학》69,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20.
- 김호진,『한족회와 대한독립단의 성립과 연대 양상』,《한국근현대사연구》102, 한국근현대사학회, 2022.
- 박성순,『대한독립단의 위상과 대한광복군사령부의 성립』,《승실사학》45, 승실사학회, 2020.
- 배경한,『윤봉길의거 이후 장개석·국민정부의 한국독립운동 지원과 '장기항전'』,《역사학보》236, 역사학회, 2017.
- 이기동,『황포군관학교 출신 한국인장교들』,《신동아》31, 1987. 8.
- 이성우,『일연 신현상의 독립운동과 사건』,《대구사학》133, 대구사학회, 2018.

이연복,『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적 위상』,《한국민족운동사연구》23,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 1999.

장세란,『중국공산당의 광주(廣州) 봉기와 한인 청년들의 활동』,《사립》24, 2005.

장화,『일제 침략기 한국인의 중국 군관학교 교육과 그 의의』,《통일인문학논총》54,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2.

한상도,『황포군관학교와 한인독립운동』,《국사관논총》41, 국사편찬위원회, 1993.

한시준,『윤봉길의사의 홍구공원의거에 대한 중국신문의 보도』,《한국독립운동사연구》32, 2009.

홍선표,『윤봉길 의거에 대한 국내외 언론의 반응-국내와 구미 언론을 중심으로』,《한국민족운동사연구》97,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8.

제12장

예산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현황과 활용

박경목 충남대 국사학과 교수





예산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현황과 활용

박경목



1. 예산의 독립운동 사적지
2. 독립운동 사적지 현황
3. 활용 방안
4. 과제와 전망

[부록] 예산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일람

1. 예산의 독립운동 사적지

한국의 독립운동은 연령과 계층, 남녀노소 그리고 지역의 경계를 넘어 전개되었던 민족운동이다. 국내는 물론 해외 각지에서 다양한 독립운동이 전개되었다. 따라서 한국 독립운동사는 각 지역의 독립운동사가 주류로 연구되고 있다. 지역의 독립운동사를 기억, 전승하는 방식은 역사학자의 연구 논문이나 저서와 같은 연구 결과물이 있겠으나 전문적인 영역으로 대중이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경로는 독립운동의 흔적이 남아 있는 장소를 보존하여 기념물을 설치하거나, 중요 사건과 인물을 기념하는 기념관을 건립하거나 또는 공원 등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기념물은 탑과 비석, 동상, 조형물 등을 비롯하여 생가 및 사당 등을 충칭한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독립운동 기념물과 그 장소를 통틀어 독립운동 사적지라고 칭하고자 한다. ‘사적’의 개념은 국가가 법적으로 지정한 문화재인 ‘사적(史蹟)’과 달리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시설의 자취

인 ‘사적(史跡)’을 뜻한다.

독립운동 사적지에 대한 각 지방정부의 관심은 2016년 ‘경기도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필두로 전국 각 지역에서 주요 사업의 하나가 되었다. 독립운동사를 밝히고 이를 지역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독립운동 사적지를 발굴, 보존, 정비하는 데 재원과 인력을 투자하고 있다. 독립운동사가 각 지역의 정서적 특징을 규정짓는데 근간을 이루기 때문이다.

예산 역시 ‘충절의 고장’을 표방하고 있는데 그 기저에는 예산 출신 독립운동가와 그들의 독립운동 역사가 바탕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 독립운동사를 밝히기 위한 학술 및 관련 사업이 꾸준히 진행 되어왔고 관련 독립운동 사적지가 보존·정비되어 왔다. 예산지역에서 전개되었던 각계각층의 다양한 방법의 독립 운동 가운데 기념 시설로 남아 있는 독립운동사적지는 운동계열별로 크게 의병, 3.1운동, 의열투쟁, 민족자본 육성, 독립운동 자금지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외에 기념 시설은 없으나 장소가 확인되는 학생운동·노동운동·사회운동의 현장이 있다.

의병 관련 사적지는 조선후기·대한제국기에 유학자이자 의병장인 최익현(崔益鉉)의 묘소가 광시면에 위치하고 있다. 광시는 1906년 3월 15일 홍주의진(洪州義陣)이 모여 출정한 장소이다. 중기의병 중 가장 치열했던 홍주의병 격전의 서막이 펼쳐졌던 지역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홍주의병 관련으로 의진을 지원하고 재기를 도모하다 일제에 의해 피살당한 이남규(李南珪)와 그의 아들 이충구(李忠求)가 살았던 생가와 기념관, 항일투쟁 사적비가 대술면에 있다.

3.1운동 관련 사적지는 1919년 4월 3일 고덕면 한내장터에서 전개되었던 만

세운동을 기념하는 기념탑과 이를 주도한 인한수(印漢洙)의 현충비와 장문환(張文煥)의 의거기념비, 그들을 기리는 사당인 대의사(大義祠)가 고덕면에 위치한다. 그 일대를 공원화하면서 2017년 고덕만세공원 사적비가 건립되어 3.1운동을 기리고 있다. 현재에는 한내장 만세공원으로 개칭되었다. 최근에는 1919년 3월 3일 예산읍 동쪽 산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을 ‘충남 최초로 일어난 3.1운동’으로 기념하는 조형물이 예산군청 앞에 건립되었다. 이외에도 예산읍 예산장터와 대홍면 대홍장터 등지에서 3.1운동이 전개되었으나 그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할 만한 시설은 없는 상태이다. 한편, 3.1운동 당시 중앙 지도체 49인 중 한 사람으로 활동한 박인호(朴寅浩)의 유허비와 생가 터가 삽교읍 하포리 위치한다.

의열투쟁은 예산지역 독립운동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투쟁 방식이었다. 한국 독립운동사에 있어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윤봉길의 고향 덕산면에 관련 유적지가 보존되어 있으며, 그를 기리는 충의사(忠義祠) 및 기념관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윤봉길의 고향임을 알리는 비도 예산읍에 위치하고 있다. 전면에 ‘윤봉길 열사 나고 자란 고향이라’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1949년 4월 29일 건립되었고, 제막식에 김구와 윤봉길의 아버지, 부인, 아들 등이 참석하여 역사적 의미가 있다. 윤봉길이 고향을 떠나 기차를 타고 떠났던 옛 삽교역 터에는 2016년 기념비가 세워졌다. 1915년 결성된 광복회 충청지부장으로 친일 도고면장 박용하(朴容夏) 처단과 군자금 모금 등 활발한 독립운동을 펼친 김한종(金漢鍾)의 생가와 묘소·기념관이 광시면에 있으며, 기념비가 예산읍에 건립되어 있다.

민족자본 육성과 독립운동 자금지원 관련 사적은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경우이다. 그 현장은 호서은행(湖西銀行) 본점이다. 1913년 호서지역 유자들의

순수한 민족자본으로 설립된 최초의 지방은행으로, 1922년 건립된 호서은행 본점의 원형 건물이 예산읍에 현재까지도 보존되어 있다. 이와 연관되어 신현상(申鉉商)이 1930년 위조 어음을 이용하여 호서은행에서 5만 8천 원을 인출하고, 중국으로 건너가 이를 독립운동 자금으로 전달하고자 하였다. 그의 추모비가 예산읍에 있다.

이외에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사회운동 방면에서도 독립운동이 전개되었다. 비록 관련한 기념 시설은 없지만 일제강점기 그 역사적 현장이 확인된다. 1930년대 항일결사 적색독서회 사건과 동맹휴학 등이 전개되었던 예산읍의 예산공립농업학교 터, 1930년 시험지에 백지답안을 내고 만세운동을 펼친 ‘백지동맹’ 사건이 일어났던 대홍면의 대홍공보통학교 터, 1933년과 1935년 두 차례 동맹파업이 일어났던 예산읍의 충남제사공장 터, 1927년 7월 신간회 예산지회가 창립되었던 예산읍의 예산교회 터, 1923년 민립대학기성회 예산지방부가 조직된 예산읍의 예산공립보통학교 터 등이 그것이다. 현재 대홍공립보통학교 자리는 대홍초등학교가 있고, 예산공립보통학교 자리는 예산초등학교가 지키고 있다.

위와 같은 의병, 3.1운동, 의열투쟁, 민족자본 육성, 독립운동 자금지원, 학생운동·노동운동·사회운동 등의 사적지는 예산의 독립운동이 한국 독립운동사의 전개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일제의 침략에 무기를 들고 맞선 의병부터 1919년 전 민족의 항쟁인 3.1운동을 거쳐, 1920년대 이후의 다양한 운동의 양상이 예산에서도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한국 독립운동사의 보편성을 지닌 동시에 예산지역만의 특수성도 공존한다. 최익현, 이남규, 윤봉길, 김한종, 신현상 그리고 호서은행이 특수성의 주체들이다. 예산이라는 인문·자리

적 그리고 정서적 특성이 이 지역 독립운동가와 운동에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들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현재와 후대 미래세대에 전승할 지역의 중요한 자산이 곧 독립운동 사적지이다. 동시에 독립운동 사적지는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역사적 상징으로 작용한다.

2. 독립운동 사적지 현황

예산에 소재한 독립운동 사적지는 총 19개소가 파악된다. 운동계열별로 의병 사적 4개소, 3.1운동 사적 3개소, 의열투쟁 사적 5개소, 민족자본 육성 사적 1개소, 독립운동 자금지원 사적 1개소, 학생운동 2개소, 노동운동 1개소, 사회운동 2개소이다. 각 분류별로 현황을 살펴본다.

1) 의병 사적지

① [사적 1] 최익현 묘

- **위치** 광시면 관음리 산 21
- **관리주체** 개인
- **내용** 최익현(1833~1907)의 묘와 최익현을 기리는 춘추대의비.

최익현은 화서(華西) 이항로(李恒老)의 제자로 외세의 침입에 위정 척사(衛正斥邪)를 강력히 주장하고, 1906년 태인에서 의병을 거의 하였다. 이 일로 일제에 체포되어 대마도에서 순국하였다. 1962년



최익현 묘



면암최익현선생 춘추대의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 **지정현황** 충청남도 기념물 제29호 / 1982년 8월 3일 지정

- **관리상태** 양호. 묘소 밑 재실에 관리인이 거주하며 생활

② [사적 2] 병오홍주의병출진기념비

- **위치** 광시면 광시리 95(광시면 광시소길 16)
- **관리주체** 예산군 광시면
- **내용** 홍주의병이 모여 출정한 장소를 기리는 기념비.

홍주의병은 민종식(閔宗植)을 총대장으로 추대하고 1906년 3월 15일 광시에 수백 명의 의병이 집결하여 홍주성을 향해 출발하였다. 이 곳에서 중기의병사에서 가장 치열했던 홍주의병의 출전이 시작되었다. 집결장소는 구 시장터라고 불리는 곳으로 기념비가 세워진 곳에서 약 350여m 떨어진 광시면 하장대리 10-1일대이다.

- **관리상태** 양호
- **기타** 광시 한우 거리 내 광시행정복지센터 앞에 위치



병오홍주의병출진기념비



안내문

③ [사적 3] 병호홍주의병 재기지(이남규 고택 및 수당기념관)

- **위치** 대술면 상항리 334-2(대술면 상항방산로 181-8)
- **관리주체** 이남규 의병 후손 이문원 선생(개인)
- **내용** 홍주의병을 지원하고 재기를 도모한 이남규의 집과 기념관.

1906년 5월 홍주의병이 홍주성을 점령한 후 일본 정규 군대와의 전투로 패전하자 총대장 민종식에게 의신처를 제공하고, 이용규(李容珪)와 함께 재기를 도모한 장소이다. 이남규(1855~1907)는 이 일로 1907년 8월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 중 아산 외암리 평촌에서 일본군에게 피살, 순국하였다. 이때 아들 이충구(1874~1907)가 아버지 이남규를 구하려다 함께 피살, 순국하였다. 이남규는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 이충구는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 **지정현황** 고택 -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68호 / 1976년 7월 7일 지정
국가 중요민속문화재 제281호 / 2014년 2월 25일 지정



수당 이남규 고택



기념관

• 관리상태 2008년 기념관 개관, 기념관 관리 양호

고택에 후손이 거주, 관리 양호

- **기타** 고택이 1976년 충청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가 2014년 국가 중요 민속문화재로 승격되었다. 수당문화축전가 연 1회 개최되고 있다.

④ [사적 4] 수당 이남규선생 3대 항일 투쟁사적비

- **위치** 대술면 시산리 472-2(충령사 내)
- **관리주체** 예산군
- **내용** 이남규와 아들 이충구, 손자 이승복(李昇復, 1895~1978)의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사적비.

이승복은 이남규의 손자로 1920년대 국내 연통제 조직 결성, 1927년 신간회 예산지회 조직 등의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 **관리상태** 양호



수당 이남규선생 3대 할일 투쟁사적비



안내문

가 현장에서 순국하였고, 이에 장문환(1887~1947)이 주도하여 인한수의 시신을 주재소로 운구하고 주재소장을 구타하였다. 인한수와 장문환은 1992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 관리상태 양호



대의사



한내장 4.3만세운동 기념탑



의사 인한수 현충비



의사 장문환 기념비



한내장 만세공원 - 4.3만세운동 설명문



한내장 만세공원 전경

2) 3.1운동 사적지

① [사적 5] 한내장 4.3독립만세운동 유적

- 위치 고덕면 대천리 646-7
- 관리주체 한내장 4.3만세운동기념사업회
- 내용 1919년 4월 3일 약 1,000여 명의 대중이 한내장터에 모여 만세운동

을 전개한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유적.

한내장 4.3독립만세운동기념탑, 인한수 현충비, 장문환 의거기념비, 대의사, 고덕만세공원 사적비 등이 건립되어 있다. 2017년 이 일대를 고덕만세공원으로 조성하였고, 현재에는 한내장만세공원으로 변경되었다. 한내장 3.1운동 당시 일제의 발포로 인한수(1881~1919)

② [사적 6] 춘암상사(春菴上師) 박인호 유허비와 생가 터

- **위치** 오가면 양막리 51-1(유허비), 삽교읍 하포리 114-2(생가 터)
- **관리주체** 춘암상사박인호유허비 건립추진위원회
- **내용** 천도교 대도주(大道主)로 3.1운동 당시 천도교 보관금 5,000원을 경비로 지원하고 3.1운동 중앙 지도체 49인 중 한 사람으로 활약한 박인호(1855~1940)의 유허비와 생가 터.
유허비와 생가 터는 약 5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축사로 이용되는 곳으로 추정된다. 1990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 **관리상태** 유허비 1985년 건립, 2018년 중수.



춘암상사 박인호 유허비



박인호 생가지 터

- **내용** 충남지역에서 최초로 일어난 3.1운동을 기념하는 조형물.

1919년 3월 3일 저녁 11시 30분경 윤칠영(尹七榮), 권경화(權敬和) 등이 주도하여 예산읍 동쪽 산 위에서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이것이 충남지역에서 최초로 전개된 3.1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윤칠영은 2021년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 **관리상태** 양호, 2020년 3월 1일 예산군에서 건립
- **기타** 예산군청 앞에 위치



충남최초 3.1운동 발생 기념 조형물(앞면과 뒷면)

③ [사적 7] 충남최초 3.1운동 발생 기념 조형물

- **위치** 예산읍 예산리 780(예산읍 군청로 1길 28 인근)
- **관리주체** 예산군

3) 의열투쟁 사적지

① [사적 8] 윤봉길의사 유적

- **위치** 덕산면 시량리 68 일원(덕산면 덕산온천로 183-15 일원)
- **관리주체** 예산군 공공시설사업소
- **내용** 1932년 4월 29일 상하이(上海) 흥커우 공원에서 열린 일본군 전승 및 천장절 축하식에 의거를 단행단 윤봉길(1908~1932)의 출생지 (광현당), 생가지(저한당), 부흥원, 충의사, 기념관. 상해의거로 시라카와(白川義則) 대장과 가와바타(河端貞次) 상해 일본인 거류민단장 등 일제 고위 관료들이 죽거나 부상당했다. 윤봉길은 이 일로 1932년 12월 18일 일본 가나자와(金澤) 육군형무소에서 사형, 순국하였다. 상해의거는 정치적·경제적으로 난관에 봉착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로를 열고 중국 내 한국 독립운동의 여건을 조성하여 한국 독립운동사의 큰 흐름을 바꾸어 놓은 사건이다. 1962년



광현당



저한당



기념관



충의사

전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다.

- **지정현황** 국가사적 제229호 / 1972년 10월 14일 지정

- **관리상태** 양호. 기념관 2001년 개관. 2011년 3월 전시 리모델링

② [사적 9] 매현 윤봉길의사 고향 기념비

- **위치** 예산읍 예산리 482(예산읍 사직로 2)

- **관리주체** 예산군

- **내용** 1949년 4월 29일 윤봉길의 상해의거 17주년을 기념하여 건립한 기념비. 기념비 제막식에 윤봉길의 부친 및 부인 등 가족을 비롯하여 김구(金九)와 정인보(鄭寅普), 서예가 김충현(金忠鉉) 등이 참석하였다.

- **관리상태** 양호



매현 윤봉길의사 고향 기념비(앞면과 뒷면)

③ [사적 10] 매현 윤봉길의사 독립운동 기념비

- **위치** 삽교읍 신가리 266-46



매현 윤봉길의사 독립운동 기념비



삽다리 공원 전경

• 관리주체 예산군청

• 내용 윤봉길이 기차를 탔던 장소를 기념하는 비.

윤봉길이 덕산면 시량리 고향을 떠나 1930년 3월 6일 기차를 타고 중국 망명길로 올랐던 곳이다. 현재에는 삽다리 공원이 조성되었고 이곳에 그 사실을 기념하는 비가 건립되었다.

• 관리상태 양호. 2016년 6월 6일 예산군에서 건립

• 기타 삽다리 공원 내 위치

④ [사적 11] 김한종의사 생가지

• 위치 광시면 신흥리 70(광시면 장신신흥길 283-14)

• 관리주체 김한종 후손 김경식 선생(개인)

• 내용 홍주의병 참전, 광복회 충청도 지부장으로 활동한 김한종의 생가와 묘, 사당, 기념관. 김한종(1883~1921)은 1906년 홍주의병에 참전하고, 1917년 광복회에 가입하여 충청도 지부장을 맡았다. 1918년 1월 충남 아산군 도고면장 박용하를 처단하였다. 이 사건으로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1921년 8월 대구감옥에서 사형, 순국하였다.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김한종 의사 생가지



기념관

• 지정현황 생가 -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353호 / 1997년 8월 5일 지정

• 관리상태 양호. 기념관 2005년 건립

• 기타 김한종 문화제가 연 1회 개최된다.

⑤ [사적 12] 김한종의사 순국기념비

• 위치 예산읍 향천리 17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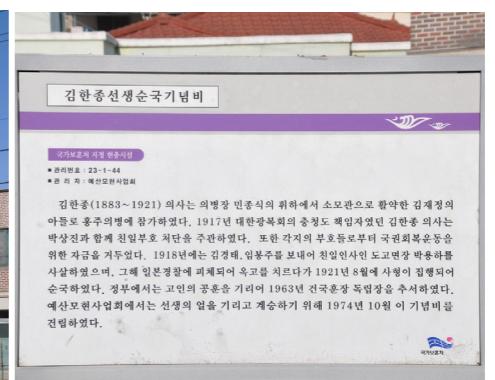
• 관리주체 예산군

• 내용 광복회 충청도지부장 김한종의 순국을 기리는 비.

• 관리상태 양호



김한종의사순국기념비



안내문

4) 민족자본 육성 및 독립운동 자금지원 사적지

① [사적 13] 호서은행 본점

- **위치** 예산읍 예산리 482(예산읍 사직로 2)
- **관리주체** 예산새마을 금고
- **내용** 성낙규(成樂奎)·성낙현(成樂憲)·유진상(俞鎮相) 등과 서울의 백완혁(白完赫)·김진섭(金鎮燮)·백인기(白寅基) 등이 지방의 금융 소통과 실업을 장려할 목적으로 1913년 인가 허가를 받고, 1922년 11월 준공한 호서은행 본점 건물.
지방 최초로 순수 민족자본으로 개설된 은행이다. 2층 규모로 1층과 2층의 창문을 하나로 연결하여 근대적 감각이 돋보이는 건물이다.
- **지정현황** 충청남도기념물 제66호 / 1987년 12월 30일 지정
- **관리상태** 양호. 1922년 건립. 1층 새마을금고로 사용, 2층 강당 미사용
- **기타** 예산새마을금고 소유



호서은행 전면



호서은행 뒷면

② [사적 14] 일연(一鶯) 신현상선생 추모비

- **위치** 예산읍 신례원리 107-1(예산읍 신례원로 236)
- **관리주체** 일연각모연회
- **내용** 1930년 2월 호서은행 예산지점에서 위조 어음을 이용하여 5만 8천 원을 인출,
중국으로 건너가 독립운동 자금을 전달하려 한 신현상(1905~1950)을 기리는 추모비. 그 앞에 호를 딴 ‘일연각’이 있다.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 관리상태 양호



일연 신현상선생 추모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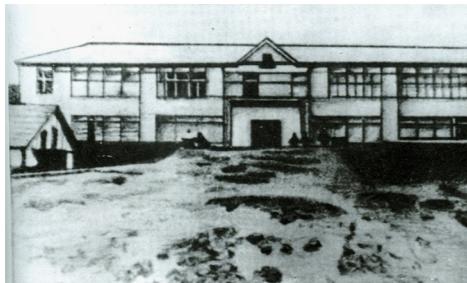
일연각

5) 학생운동·노동운동·사회운동 사적지

- ##### ① [사적 15] 예산공립농업학교 적색독서회 사건, 동맹휴학 운동지(예산공립농업학교 터)
- **위치** 예산읍 예산리 527
 - **내용** 1930년 강봉주(姜鳳柱)·한정희(韓定熙)·박정순(朴正淳) 등 예산공립농업학교 학생들이 적색독서회(赤色讀書會) 활동을 벌였고, 이를 규탄하는 동맹휴학 운동이 일어난 사건.

립농업학교 학생들이 한국인 학생에 대한 차별에 분개하여 독서회(讀書會)를 결성하여 항일 반제투쟁에 관한 서적 등을 학습한 장소이다. 1932년 4월에는 윤봉길의 상해의거에 자극받아 ‘좌익협의회’ 조직되어 같은 해 6월 동맹휴학 투쟁이 일어났다. 같은 해 9월에는 예산학생동맹 조직, 11월에는 일제의 어용 연극단체 만경좌(萬鏡座)의 연극 공연 관람 거부 운동이 전개되었다.

- **상태** 현재는 아파트 단지 일부와 예산군 신청사 일부가 자리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예산공립농업학교



예산공립농업학교 적색독서회 사건 기사
(《조선중앙일보》 1933. 3. 10)

② [사적 16] 대흥공립보통학교 백지동맹 운동지(대흥공립보통학교 터)

- **위치** 대흥면 동서리 82-1(대흥면 의좋은형제길 16)
- **내용** 1930년 3월 광주항일학생운동을 지지하고자 대흥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이 백지 답안을 제출하고 그 후 만세를 고창한 이른바 ‘백지동맹’ 사건이 일어났던 곳.
- **상태** 현재는 대흥초등학교가 자리하고 있다.



대흥공립보통학교 백지답안 사건 관련 기사
(《동아일보》 1930. 11. 14)



현 대흥초등학교

③ [사적 17] 충남제사공장 동맹파업 운동지(충남제사공장 터)

- **위치** 예산읍 주교리 179 인근(예산읍 아리랑로 43 인근)
- **내용** 충남제사공장의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 등에 항의하며 1933년 10월, 1935년 8월 두 차례 동맹파업을 전개하였던 곳.
- **상태** 현재는 석탑유의아파트가 자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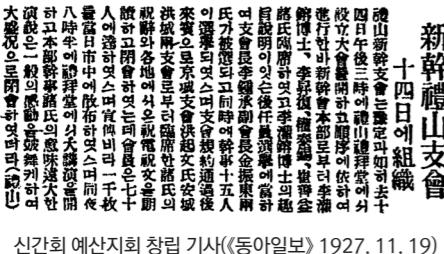
옛 충남제사공장(시기 미상)



현 충남제사공장 터 인근

④ [사적 18] 신간회 예산지회 창립지(예산교회 터)

- **위치** 예산읍 예산리 441-5(예산읍 예산로 202번길 8)
- **내용** 1927년 11월 14일 신간회 예산지회를 조직하기 위해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던 예산교회 터.
이 자리에서 창립 당시 회장 이종승(李鍾承), 부회장 김진동(金振東)
이 선출되었다. 당시 신간회 예산지회 회원은 69명이었다.
- **상태** 현재는 상가 건물들이 자리하고 있다.



옛 예산교회-신간회 예산지회 창립지 인근

⑤ [사적 19] 민립대학기성회 예산지방부 창립지(예산공립보통학교 터)

- **위치** 예산읍 예산리 742-1
- **내용** 1923년 8월 12일 민립대학 설립을 위한 지방부가 설립되었던 예산공립보통학교 터.
이때 한태우(韓泰裕)가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었고, 성낙규, 성낙현, 정봉화(鄭鳳和), 이종덕(李鍾德) 등 예산지역 부호들이 참여하였다.
- **상태** 현재는 예산초등학교가 자리하고 있다.



현 예산초등학교와 입구

이상 총 19개소의 독립운동 사적지는 형태별로 묘(1기), 비석(7기), 조형물(1기), 건물(1기), 터(5개소) 그리고 여러 사적이 배치되어 있는 유적군(4개소) 총 6개의 형태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최익현 묘에는 춘추대의비 1기가 부가되었고, 박인호 유허비에는 생가 터 1개소가 부가되었다. 각 형태별로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19개소 가운데 7개소 36.84%인 비석류이다. 국가보훈부에 지정한 독립운동 현충시설 985개소 가운데 탑·비석류가 579개소, 58.78%인 것에 비하면 적은 비율이지만, 예산 독립운동 사적지 가운데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터는 기념 시설 없이 현장만 확인된 공간이다. 총 5개소로 19개소 대비 26.32%이다. 향후 적절한 안내 장치가 필요함을 상기시킨다.

유적군은 생가, 묘, 비 등 여러 형태의 사적이 모여 있는 것을 의미한다. 윤봉길 유적, 병오홍주의병 재기지(이남규 고택 및 수당기념관), 김한종의사 생가지(생가, 사당, 묘소, 기념관), 한내장 4.3독립만세운동 유적(기념탑, 인한수 현충비, 장문환 의거기념비, 대의사, 고덕만세공원 사적비, 한내장만세공원) 총 4개의 유적군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지역 독립운동 사적지와 구분되는 예산지역의 특징이다. 다수의 사적들이 집성을 이루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유독 예산에는 4개

소나 유적군이 있다. 일부 인물과 특정 사건에 사적이 집중 보존 및 관리, 설치되고 있는 경향이다. 국가사적으로 관리되는 윤봉길 유적을 제외하고 이남규와 김한종 관련 사적은 후손 개인의 헌신과 열정의 결과이다. 그리고 한내장 3.1운동 사적은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노력의 결과이다. 예산을 대표하는 독립운동 사적지는 정부·지자체·지역주민·개인의 역량이 모아지고 협력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위 유적군들이 증명하고 있다.

또 다른 특징은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 5개소, 26.32%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사적으로 윤봉길 유적, 국가 중요민속문화재로 이남규 고택, 충청남도 기념물로 최익현 묘와 호서은행 본점, 충청남도 문화재자료로 김한종 생가지가 지정되었다. 우리나라 전체 문화재 가운데 독립운동 관련 문화재가 한 자릿수 퍼센테이지인 것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치이다. 독립운동 역시 인류 문화 활동의 하나로 충분히 문화재적 가치가 있음을 예산의 독립운동 사적지가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3. 활용 방안

예산은 서울과 약 130여 km의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충청남도 북서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망이 연결되어 있어 외지에서의 접근이 유리하다.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수덕사 IC·고덕 IC·신양 IC를 비롯하여 서해안 고속도로 해미 IC 등의 연결망과 천안을 잇는 국도 45번, 홍성을 잇는 국도 21번, 공주를 잇는

국도 32번 등 주요 도로망을 이용하여 서울, 대전 등지의 대도심에서 접근이 편리하다. 교통의 편리함은 독립운동 사적지를 예산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데에 유리한 강점 요소이다. 또 충청남도 도청의 내포 이전에 따른 신도시 개발과 이로 인해 유입된 사람들로 관광 전반에 대한 수요가 확충될 기회 요소를 갖추고 있다.

반면, 2021년 인구 78,805명으로 10여 년 이상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던 인구 현황과 60세 이상이 41.8%(32,637명)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는 독립운동 사적지를 방문하고 이용할 수 있는 내부 인원의 절대 수치가 줄고 있다는 약점 요소가 된다. 또 도시화에 따른 지역 공동체의 붕괴와 정체성에 대한 결집력 약화는 독립운동 사적지 활용에 위협 요소로 인식된다. 다만 2022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79,571명, 766명이 증가하여 다시 증가추세로 전환되어 향후 긍정적 추세가 기대된다. 이러한 약점과 위협 요소를 강점과 기회 요소로 보완할 수 있는 독립운동 사적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 살펴보자 한다.

1) 지역자원으로 활용

최근 독립운동 사적지는 관광자원이나 도시마케팅 등의 지역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역의 홍보나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 독립운동 사적지를 관람, 방문하는 사람들은 예산의 ‘충절의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무엇’인가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습득하였다는 일종의 지적 만족감을 성취한다. 그 속에서 예산의 지역적 특성을 이해할 것이며, 지역 내에서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하고 소비할 것이다.

지역의 정서를 가장 잘 드러내는 근대 역사에 대한 규명과 재해석을 통해 많은 중소도시들이 그 지역의 정체성을 찾아 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도시 브랜드화 요소를 개발하고 관광산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예산지역의 근대를 대표하는 독립운동 사적지도 이론적인 역사와 문화가 아닌, 지역에 정체성을 제공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며, 지역을 이끌어가는 역동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관광산업이 교육관광, 문화관광, 체험관광, 학습관광 등으로 다양화되었기 때문에 독립운동 사적지가 교육·문화·체험·학습의 요소를 충족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독립운동 사적지는 그동안 보존, 유지, 관람하는 정도의 활용에 머물러 있었다. 앞으로 기대되는 발전적 방향은 각 사적지가 지역주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며, 그 지역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이를 통하여 지역의 정서를 공유하고, 지역민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일정 부분 이익이 배분되는 시스템이다. 지역민들은 자신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이익이 되는 사적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활용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자긍심을 가질 것이다. 이러한 독립운동 사적지와 지역주민 간 상호 상승작용을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람과 방문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으며 도시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이다.

그 방법론의 예시로 예산에서 강조하는 ‘충절’과 ‘친환경’의 이미지와 연계하여 독립운동 사적지를 알릴 필요가 있다. 각 사적지가 가진 지리·환경의 특징을 살려 ‘윤봉길의사 유적지 → 친환경 온천 지대 데산’, ‘수당기념관 → 3대의 애국 충절’, ‘김한종의사 기념관 → 친환경 마을 체험’, ‘대홍공립보통학교 백지동맹 → 의종은 형제, 친환경 슬로우 시티’ 등 각 사적지가 위치한 공간에 대한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다. 독립운동 사적지를 특정 이미지로 브랜드화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사람들의 인식에 각인시키는 것이다. 곧 이미지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다만 독립운동 사적지 각각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홍보 전략을 기획하고 홍보를 전개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비용과 노력이 소모된다. 사적지뿐만 아니라 지역 내 다른 관광자원은 물론 생산·유통되는 상품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 문제에 착안하여 제각각의 특성이 다른 자원들인 독립운동 사적지, 관광지, 지역 특산물(품)을 그룹화하여 홍보함으로써 각 자원의 주체들은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효율적인 홍보 전략을 꾀할 수 있다. 예시로, 독립운동 사적지를 방문하여 스탬프 인증 또는 일정 사이트에 인증사진을 올리면 지역 내 특산물 매장이나 숙박업소에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다.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급해 주어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다. 거꾸로 지역 특산품을 구매하거나 숙박업소를 이용하면 독립운동 사적지와 관광지를 방문할 때 무료입장이나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윤봉길의사 기념관과 같이 넓은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서는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주말을 이용하여 지역 농수산물 특판 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 광시에서는 최익현 묘소와 연계하여 방문 인증을 통해 한우 식당 가에서 할인 이벤트를 제공하여 소비자를 유인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독립운동 사적지의 활용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단계까지 가능하다. 단, 최상의 기회과 실행 전략으로 지역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행사성, 보여 주기식의 전시행정을 지양해야 한다. 큰 자금을 유치하여 일회성으로 무엇인가를 보여 주고, 여기저기 야단법석 떠들어대는 방식은 오히려

지역주민과 독립운동 사적지의 자생력을 가로막는다. 지역주민들의 뜻을 모아 작은 규모로 시작하되 지속되면서 규모를 늘려 나갈 수 있는 장기적 활용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고덕면의 한내장 4.3만세운동기념사업회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자발적으로 기념행사와 음악회를 개최하는 것을 모범 사례로 들 수 있다. 이때 모인 사람들이 고덕면의 식당이나 시장을 이용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독립운동 사적지의 활용은 일회성 이벤트적 아이템보다는 이와 같이 소규모로 지속 가능한 방법이 보다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2) 학습자원으로 활용

일선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등지에서는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내놓고 있다. 그 결과 창의적 체험학습을 위한 사적지 방문, 박물관 방문 등 탐방을 통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2019년부터 예산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사제동행 역사탐방-독립운동 유적지 탐방’도 그 일환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특징은 체험학습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탐방의 외형을 갖추고 있다. 학생들이 부담 없이 참가해 스스로 체험하고 배우는 학습 프로그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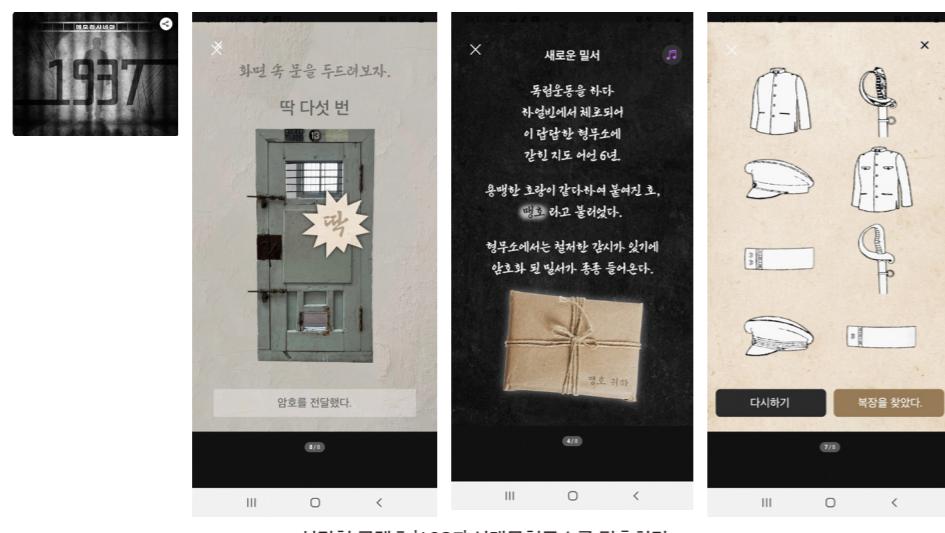
독립운동 사적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보제공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들을 유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아이템이 준비된다면 학교나 일반 단체 그리고 가족 단위, 관광객이 현장체험학습의 자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최소의 경비로 적절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그림 1]과 같은 ‘현장체험학습지’의 개발, 배포를 살펴본다.

현장체험학습지는 일종의 탐방보고서이다. 지역 내 예산교육지원청이나 예산군의 주도하에 각 기념관, 사적지 관리주체 그리고 체험학습 전문회사 등지에서 학습 수준별, 주제별로 제작할 수 있다. 이것을 예산군과 각 사적지 관련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방문자가 스스로 출력해 오거나, 각 사적지에서 배포하게 한다. 탐방객은 체험학습지에서 제시된 문제를 풀어나가고, 체험의 느낌과 여행의 성과를 채워나가는 형식이다. 이로써 별도의 해설 안내가 없이도 자기 주도형 체험학습을 유도할 수 있다.

사적지를 방문하는 탐방객의 입장에서 체험학습의 결과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방문을 증명하는 기록지를 남겼다’라는 만족감을 제공한다. 동시에 그들이 학부모나 청소년이라면 단순한 관광을 벗어나 ‘학습’을 했다는 자기 만족감을 부여받을 수 있다. 현장체험학습지는 수준별로 초등학생 저학년용·고학년용과 중학생용, 고등학생용으로 제작할 수 있으며, 주제별로 교과서에 나오는 예산의 의병, 예산 3·1운동의 현장을 찾아서, 예산의 의열투쟁가, 민족자본을 육성하라 등의 특성을 부여할 수 있다.

모바일 기술과 기기의 발전에 따라 최근에는 출력물 형태의 현장체험학습지를 벗어나 온라인 형태로 다양하게 제작되고 있다. [그림 2]와 같이 앱(App)을 활용하여 종이 인쇄물을 대체하고 있다. 게임의 형식을 통해 체험의 효과를 높이는 사례로 향후 사적지 활용 분야에서도 온라인 매체로의 전환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온라인 매체는 다양한 인증과 능동적 상호 소통, 이벤트 등이 가능하여 청소년들의 관심을 효과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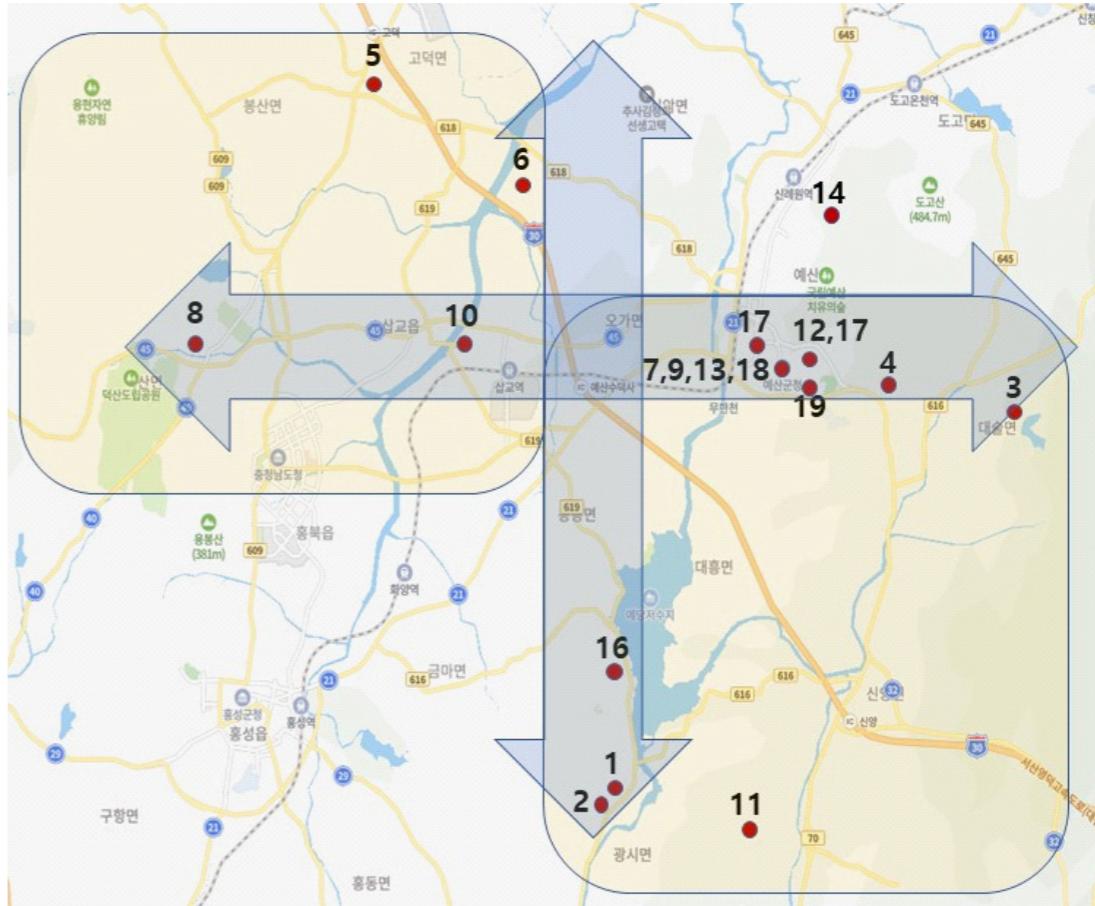
[그림 1] 현장체험학습지 사례



3) 예산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 코스

현장체험학습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독립운동 사적지를 적극 방문할 수 있도록 선택 가능한 다양한 코스가 제시되어야 한다. 예산지역 독립운동 사적지는 다음 [그림 2]과 같이 동서축과 남북축 두 축으로 분포되어 있다. 예산읍을 중심으로

[그림 2] 예산 독립운동 사적지 분포도



서쪽으로 덕산면 윤봉길의사 유적부터 동쪽으로 대술면 이남규 고택까지의 동 서축. 북쪽으로 고덕면 한내장 4.3독립만세유적부터 남쪽으로 광시면 병오홍주의 병출진기념비까지의 남북축 두 축이다. 권역별로는 서북권(덕산면, 삽교읍, 고덕면)과 동남권(대술면, 대흥면, 광시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 코스는 첫 번째, 거리를 중심으로 코스를 편성할 수 있다. 소요 시간대별로 반나절, 하루, 1박 2일의 코스가 가능하다. 두 번째로 거리와 관계 없이 운동계열별로 주제를 부여하여 탐방 코스를 편성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시간대별, 주제별로 나누어 코스를 살펴본다.

반나절 제1코스



반나절 제2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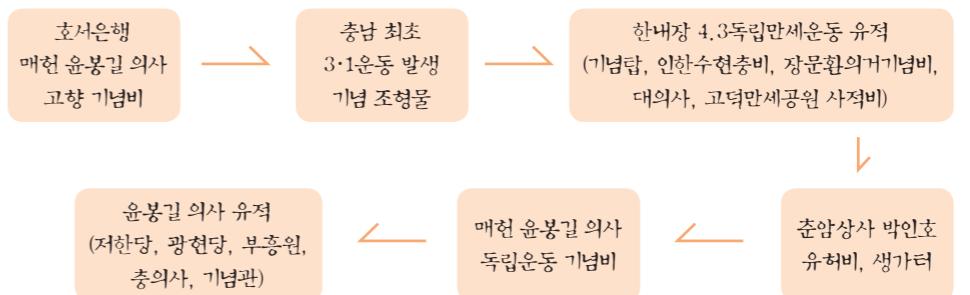
반나절 제3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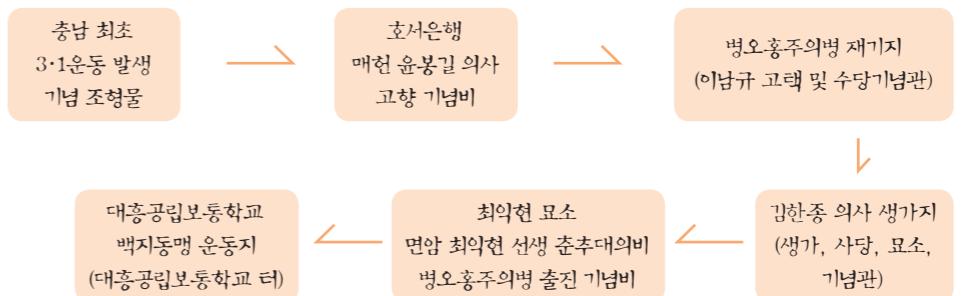
반나절 제4코스



하루 서북권코스



하루 동남권코스



1박 2일 코스

호서은행, 매현 윤봉길 의사 고향 기념비
충남 최초 3.1운동 발생 기념 조형물
강한종의사 생가지(생가, 사당, 묘소, 기념관)
최악현 묘소, 춘춘대의비
병오·홍주의병 출진 기념비
대홍공립보통학교 백지동맹 운동지(대홍공립보통학교 터)

숙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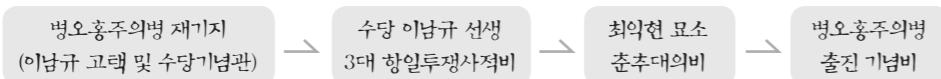
덕산온천

2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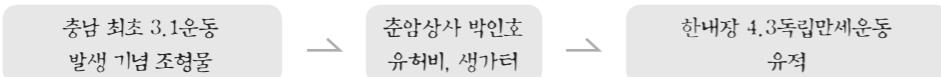
윤봉길 의사 유적(저한당, 광현당, 부총원, 총의사, 기념관)
한내장 4.3독립만세운동 유적(기념탑, 인한수현총비, 장문환의거 기념비, 대의사)
춘암상사 박인호 유적비, 생가터
매현 윤봉길 의사 독립운동 기념비

주제별 코스

예산 의병을 찾아서



예산 3.1운동의 현장



예산의 의열투쟁가



민족자본을 육성하라, 독립운동 자금지원



4. 과제와 전망

예산의 독립운동은 의병부터 3.1운동, 의열투쟁, 민족자본 육성, 독립운동 자금지원과 학생운동·노동운동·사회운동에 이르기까지 일제강점기 다양한 계열의 운동이 전개되었다. 그 역사적 증거가 이상 살펴본 독립운동 사적지로 남아 있다. 이것은 단순한 현장이 아니라 역동적인 지역의 자원임을 재차 상기한다. 지역주민들과의 협력을 통해 도시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원이다. 다만 이 가운데 학생운동·노동운동·사회운동이 일어난 현장인 예산공립농업학교 적색독서회 사건·동맹휴학 운동지(예산공립농업학교 터), 대홍공립보통학교 백지동맹 운동지(대홍공립보통학교 터), 충남제사공장 동맹파업 운동지(충남제사공장 터), 신간회 예산지회 창립지(예산교회 터), 민립대학기성회 예산지방부 창립지(예산공립보통학교 터)는 개발과 도시화장에 밀려 아무런 기념의 장치도 없어 일반인은 알 수 없게 되었다. 위치가 명확하게 고증된 만큼 역사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일정한 장치와 시설이 필요하다. 그 현장에 표석이나 안내판을 세우거나, 바닥에 알림 돌을 배치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지역의 소중한 독립운동이 시민들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이 외에 3.1운동이 전개되었던 예산시장터와 대홍시장터에도 관심이 필요하다. 당시 시장은 삶의 현장이자 곧 치열한 만세운동의 현장이었다. 지금도 주민과 관광객이 빈번하게 왕래하는 장소이다. 이곳에 만세운동길을 표시해 둔다거나, 시장 입구에 3.1운동의 현장임을 알릴 수 있는 안내문(판)이 필요하다.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은 특별한 사람뿐만 아니라 평범한 일반 사람들이 다수 참여한

민족운동이었다. 따라서 3.1운동이 일어난 시장터는 평범한 사람들의 독립운동을 통해 일반인들이 독립운동가와 동질감을 얻을 수 있는 역사의 현장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예산의 독립운동 사적지는 ‘충절’의 표상으로 지역민들과의 공감과 소통 속에 관리·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사적지의 이미지 브랜드화, 지역 특산 및 특산물(품) 공동 홍보 및 마케팅, 지속 가능한 사업 아이템 개발이라는 전제하에 독립운동 사적지는 경쟁력 있고 매력적인 지역자원으로 활용될 것이다.

〈참고문헌〉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대전·충남 독립운동사적지』(국내 항일독립운동 사적지 조사보고서 5), 2009.

박경목, 「예산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활용 방안」, 『충청문화연구』7, 충남대 충청문화연구소, 2011.

_____, 「근대사 자료의 콘텐츠 활용방안」, 『충청학과 충청문화』14, 충남역사문화연구원, 2012.

_____, 「독립운동 공간의 기억과 기념」, 『한국근현대사연구』87, 한국근현대사학회, 2018.

_____, 「항일·독립운동 문화재 현황과 과제」, 『한국근현대사연구』90, 한국근현대사학회, 2019.

[부록] 예산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일람

사적 연번	운동 계열	사적지명	소재지(지번 주소)	관련 사건 및 인물 *지정 현황
1		최익현 묘소 (면암 최익현 선생 춘추대의비)	광시면 관음리 산 21	태인의병. 최익현 *충청남도 기념물 제29호
2		병오홍주의병출진기념비	광시면 광시리 95	1906년 홍주의병
3	의병	병오홍주의병 재기지 (이남규 고택 및 수당기념관)	대술면 상향리 334-2	홍주의병, 이남규, 이종구 *고택 : 국가 중요민속문화재 제281호
4		수당 이남규선생 3대 항일투쟁사적비	대술면 시산리 472-2	홍주의병. 이남규, 이종구 연통제, 신간회. 이승복
5		한내장 4.3독립만세운동 유적 (기념탑, 인한수 현충비, 장문환의거 기념비, 대의사, 고덕만세공원 사적비)	고덕면 대천리 646-7	한내장터 4.3만세운동 인한수, 장문환
6	3.1운동	춘암상사 박인호 유하비, 생가 터	삽교읍 하포리 233-6	3.1운동. 박인호
7		충남최초 3.1운동 발생 기념 조형물	예산읍 예산리 780	3.1운동. 윤칠영, 권경화
8		윤봉길의사 유적 (저한당, 광현당, 부흥원, 충의사, 기념관)	덕산면 시량리 68 일원	상해의거. 윤봉길 *국가사적 제229호
9		매현 윤봉길의사 고향 기념비	예산읍 예산리 482	상해의거. 윤봉길
10	의열 투쟁	매현 윤봉길의사 독립운동 기념비	삽교읍 신가리 266-46	상해의거. 윤봉길
11		김한종의사 생가지 (생가, 사당, 묘소, 기념관)	광시면 신흥리 70	광복회 충청도지부, 도고면장 처단. 김한종 *생가 :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353호
12		김한종의사 순국기념비	예산읍 향천리 172-3	광복회 충청도지부, 도고면장 처단. 김한종
13	민족자본 육성	호서은행 본점	예산읍 예산리 482	지방 최초 민족자금으로 개설된 은행. 성낙규, 성낙현 *충청남도기념물 제66호
14	독립운동 자금지원	일연 신현상선생 추모비	예산읍 신례원리 107-1	독립운동 자금 지원. 신현상

사적 연번	운동 계열	사적지명	소재지(지번 주소)	관련 사건 및 인물 *지정 현황
15	학생운동	예산공립농업학교 적색독서회 사건, 동맹휴학 운동지 (예산공립농업학교 터)	예산읍 예산리 527	적색독서회 사건, 동맹휴학. 강봉주, 한정희
16		대흥공립보통학교 백지동맹 운동지(대흥공립보통학교 터)	대흥면 동서리 82-1	백지동맹 사건
17	노동운동	충남제사공장 동맹파업 운동지(충남제사공장 터)	예산읍 주교리 179 인근	동맹파업
18	사회운동	신간회 예산지회 창립지 (예산교회 터)	예산읍 예산리 441-5	신간회 예산지회. 이종승, 김진동
19		민립대학기성회 예산지방부 창립지(예산공립보통학교 터)	예산읍 예산리 742-1	민립대학기성회 예산지방부 성낙규, 성낙현, 정봉화, 이종덕

[부록] 예산지역 독립유공자 현황

2023년 8월 현재

성명	생몰년	운동계열	훈격 (포상년도)	공적개요
강경희 姜敬熙	(1912) ~미상	국내항일	대통령표창 (1995)	1930년 3월 11일 광주학생운동에 대한 일제의 탄압에 대항하여 대흥공립보통학교 학생이 일으킨 만세운동에 참여해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음.
고덕진 高德鎮	1884 ~1922	3.1운동	대통령표창 (2021)	1919년 4월경 신양면 만세운동에 참여해 만세를 외치다가 체포되어 태 90도를 받음.
김기원 金基元	1885 ~1965	국내항일	대통령표창 (2022)	1923년 8월 조선총독부의 토지 수탈로 오가면 일대 임야 소유권이 상실되자 면민 70여 명과 함께 항의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토지 수탈에 협조한 오가면장을 처벌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
김도봉 金道峰	1897 ~1972	3.1운동	대통령표창 (2006)	1919년 4월 1일 밤 홍성군 금마면 가산리 임시 연극 흥행장에서 주민 20~30명과 함께 만세를 외쳤으며, 이어 이튿날 홍성시장에서 만세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태 90도를 받음.
김동욱 金東旭	1898 ~1970	3.1운동	대통령표창 (2021)	1919년 3월경 대흥면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음.
김상준 金商俊	1885 ~1944	국내항일	애족장 (1990)	박상진, 김한종 등 여려 동지들과 광복회를 조직하고 군자금 모집 활동을 하였음.
김성목 金成默	1862 ~1939	국내항일	건국포장 (2021)	1918년 광복회 관련으로 체포되어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1919년 4월경에는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태 60도를 받음.
김승배 金承培	1880 ~미상	3.1운동	대통령표창 (2021)	1919년 3, 4월경 예산면 등지의 만세운동에 참여해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태 90도를 받음.
김영진 金瑛鎮	(1880) ~미상	국내항일	애국장 (1995)	1920년 조병채와 함께 중국 길림군정부(吉林省) 군무독판 겸 총사령관 김좌진에게 군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충청남도 및 전라북도 일대의 부호를 대상으로 수천원의 군자금을 모집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10년을 받음.
김완록 金完默	1868 ~1927	국내항일	대통령표창 (2021)	1918년 1월 광복회에 가입해 중국 등지의 무관학교 설립을 위한 군자금 모집 활동에 참여하다가 체포되어 불기소됨.
김용태 金容泰	1903 ~미상	3.1운동	대통령표창 (2021)	1919년 3월경 대흥면 만세운동을 주도했다가 체포되어 불기소 처분을 받음.
김우제 金宇濟	1887 ~1920	3.1운동	대통령표창 (2021)	1919년 4월경 덕산면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태 60도를 받음.
김원록 金元默	1891 ~1972	국내항일	애족장 (1990)	1917년 8월 광복회에 가입해 군자금 모집 등의 활동을 하였는데, 친일 면장 박용하 살해시 사용한 권총을 보관했다가 체포되어 징역 6월형을 언도받음.

성명	생몰년	운동계열	훈격 (포상년도)	공적개요
김월성 金月成	1884 ~1964	3.1운동	대통령표창 (2021)	1919년 3, 4월경 예산면 등지의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태 90도를 받음.
김응길 金應吉	(1867) ~1907	의병	애족장 (2008)	1907년 홍주 의병진 선봉장 이남규의 가노(家奴)로서 이남규와 함께 일본군에 의해 학살당함.
김이기 金利基	1896 ~1924	3.1운동	대통령표창 (2021)	1919년 3월경 대흥면 만세운동에 참여해 체포되었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음.
김재정 金在貞	1861 ~1940	국내항일	애족장 (1990)	1905년 홍주의병에 참가해 민족식 의병장 아래 소모관(召募官)으로 활동했고, 1917년 3월 아들 김한종이 충청도 광복회 조직의 책임을 맡아 독립운동을 하자 이를 지원하며 회원모집과 군자금 모집 등을 하다가 1918년 1월 체포되어 면소(免訴)된 바 있으나 10개월 옥고를 한 바 있음.
김재창 金在昶	1887 ~1961	국내항일	애국장 (1990)	1915년 11월 장두환 집을 방문했다가 광복회에 가입했고 1918년 1월 포고문 등 100여통을 작성해 18명에게 출자를 요구하는 문서를 우송한 혐의로 체포되어 7년형을 받음.
김재철 金在哲	1873 ~1930	국내항일	애족장 (1990)	광복회에 가입해 군자금 모집 활동을 하고 총기를 보관했다가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음.
김재풍 金在豐	1884 ~1960	국내항일	애족장 (1990)	광복회에 가입해 군자금 모집 활동을 함.
김치국 金致國	1886 ~미상	3.1운동	대통령표창 (2021)	1919년 3, 4월경 충남 예산군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군중과 함께 만세시위를 벌이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태 60도를 받음.
김한종 金漢鍾	1883 ~1921	국내항일	독립장 (1963)	광복회 충청도지부장으로서 군자금 모집을 비롯해 1918년 1월 24일에는 아산군 도고면장 박용하 처단을 주도하는 등 의열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광복회장 박상진과 함께 대구형무소에서 사형 순국함.
김현규 金玄圭	(1883) ~미상	의병	애족장 (2021)	1908년 10월 예산과 청양 일대에서 민창식 의진에 참여해 의병 20여명과 함께 군수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7년을 받음.
김현창 金顯昶	1912 ~1951	국내항일	건국포장 (2010)	1930년 12월 공주의 영명학교 재학 중 일본인 교사 배척을 위한 동맹후교를 전개하다가 퇴학당했으며, 1932년 11월에는 예산의 국단 만경좌(萬鏡座)가 공연한 친일적 연극 '동방(東方)의 빛'에 대해 항의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8월을 받음.
남규진 南奎振	1863 ~1935	의병	애국장 (2021)	1906년 예산과 홍주 일대에서 민족식 의진의 유격장(遊擊將)으로서 홍주성을 점령하며 의병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종신 유형을 받았으며, 12월 대마도 유배 중에 최익현이 순국하자 장례집사로 제를 지내고 유해를 반구(返柩)하는 데 참여함.
민제식 閔濟植	1868 ~1924	3.1운동	대통령표창 (2010)	1919년 4월 4일 대술면 산정리 주민 약 30명과 함께 태극기를 세워놓고 만세를 외치다가 체포되어 태 90도를 받음.

성명	생몰년	운동계열	훈격 (포상년도)	공적개요
박대영 朴大永	1882 ~1948	3.1운동	애족장 (1990)	1919년 4월 5일 예산시장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던 중 일제 현병의 제지를 물리치고 현병과 격투를 벌였다가 체포되어 징역 1년형을 받음.
박동근 朴東根	1895 ~미상	3.1운동	대통령표창 (2021)	1919년 3, 4월경 예산면 등지의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태 90도를 받음.
박동복 朴同福	1900 ~1973	3.1운동	대통령표창 (2021)	1919년 3월경 대흥면 만세운동에 참여해 체포되었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음.
박성식 朴性植	1883 ~1945	3.1운동	대통령표창 (2011)	1919년 4월 삽교면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징역 6월을 선고 받음.
박영진 朴榮鎮	1882 ~1969	3.1운동	대통령표창 (2021)	1919년 4월경 신양면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태 60도를 받음.
박우균 朴禹均	1907 ~1986	중국방면	애족장 (1990)	1924년 9월 중국 상해에서 3.1공학(公學)을 거쳐 황포군관학교 무한분교에 5기생으로 입교했으며 재학시 군벌타도를 위한 북벌전 및 중국 반란군 토벌 등에 참전함.
박인호 朴寅浩	1855 ~1940	3.1운동	독립장 (1990)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후에 천도교 설립에 참여함. 1914년 12월 17일 손병희에게서 도통(道統)을 이어받아 제4세(世) 천도교주(天道教主)가 되었으며 3.1운동을 지원하면서 민족대표로 체포되어 무죄(無罪)를 받았으나 1년 9월간 옥고를 치렀음. 1921년 9월 태평양회의 독립청원과 1926년 6.10만세운동에 참여했으며, 1936년 8월 멸왜기도(減倭祈禱)를 창안해 천도교인 행사 때마다 일본의 멸망을 기원하게 하다가 일제의 대대적인 탄압을 받음.
박창로 朴昌魯	1846 ~1918	의병	애국장 (1990)	1896년 흥주의병에 참여하여 김복한을 종수로 주대하고 활동함. 1906년에는 민종식 의진에 참모사(參謀士)로 임명되어 흥주성 공략에 참전함. 흥주성 전투 후 예산, 청양 일대에서 의병을 재기함.
방계환 方季煥	1879 ~미상	3.1운동	대통령표창 (2021)	1919년 4월경 고덕면 만세운동에 참여해 체포되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서정섭 徐廷燮	1891 ~1927	국내항일	애족장 (2021)	1919년 음력 6월경 당진군 순성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군자금을 모집해 전달했다가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음.
성백우 成百愚	1921 ~1950	학생운동	애족장 (1990)	1941년 7월 연희전문학교 재학 중 한국인 학생들에 대한 차별과 농민의 경제적 궁핍은 일제의 폭압적인 식민정책 때문이기에 일제가 부르짖는 내선일체(內鮮一體)의 허구를 주장하며 민족의식 고취와 시위 운동을 일으키려다가 체포되어 징역 2년형을 받음.
성원수 成元修	1874 ~미상	3.1운동	애족장 (2010)	1919년 4월 4일 신양면 연리의 산에 올라가 봉화를 올리고 군중과 함께 만세를 외치며 만세운동을 전개했는데, 5월 8일 자신을 체포하려는 일본 현병 주재소 보조원을 구타했다가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음.
성재한 成載翰	1860 ~1906	의병	애국장 (1990)	1906년 5월 민종식 의진 영관(領官)으로 흥주성 전투에 참전해 공을 세웠으나 일본군에 포위되자 끝까지 향전하다가 전사함.

성명	생몰년	운동계열	훈격 (포상년도)	공적개요
성진호 成瑨鎬	1910 ~1933	국내항일	애국장 (2009)	1929년 11월 예산에서 일본공산당 기관지 『전기(戰旗)』를 송부받아 배포하고, 예산농업학교 시위계획을 선동한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1930년 3월 석방됨. 1931년 6월 예산청년회 농민부원이 되어 『전기(戰旗)』를 회람하는 한편 동경(東京)의 동흥(東興)노동동맹이 발행하는 『흑색신문』을 송부받아 예산에서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1932년 4월말 체포되어 1933년 7월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을 받고 출옥했으나 8월 사망함.
신매순 申梅孫	1888 ~1931	3.1운동	대통령표창 (2021)	1919년 3, 4월경 예산면 등지의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태 90도를 받음.
신인선 申仁善	(1889) ~미상	3.1운동	대통령표창 (2021)	1919년 4월경 신양면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태 50도를 받음.
신현상 申鉉商	1905 ~1950	중국방면	애국장 (1990)	1929년 3월부터 1932년 12월까지 있었던 호서은행 사건을 주도해 중국 독립운동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 중국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5년형을 선고받음.
안종석 安鍾奭	미상 ~미상	만주방면	애족장 (2010)	1908년 음력 4월경 블라디보스토크로 건너가 성명회에 가입해 활동함. 1914년 음력 1월경 간도 국가가(局子街)에서 공교회에 가입해 활동하던 중 성명회원 이성림 등을 만나 국권회복의 방안에 대하여 밀의함. 1916년 2월 중국관현에 체포되었으나 이듬해 4월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되었고, 1919년 홍범도와 함께 동녕 의병대장으로 활동했음.
유진희 俞鎮熙	1893 ~1949	국내항일	애족장 (1992)	1921년 3월 13일 조선노동공제회에 가입했으며 1922년 11월 『새생활』사 잡지 기자로서 러시아혁명 5주년 기념 기사와 자유노동조합취지서를 인쇄 배부했다가 체포되어 징역 1년6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음. 1925년 4월 조선공산당 중앙집행위원회로 활동하면서 신간회 조직에 참여하여 일제의 식민정책 타도와 총독정치 배격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4년을 받음.
윤봉길 尹奉吉	1908 ~1932	의열투쟁	대한민국장 (1962)	19세 때부터 야학을 운영하고 월진회를 조직하는 등 농촌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이후 상해로 건너가 김구를 만나 한인애국단에 입단하였음. 1932년 4월 29일 일본 천장절을 기해 열린 상해사변 승전 죽하 행사장에서 단상에 폭탄을 던져 일본 상해군사령관을 비롯하여 거류민단장, 제3함대사령관, 제9사단장, 일본 공사, 민단 서기 등 일제의 수뇌부를 처단하였음. 투단 직후 사형선고를 받고 일본 가나자와로 이송되어 12월 19일 순국하였음.
윤상오 尹相五	1903 ~미상	3.1운동	대통령표창 (2021)	1919년 4월경 신양면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태 60도를 받음.
윤수덕 尹壽德	1911 ~미상	국내항일	대통령표창 (2021)	1932년 12월 예산의 극단 만경좌(萬傾座)의 친일적 연극 '동방의 빛'에 대해 항의해 체포되었다가 기소유예됨.

성명	생몰년	운동계열	훈격 (포상년도)	공적개요
윤영석 尹永錫	1916 ~2003	국내항일	건국포장 (1996)	1926년 10월 이후 예산 농촌의 문맹퇴치와 농민의 단결, 민족정신 고취를 위해 형 윤봉길이 조직한 각곡(角谷)독서회와 월진회에 가입해 1930년까지 농촌계몽운동에 적극 참여했으며, 윤봉길의 상해의 거 직전 윤봉길의 유품인 농민복본, 일기, 월진회취지서 등을 은닉해 유품을 보존함.
윤자형 尹滋亨	1868 ~1939	의병	애국장 (1990)	1908년 7월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고종에게서 의병대장 겸 호남산 도육군대도독으로 임명을 받고 '호남삼도 대원수군제(大元帥軍制)' 12개조 사목(事目)을 받아 3도의 군장 및 군사권, 장관 임면(任免), 직인 조각 및 사용권 등 권한을 받아 지리산을 중심으로 의병항쟁을 했음. 그후 만주로 망명해 국권회복운동을 추진하려는 이관구와 제휴하여 박은식, 신채호 등과 함께 조선총독 격살 비상계획을 연계 지원함.
윤칠영 尹七榮	1893 ~1966	3.1운동	대통령표창 (2021)	1919년 3월 3일 밤 예산리에서 주민 4명과 함께 산 위에 올라 만세를 외치며 만세운동을 해서 체포되었다가 훈계 방면됨.
이강오 李康午	1913 ~1950	국내항일	대통령표창 (2021)	1932년 12월 예산의 극단 만경좌(萬頃座)의 친일적 연극 '동방(東方)의 빛'에 대해 항의하여 체포되었다가 구류취소되었고, 1933년 1월에는 예산농업학교의 비밀결사 결성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기소유예됨.
이계한 李啓漢	1888 ~1961	국내항일	대통령표창 (1998)	1937년 10월 마을 구장 홍종희 등 4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일본 정치를 비판하는 한편 구장의 군용말 먹이, 보리 공출 요구에 반대하다 체포되어 금고 3월을 받음.
이광섭 李光燮	(1914) ~미상	국내항일	대통령표창 (2021)	1932년 12월 예산의 극단 만경좌(萬頃座)의 친일적 연극 '동방(東方)의 빛'에 대해 항의하다가 체포되었으며, 1933년 1월에는 예산 농업학교의 비밀결사 결성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기소유예됨.
이기삼 李己三	1886 ~1945	3.1운동	대통령표창 (2021)	1919년 4월경 덕산면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태 60도를 받음.
이남규 李南珪	1855 ~1907	의병	독립장 (1962)	1893년 왜병척축소(倭兵斥逐疏)를 올렸고 1894년 청절왜소(請絕倭疏)를 올렸으며,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복수토적소(復讐討賊疏)를 올렸고,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상소를 올려 전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함. 1906년 홍주의병에 선봉장으로 참여하고 재기를 준비하다가 체포됨. 1907년 8월 일본군에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던 중 온양에서 일본군에 피살되어 순국함.
이덕칠 李德七	1886 ~미상	3.1운동	대통령표창 (2021)	1919년 3, 4월경 예산면 등지의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태 90도를 받음.
이동순 李東順	(1913) ~미상	국내항일	대통령표창 (2021)	1932년 12월 예산의 극단 만경좌(萬鏡座)의 친일적 연극 '동방(東方)의 빛'에 대해 항의하다 체포되어 기소유예된 적이 있었으며, 1933년 2월에는 충남 예산농업학교의 비밀결사를 결성한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기소유예됨.

성명	생몰년	운동계열	훈격 (포상년도)	공적개요
이명제 李明濟	1893 ~1947	임시정부	애족장 (1990)	1919년 만세운동 당시 충남 및 호남지역 선전책임자로 활약했다가 4월 20일 중국으로 망명하여 5월 교통부원을 맡아 9월 2일 충청도에 특파되어 항일투쟁을 전개함. 1920년 국내 잠입 활동을 하던 중 5월에는 재무부원으로 군자금 모집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증거불충분으로 석방되었다가 다시 체포되는 등 1924년까지 8회에 걸쳐 체포됨.
이명진 李明鎮	1887 ~1957	3.1운동	대통령표창 (2021)	1919년 4월경 대술면 만세운동에 참여해 체포되었다가 기소중지 처분을 받음.
이복원 李復遠	1902 ~1928	국내항일	애족장 (2012)	1925년 5월 서울에서 무정부주의자 비밀결사 흑기연맹 발회식을 거행하고 동지를 규합하다가 체포되어 11월 17일 징역 1년을 받음.
이봉학 李鳳學	1858 ~1924	의병	건국포장 (2008)	1895년 음력 12월 홍주에서 김복한, 박창노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활동함.
이상린 李相麟	1856 ~1946	의병	애족장 (1990)	1896년 홍주의 김복한 의병진에 참여해 의병운동을 했다가 체포되어 징역 3년을 받았다가 특지로 방면됨.
이성린 李聖麟	1907 ~1974	국내항일	애족장 (2021)	1925년 12월 서울에서 비밀결사 적혈결사대(赤血決死隊)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을 받음.
이세원 李世遠	1908 ~1967	학생운동	애족장 (1995)	협성실업학교 1학년 재학 중 1930년 1월 15일 광주학생운동에 동조해 정유희, 박재열등과 협의하고 1월 16일 오전 9시 30분 경부터 '학원의 독립' '만세 피압박 민족'의 문구가 적혀 있는 깃발을 앞세우고 학생들을 이끌고 익선동, 청덕궁, 봉의동까지 행진하며 시위를 전개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10월을 받음.
이승복 李昇馥	1895 ~1978	국내항일	애국장 (1990)	1913년 이후 이동녕, 이상설, 조완구, 박은식 등과 교우하며 항일 활동을 하다가 여러차례 구금된 바가 있음. 신간회 창립시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항일활동을 함.
이원복 李元福	(1886) ~미상	3.1운동	대통령표창 (2021)	1919년 4월경 신양면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태 60도를 받음.
이은배 李殷培	1898 ~1926	3.1운동	대통령표창 (2018)	1919년 4월경 예산면 등지의 만세운동에 참여하여 활동했다가 체포되어 태 60도를 받음.
이재덕 李在德	1888 ~1961	국내항일	애족장 (1990)	광복회에 가입해 군자금모집 활동을 함.
이정하 李正夏	1901 ~1950	국내항일	대통령표창 (2022)	1929년 12월 2~3일 조선공산청년회원으로서 서울에서 광주학생 운동 관련 격문을 뿌리다가 체포되어 면소 처분을 받음.
이종갑 李鍾甲	1876 ~1942	3.1운동	대통령표창 (2021)	1919년 4월경 고덕면 만세운동에 참여해 체포되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성명	생몰년	운동계열	훈격 (포상년도)	공적개요
이충구 李忠求	1874 ~1907	의병	애국장 (1991)	1906년 11월 홍주의병을 자신의 집에서 재기하고 부친 이남규 등과 함께 체포되어 공주부로 압송되어 온갖 고문을 받고 석방됨. 1907년 9월 온양 평촌 냇가에서 일본군에 의해 부친 및 가노(家奴) 김용길과 함께 피살되어 순국함.
이회원 李會元	1889 ~미상	3.1운동	대통령표창 (2021)	1919년 3, 4월경 예산면 등지의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태 60도를 받음.
이희주 李羲周	1902 ~미상	3.1운동	대통령표창 (2021)	1919년 3월경 대흥면 만세운동에 참여해 체포되었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음.
인한수 印漢洙	1881 ~1919	3.1운동	애국장 (1992)	1919년 4월 3일 고덕면 한내장터에 모인 다수의 군중을 이끌고 대천교 옆에서 독립선언 후 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일제 군경의 발포로 부상자가 생기자 격분한 나머지 밀타고 있던 일본 수비대장을 밑으로 끌어 당겨 말에서 떨어지게 함. 이때 일본 수비대장이 칼로 그의 목을 난자하여 순국함.
장문환 張文煥	1887 ~1947	3.1운동	애족장 (1992)	1919년 4월 3일 고덕면 한내장터 만세운동에 참여하여 현병을 구타하는 등 항거를 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을 받음.
장식연 張湜連	1914 ~1945	국내항일	애족장 (2020)	1933년 10월 개성송도고등보통학교 재학 중 비밀그룹을 조직한 적이 있었으며, 1934년 2월 중순에는 반제공산청년회를 결성함. 이어 1934년 3월 신갑범이 주도하는 조선공산주의총성개성지방위원회 학생부원으로 조선공산당 재건을 위한 코민테른 조선레포트회의 사건에 연루되어 징역 2년 6월을 받음.
정계호 鄭啓好	1869 ~1956	3.1운동	대통령표창 (2021)	1919년 4월경 신양면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태 60도를 받음.
정대홍 丁大洪	1892 ~1922	3.1운동	대통령표창 (2021)	1919년 3월경 예산면 등지의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태 60도를 받음.
정옥섭 丁玉燮	1901 ~미상	3.1운동	대통령표창 (2021)	1919년 3월경 대흥면 만세운동에 참여해 체포되었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음.
정종호 鄭鍾浩	1911 ~1973	학생운동	애족장 (1995)	1926년 10월 윤봉길이 조직한 각곡(角谷)독서회에 가입해 농촌개혁 활동을 했으며, 1929년 4월 8일 조직된 월진회의 이사로 활동함. 1932년 5월 예산농업학교 5학년 재학 중 재학생 및 일부 졸업생들과 반제반전(反帝反戰) 결사단체를 조직하고 선전부를 맡아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2년을 받음.
정창희 鄭昌熙	1912 ~1977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2021)	1930년 1월 예산공립농업학교 2학년 재학 중 광주학생운동 동맹 휴학을 주도했다가 퇴학처분을 받았으며, 1931년 8월 29일에는 예산의 대동가극단의 연극을 비판해 체포되었다가 석방됨.
조인원 趙仁元	1875 ~1950	만주방면	애족장 (1991)	1919년 5월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원 이영식의 지시를 받아 대한독립단 충남지단을 설치한 후 서무부장이 되어 「조선인은 납세치 말라」는 격문을 작성해 삼교면 역촌리 게시판에 부착했다가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음.

성명	생몰년	운동계열	훈격 (포상년도)	공적개요
차치명 車致明	1873 ~1956	의병	애국장 (1990)	1907년 8월 박재일 의병장과 그의 부하 박태래, 박성삼 등과 함께 화승총으로 무장하고 예산군 서성좌에게서 4원을, 면천의 서광숙에게서 군자금과 화승총 1정을 모집했다가 체포되어 징역 7년을 받음.
최문오 崔文吾	1883 ~1944	3.1운동	애족장 (1990)	1919년 4월 5일 예산장터에서 박대영과 함께 군중 2,000여명을 이끌며 만세운동을 주도했다가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음.
최승구 崔昇九	1897 ~1949	3.1운동	대통령표창 (2009)	1919년 4월 덕산면 만세운동에 참가했다가 체포되어 태 90을 받음.
최옥동 崔玉童	1901 ~미상	3.1운동	대통령표창 (2021)	1919년 4월경 예산면 등지의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태 90도를 받음.
최종교 崔仲交	1868 ~미상	3.1운동	대통령표창 (2021)	1919년 4월경 덕산면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태 60도를 받음.
한복록 韓福祿	1906 ~1954	3.1운동	대통령표창 (2021)	1919년 4월경 덕산면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태 60도를 받음.
한흥석 韓興錫	(1886) ~미상	3.1운동	대통령표창 (2021)	1919년 4월경 신양면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태 60도를 받음.

〈작성 : 이양희〉

필자소개(집필순)

김상기 충남대 국사학과 명예교수
이승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학예연구사
이성우 충남대 충청문화연구소 연구원
김진호 전 충남대 충청문화연구소 연구원
허 종 충남대 국사학과 교수
박성섭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원
정내수 전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연구실장
김남석 당진문화원 당나루향토문화연구소 소장
정을경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양희 충남대 충청문화연구소 연구원
박경목 충남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예산의 독립운동사

지 은 이 김상기 외
펴 낸 인 김종옥
펴 낸 곳 예산문화원
충남 예산군 예산읍 천변로 90번길 3(대회리)
전화 041-335-2441
펴 낸 날 2023년 12월 20일
행정지원 박세진, 이충환, 이수영, 장혜민
편집인쇄 누마루

〈비매품〉

ISBN 979-11-89632-06-9